

국립국어원 2006-1-11 경남(2)

2006년
경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 ◆ 연구 책임자 : 김정대
- ◆ 연구 보조원 : 박근배
- ◆ 조 사 지 역 :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국 립 국 어 원

2
0
0
6
년

경
남
지
역
어
조
사
보
고
서

국
립
국
어
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06년도 경남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관하여
귀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
서를 제출합니다.

2006년 12월 20일

연구책임자 : 김정대

목 차

1. 조사 과정	3
2. 전사 원칙	8
3. 전사 자료	
제 1 편 구술발화	13
제 2 편 어 휘	165
제 3 편 음 운	222
제 4 편 문 법	268
4. 제출 자료(별첨)	
1) 보고서 100부	
2) 디지털 녹음테이프	
3) 보존용 48,000hz, 전사파일용 16,000hz 파일 및 전사 trs 파일	
4) 조사된 질문지	
5)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6) 제보자 조사표	
7)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1. 조사 과정

1.1. 조사 지점 개관

2006년도 경상남도 조사 지점은 창녕군 대지면 석리 석동마을(昌寧郡 大池面 石里 石洞 마을)이다.

창녕군은 경상남도 중북부의 한 군으로 북으로 경상북도(대구광역시)와 접경해 있다. 따라서 이 군은 경남 방언 가운데서도 경북 방언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은 지역의 하나로 분류된다. 전통적으로 교통권이 경남의 도시보다도 대구권으로 발달했던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창녕군은 화왕산·낙동강·우포늪 등 빼어난 경치 및 가치 있는 자연 환경으로, 옛 가야의 고분군·진흥왕 척경비 등 역사적 유적·유물로, 또 부곡 온천·관룡사 등 관광 명소로도 유명하다.

대지면은 일제시대인 1914년에, 이전의 대초면(大招面)과 지포면(池浦面)이 통합하여 생긴 명칭이다. 동쪽으로 고암면·창녕읍, 서쪽으로 유어면, 남쪽으로 장마면, 북쪽으로 대합면에 둘러싸여 있는 대지면은 넓은 벌을 자랑하는 곳이고, 우포늪의 한 자락을 차지하는 곳이기도 하다.

석리는 대지면의 8개 법정리(法定里) 가운데 하나이고, 석리의 두 자연 마을 중 하나인 석동은 이전에 석문동(石門洞) 등으로 불렸는데, 이는 마을 입구에 큰 돌이 서 있었다는 데서 유래하는 것이라 한다. 2006년 11월 말 현재 92가구 143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석동은 창녕 성씨(昌寧 成氏) 집성촌으로, 주민들은 마늘 농사를 특용 작물로 재배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이전에는 양파를 많이 재배했음), 넓은 들을 활용한 벼농사도 중요한 생업 기반의 하나이다.

이곳의 방언은 경남 방언 안에서도 몇 가지 면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지닌다. 음운적으로 ‘에’와 ‘애’, ‘으’와 ‘어’가 구별되지 않는 점, ‘외’와 ‘위’ 단모음이 존재하지 않는 점은 경남 중·동부 지역의 일반적 특색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ㄱ>ㄱ>ㅣ’ 고모음화는 가장 현저한 음운 변화 현상의 하나라 하겠다. ‘해찌예(했지요), 무우씨예(먹었어요)’ 등 ‘예’로써 반말 높임을 나타내는 점, ‘감니더(갑니다), 아십니꺼(아십니까)’ 등 ‘어’계 합쇼체 종결 어미를 사용하는 점 등은 전형적인 경남 방언 문법 현상의 하나인데, 이곳은 아직도 이를 잘 보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남 방언이 중양어 ‘고빠’를 ‘꼬뽕이’ 아니면 ‘이까리’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거나 둘 다가 혼용되는 데 반하여, 이곳은 두 표현이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 중양어 ‘쥬’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경남 방언인 ‘칠갱이’가 이 지역에서는 다른 덩굴 식물을 가리킨다는 점 등은 어휘·의미면에서의 한 특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2. 조사 기간

2006년 8월 1일 ~ 12월 7일

1.3. 제보자

(1) 주제보자

<주제보자 1>

이름 : 성경영(成晶永)

나이 : 73세(1934년생)

출생지 : 경남 창녕군 대지면 석리

거주지 : 경남 창녕군 대지면 석리 308

선대 거주지 : 경남 창녕군 대지면 석리

직업 : 농업

경력 : 현 거주지에서 농업에 종사

학력 : 초등학교 졸업

병역 : 면제

제보자 소개 과정 : 조사 위원 제자의 소개(그 제자의 집안 어른)

제보자의 특기 사항 : 표준어를 이해함.

제보자의 음성 특징 : 치아는 정상이나 말끝을 흐리게 하는 경향이 있음.

참고 : 어휘·음운·문법 부문 및 일부 구술발화 부문의 주제보자

<주제보자 2>

이름 : 이순조(李順祚)

나이 : 80세(1927년생)

출생지 : 경남 창녕군 대합면 합산리

거주지 : 경남 창녕군 대지면 석리 367

선대 거주지 : 경남 창녕군 대합면 합산리

직업 : 없음

경력 : 현 거주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음.

학력 : 무학

제보자 소개 과정 : 조사 위원 제자의 소개(그 제자의 어머니)

제보자의 특기 사항 : 공식적인 학력은 없으나, 언어 감각이 뛰어나고 독학으로 한글과 한자를 이해함.

제보자의 음성 특징 : 매우 분명한 발음의 소유자이나 한 번씩 숨소리가 녹음됨.

참고 : 구술발화 절반의 주제보자

(2) 보조 제보자

이름 : 노말조(盧末祚) → <주제보자 1>의 아내

나이 : 67세

직업 : 농업

거주지 : 경남 창녕군 대지면 석동 308

선대 거주지 : 경남 창녕군 이방면 장천리

보조 제보자의 특기 사항 : 각종 약초 재배 능력이 뛰어나.

보조 제보자의 음성 특징 : 성량이 조금 약한 편이나 발음이 정확하여 제보자로 적당함.

1.4. 조사자

(1) 이름 : 김정대(경남대학교 교수)/박근배(경남대학교 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생)

(2) 조사 일시 : 2006년 8월 1일 ~ 12월 7일

(3) 조사 장소 : <주제보자 1> 및 <주제보자 2>의 집

(4) 조사 내용

- ① 구술발화 테이프 2,5,8,11,17,24,25,26,27,29(10개) 파일(SGN_CN_구술발화1~10)
- ② 어휘 테이프 1,3,4,6,7,9,10,12,13,14,15,16(12개) 파일(SGN_CN_어휘1~12)
- ③ 음운 테이프 18~21(4개) 파일 (SGN_CN_음운1~4)
- ④ 문법 테이프 22~23(2개) 파일(SGN_CN_문법1~2)
- ⑤ 보완 테이프 28(1개) 파일(SGN_CN_수정·보완1)

테이프 번호	파일	녹음 시간	조사 항목	제보자	조사자	조사일
1	SGN_CN_01	1:50:00	어휘 20101 벼 ~ 20425 고소하다	성정영 노말조	김정대 박근배	8월 1일
2	SGN_CN_02	1:51:37	구술발화 1.2. 일생의례 ~ 1.5. 식생활	이순조	김정대 박근배	8월 4일
3	SGN_CN_03	1:56:00	어휘 20501 채소 ~ 20918 찢다	성정영 노말조	김정대 박근배	8월 4일
4	SGN_CN_04	0:39:00	어휘 20919 구들 ~ 21024 굴뚝	성정영 노말조	김정대 박근배	8월 4일
5	SGN_CN_05	1:20:00	구술발화 1.2.3. 전통적 결혼식, 1.5.2. 나물 채취와 요리	이순조	김정대 박근배	8월 8일
6	SGN_CN_06	1:55:00	어휘 21101 뜰 ~ 21340 설피	성정영 노말조	김정대 박근배	8월 8일
7	SGN_CN_07	0:33:00	어휘 21401 명주 ~ 21443 다듬이질	성정영 노말조	김정대 박근배	8월 8일
8	SGN_CN_08	1:50:00	구술발화 1.7. 질병과 민간요법	이순조	김정대 박근배	8월 11일
9	SGN_CN_09	1:50:00	어휘 21501 설날 ~ 21821 콧구멍	성정영 노말조	김정대 박근배	8월 11일
10	SGN_CN_10	0:53:00	어휘 21822 콧물 ~ 22016 볼기	성정영 노말조	김정대 박근배	8월 11일
11	SGN_CN_11	1:47:00	구술발화 1.8. 세시풍속과 놀이, 자유발화	이순조	김정대 박근배	8월 15일
12	SGN_CN_12	1:41:00	어휘 22017 명 ~ 22318 어미	성정영 노말조	김정대 박근배	8월 15일
13	SGN_CN_13	0:40:00	어휘 22319 손자 ~ 22379 사투리	성정영 노말조	김정대 박근배	8월 15일
14	SGN_CN_14	1:45:00	어휘 22401 물고기 ~ 22813 쇠비름	성정영 노말조	김정대 박근배	8월 22일
15	SGN_CN_15	0:50:00	어휘 22814 썸바귀 ~ 23027 마름	성정영 노말조	김정대 박근배	8월 22일

16	SGN_CN_16	1:30:00	어휘 23101 산 ~ 23441 서풍	성정영 노말조	김정대 박근배	8월 29일
17	SGN_CN_17	1:00:00	구술발화 1.1. 조사마을의 환경과 배경	성정영 노말조	김정대 박근배	8월 29일
18	SGN_CN_18	1:51:00	음운 31001 테 ~ 32036 서-(立)	성정영 노말조	김정대 박근배	9월 7일
19	SGN_CN_19	0:22:00	음운 32037 기-(匍腹) ~ 32072 읽-(讀)	성정영 노말조	김정대 박근배	9월 7일
20	SGN_CN_20	1:56:00	음운 32073 땀-(澀) ~ 32331 하얗-(白)	성정영 노말조	김정대 박근배	9월 14일
21	SGN_CN_21	0:35:00	음운 32332 국(羹) ~ 32362 밖(外)	성정영 노말조	김정대 박근배	9월 21일
22	SGN_CN_22	1:52:00	문법 40101 나 ~ 40413 -지	성정영 노말조	김정대 박근배	9월 21일
23	SGN_CN_23	1:13:00	음운 누락된 2항목 32127 ‘쏟-’, 32329 ‘끌-’ 문법 4.5. 주체존대 ~ 문법 항목 끝까지	성정영 노말조	김정대 박근배	9월 28일
24	SGN_CN_24	1:30:00	구술발화, 자유발화	성정영 노말조	김정대 박근배	9월 28일
25	SGN_CN_25	1:55:00	구술발화 1.6. 거주생활, 1.3. 생업활동	성정영 노말조	김정대 박근배	10월 19일
26	SGN_CN_26	0:44:00	구술발화 1.3. 생업활동	성정영 노말조	김정대 박근배	10월 19일
27	SGN_CN_27	1:56:00	구술발화 자유발화(서울 다 녀온 이야기, 동네 이야기, 묘사 이야기)	이순조	김정대 박근배	12월 7일
28	SGN_CN_28	1:40:00	어휘, 음운, 문법 보완·수정	성정영 노말조	김정대, 박근배	12월 7일
29	SGN_CN_29	1:05:00	구술발화 자유발화 (마늘농사 이야기)	성정영 노말조	김정대 박근배	12월 7일
합계		40:29:37				

1.5. 전사

(1) 1차 전사(2006년 9월~12월)

구술발화 : 김정대, 박근배

어휘 : 박근배

음운 : 박근배

문법 : 박근배

(2) 1차 점검(2006년 10월~12월)

구술발화 : 김정대

어휘 : 김정대

음운 : 김정대

문법 : 김정대

(3) 2차 점검(2006년 11월)

구술발화 : 김정대

어휘 : 김정대

음운 : 김정대

문법 : 김정대

(4) 3차 점검(2006년 12월)

구술발화 : 김정대

어휘 : 김정대

음운 : 김정대

문법 : 김정대



2. 전사 원칙

2.1. 구술 발화 전사

구술 발화는 4시간 정도의 분량을 선정하여 전사한 것이다. 구술 발화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조사자 사이에 문장부호를 찍지 않았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구술 참여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각 구술자를 구별하기 위해 발화 단위 앞에 “#1, #2...” 등의 발화자 표시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구술 발화 질문지와 무관한 내용은 항목 번호로 “=1”을 부여하고 문장 단위로 전사하였다.

구술발화는 제보자가 잘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기억해 내려 하거나, 내용 연결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고심할 때 디딤말(‘그그, 저저, 음, 어어’ 등)을 사용하게 마련인데,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이런 디딤말도 모두 전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디딤말(‘언자, 머, 마’ 등)도 모두 전사했는데, 이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자’는 ‘인제’로 ‘머’는 ‘뭘’로 ‘마’는 ‘마’ 그대로 표준어 대역하였다.

2.2. 어휘 항목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어절 단위로 전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게 된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안에 기록하였다.
- ⑤ 질문 항목과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은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를 하였다.
- ⑦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신구형은 응답형 뒤에 (+ 신), (+ 구)로 표시하였다.
- ⑧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 다), (+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 ⑨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 존)으로 표시하였다.
- ⑩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 노), (+ 유)로 표시하였다.
- ※ 주제보자와 보조 제보자의 응답형이 다를 경우, 전자는 (+ 할아버지), 후자는 (+ 할머니)로 표시하였다.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주제보자와 보조 제보자의 응답형이 다를 경우, 전자는 (+ 할아버지), 후자는 (+ 할머니)로 표시하였다.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어절 단위로 전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② 주제보자와 보조 제보자의 응답형이 다를 경우, 전자는 (+ 할아버지), 후자는 (+ 할머니)로 표시하였다.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거나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하되 (+) 안에 그 사실을 밝혀주었다.

- ② ‘외’가 단모음 [ø]로 실현되면 ‘외’로 전사하고, 이중모음 [we]로 실현되면 ‘웨’로 전사하였다.
- ③ ‘에(e)’와 ‘애(ɛ)’는 변별적 기능을 가지지 못하지만, 표준어 발음을 고려하여 ‘에’와 ‘애’를 구별하여 전사하였다. 그러나 조음 위치가 분명한 경우에는 표준어 발음과 관계없이 그대로 전사하였다.
- ④ ‘으(i)’와 ‘어(a)’도 변별적 기능을 가지지 못하지만, 표준어 발음을 고려하여 ‘으’와 ‘어’를 구별하여 전사하였다. 그러나 조음 위치가 분명한 경우에는 표준어 발음과 관계없이 그대로 전사하였다.
- ⑤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물결표(~) 표시를 하였다.
- ⑥ 성조는 고저 체계로 이해하고, 해당하는 고조 음절 다음에 로마자 자판의 작은따옴표(')로 표시하였다.
- ⑦ 이 지역어에서 장음은 변별적 기능을 하지 않지만, 장음으로 발음되거나 인상적인 장음으로 소리날 때는 ‘:’을, 인상적인 장음의 경우 그 인상이 도드라질 경우에는 ‘::’로 표시하였다.



2006년 경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3. 전사 자료



제1편 구술 발화

1.5. 식생활

1.5.1. 채소 재배와 요리

- 10501 @ 어머~이 저: 아까: 그 나물:때 며 쪼끔 말쓰를 하시긴 하셧습니다마는.{어머니 저 아까 그 나물(을 말씀하셧을) 때 뭐 조금 말쓰를 하시긴 하셧습니다마는.}
- 10501 @ 음식글 만들라 그러모 언자 채소종류 마~이 안 일습니까?{음식을 만드려고 그러면 인제 채소 종류 많이 있잖습니까?}
- # 예.{예.}
- 10501 @ 요개 채소 종류 요개서 나능거 말슴 쫘 해주이소.{여기 채소 종류 여기에서 나는 것 말슴 쫘 해주십시오.}
- 10501 @ 아까는 들라무리고 인자는 지베서 갈꾸는 채소.{아까는 들나물이고 인제는 집에서 가꾸는 채소.}
- 10501 @ 어떤 채소 가꾸시는지?{어떤 채소 가꾸시는지?}
- # 채소 만들고.{채소 만들고.}
- 10501 @ 고거 함 말씀해**.{그것 한 번 말씀해[X주십시오X].}
- # * 주루 농사 지이서.{* 주로 농사 지어서.}
- 10501 # 채소 시머가지고.{채소 심어서.}
- 10501 # 그래 모도 반찬 해묵꼬 안 사랴심니까.{그렇게 반찬 해서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 10501 @ 근테 거 채소가 언자 어떻게 일췌은디 머어.{그런데 그 채소가 인제 어떤 것이 있었는지 뭐.}
- 10501 # 예.{예.}
- @ 상추도 이슬끼고.{상추도 있을 것이고.}
- 10501 @ 무시도 이슬끼고 예.{무도 있을 것이고 예.}
- # 하양금 배추 무우.{그래와야 배추 무.}
- 10501 @예.{예.}
- # 예.{예.}
- 10501 부상치.{불상추.}
- 10501 머어 수까아다 머어.{뭐 쭉갓이다 뭐.}
- 10501 @ 쭉까도 이셧습니까?{쭉갓도 있었습니까?}

예, 예.{예, 예.}

10501 # 모오든 마 시금치다.{모든 뭐 시금치다.}

10501 # 모도 그렇거를 모더 반찬하고.{모두 그런 것을 모두 반찬하고.}

10501 # 그랜습니더, 예, 먼.{그랬습니더, 예, 뭐.}

10501 # 그때쭈든: 일꾼들 마~이 대애상게네 반찬도 머리 해야 델긴둥.{그 무렵에는 일꾼을 많이 대니까 반찬도 뭐를 해야 될 것인지.}

10501 # 예, 그래 머어 머더 그래 해에서 일꾼들 대접하고.{예, 그래 뭐 모두 그렇게 해서 일꾼들 대접하고.}

10501 # 그래그래 사라썅니더.{그렇게 그렇게 살았습니더.}

1.5.2. 나물 채취와 요리

10504 @ 그: 사네 인제 나물가통거 안 뜨더 옴니까?(그 산에 인제 나물같은 것을 안 뜯어 옴니까?)

10504 @ 자 그런 철따라 사네서 나무를 뜨더오능거 여게 대한 겁니다.{자 그런 철따라 산에서 나물을 뜯어 오던 것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10504 @ 먼저 이 지방에서는 주로 어떤 나물드리 남{X니까X}?(먼저 이 지방에서는 주로 어떤 나물들이 남니까?)

10504 @ 요 치 요오 창녕 요개.{여기 지역 창녕 여기에.}

10504 @ 대지 그리고.{대지면 그리고.}

10504 @ 여개 석동 마을.{여기 석동 마을.}

10504 @ 요조개 주로 어떤 나무리 나는지.{이쪽에 주로 어떤 나물이 나는지.}

10504 @ 어머니 기억나시는대로 함문.{어머니 기억나시는 대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10504 @ 쭈: 가지수로 말씀해이쇼.{쭈 가지수로 말씀해 주십시오.}

10504 # 이 산중에 사는 사람드른 사네서 산나무리 마~이 남니더.{이 산중에 사는 사람들은 산에서 산나물이 많이 남니다.}

10504 # 이런는데, 우리는 야사네서 큰 때미로.{이런데, 우리는 야산에서 컷기 때문에.}

10504 # 이 평저네 큰 때미로.{이 평지에서 컷기 때문에.}

10504 # 그런 나무를 종:자르 모르고.{그런 나무를 종자를 모르고.}

10504 # 우리는 주루 채소를 키우고.{우리는 주로 채소를 키우고.}

10504 # 어 머 모든 이래 머 멍는 풀리플 모두 나무를 *.{어 뭐 모든 이렇게 뭐 먹는 풀잎을 모두 나물을 *.}

10504 # 말로하자만 머 나물 이르미 만습니더.{말로 하자면 뭐 나물 이름이 많습니더.}

10504 @ 예, 생각나시는대로 함. {예, 생각시는 대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10504 # 예, 드레 나물도.{예, 들에 나물도.}

@ 머 *사리 예.{뭐 [X고사리X] 예.}

10504 @ 드레 나물도 조코 사네 나물 조코.{들에 나물도 좋고 산에 나물도 좋고.}

10504 @ 머 쭉또 조코 꼬사리도 조코 머어든 조{X습니다X}. {뭐 쭉도 좋고 고사리도 좋고 무엇이든 좋습니다.} @ 예. {예.}

10504 @ 생각나시는대로.{생각나시는대로.}

10504 @ 가능하면 언자 보메는 요령기 나고.{가능하면 인제 봄에는 이런 것이 나고.}

10504 @ 여름메는 어떻게.{여름에는 어떤 것이.}

10504 @ 하기야 머 나무리 보통 봄나무리지마는.{하기야 뭐 나물이 보통 봄나물이지마는.}

10504 @ 나물 이름 종류를 말씀해주이소.{나물 이름 종류를 말씀해주시시오.} # 예. {예.}

10504 # 봄나무른 사네 주로 고사리가 나고.{봄나물은 산에 주로 고사리가 나고.}

10504 # 도래 고사리가 나고.{도라지 고사리가 나고}

10504 # 머어 산중에는 그런 나무리 마~이 나는데.{뭐 산중에는 그런 나물이 많이 나는데.}

10504 # 우리는 여어 야사네 큰 때미로.{우리는 여기 야산에서 컸기 때문에.}

10504 # 여러가지 채:소로 그으 마~이 심꼬.{여러 가지 채소를 그렇게 많이 심고.}

10504 # 또 여어 드레는 진달래라 커능기 이씀니다.{또 여기 들에는 진달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0504 # 그걸또 사라미 머그멘 드기 데고.{그것도 사람이 먹으면 득이 되고.}

10504 # 예, 모든 찢나무리라꼬.{예, 모든 쓴나물이라고.}

10504 # 노랑 꼬치 피고.{노란 꽃이 피고.}

10504 # 찢나무른 다아 사랑게 조습니다.{쓴나물은 다 사람에게 좋습니다.}

10504 # 예, 그래 찢나무른 머어 가지가 만습니다.{예, 그래 쓴나물은 가짓수가 많습니다.}

10504 @ 그 머어 도래라든지 더덕가통 이렇거는 머어 숭구거나 머어 캐거나 이런:.{그 뭐 도라지라든지 더덕 같은 이런 것은 뭐 심거나 뭐 캐거나 이런.}

10504 # 예, 우리는 그렇거 안 캐바습니다.{예, 우리는 그런 것 안 캐어봤습니다.}

10504 # 이런 야사네는 안 나~이.{이런 야산에는 안 나니까.}

10504 # 예.{예.}

10504 # 머어 영구꾸다 그렁거는 야사네도 이쓰서 그렁거는 캐바찌예.{뭐 엉경퀴다 그런 것은 야산에도 있어서 그런 것은 캐어봤지요.}

10504 # 영구꾸가 이 우우리 우영 막강 똑각꼬.{엉경퀴가 이 *** 우영 맛과 똑 같고.}

10504 # 꼬치 이래 둥글기 크:그 피고 예.{꽃이 이렇게 둥글고 크게 피고 예.}

10504 # 뿌리가 우웅 뿌리매~이로 이른능거.{뿌리가 우영 뿌리처럼 이런 것.}

10504 # 엔나레는 그걸 캐:다가 남자들로 이래 뚜디리 머머 참 조타캐습니다.{옛날에는 그것을 캐어다 남자들에게 이렇게 두드려 먹이면 참 좋다고 했습니다.}

10504 # 그러타꼬 엔나레 머슨 야기 이십니꺼?{그렇다고 옛날에 무슨 약이 있습니까?}

10504 # 그래 뜨드다가 남자들로 이래 뚜디리 머기고.{그래 뜯어다 남자들에게 이렇게 두드려서 먹이고.}

10504 # 또 머 삽초도 나고.{또 뭐 삽초도 나고.}

10504 # 삽초라 커능거또 보메 나고.{삽초라고 하는 것도 봄에 나고.}

10504 @ 삽초가 우뚝{X김니꺼X}?{삽초가 어떤 것입니까?}

삽초라 커능거는.{삽초라고 하는 것은.}

10504 # 이 그 대이푸리가치 생긴는데.{이 그 뗏잎처럼 생겼는데.}

10504 # 저어 이 사네 삽초가 이래 마~이 납니다.{저 이 산에 삽초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10504 # 나마 그그이 그리 또 남자들게 그래 포함니더, 예.{나면 그것이 그렇게 또 남자들게 포함니다, 예.}

10504 # 머어 쌀뜨만 키릴가치 이려 엔날 디들빠~아다 쩌어가지고.{뭐 삶으면 ??같이 이렇게 옛날 디딜방아에다 쩌어서.}

10504 # 쌀뜨메는 지르미 동동동동 뜬니더.{삶으면 기름이 동동동동 뜬니다.}

10504 # 그래 머어 우리 영감님드른 그랑기나 해:서 디릴찌.{그래 뭐 우리 영감님들은(영감님들한테는) 그런 것이나 해:서 드렸지.}

10504 # 머어 머슨 야기 이십니꺼, 예.{뭐 무슨 약이 있습니까, 예.}

10504 # 그렁걸 그래 머어 보하다꼬 하고.{그런 것을 그래 뭐 보하다고 하고.}

10504 # 그래 머얼.{그래 뭐.}

10504 # 다아 이 나물 일 밍사근 백까지가 다 사랑기이 다 조용김니더, 봄새로 나능거는.{다 이 나물 이것 ??은 백까지가 다 사람에게 다 좋은 것입니다, 봄새 나는 것은.}

10504 # 다아 이 마:~이 나물로 마~이 머거야 텀니더, 예.{다 이 많이 나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예.}

10504 # 머라캐도 사라미 이 나무를 마~이 무거야 히믈 씨고.{뭐라고 해도 사람이 이 나물을 많이 먹어야 힘을 쓰고.}

10504 # 또 쏙:또 던든하고.{또 속도 든든하고.}

10504 # 나무를 안 무구머 사라미 허합니더.{나물을 안 먹으면 사람이 허합니다(약해집니다).}

10504 # 이런때미러 나무를 마~이 무구야 데고.{이렇기 때문에 나물을 많이 먹어야 되고(하고).}

10504 # 또 나물 멍는데 된장 콩기름 창깨지름.{또 나물 먹는데 된장 콩기름 참깨기름.}

10504 # 이렇거로 씨 썩꺼가미서 이래 나무를 마~이 무우야 텀니더.{이런 것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나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10504 # 나물 마~이 안무움: 힘 몬 썸니더.{나물 많이 안 먹으면 힘 못 씁니다.}

10504 # 사라미 엔날예쩍버텨 나무를 묵꼬 사란는데.{사람이 옛날옛적부터 나물을 먹고 살았는데.}

10504 # 저어:: 드레도 천::치 머어 몬몽는 나무리 업습니더.{저 들에도 전체(전부) 뭐 못 먹는 나물이 없습니다.}

10504 # 다아: 그래 뜨드서 남자드리:야 썸내~이라커는 그거를, 내~이를 뜨드다가 나물로

해서 이래 남자들로 주메는.{다 그렇게 뜯어서 남자들에게 쓴냉이라고 하는 그것을,
냉이를 뜯어다가 나물을 해서 이렇게 남자들에게 주면은.}

10504 # 함:때: 피가 한숙까라써 생긴다고 엔나래 마리 이십니다.{한 때에 피가 한 숟가락씩
생긴다고 옛날말이 있습니다.}

10504 # 이런는데 자양 나무를 자시이소.{이러니까 늘 나물을 잡수십시오.}

10505 @ 저 어무~이 그 말씀하신 그 나물 이르미예.{저 어머니 그 말씀하신 나물 이름이
요.}

10505 @ 꼬사리도 익꼬 진달래 익꼬 썬나무 익{X꼬X} 옹구꾸 익꼬 삼초 익꼬 콩지름 익꼬
참깨지름 익꼬 썬내~이 이렇거 마썸 하션는데예.{고사리도 있고 진달래 있고 썬나무
있고 엉경귀 있고 삼초 있고 콩지름 있고 참깨지름 있고 쓴냉이 이런 것 말씀하셧는
데요.}

10505 @ 음 그런 나물드를예.{음 그런 나물들을요.}

10505 @ 그으 운제 머어 주로 보미겔습니더마는.{그 언제 뭐 주로 봄이쥬습니다마는.}

10505 @ 우썰 캐는지.{어떻게 캐는지.}

10505 @ 캐는 방빠블 쫌 말씀[X해 주이소X].{캐는 방법을 쫌 말씀[X해주십시오X]}

10505 @ 운제 우썰 캐는지 방뻬.{언제 어떻게 캐는지.}

10505 # 엉구꾸라커능 그거는.{엉경귀라고 하는 그것은.}

10505 # 우북 이럼 광이 나게뎡니다.{어느정도 이렇게 광이 나게(?) 됩니다.}

10505 # ** 뿌리이가 그 기피 듕니다.{** 뿌리가 그 깊이 듕니다.}

10505 # 그래 켜~이로 가: 대이미서 캐야데고.{그래 켜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캐야 되고.}

10505 # 그으 다룽거는 언자 나트로 칼로 뜨드마 데고.{그 다른 것은 인제 낫으로 칼로 뜯
으면 되고.}

10505 # 그러습니더.{그렇습니다.}

10506 @ 으~ 그럼 쪼끔저네 언자 켜 때 나트로 캐기도 하고 칼로 캐이고 켜~이로 캐기도
한다고 말씀하션는데예.{음 그럼 조금 전에 인제 켜 때 낫으로 캐기도 하고 칼로 캐
기도 하고 켜이로 캐기도 한다고 말씀하셧는데요.}

10506 @ 쪼:끔 더 구체저그로예.{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10506 @ 나무를 켜 때 사용하는 그: 연장에는 어떻거시 인는지.{나물을 켜 때 사용하는 그
연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10506 @ 또 어떠케 사용하는지.{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10506 @ 생각나, 머어 칼거트머느 머어 어떤 카리 일꼬 나시모 어떤 날치 일꼬 머어 이렇
기 안 이겔습니꺼?{생각나시는 대로, 뭐 칼같으면 뭐 어떤 칼이 있고 낫이면 어떤 낫
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쥬겔습니꺼?}

10506 @ 생각나시는대로 쩌:연스럽게 말씀해주이소.{생각나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
십시오.}

10506 # 엔나래는 여어 조선나치라꼬.{옛날에는 여기 조선낫이라고.}

10506 # 조선 씨라꼬 조선 봉씨라꼬.{조선 쇠라고 조선 봉쇠라고.}

10506 # 나치 이씨십니다.{나치 있었습시다.}

10506 # 이기 성냥까네 가마 성냥깁도 모르실끼다.{이게 대장간에 가면 대장간도 모르실 것이다.}

10506 @ 아이구 암미더. 그으 뚜디리가지고 **하는 그으.{아이구 압니다. 거기 두드려가지고 **하는 거기.}

10506 # 그래 핀수하가:* 각 그걸*.{그래 ??해서 * 그것을.}

10506 # 참 뚜디리서 맨드른 그: 나틀 가지고.{참 두드려서 만든 그 낫을 가지고.}

10506 # 그래 그그 그런 나무를 뜨드심미더.{그래 그 그런 나무를 뜯었습시다.}

10506 # 쪼끔만키도 맨들고 크기도 맨드른는데.{조그만하게도 만들고 크게도 만들었는데.}

10506 # 그래가 그름: 각:꼬 띄꼬.{그래 그 놈을 가지고 띄고.}

10506 # 또 칼로 가지고 띄꼬.{또 칼을 가지고 띄고.}

10506 # 이래헨:는데.{이렇게 했는데.}

10506 # 요새에는 그렁거를 다 합니꺼, 어테.{요즘에는 그런 것을 합니까, 어디.}

10506 @ 아까 웅구꾸는 깨~이각꼬 한다꼬 ***,{아까 엉겨키는 팽이 가지고 한다꼬 ***,} # 예.{예.}

10506 @ 깨~이는 우째가: 하시는지예?{팽이는 어떻게 해서 하시는지요?}

10506 # 그어는 언자 켁이르 가지고 이 근방을 두리이시린자 뜨더노코 지푸게 드기 때미로.{그것은 인제 팽이를 가지고 이 근방을 둥글게 인제 뜯어놓고 깊게 들기 때문에.}

10506 # 그래가: 캐마:.{그렇게 해서 캐면.}

10506 # 우붕뿌리거치 이래 지다아~이 이래 캐:집니다.{우엉뿌리처럼 이렇게 길다랗게 이렇게 캐집니다.}

10506 # 그래 인제 이래 캐지능거 그거를 가악꼬.{그래 인제 이렇게 캐지는 것 그것을 가지고.}

10506 # 매: 곡끼 따드머가지고.{매 곱게 다듬어서.}

10506 # 그래가지고 그거런 꼬치 안 피:서.{그래가지고 그것을 꽃이 안 피서.}

10506 # 쫄 피마 소양억꼬.{꽃 피면 소용없고.}

10506 # 쫄 안 피:서 그거르 가지고.{꽃 안 피서 그것을 가지고.}

10506 # 장마내 가지고.{장만해 가지고.}

10506 # 지불 뚜디리 내가이 뚜디리면 지끄른 가라가지고 지비 안 남니꺼?{줍을 두드려 내어서 두드리면, 지금은 갈아서 줍을 내잖습니까?}

10506 # 이린데 엔나레는 그렁기 업서서.{이렇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10506 # 이기 저어게 씨 씨 고가 익꼬.{이것이 저기 쇠 쇠 고가 있고.}

10506 # 이 여 호바기 엔나레 찌~어 묻는 호박 이슴니다.{이 확이 옛날에 찢어 먹는 확이 있습니다.}

10506 # 그따다아 매매매 뚜디리가지고 이래 찢마.{거기다가 매매 두드려서 이렇게 찢면.}

10506 # 무리 새애카마~이 떨어리리가지고 이래 나옵니더.{물이 새까맣게 ??? 이렇게 나옵니더.}

10506 # 형거폐다가 뽀올끈 짜라가지고.{형짚에다 불끈 짜서.}

10506 # 남자들 메깁니더.{남자들 먹입니다.}

10506 # 거기: 그리 조탐니더.{그것이 그렇게 좋답니다.}

10506 @ 우리 성박사가 그으 웅구꾸 뿌레~이 무를 마~이.{우리 성박사가 그 엉경퀴 뿌리 물을 많이.}

10506 @ 마시 ***,{마셔 ***}

성박사는 그렇거여 안 무구 안 미기 받심니더.{성박사는 그런 것 안 먹여 안 먹여 봤습니더.}

10506 @ 그걸 마신스면 더 조안슬걸.{그것을 마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웃음)

그렇, 예 예 그렇거 안 미기 받습니더.{그런, 예 예 그런 것 안 먹여 봤습니더.}

10506 # 하이구 지금 더 조웅거 안 쎄:썰니꺼.{아이구 지금 더 좋은 것 많지 않습니까.}

10506 # 머어 그때 그 답따버서 그렇거 무운쎄.{뭐 그때 그 답답해서 그런 것 먹었지.}

10506 # 언자 저거 아버지는 그렇걸 해에서 디리고.{인제 자기 아버지는 그런 것을 해서 드리고.}

10506 # 이 삼초도 사기도 하고 캐기도 하고 이래가지고.{이 삼초도 사기도 하고 캐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10506 # 삼초를 인자 마~이 이래 잡산:쎄.{삼초를 인제 많이 이렇게 잡쎄지.}

10506 # 머어 그렇거 아~이고 머시 이심니꺼.{뭐 그런 것 아니면 뭇이 있습니까.}

10506 @ 저어 조금 저네 그 저 어머니 말씀 중에서 사리도 하고 이러카신는데예.{저 조금 전에 그 저 어머니 말씀 중에서 사리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10506 @ 사리하능게 머엄미꺼?{사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506 # 예?{예?}

10506 @ 그 삼초오 말씀 하시다가 사리도 하고 글 카싱거거튼데 사리하능게 머엄미꺼?{그 삼초 말씀 하시다가 사리도 하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506 # 모르겜심니더, 내가 머르켄능고.{모르겠습니더, 내가 뭐라고 했는지.}

@ 예 예, 댈습니더.{예 예, 댔습니더.}

10507 @ 나물 캐시다가예.{나물 캐시다가요.}

10507 @ 혹시 그으 머어 큰 사는 업따고 아까 말씀하신는데예.{혹시 그 뭐 큰 산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10507 @ 야산이당 들파네서 나물캐시다가 머어.{야산이나 들판에서 나물캐시다가 뭐.}

10507 @ 별로 맨 만날뜯지 배미를 만날뜯지 이런 머어 기억들 안 이습니꺼?{별을 만 만났든지 뺨을 만났든지 이런 뭐 기억들 있지 않습니까?}

10507 @ 나물 켈 때 추어기 이스면.{나물 켈 때 추억이 있으면.}

10507 # 그때는 만:습니더 거기:.{그때는 많았습니더 그제.}

10507 @ 그렇거 나물 켈 때 특빠리 기영나는 일 이스머 말쓰매주이소.{그런 것 나물 켈 때 특별히 기억나는 일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0507 # 그래 인자 그런 짐승열 만나면.{그래 인제 그런 짐승을 만나면.}

10507 # 엔나레는 큰: 짐승도 이슴미더.{옛날에는 큰 짐승도 있습니다.}

10507 # 큰 짐승또 마난심니더.{큰 짐승도 많았습니다.}

10507 # 지끄른 이리키 살기가 조은데.{지금은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10507 # 그때는 짐승이 마내서.{그때는 짐승이 많아서.}

10507 # 만난미는 그런 짐승을 만난미는.{만나면 그런 짐승을 만나면.}

10507 # 저리 가거래이 저리 가거래이.{저리 가거라 저리 가거라.}

10507 # 꼬바트로 가거래이.{꽃밭으로 가거라.}

10507 # 너그 일슬때 아이다 꼬바트로 가거래이 자양 이 이래 달개서 보내고.{너희 있을 때 아니다 꽃밭으로 가거라 자꾸 이렇게 달래서 보내고.}

10507 # 그렇거얼 인자 어 소늘 대고 해치르 하마.{그런 것을 인제 손을 대고 해코지를 하면.}

10507 # 그 짐승이 해치르 함니더.{그 짐승이 해코지를 합니다.}

10507 # 그런 머리:.{그렇기 때문에.}

10507 # 자양 달개서 보내고 그런 짐승을 해치르 안 해고 보내야 텨니더.{자꾸 달래서 보내고 그런 짐승을 해코지를 하지 않고 보내야 합니다.}

10507 # 이래 진 짐승은 참말 무섭심니더.{이렇게 긴 짐승은 정말 무섭습니다.}

10507 # 엔나레 업서서 모도 업시 살미.{옛날에 없어서 모두 없이 살며.}

10507 # 보리바블 해서 소구리다 퍼노코 드레 가서 이를 하고 오~이.{보리밥을 해서 소구리에다 퍼놓고 들에 가서 일을 하고 오니까.}

10507 # 바블 머글라꼬 소구리를 드~이.{밥을 먹으려고 소구리를 드니까.}

10507 # 그 소구리가 먼찌해 무구바예.{그 소구리가 묵직해 무거워요.}

10507 # 우찌해~이 무거바서 소구르를 지버 떤지뿌~잉께네.{어찌나 무겁든지 소구리를 집어 던져버리니까.}

10507 # 진 짐시~이 그으서 나가이.{긴 짐승이 거기서 나가요.}

10507 # 어 지 지 엔나레 수 그거 심헨심니더.{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10507 @ 진 짐승이랑게 배미미껴?{긴 짐승이라는 것이 뺨입니까?}

10507 # 구:리.{구렁이}

10507 @ 예.{예}

#예.{예}

10507 # 그래 지분 떤지뿌~잉께.{그래 집어 던져버리니까.}

10507 # 그래 짐승은 어데러 간는데.{그래 짐승은 어디로 갔는데.}

10507 # 또 한바리가 오더람니더.{또 한 마리가 오더랍니다.}

10507 # 이 동네라 그래.{이 동네로 그래.}

10507 # 그 그래 와서 마 이 정지: 쑥 드로더라~임니.{그 그 래 와서 뭐 이 부엌에 쑥 들어 오더랍니다.}

10507 # 이 짐승아 어쨌라꼬 완노?{이 짐승아 어찌려고 왔느냐?}

10507 # 그해 그 짐승을 내가 편지게 잘 몬헨나?{그래 그 짐승을 내가 던진 것이 잘못했느냐?}

10507 # 가서 이를 하고 지베 와서 모근 마르고 배는 고프고.{가서 일을 하고 집에 와서 목은 마르고 배는 고프고.}

10507 # 점심: 무울라고 소구리를 드~이 그 짐스~이 드려서 내가 놀래서 떤진따.{점심 먹으려고 소구리를 드니까 그 짐승이 들어 있어서 내가 놀래서 던졌다.}

10507 # 내가 잘모넨나?{내가 잘못했느냐?}

10507 # 그래 내 다시 안 그래꾸마.{그래 내 다시 안 그러마.}

10507 # 그래 달갱:게 이 짐스~이 도라가서 그 짐승을 막 물더랍니다, 막.{그렇게 달래니까 이 짐승이 돌아가서 그 짐승을 막 물더랍니다, 막.}

10507 # 마:: 이이러 무려 저 너른 소리를 킁킁하고 이러더랍니다.{막 이렇게 물어서 저 높은 소리를 킁킁 내고 이러더랍니다.}

10507 # 엔나레 그 짐승 그거 함부두루 안 해십니다.{옛날에 그 짐승 그것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10507 @ 예.{예.}

예.{예.}

10507 # 밤:짐승 이러거는 머 쪼깁석 항거는 머 여사고.{뱀 짐승 이런 것은 뭐 조그만 한 것은 뭐 예사고.}

10507 # 그러거는 머 해치도 아나고 머.{그런 것은 뭐 해코지도 안 하고 뭐.}

10507 # 무려바도 애차 독뚜 옥꼬.{물어봐도 애초 독도 없고.}

10507 # 지일 인자 독사가 무섭찌.{제일 인제 독사가 무섭지.}

10507 @ 예.{예.}

예.{예.}

10507 # 독사는 무런따커마 크닐 남니더.{독사는 물었다고 하면 큰일 남니다.}

10507 # 예, 이런때미 지금 독사가 안 심합니까?{예, 이렇기 때문에 지금 독사가 심하지 않습니다.}

10507 # 여기도 이 디에 여어 고워네 여개.{여기도 이 뒤에 여기 공원에 여기에.}

10507 # 독사가 마내심니더.{독사가 많았습니다.}

10507 # 마넨는데.{많았는데.}

10507 # 이 지베 이 지불 언자 지금 수리르 하고.{이 집에 이 집을 인제 지금 수리를 하고.}

10507 # 이래 다 자알 가꾸잉까.{이렇게 다 잘 가꾸니까.}

10507 # 푸:리 그러키 우구진편 푸리 업서지고.{풀이 그렇게 우거졌던 풀이 없어지고.}

10507 # 여개 다:: 도자러 따까가지고 이래 반드시 해노코.{여기에 다 불도저로 닦아서 이렇

게 반듯하게 해 놓고.}

10507 # 야글 자주 침니더.{약을 자주 침니다.}

10507 # 이래잉께네 그 짐승이 밍사그도 업심니더.{이러니까 그 짐승이 명색도 없습니더.}

10507 # 이 터에 여어 버글버글 해습니더.{이 터에 여기 버글버글 했습니더.}

10507 # 글 독새도 망코예, 이랬는데.{그 독사도 많고요, 이랬는데.}

10507 # 머어 이 동네는 독새한테 물린 사례미 업서도.{뭐 이 동네는 독사에게 물린 사람이 없어도.}

10507 # 독새한테 물리마느 크닐남니더.{독사에게 물리면 큰일남니다.}

10507 # 그으 지일 도오기 독새가 무섭심니더.{그 제일 독이 독사가 무섭습니더.}

10507 # 이니 이 독새는 새끼를 노마.{이 독사는 새끼를 낳으면.}

10507 # 저 아를 안 노코.{저 알을 안 낳고.}

10507 # 진대는 알을 놓고.{진대는 알을 낳고.}

10507 # 독사는 새끼를 노마.{독사는 새끼를 낳으면.}

10507 # 나무 우에서 논는다 하네.{나무 위에서 낳는다고 하네.}

10507 # 그럼 새끼를 막 바로 그 바로 새끼를 논:담니더.{그럼 새끼를 막 바로 그 바로 새끼를 낳는답니다.}

10507 # 이런능기 그기: 한 배에 새끼를 마~이 논는담니더.{이런게 그것이 한 배에 새끼를 많이 낳는답니다.}

10507 # 근데 지끄문 하아도 야글 처사서 업습니더.{그런데 지금은 하도 약을 쳐 쌓아서 없습니더.}

10507 # 야글 마~이 처사앙께네 그 짐시~이 업서 그러치.{약을 많이 쳐 쌓으니까 그 짐승이 없어서 그렇지.}

10507 # 이 터에 마넛습니더.{이 터에 많았습니더.}

10507 # 이 부잔집 이이 무카노코 이슬쎄:는.{이 부잔집 이것 묵혀놓고 있을 적에는.}

10507 # 참 마넛:데 지끔 참 조습니더.{참 많았는데 지금 참 좋습니더.}

10507 # 그러모 우리지베도 이리 너머 오고.{그러면 우리집에도 이리 넘어 오고.}

10507 # 이랬심니더.{이랬습니더.}

10507 # 우리 이 사람 드러오고도 그기: 두라사서 미느리가 놀래사코 이사떠.{우리 이 사람 들어오고도 그것이 들어오곤해서 며느리가 놀래곤 이렇게 해 쌓더니.}

10507 # 지끄문 우리지베도 야글 치고.{지금은 우리집에도 약을 치고.}

10507 # 저 집또 자:꾸 야글 안 침니꺼.{저 집도 자꾸 약을 안 침니까.}

10507 # 그래하잉께네 머 진짐스~이 업습니더.{그렇게 하니까 뭐 진짐승이 없습니더.}

10507 # 그 진테라커능건 멍삭또 억꼬.{그 진대라고 하는 것은 명색도 없고.}

10507 # 그으는 다막오 우찌 델뿐능고 업써예.{그것은 전부 어떻게 됐는지 없어요.}

10507 @ 엔나레 진테라능게 그으 담 우게하고 지봉에 인능거 그거 ***,{옛날에 진대라고 하는 것이 그 담 위에하고 지봉에 있는 것 그것 ***.}

10507 @ 그으 진대 말씀 쯔 해주이소 ***,{그 진대 말씀 쯔 해주십시오 ***,}

1.5.3. 밀반찬의 조리

10508 @ 언자는 먼냐 하먼예,{이제는 뭐냐 하먼요.}

10508 @ 그런자 나무리나 채소와 가통걸 가아꼬,{그것을 인제 나물이나 채소와 같은 것을 가지고.}

10508 @ 자아 지베서 밀반찬을 만드능거에 대한 김니더,{인제 집에서 밀반찬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10508 # (웃음)

10508 @ 이 마으레서 주로 해명은 음식그로,{이 마을에서 주로 해먹는 음식으로.}

10508 @ 그러~이까 밀반찬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인는데,{그러니까 밀반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데.}

10508 @ 밥또 이렇거 주식또 드러가고 다 드러감니더,{밥도 이런 것 주식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10508 @ 이 마으레서 주로 해명은 음식으로는 어떻기: 이습니까?{이 마을에서 주로 해먹는 음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508 # 엔나레 그게 음식김니꺼 머어,{옛날에 그것이 음식입니까 뭐.}

10508 # 엔나레야 머,{옛날에야 뭐.}

10508 # 그으* 주루 머,{?? 주로 뭐.}

10508 # 꼬추하고 깨하고 머어 그렁거 머 해가지고 머 나물 문치고,{고추하고 깨하고 뭐 그런 것 뭐 해가지고 뭐 나물 무치고.}

10508 # 귀지 쌍꼬,{?? 삶고.}

10508 # 모다 그레가아 묵꼬 사람찌만 지끄른 웅:가 조웅거 다 안 함니꺼,{모두 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온갖 좋은 것 다 하잖습니까.}

10508 # 이런 머리 엔날 이 노인들 여 사랑거는 만:탕 이 헨니립니더,{이렇게 때문에 옛날 이 노인들 여기 산 것은 전부 헛일입니다.}

10508 # 그레도 묵꼬: 살고,{그레도 먹고 살고.}

10508 # 그레도: 다: 잘 크고,{그레도 다 잘 크고.}

10508 # 지끄른 웅::가 소리르 다 해삭코,{지금은 온갖 소리를 다 해 쌍고.}

10508 # 머어 웅:가 병이 다 일따캐도,{뭐 온갖 병이 다 있다고 해도.}

10508 # 엔나레 그레 무운 사람드른 오래 살고,{옛날에 그렇게 먹은 사람들은 오래 살고.}

10508 @ 그레 우리가 언자 바블 어 뎡니까?{그레 우리가 인제 밥을 어 뎡니까?}

10508 @ 파늘 바다아썬 뎡능거트메는 언자,{상을 받아와서 먹는 것 같으면 인제.}

10508 @ 바비라든지 주기라든 이 주시기 익꼬,{밥이라든지 죽이라든지 이 주식이 있고.}

10508 @ 그다메 언자 또 부시기 익꼬 머 여러가지가 안 일습니까?{그 다음에 인제 또 부식

이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0508 @ 주시그론 어떻게 이서습니까?(주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10508 # 머하 머 짬도 업심니더.{뭐 뭐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10508 # 엔나레느 주루 자실게 업스~이.{옛날에는 주로 잡수실 것이 없으니.}

10508 # 이를 마~이 하고 이래 모기 마르고 이래마.{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목이 마르고 이러면.}

10508 # 주리 드레다가 미를 마~이 싱:가지고.{주로 들에다 밀을 많이 심어서.}

10508 # 그 엔자 그 미를 기계에다 가라가지고.{그 인제 그 밀을 기계에 갈아서.}

10508 # 참:: 누루글 마~이 디디심니더.{참 누룩을 많이 디뎠습니다.}

10508 # 디디가지고 이: 송끄치 달걸꺼거트머 다 달갸찌예.{디더가지고 이 손끝이 닳으려고 했으면 다 닳았지요.}

10508 # ** 술 내가 마::~이 햐심니더.{** 술을 내가 많이 햐했습니다.}

10508 @ 고고 말씀 좀 해주이소.{그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0508 # 예, 수를 그래 누루글 디디가저고.{예, 술을 그렇게 누룩을 디더서.}

10508 # 엔나레는 보릴때를 타자글, 보리타자글 해가지고.{옛날에는 보릿대를 타작을, 보리 타작을 해가지고.}

10508 # 보릴때를 저리 재:노:마.{보릿대를 저리 재 놓으면.}

10508 # 그 아네다가 누루글 마::~이 디디가지고.{그 안에다 누룩을 많이 디더서.}

10508 # 그래 언자 그으사 떠알습니더.{그래 인제 거기서 띄웠습니다.}

10508 # 떠아마 뜨시가지고.{띄우면 따뜻해서.}

10508 # 후꾼후꾼후 뜨서 그래 보오하~이 뜨마.{후꾼후꾼 떠서 그렇게 뽕양게 뜨면.}

10508 # 그으 누루글 가지고 곡수글 찌서 수를 하마.{그 누룩을 가지고 곡식을 찌서 술을 하면.}

10508 # 아주 설미리 잘 햐습니더.{아주 ??이 잘 햐했습니다.}

10508 # 이러~잉께 일꾼 마~이 대:고.{이러니까 일꾼 많이 대고.}

10508 # 주인 양반하고 술 마:~이 햐심니더.{주인양반과 술 많이 햐했습니다.}

10508 # 그름 또 디비러 안 움니꺼.{그러면 또 뒤지러 오지 않습니다.}

10508 # 세무소:서 디비러 오사서.{세무서에서 뒤지러 오 쌓아서.}

10508 # 흐읍 맘:대러 해묵또 몬하고예.{허허 마음대로 해 먹지도 못 하고요.}

10508 # 아이구 그래 맘대로 해묵떠러 몬 하구루 하는데.{아이구 그래 마음대로 해먹지도 못 하게 하는데.}

10508 # 그 수를 무거야 이를 하지.{그 술을 먹어야 일을 하지.}

10508 # 이래 한:: 독씩 해노마 미칠 몬 감니더.{이렇게 한 독씩 해놓으면 며칠 못 갑니다.}

10508 # 또 그 술 더리무거서 내가 또 해애 또 해애 데고 또 해애 데고.{또 그 술 덜 먹어서 내가 또 해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10508 # 참:: 머이 이 송끄치 달걸꺼거트머 다 달갸심니더.{참 뭐 이 손끝이 닳을 것 같으면

다 닳았습니다.}

10508 # 이래 곡서글 삭카가지고 이래 수를 해:내는데.{이렇게 곡식을 삭혀서 이렇게 술을 해내는데.}

10508 # 그른 또 우리 큰아드리 저: 부산서.{그래 또 우리 큰아들이 저 부산에서.}

10508 @ 예 말씀하시소.{예, 말씀하십시오.}

저어 그 요 요리 노마 텡니다. 부산서 여리 저어.{저어 그 이 이리 놓으면 됩니다. 부산에서 이리 저.}

10508 # 그때는 사범고등가:?.{그때는 고등사범학교인가?}

10508 # 그래 나와가지고.{거기를 졸업해서.}

10508 # 그래 배치이론자 이리로 창녕을 해가지고.{그래 배치를 인제 이리로 창녕으로 받아서.}

10508 # 명덕학교다 처으메 배치로 해가지고.{명덕학교에 처음에 발령을 받아서.}

10508 # 그래 언자 저어 성산멘 낸 냉천이라커는데로.{그래 인제 저 성산면 냉 냉천이라고 하는 데로.}

10508 # 이 아:가 이 크은텍 학교 큰테 벌한 한테는 안 갈라쿠고.{이 애가 이 큰 데 학교 큰 데 ?한 한 데는 안 가려고 하고.}

10508 # 냉천국민학교라컨테 산중에 이십니다.{냉천초등학교라고 하는 데가 산중에 있습니다.}

10508 # 그리 갈라캐:.{그곳으로 가려고 해.}

10508 # 그러~이 저는 구구가 익끼로.{그러니 저는 계산이 있기로.}

10508 # 그런 학교서 내가 선생을 하멘서.{그런 학교에서 내가 선생을 하면서.}

10508 # 기~어를 어더가지고 내가 대하글 간다 이기튼 모~애이지예.{경험을 얻어서 내가 대학을 간다 이런 것이었던 모양이지요.}

10508 # 그래 우리 아드리 성산민 냉천국민학교 그으 가서 선생을 하는데.{그래 우리 아들이 성산면 냉천초등학교 거기에 가서 선생을 하는데.}

10508 # 어, 지베서 농사를 안 지십니까.{어, 집에서 농사를 짓잖습니까.}

10508 # 농사를 지~잉께.{농사를 지으니까.}

10508 # 하이구 누루글 해가지구 마:.{아이고 누룩을 해가지고 마.}

10508 # 숭칸:다커능기, 농에도 숭카고.{숨긴다고 하는 것이, 농에도 숨기고.}

10508 # 야:: 이런테다 숭카노오마.{여기 이런 데에다 숨겨 놓으면.}

10508 # 와서 다 디빔미더.{와서 다 뒤집니다.}

10508 # 디비가지고 드러멤니다.{뒤져서 들어냅니다.}

10508 # 그래 마아 처으므로 그래 들킨는데 머.{그래 뭐 처음으로 그렇게 들켰는데 뭐.}

10508 # 우리 할머~이도 기식꼬 우리 따라아들도 익꼬 이랜는데.{우리 시어머님도 계셨고 우리 딸아이들도 있고 이랬는데.}

10508 # 하이구 인자는 이거르 들키마 자식들 치적또 몬 씨긴다쿠고.{아이고 인제는 이것을

들키면 자식들 취직도 못 시킨다고 하고.}

10508 # 막:: 그러키 벌금도 마~이 한다쿠고 이캐살는데다 들킨는데.{막 그렇게 벌금도 많이 물어야 한다고 이렇게 해 쌓는데다 들켰는데.}

10508 # 그래 언자 우리 아드리 오능기라.{그래 인제 우리 아들이 오는거라.}

10508 # 그래 * 오더~이마느, 어 스 술 들키이 얘기를 항게.{그래 인제 오길래, 어 술 들킨 이야기를 하니까.}

10508 # 언자 내 치적 다 헐다 이캐:{인제 니 취직 다 했다 이렇게 말해.}

10508 # 해피~이 우리 할머~이강 놀래난뜰지.{어찌나 우리 시어머님과 놀랬던지.}

10508 # 하이구 우띠키 하꼬.{아이구 어떻게 할까.}

10508 # 그르음 낄 벌금 해주~이 탕띠더.{그래도 벌금 해주니까 됩디다.}

10508 # 그은 공부씨기능건 지장어이 엄능거로.{그 공부시키는 것은 지장이 없는 것을.}

10508 # 그러크웅 놀래고로 그 캐:{그렇게나 놀래도록 그렇게 말해.}

10508 # 그래가아꼬 그래도 수를 그래 해십니다.{그래가지고 그래도 술을 그렇게 했습니다.}

10508 # 지끄르 술 안마아 해 무~이 머라کم니꺼?{지금은 술 아무리 해 먹어도 뭐라고 합니까?}

10508 # 그때는: 이 곡석또 천::부 매상으러 하라쿠고.{그때는 이 곡식도 전부 매상으로 하라고 하고.}

10508 # 점:부 정부 간따 바치라쿠고.{전부 정부에 갖다 바치라고 하고.}

10508 # 이런 시텐때미로 그래.{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

10508 # 강거를 헐찌, 지금 머슨 그런 강검합니꺼?{강제를 했지, 지금은 무슨 그런 강제를 합니까?}

10508 # 지금 살기 조습니더.{지금은 살기 좋습니다.}

10508 # 엔나레는 우리는 그런 누룩또 해가지고 저어 사네도 질머지고 땡기고.{옛날에 우리는 그런 누룩을 해서 저기 산에도 끓어지고 다니고.}

10508 # 술판지도 이고 땡기고.{술단지도 이고 다니고.}

10508 # 마 그랜습니더.{뭐 그랬습디다.}

10508 # 그으 그래 그래 사란는데.{그 그렇게 그렇게 살았는데.}

10508 # 요새:는 차암 조은 세월 아임니꺼.{요즘은 참 좋은 세월 아닙니까.}

10508 # 이리키 조은 세워리 어디:심니꺼.{이렇게 좋은 세월이 어디에 있습니까.}

10508 # 우리 사랑거느 말 몬합니더.{우리 살아온 것은 말 못합니다.}

10508 # 그래 그 총중우도 모더 자숙들 키우고 농사질꼬 살미.{그래 그 총중에도 모두 자식들 키우고 농사짓고 살며.}

10508 # 그래도 그러머: 다아 사라 나가고.{그래도 그렇게 뭐 다 살아 나가고.}

10508 # 그릴마이 자숙들 저거도 머어.{그러니까 자식들 자기도 뭐.}

10508 # 농사진는닥 구카~이 공부하미도 저역: 육뽕고 해꼬.{농사짓는다고 그렇게 하니까 공부하면서고 ** 고생하면서 했고.}

10508 # 고생 마~이 하고 모돈 공부했습니더.{고생 많이 하면서 모두 공부했습니다.}

10508 # 우리도 고생하고 저거도 고생하고.{우리도 고생하고 자기들도 고생하고.}

10508 # 그리 공부해십니더.{그렇게 공부했습니다.}

10510 @ 어째 저어 동네에 이 동네에 저 동네 가보면예.{어떻게 저 동네에 이 동네 저 동네 가보면요.}

10510 @ 어떤 동네는 엽 동네에서는 하지양코 그으 동네에만 인는 아:주 특뻔한 음식가통기 일꺼든예.{어떤 동네는 옆동네에서는 하지 않고 그 동네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음식같은 것이 있거든요.}

10510 @ 반찬이든지 머든지.{반찬이든지 뭐든지.}

10510 @ 흑시: 이 석똥 마으레 다른 동네는 업꼬.{흑시 이 석똥 마을에 다른 동네에는 없고.}

10510 @ 우리 동네만 이거는 트기향기다 그래 생각데시능기 이스면 말썸 해주이소.{우리 동네에만 이것은 특이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것이 있으면 말썸해 주십시오.}

10510 # 머헤 머어에 특뻔하기 머 잘 행건또 옥꼬.{뭐 뭐 특별하게 잘 한 것도 없고.}

10510 # 잘 행건뚜 옥꼬 머어.{잘 한 것도 없고 뭐.}

10510 # 엔나레는 모도 예.{옛날에는 모두 예.}

10510 # 묵꼬 살기위해서 아무따나 모더 해서 묵꼬 사람십니더.{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모두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10510 # 잘 하도 모나고 요새 사람드른 얼마나 모도: 잘 해가 묵꼬 삼니꺼.{잘 하지도 못하고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모두 잘 해서 먹고 삼니까.}

10510 # 인테 엔나레는 모도.{이런데 옛날에는 모두.}

10510 # 어 점:부 농사 지이가지고.{어 전부 농사지어서.}

10510 # 마아 농사 지이가지고 마 모도 그래 테는데에 해묵꼬 안 사람십니꺼.{뭐 농사 지어서 뭐 모두 그래 되는대로 해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10510 # 그래도 그 그때 그 음식기 다아 모도 그거 마시 익꼬.{그래도 그 그때 그 음식이 다 모두 그게 맛이 있고.}

10510 # 그 구미가 이십니더, 그래도 예.{그 입맛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

10510 # 이거엽: 바테서 나는 콩 콩은, 예.{이것 밭에서 나는 콩 콩은, 예.}

10510 # 밭 소고기라 양컴니꺼.{밭 쇠고기라 하잖습니까.}

10510 # 예예, 이거 차양 콩이 조웅김니더.{예, 이것 참 콩이 좋은 것입니다.}

10510 # 이래애 콩을 가지고 전::치 이래 맨드러서, 지끄른 사서 묵찌마는.{이래 콩을 가지고 전체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은 사서 먹지마는.}

10510 # 예예, 엔나레는 전::부 소느로 만드럴습니더.{예, 옛날에는 전부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10510 # 두부도 만들고::, 콩을 가지고.{두부도 만들고, 콩을 가지고.}

10510 # 된장도 맨들고 지렁장도 맨들고.{된장도 만들고 간장도 만들고.}

10510 # 이래애 머 청국장을 맨드러가지고.{이렇게 뭐 청국장을 만들어서.}

10510 # 차암 엔나레는 불도 조코예.{참 옛날에는 불도 좋고요.}

10510 # 불 때애서 소죽 끼리무.{불 때서 소죽 끓이면.}

10510 # 소주글 끼리마 불로 때애서 * 끼리마.{소죽을 끓이면 불을 때서 * 끓이면.}

10510 # 청로 화리다가 하아** 다마다 노코.{청로 화로에 가득 담아 놓고.}

10510 # 큰:: 이런 웅기 투꾸바리다가 된장 청국장을 부글부글부울 끼리마 깔리마.{큰 이런 웅기 똑배기에다 된장 청국장을 부글부글부글 끓이면 끓어지면.}

10510 # 저언 *** 둘러안자서 우리 칠라 잘 무궁습니다.{저 *** 둘러 앉아서 우리 칠남매 잘 먹었습니다.}

10510 # 이래 묵꼬.{이렇게 먹고.}

10510 # 참: 그, 그래 모독 칠람매 키아노코 그래 할머~이가 도라가시심니더.{참 그, 그래 노두 칠남매 키워놓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10510 # 그래, 할머~이가 하도 손자 자정이 마는 어르~이라서.{그래, 할머니가 하도 손자 사랑이 많은 어른이라서.}

10510 # 할머~이 지사때는 너그 생이~이 이저뿌지 마래이.{할머니 제사 때는 너희 생전에 잊어버리지 말아라.}

10510 # 그래도 이 머 살기위해 바쁘고 하마.{그래도 이 뭐 살기 위해 바쁘고 하면.}

10510 # 머어 지금 서울서 지내, 모시~잉께네.{뭐 지금 서울에서 지내, 모시니까.}

10510 # 다아 그이 저거 다악 그을 다 알 수 이십니까.{다 그 자기들 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10510 # 그래 참, 칠라매르 키아도 그렇거이 참:: 이리 해주마 잘 묵꼬.{그래 참, 칠남매를 키워도 그런 것을 참 이렇게 해주면 잘 먹고.}

10510 # 머어 막:: 나물까지도 장만해서 이래애 주마 잘 묵꼬.{뭐 막 나물까지도 장만해서 이렇게 주면 잘 먹고.}

10510 # 원간 식꾸가 마느~이.{위낙 식구가 많으니.}

10510 # 한다레 알곡서글 머 아호말씩 열말씩 술하능꺼징 그래 머거스~이 머.{한달에 알곡 식을 뭐 아홉말씩 열말씩 술하는 것까지 그렇게 먹었으니 뭐.}

10510 # 말 몬함니더.{말 못합니다.}

10510 # 그래 사람심니더.{그렇게 살았습니다.}

10510 # 마 저거 키울제:는.{뭐 자기들 키울 적에는.}

10510 #2 그으 정월파래 와 어머~이 그거 안 일شم미까?(그 정월달에 왜 어머니 그것 있잖습니까?)

10510 #2 단술하능거 하고 시캐라카능거는 다르다임꺼지예?(단술하는 것과 식해라고 하는 것은 다르잖습니까 그렇지요?)

10510 # 시캐하능거호고?(단술하는 것 하고?)

10510 #2 시캐하능거하고 단술하고는 다르지요?{식해하는 것과 단술하는 것은 다르지요?}

10510 # 그 그래 언자 묵또 하고 단술도 하구.{그 그래 인제 묵도 하고 단술도 하고.}

10510 # 그래 언자 머어시 무울끼 일심니껴.{그래 인제 무엇이 먹을 것이 있습니까.}

10510 # 자식드리 모아들마 단술도 해애 데고 묵또 해애 데고.{자식들이 모여들면 단술도 해야 되고 묵도 해야 되고.}

10510 # 이이 해애쩍: 와서 먹찌예 이랑께네.{이 해 있을 때(?) 와서 먹지요 이러니까.}

10510 # 그래 내 소느로 묵또 해노코 단술도 해노마, 시캬니더 그기이.{그래 내 손으로 묵도 해 놓고 단술도 해 놓으면, 식해입니다 그것이.}

10510 #2 아니 공까아 시캐라꼬는 따로 이설따 아임니까?{아니 그러니까 식해라고는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10510 # 그으느 식끼고.{그것은 식해이고.}

10510 #2 식끼?{식해?}

끝 꼬치: 여코.{고 고추 넣고.}

10510 # 질굼 여코 그거는 시 고기 여코 이래 해능거는 식끼우고.{옛기름 넣고 그것은 시 고니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식해이고.}

10510 # 시캐는 단수리 숙 식해고, 단수리.{식해는 단술이 식해이고 단술이.}

10510 @ 그람 쪼금저네 그으 고기에다가 바발 너코 머 하능거 고게 머라 머라 그라시습니껴 그으느?{그러면 조금전에 그 고기에다 밥알 넣고 뭐 하는 것 그것은 뭐라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10510 # 바불 마:~이 해가지고 어른들 생신때마.{밥을 많이 해서 어른들 생신때이면.}

10510 # 그래 질 마:히 해서 바불 언자 이력 다래에다 한 다래:이 퍼가지고.{그래 많이 해서 밥을 인제 이렇게 다랑이에다 한 다랑이 퍼가지고.}

10510 # 생맹태나 엔나레나 칼치 말랑 그기이 마시 이시임더.{생맹태나 옛날에는 칼치 말린 그것이 맛이 있습니다.}

10510 # 그렇거를 요래 쪼빔쪼빔 사리가지고.{그런 것을 이렇게 쪼뽀쪼뽀 썰어서.}

10510 # 마~이 썩꺼서 질궁가리로 치로 처가지고.{많이 섞어서 옛기름가루를 체로 쳐서.}

10510 # 그래 질궁가리르 장만해가꼬.{그래 옛기름가루를 장만해서.}

10510 # 꼬추까리하고 저래 벨가~이 썩꺼서.{고춧가루루와 저렇게 빨갭게 섞어서.}

10510 # 그이 질궁가리로 이래 썩꺼가꼬 두리두릴 썩꺼서.{그 옛기름가루를 이렇게 섞어가 지고 두리두리 섞어서.}

10510 # 굳 이: 뜨신 부욱 부욱우에다 떡 그래 싸서 노오마.{구들 위(?) 따뜻한 아궁이 아궁이 위에다 떡 그렇게 싸서 놓으면.}

10510 # 뜨끈뜨끈하~이 그기: 사가가지고예.{뜨끈뜨끈하게 그것이 삭아서요.}

10510 # 하러뺨 자고 내일 아침에마 무리 향강하~이.{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이면 물이 흥건하게.}

10510 # 달고 참 마시 이심니더.{달고 참 맛이 있습니다.}

10510 # 차암 마시 이심니더.{참 맛이 있습니다.}

10510 # 그래, 그래가지고 어른들 생신때마 생신잔치르 하고.{그래, 그렇게 해서 어른들 생신 때이면 생신잔치를 하고.}

10510 # 또 이래 머어 어른드리 잡숙꼬집다커마 고래가지고 또 맨드리드리고.{또 이렇게 뭐 어른들이 잡수시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또 만들어 드리고.}

10510 # 그래 그기이 조습니더, 그 엄시기.{그래 그것이 좋습니다, 그 음식이.}

10510 #2 그래 그걸 머라캄니꺼?{그래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10510 # 네에, 그으 그 음식 그래 조습니더.{예, 그 그 음식이 그렇게 좋습니다.}

10510 #2 그 음식글 이르미 머영교 그래?{그 음식의 이름이 뭐니까 그래?}

10510 # 식끼라 그으는.{식해라 그것은.}

#2 식끼?{식해?}

#식끼.{식해.}

10510 # 그그는 식끼고.{그것은 식해이고.}

10510 # 그래 식캐:라커능거는 언자 단술로 합니더.{그래 식해라고 하는 것은 인제 단술로 합니다.}

10510 # 단술로 바블 해가지고.{단술을 밥을 해서.}

10510 # 이는 예 질구물 마:~이 지베서 또 이 지랴심미더, 질구물 키알썸니더.{이는 예 옛 기름을 많이 집에서 또 이 길렀습니다, 옛기름을 키웠습니다.}

10510 # 그래가지고 그래 언자 빠사가지고.{그렇게 해서 그래 인제 빵아가지고.}

10510 # 무레다가 걸러서 따악 이러넌 안차가지고.{물에다 걸러서 딱 일어내어서 가라앉혀 가지고.}

10510 # 안초오면 무리 노오라~이 안썸니더.{가라앉히면 물이 노랑게 가라앉습니다.}

10510 # 그걸 언자 그으 따라서 단지다아 따라 부우메.{그것을 인제 거기 따라서 단지에 따라 부으면.}

10510 # 포옥 사가가지고.{폭 삭아가지고.}

10510 # 이겐 이얼 바압떡 밥티가 동동동동 뜰니더.{여기 이 밥떡 밥풀이 동동동동 뜰니다.}

10510 # 그때사 바글바글바글 끼리마.{그때에야 보글보글보글 끓이면.}

10510 # 그기이 인자 식캐미더.{그것이 인제 식해입니다.}

10510 # 예, 그래해가: 그래가: 잔치도 하고.{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잔치도 하고.}

10510 @ 그응게 시캐하고 식끼하고는 다르다 그지예?{그러니까 식해(단술)와 식해는 다르다 그렇지요?}

10510 @ 식끼는 언자 생서~이 드러가야 데지예?{식해는 인제 생선이 들어가야 되지요?} # 예 예:{예 예.}

10510 # 꺼엄고기가 드러가이 데고.{??고기가 들어가야 되고.}

10510 # 꼬치 꼬촉까리가 드러가야 데고.{고추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되고.}

@ ??? ????

10510 @ 식끼는 그걸또 언자 사카가지고 물로 마십니까?{식혜는 그것도 인제 삭혀서 물을 마십니까?}

10510 # 물로 안 마시고.{물을 마시지 않고.}

10510 # 식캐 저어 시캐는 그냥 이래 밥지채 이이 이래 동동 떠서 그르게 다마가 마시고.
{식혜 저 식혜는 그냥 이렇게 밥풀채 이렇게 동동 띄워서 그릇에 담아서 마시고.}

10510 # 식끼는 이래 언자 접새기다가 여래 다마가지고 그래 손님 대지블 하고.{식혜는 이렇게 인제 접시에 이렇게 담아서 그래 손님 대접을 하고.}

10510 @ 그러믄 켜기하고 그으 가치 나습니까 ***.{그러면 고기하고 그것을 같이 놓습니까, ***.}

예. 예예.{예. 예예.}

10510 # 가치 그래 써꺼서 그래 대저블 하마.{같이 그래 섞어서 그래 대접을 하면.}

10510 # 그기이 마시 조심미더.{그것이 맛이 좋습니다.}

10510 # 그 머어 지끔 사라믄 그렁거르 안 해서 그러치.{그 뭐 지금 사람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10510 # 그래가아 인자 묵또 하고.{그렇게 해서 인제 묵도 하고.}

10510 # 무곤 우째 하노 하마.{묵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10510 # 저어 미물 아시지예?{저 메밀 아시지요?}

10510 # 예예, 미물 농사르 마~이 지이가지고.{예, 메밀 농사를 많이 지어서.}

10510 # 그래 언자 그거를 엔나레는 디들바~아다 빠살습니더.{그래 인제 그것을 옛날에는 디딜방아에 뺨았습니다.}

10510 # 이 빠사가구 해습니더.{이 뺨아서 했습니다.}

10510 # 이런테 지 이 중년에는 저언부 기계가서 가라 가라가지고.{이랬는데 저 이 요즘은 전부 기계에 갈아 갈아가지고.}

10510 # 그래 인자 그녀를 걸러가저:고.{그래 인제 그것을 걸러가지고.}

10510 # 무르 무글 끼리마.{묵을 묵을 끓이면.}

10510 # 그래 무기 잘: 텨니더.{그래 묵이 잘 됩니다.}

10510 # 그으 그래 그그 언자 무글 모도 손님 대집하고.{그 그렇게 그것 인제 묵을 모두 손님 대접하고.}

10510 # 이래 지끄믄 무울끼 마내서 그렁거 합니까:데.{이런테 지금은 먹을 것이 많아서 그런 것 합니까 어디.}

10510 # 엔나레는 그래 사람습니더, 우리는.{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10509 @ 조피는 우째 만드럴습니까?{두부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509 # 두부는 언자 콩을 부라가지고.{두부는 인제 콩을 불려서.}

10509 # 엔나레 디딜빠~아다가 빠사가지고.{옛날에 디딜방아에다 뺨아서.}

10509 # 그래 언자 콩을 언자 빠사서 이래.{그래 인제 콩을 인제 뺨아서 이렇게.}

10509 # 무레다가 후리가지고.{물에다 풀어서.}

10509 # 소테다가 끼리마는.{술에다 끓이면.}

10509 # 거품미 향:거 텨니다.{거품이 가득 됩니다.}

10509 # 그래가알 끼리가지고.{그렇게 끓여서.}

10509 # 그래 인자 삼비 보 이래 보자기르 지버가지고.{그래 인제 삼베 보 이렇게 보자기를
기워서.}

10509 # 그따아 이 여래 퍼버어서 찰마.{거기다 이 이렇게 퍼 부어서 찰면.}

10509 # 두부가예 미테: 마~이 니러갑니다.{두부가요 밑에 많이 내려갑니다.}

10509 # 무리 니리가마 그따다 간수르 지름니다.{물이 내려가면 거기에다 간수를 붓습니다.}

10509 # 소고메서 간수가 나옵니다.{소금에서 간수가 나옵니다.}

10509 # 그걸 버어가지고 이리 저스마.{그것을 부어서 이렇게 저으면.}

10509 # 두우가 문틀문틀문틀문틀 이리 덩그리가 집니다.{두부가 몽글몽글몽글몽글 이렇게
덩어리가 집니다.}

10509 # 그래 그래 언자 그거이 덩거리가 지마.{그래 그래 인제 그것이 덩어리가 지면.}

10509 # 그기이 오른 언자 두부 아임니까.{그것이 옳은 인제 두부 아닙니까.}

10509 # 그래가지고 이래 퍼서 커다:난 하메다 이래 퍼서.{그렇게 해서 이렇게 퍼서 커다란
함에다 이렇게 퍼서.}

10509 # 미테 물 빠지구루 해노마.{밑에 물이 빠지게 해 놓으면.}

10509 # 그래 무리 빠지고나마 두부 모가 텨니다.{그렇게 물이 빠지고나면 두부 모가 됩니
다.}

10509 # 이래 끄느마.{이렇게 끓으면.}

10509 # 그래가지고 그으 창 그래 몽능 그기 진짜로 두부 아이미이꺼.{그렇게 해서 그것 참
그래 먹는 그것이 진짜로 두부 아닙니까.}

10509 # 요새:는 머어슬 썩는지이.{요즘음은 무엇을 섞는지.}

10509 # 그래가지고 이이 또오 두부하고 콩 찌꺼 찌꺼지 그거는.{그렇게 해서 이 또 두부를
하고 콩 찌꺼 찌꺼기 그것은.}

10509 # 디덜바~아다 찌어노~웅게 쪼가리가 드문드문 이십니다.{디덜방아에 찼어서 쪼가
리가 드문드문 있습니다.}

10509 # 그거를 언자 부를 때서.{그것을 인제 불을 때서.}

10509 # 소테다 뜨시 뜨사가지고 떠우마는.{술에다 데워 데워서 띄우면은.}

10509 # 떠우마 참 감자무리한 내미사가 납니다.{띄우면 참 ???한 냄새가 납니다.}

10509 # 그래마 그으 그을: 또.{그러면 그 그것을 또.}

10509 # 던자~아다가 찌 던장 좀 여코 찌지노오마 그:래 마치이십니다, 그기이.{된장에다
된장 좀 넣고 지저 놓으면 그렇게 맛이 있습니다, 그것이.}

10509 # 그래가악 모도 갈라 묵꼬.{그렇게 해서 모두 나눠 먹고.}

10509 # 그으 그래 행: 그기이 그래 마시 이십니다.{그것 그렇게 한 그것이 그렇게 맛이 있
습니다.}

10509 # 지끄른 딘 비지자아 커능 거기이.{지금은 비 비지라고 하는 그것이.}

10509 # 비지가 장사가 가오마 재꿀거치 빠사:서{비지가 장사꾼이 가져오면 ??같이 뺏아서}

10509 # 아:무 강기도 옥꼬.{아무 간기도 없고.}

10509 # 그걸 안 사먹습니까, 더이 비지라고 이래도.{그것을 사먹잖습니까, 비지라고 이래도.}

10509 # 엔나레는 디딜빵아다 쟁어 가지고.{옛날에는 디딜방아에 쟁어서.}

10509 # 이 머어 우리겨 이리 참 하능거느 아주: 구시고 마시 이스시미더.{이 뭐 우리가 이렇게 참 하는 것은 아주 구수하고 맛이 있었습니다.}

10509 # 그래 해떡꼬 이래 사릅니까.{그렇게 해 먹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10509 # 마시 이십니데, 엔나레는 진짜르 하잉께네.{맛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진짜로 하니까는.}

10509 # 엔나레는 모더 그래 안 사라습니까.{옛날에는 모두 그렇게 살았잖습니까.}

10509 # 지끔 사람 사는 요랑하무 우리드른 참:.{지금 사람 사는 모양에 비하면 우리들은 참.}

10509 # 말 몬함니더, 똑 부리 이십니까.{말 못합니다, 또 불(전깃불)이 있습니까.}

10509 # 엔나레 우리 살찌기는 불두 옥꼬 물도 옥꼬예.{옛날에 우리 살 적에는 불도 없고 물도 없고요.}

10509 # 물도 업서가지고:.{물도 없어서.}

10509 # 이 내 등찌물 무를 저다 묵꼬 사랴시임더, 그 마는 식꼬예.{이 내 등짐으로 물을 저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 많은 식구에.}

10509 # 무리 기해가지고.{물이 귀해서.}

10509 # 밤나덥시 퍼다가 소하고 사랴하고.{밤낮없이 퍼다가 소와 사랴이.}

10509 # 그래 그래가: 묵꼬.{그래 그렇게 해서 먹고.}

10509 # 지끄른 물도 이리키 조코.{지금은 물도 이렇게 좋고.}

10509 # 불도 이리키 존는데.{불도 이렇게 좋은데.}

10509 # 그다다가 또 지사나 작습니까.{거기에다 또 제사는 작습니까.}

10509 @,# (웃음소리)

10512 @ 요어 머이 게저레 관계업시예.{이것 뭐 계절에 관계없어요.}

10512 @ 머 계절대로 해주시머 더 조꾸꾸예.{뭐 계절대로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10512 @ 생강나시는대로 머 봄부텅.{생각나시는대로 뭐 봄부터.}

10512 @ 보메는 주로 어떤 반찬을 해가: ***.{봄에는 주로 어떤 반찬을 해서 ***.}

10512 @ 해서 무걱꼬, 예예.{해서 먹었고, 예.}

 # 보메는 우리드리 살찌기는.{봄에는 우리들이 살 적에는.}

10512 # 마알 주루 여어 상추를 키아마 노오마.{뭐 주로 상추를 키워 놓으면.}

10512 # 요오 나푸마안써 요리 키아가지고.{이 ??만큼 이렇게 키워가지고.}

10512 # 고오 여어 나푸만서 할째:는 보드랍십니더.{그 여기 ??만큼 할 때는 부드럽습니다.}

10512 # 여어 고롱거럴 뜨드서.{예 그런 것을 뜯어서.}

10512 # 머어 상은 만치:{뭐 상은 많지.}

10512 # 매꾸글 태암니더.{냉국을 만듭니다.}

10512 # 예, 깨스.{예, 깨소금.}

@ 보메?{봄에요?}

예, 보메 보메.{예, 봄에 봄에.}

10512 # 깨소우물 여코:{깨소금을 넣고.}

10512 # 참지름 여코 이래애 마식꾸로, 예 지베 농사 지이가지고.{참지름 넣고 이렇게 맛있게, 예 집에 농사 지어서.}

10512 # 지베 엔날 깨로 지끔 깨 그거: 하나:또 깨 아임니더.{집에 옛날 깨를 지금 깨 그것 하나도 깨가 아닙니다.}

10512 # 점::부 수입 드롱김니더.{전부 수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10512 # 그거 점:부 객찌:서 드롱기:지 엔날께 업습니더.{그것 전부 객지에서 들어온 것이지 옛날 것이 없습니다.}

10512 # 엔날 끼는 구경할라캐도 업습니더.{옛날 것은 구경하려고 해도 없습니다.}

10512 # 그래 엔나레 농사를 지이가지고 참:: 무우마 그 깨소으미 마시 익꼬.{그래 옛날에 농사를 지어서 참 먹으면 그 깨소금이 맛이 있고.}

10512 # 기으레예 깨 두디마아 짜: 지름을 짜마 그리키: 만넉끼 몽는데.{겨울에요 깨 두되만 짜면 기름을 짜면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

10512 # 지끄른 깨 서디너디 짜도 그래 마시 업습니더.{지금은 깨 세 되 네 되 짜도 그렇게 맛이 없습니다.}

10512 # 이 이런 다:: 곡식또 다 빈해뿐심니더.{이 이런 다 곡식도 다 빈해버렸습니다.}

10512 # 콩도 엔날 콩이 익꼬예.{콩도 옛날 콩이 없고요.}

10512 # 엔나레는 그래 모듬 엔날 곡시기 마시 이서썸니더.{옛날에는 그래 모두 옛날 곡식이 맛이 있었습니더.}

10512 @ 예, 그럼 여르메는 어떤 반차늘 해 잡삼습니꺼?(그럼 여름에는 어떤 반찬을 해 잡수셨습니까?)

10512 # 여르메 언자 추:웁 그래 오이도 매꾸글 타고.{여름에 인제 주웁 그래 오이도 냉국을 만들고.}

10512 # 그래 머머 매꾸꺼리 이스마 모도 매꾸글 타고.{그래 뭐 냉국거리 있으면 모두 냉국을 만들고.}

10512 # 인나레 머어 이설습니꺼.{옛날에 뭐 있었습니까.}

10512 # 호박 저어를 모도 수늘 송구어 노오마.{호박 저것을 모두 순을 심어 놓으면.}

10512 # 호바기: 썩꼬치라꼬 뽕니더.{호박이 수꽃이라는 것이 뽕니다.}

10512 # 예, 암꼬튼 호박 데능기이고.{예, 암꽃은 호박이 되는 것이고.}

10512 # 썩꼬튼 호바기 안 뽕니더, 예예.{수꽃은 호박이 되지 않습니다.}

10512 # 그걸:르 언자 이래 푹푹푹푹 마~이 송구나코 꺾껴다가 그 너를 요래 까뿌고.{그것을 인제 이렇게 푹푹푹푹 많이 심어놓고 꺾어다 그것을 이렇게 까버리고.}

10512 # 고거르 뜨으 엉거리이다 푹 찌가지고.{그것을 또 엉거리에 푹 찌가지고.}

10512 # 예예 고구웁또 매꾸글 타고.{예 그것도 냉국을 만들고.}

10512 # 가지도 매꾸글 타고, 여르메마.{가지도 냉국을 만들고, 여름에만.}

10512 # 주루 매꾸글 타고 그래 모두 바블 자시고.{주로 냉국을 만들고 그렇게 모두 밥을 잡수시고.}

10512 # 헨나레는 물도 이런 무리 이십니꺼.{옛날에는 물도 이런 물이 있습니까.}

10512 # 점:부 새매가서 막빠로 여다가.{전부 우물에 가서 막 바로 여다가.}

10512 # 참:: 차무리라꼬.{참 찬물이라고.}

10512 # 바블 마라가지고 그래 언자 저스물 자시고.{밥을 말아서 그렇게 인제 점심을 잡수시고.}

10512 # 그여 마야 수리 주루 언자 술 한잔씩 자시고.{그래 뭐 술을 주로 인제 술 한잔씩 잡수시고.}

10512 # 그래 마 참 수를 모두 조아해습니더.{그래 뭐 참 술을 모두 좋아했습니다.}

10512 # 그그 아이마 허리가 안 일라~이.{그것 아니면 허리가 일어나지 않으니.}

10512 @ 말씀니더, 허리가 ***.{맞습니더, 허리가 ***.}

10512 # 우:리드른 머 이래 농사르 마~이 지잉께.{우리들은 뭐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10512 # 엔나레는 보리로 사뱅말씩 오뱅말씩 해애썸니더.{옛날에는 보리를 사백말씩 오백말씩 했습니다.}

10512 # 그기:로 참::부 일 그때느 일소~이 마내서.{그것을 전부 일 그때는 일손이 많아서.}

10512 # 엔나레 우리 농사 지을째느 일소~이 마내가지고예.{옛날에 우리 농사 지을 적에는 일손이 많아서요.}

10512 # 싹 얼마 안 조:도 와서, 도르께 아십니꺼?(싹 얼마 안 쥐도 와서, 도리께 아십니까?)

10512 @ ***, 요: 배아습니더.{****, 요기에서 배웠습니더.}

10512 # 그그를 모도 맨드러가지고 향:거스 맨드러가:.{그것을 모두 만들어가지고 많이 만들어서.}

10512 # 우리 저거 어르~이 그그르 향:거스 맨드러노마.{우리 애들 어른이 그것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10512 # 그걸 점:부 일꾼드리 일고 여드리.{그것을 전부 일꾼들이 일곱 여덟이.}

10512 # 그으 도르께르 가아 보리르 뚜디리마 하루 뱅말씩 뚜디립니더, 그래도.{그 도리께를 가지고 보리를 두드리면 하루 백말씩 두드립니다, 그래도.}

10512 # 그래 그래가여 그래 뚜디리서 사오백 사오십 비엔말 저게 보리로.{그래 그렇게해서 그렇게 두드려서 사오백 사오백말 저기 보리를.}

10512 # 사오백말 해심니더.{사오백말 했습니다.}

10512 # 그래가까 저건 모더 공부 씨인데 모더 보태고.{그래가지고 자기들 모두 공부 시키는 데 모두 보태고.}

10512 # 머: 이 저:게 지배서느 하도 몬하고예.{뭐 이 저기 집에서는 하지도 못하고요.}

10512 # 저:: 드레다가 노네다가 마장을 따까가지고.{저 들에다가 논에다가 마당을 닦아가지고.}

10512 # 그:다가 마당을 따까서 드레서 모도 보리를 뿌드리고.{거기다가 마당을 닦아서 들에서 모두 보리를 두드리고.}

10512 # 그: 보리가 종뉴도 여러가짐니더.{그 보리가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10512 # 안즌배~이 보리 익꼬.{얹은뱅이 보리 있고.}

10512 # 무어 여러가지 이래 종눌: 송구는데.{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종류를 심는데.}

10512 # 지:일 마시 조코 조은 보리느 봄보리가 이심니더.{제일 맛이 좋고 좋은 보리는 봄보리가 있습니다.}

10512 # 봄보리를 송구노마 가시레 송구가:꼬 보메 이래 비마 똑:: 나락꺼썸니더.{봄보리를 심어놓으면 가을에 심어가지고 봄에 이렇게 베면 꼭 벼 같습니다.}

10512 # 이런 우리 나락맨치러 노::라~이 싸로옴하~이 이래 테:눔:.{이런 우리 벼같이 노랑게 ??하게 이렇게 되면.}

10512 # 그 보리르 비:서 쥘어서 바블 하마 그래 바비 조습니더 예.{그 보리를 베어서 쥘어서 밥을 하면 그렇게 밥이 좋습니다.}

10512 # 그래가: 그 그그 보리로 바블 해묵꼬.{그렇게 해서 그 보리로 밥을 해 먹고.}

10512 # 그 보리르가: 웅:가 음스글 다 하고예.{그 보리를 가지고 온갖 음식을 다 하고요.}

10512 # 웅:간 음서글 다하고 모더 그래 안 사람습니꺼.{온갖 음식을 다 하고 모두 그렇게 살았잖습니까.}

10512 # 엔나레느 살 마~이 안 씨썸니더.{옛날에는 살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10512 # 그그 머: 식구 마는 사람 머: 우리드른 농사르 마~이 지잉게네 쌀도 마~이 머건찌 마는.{그 뭐 식구 많은 사람 뭐 우리들은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쌀도 많이 먹었지마는.}

10512 # 머 농사 쪼깨~이석 진는 사람드른 머 비료도 억꼬.{뭐 농사 조금씩 짓는 사람들은 뭐 비료도 없고.}

10512 # 머: 수확 내애썸니꺼?{뭐 수확냈습니까?}

10512 # 이 이래가 쪼매석 농사지가:꼬 모두 살고.{이 이렇게 해서 조금씩 농사 지어가지고 모두 살고.}

10512 # 머: 우리느 농사로 마:~이 해썸니더.{뭐 우리는 농사를 많이 했습니다.}

10512 # 그래가저고 논도 마내심니더.{그래서 논도 많았습니다.}

10512 # 머 영감 할마~이 끝빠더 머어가지고 이 또 논 한 도개~이 사마.{뭐 영감 할마니 ??? 모아가지고 이 또 논 한 도가리 사면.}

10512 # 또 머꼬 올 올 삼둥 머 장만해 모다서 노를 사마 또 한 도가리 사고 한 도가리 사고.{뚜 뭉 그 해 삼둥에 장만해 모아서 논을 사면 또 한 도가리 사고 한 도가리 사고.}

10512 # 논 노니 한 이십 마지기 데에심:더.{논 논이 한 이십 마지기 됐습니다.}

10512 # 예 이래 사람 이거 사는 이리에 뽕녀~이 안 땀니더.{예 이렇게 사람 이것 사는 일 이요 백년이 안 됩니다}

10512 # 참:심니더.{잠시입니다.}

10512 # 그래 머 어:능새 어영가네 고마 마 다 늘거뿌고.{그래 뭉 어느새 순식간에 다 늙어 버리고.}

10512 # 어 어 그 전답 우리는 머 머: 아:들 공부씨이고.{어 그 전답 우리는 뭉 뭉 애들 공부시키고.}

10512 # 고마 저거 머: 머어 장개 디리고.{그만 애들 뭉 장가들이고.}

10512 # 머 그래 그래 어르니 다 업썰고 가썰니더.{뭉 그래 그래 어른이 다 없애고 갔습니 다.}

10512 # 그래 마 나르 한 도개~이 언자 묵꼬 사라고 나:뚜고.{그래 뭉 나에게 한 도가리 인 제 먹고 살라고 놓아 두고.}

10512 # 그래 가썰니더.{그렇게 갔습니다.}

10512 # 그: 그에 그래 사~잉께네 요근 마~이 바알심:더.{그 그래 그렇게 사니까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10512 @ 어머~이 그럼 언자 아까 여름반찬 말씀하식꼬예:.{어머니 그럼 인제 아까 여름반 찬 말씀하셨고요.}

10512 @ 가으레 가시레는 머슨 반찬늘 해 잡살습니꺼?(가을에 가을에는 무슨 반찬을 해서 잡수셨습니까?)

10512 # 가시레:넌자 뽕추가 안 나옴니꺼, 예.{가을에는 인제 배추가 나오잖습니까, 예.}

10512 @ 그걸 배추가꼬 우썰 함니꺼?(그것 배추가지고 어떻게 함니까?)

10512 @ 반찬 맨드러야 텔꺼 아임니까?(반찬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10512 # 가시레는 뽕추가 나오는데.{가을에는 배추가 나오는데.}

10512 # 여름에도 우리들 절물썰는 바테다 명:을 송건심니더.{여름에도 우리들 쭉을 때는 발 에다 목화를 심었습니다.}

10512 # 바테다 명을 송구마 바틀 여나암마지이썰 송구마.{발에다 목화를 심으면 여남은 마 지기썩 심으면.}

10512 # 그으 명이 드문드문하~이 이래 서는 때미로.{그 목화가 드문드문하게 이렇게 서기 때문에.}

10512 # 그 드문데다가 뽕추씨를 갠따 송굽니더.{그 드문 데에다 배추씨를 가져다 심습니 다.}

10512 # 그 배추가 그래 잘 땀니더, 예예.{그 배추가 그렇게 잘 됩니다, 예.}

10512 # 그래 언자 명 바테 송군 뱍추가 건찌리르 해나:모 그리 마시 인씨예, 예.{그래 인제 목화 밭에 심은 배추가 곱질을 해 놓으면 그렇게 맛이 있어요, 예.}

10512 # 그래가지고 그으 언자 그 뱍추로 가을까지 묵습니더, 명바테 뱍추가.{그렇게 해서 그 인제 그 배추를 가을까지 먹습니다, 목화밭의 배추가.}

10512 # 그라:만자 새로 언잔 가을 뱍추로 송구노마 아리 양꼬.{그러면 인제 새로 인제 가을 배추를 심어놓으면 알이 차고.}

10512 # 명바테 배추는 아리 안 양꼬.{목화밭에 배추는 알이 차지 않고.}

10512 # 크은 자꾸 까리다가 묵꼬.{자꾸 숨아다가 먹고.}

10512 # 보드랍꼬 마시 이십니더.{보드랍고 맛이 있습니다.}

10512 # 그래 마시 인순땡 묵꼬 사렐찌.{그래 맛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았지.}

10513 @ 어머~이 짐장도 하섣쑤떠까?{어머니 짐장도 하셨습니다까?}

10513 # 짐장 하기려예.{짐장 하고말고요.}

10513 # 짐장 그 마는 식꾸에 작끼 해가: 묵꼬 삼니꺼.{짐장 그 많은 식구에 작게 해서 먹고 삼니까.}

10513 @ 그 짐장 그오 쫘 말쑤 좀 해주, 그 아재믹겐네예.{그 짐장 그것 좀 말쑤 좀 해주, 그 아주 재미있겠네요.}

10513 # 크래 언자 뱍추를 키아마예.{그래 인제 배추를 키우면요.}

10513 # 비료를 조가지고.{비료를 주어서.}

10513 # 뱍추기이다 비료를 조가아.{배추에다 비료를 줘서.}

10513 # 엔나레는 위도 송곤습니더.{옛날에는 참외도 심었습니다.}

10513 # 몬사는 사람 위도 송구가저고.{몬사는 사람은 참외도 심어가저고.}

10513 # 위마글 직꼬.{원두막을 짓고.}

10513 # 위루 시머가저고예.{참외를 심어가저고요.}

10513 # 그따다 모돈 구디기 물로 퍼버가지고 그래 위로 송곤찌예.{거기다 모두 똥오줌 물을 퍼 부어서 그렇게 참외를 심었지요.}

10513 # 그래마 엔나레 머 그으 채수르 송구노마.{그렇게 하면 옛날에 뭐 거기에 채소를 심어 놓으면.}

10513 # 채도가 오른다 양캄니꺼.{채독이 오른다고 하잖습니까.}

10513 # 도기 오른다 양캄니꺼.{독이 오른다고 하잖습니까.}

10513 # 이래도: 지끄므은 머 전부: 비료마 조오서 키우~잉께네.{이래도 지금은 뭐 전부 비료만 줘서 키우니까.}

10513 # 그으 도기 업습미더.{거기에 독이 없습니다.}

10513 # 도기 억꼬.{독이 없고.}

10513 # 그래 마 짐장도: 우리들 머어 저거 키우고 농사 직꾸 할 때는.{그래 마 짐장도 우리들 뭐 애들 키우고 농사 짓고 할 때는.}

10513 # 짐장도 억수업시 해:습미더.{짐장도 아주 많이 했습니다.}

10513 # 주루 머어 짐치를 마~이 다마야 데고.{주로 뭐 김치를 많이 담아야 되고.}

10513 # 청국장을 마~이 다마야 데고.{청국장을 많이 담아야 되고.}

10513 # 삼동내:청국장 묵고.{삼동내 청국장 먹고.}

10513 @ 김치: 종류도 머어 여러가지 안 인습니까 배추 **. {김치 종류도 뭐 여러가지 안 있 습니까 배추 **.}

예에, 여러가지입니다.{예, 여러가지입니다.}

10513 @ 무시르 가야도 할끼고.{무를 가지고도 할 것이고.}

10513 # 그담메 머어 물김치도 인습끼고 여러가지인데.{그 다음에 뭐 물김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인데.}

10513 @ 고오.{그것.}

여러:가지입니다.{여러 가지입니다.}

@ 김치 다믄거: 짐장 고고 쪼끔 말썸 쫘 더 해주이소.{김치 담그는 것 짐장 그것 조 금 말썸을 쫘 더 해주십시오.}

10513 @ 김치 우째 답습니까?{김치 어떻게 답습니까?}

10513 @ 머어 적갈 너어가지고: 치대기도 하고: 머어 여러가지 안 일***.{뭐 짓갈 넣어가지 고 치대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X있잖습니까.X]}

저갈 여어가지고 지끄른.{짓갈 넣어가지고 지금은.}

10513 # 우리드른 메르치 생 메르치를 마~이 산습니다.{우리들은 멸치 생멸치를 많이 샀습 니다.}

10513 # 생메르치르 마~이 사가주고.{생멸치를 많이 사가지고.}

10513 # 그거를 도게다 한: 독씩 저들 다마노마.{그것을 독에 한 독씩 짓을 담귀놓으면.}

10513 # 그기: 푸욱:: 사가가지고.{그것이 폭 삭아서.}

10513 # 이래 보메 다마나마 가시레마예.{이렇게 봄에 담귀놓으면 가을이면요.}

10513 # 이리 이리: 저스마아 하알 누::루~이 무억 궁무리 허파알 함니더.{이렇게 이렇게 저 으면 누런 뭐 국물이 흥건합니다.}

10513 # 참 마시이시임더, 그기:{참 맛이 있습니다, 그것이.}

10513 # 그래 다마가지고 그따다가 언자 꼬치칼리하고 마늘하고 마:악: 만닌능거럽 언잔 푸 러가지고.{그렇게 담귀서 거기다 인제 고추가루와 마늘과 뭐 맛있는 것을 인제 풀어 서.}

10513 # 그래 찹쌀러 푸를 끼리고 이래가아꼬.{그래 찹쌀로 풀을 끓이고 이렇게해서.}

10513 # 그래 후리가아꼬.{그렇게 뿌려서.}

10513 # 짐치르 다마노오마 그 짐치가 그래 마시 이십니더.{김치를 담귀놓으면 그 김치가 그렇게 맛이 있습니다.}

10513 # 지이르 다머마.{김치를 담그면.}

10513 # 근내 뱍추는 그래 지이르 당고.{그래 배추는 그렇게 김치를 담그고.}

10513 # 언잔 무시는 또 동짐치르 당고.{인제 무는 또 동치미를 담그고.}

10513 # 동침치가 머이고 하마 무시 온 뿌리~이.{동치미가 뭔가 하면 무 온뿌리.}

10513 # 온뿌리~이 이래 키워가지고.{온 뿌리를 이렇게 키워서.}

10513 # 엔나레는 꼬치:푸리로.{옛날에는 고춧잎을.}

10513 # 꼬치푸리도 지금 아무 그렇거 업심니더.{고춧잎도 지금 아무 그런 것 없습니다.}

10513 # 꼬치푸리도 아:무 말또 옥꼬.{고춧잎도 아무런 맛도 없고.}

10513 # 꼬치푸리르 삭카논마 보들보들보들항기: 꼬치푸옥 그리 마시 이심니더.{고춧잎을 삭
혀놓으면 보들보들보들한 것이 고춧잎이 그렇게 맛이 있습니다.}

10513 # 그걸: 언자 동침치캥 크 썩겨서.{그것을 인제 동치미와 섞어서.}

10513 # 동침치를 다마노마예 한:독씩 다마나마.{동치미를 담귀놓으면 한 독씩 담귀놓으면.}

10513 # 기으레 어찌키이 쓰은튼지.{겨울에 어찌나 (맛이) 시원하던지.}

10513 # 그거 마아 한:사라꾸 퍼다묵꼬.{그것을 마 한사코 퍼서 먹고.}

10513 # 아 예, 이 무시도 이 쪽:쪽 짜개노마 그리이 마시 이심니더.{예, 이 무도 이 쪽쪽 쪼
개놓으면 그렇게 맛이 있습니다.}

10513 # 무울까: 업서 그러통가 그래 마시 이십떠더, 그때는.{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던지 그
렇게 맛이 있습니다, 그때는.}

10513 # 그래 모더 저어가 그래 내:다 묵꼬.{그래 모두 자기네들이 그렇게 꺼내어 먹고.}

10513 # 그래그으코 인자 또 또 어른들 기시는 사람드른.{그래 그렇고 인제 또 또 어른들
계시는 사람들은.}

10513 # 또 무시로 호바게다가 쿵 쿵 쪼어서 뿌사가지고.{또 무를 확에다 쿵 쿵 쪼어서 부
썰가지고.}

10513 # 그래 인자 불그리::하~이 꼬추깎리를 여어서.{그래 인제 불그레하게 고춧가루를 넣
어서.}

10513 # 마늘 여코.{마늘 넣고.}

10513 # 마늘또 이전 마느른 마시 이심니더.{마늘도 이전 마늘은 맛이 있습니다.}

10513 # 이런데 지금 마느른 마시 업씨예.{이랬는데 지금 마늘은 맛이 없어요.}

10513 # 그래가지고 언자 어른들 디린다꼬 한: 독씩 당고.{그렇게 해서 인제 어른들 드린다
고 한 독씩 담그고.}

10513 # 엔나레는 모도 주글 마~이 끼릴썸니더.{옛날에는 모두 죽을 많이 끓였습니다.}

10513 # 예예, 느랄라꼬.{예, 늘리려고.}

10513 # 그래 언자 무시이파리도 보드라운거로.{그래 인제 무잎도 보드라운 것으로.}

10513 # 불그리::하~이 다마서 그래 날:따가.{불그레하게 담귀서 그렇게 놓아뒀다가.}

10513 # 그런자 국시기 나주로 끼립니더.{그러면 인제 김치죽을 낮으로 끓입니다.}

10513 # 끼니마 그거러 한 바가치스 여어서 끼리마.{끓이면 그것을 한 바가지씩 넣어서 끓
이면.}

10513 # 이 씨언코 그게 그래 마시 일떼예.{이 시원하고 그것이 그렇게 맛이 있네요.}

10513 # 지금 머슨 마시 일심미꺼.{지금은 무슨 맛이 있습니까.}

10513 @ 국시기가 됩니까?{국시기가 됩니까?}

10513 # 구우시이로 언자 싸를 여코.{국시기는 인제 쌀을 넣고.}

10513 # 싸를 여코 그래 저:기 그은 김치푸리르 여코.{쌀을 넣고 그래 저기 그 김치있을 넣고.}

10513 # 그래 끼리노오마 씨언:하고 그래.{그렇게 끓이면 시원하고 그래.}

10513 # 싸리 따꼼따꼼하~이 그래 마시 이심미더.{쌀이 따끈따끈한 것이 그렇게 맛이 있습니다.}

10513 # 나주루예 그래 항그룩 묵꼬나마 치부우 허어영 니이고.{낮으로요 그렇게 한 그릇 먹고 나면 추위가 확 놓이고.}

10513 # 고고마 쌀마가지고.{고구마 삶아서.}

10513 # 이구 우리는 고구마도 마~이 헐심니더.{이 우리는 고구마도 많이 했습니다.}

10513 # 어째웁습니까, 고구마?{어떻게 했습니까, 고구마?}

10513 # 고구마르 바틀 서마지기씨어 송구씨임더, 저거 키울 쟈게.{고구마를 밭을 세 마지기 씨 심었습니다, 애들 키울 적에.}

10513 # 바틀 서마지기씨어 고구마를 송구노오마.{밭을 세 마지기씨 고구마를 심어 놓으면.}

10513 # 저거 학교 보내노코 이 가실때르 막 그거를 추른 캐마아.{애들 학교 보내놓고 이 가을에 막 그것을 줄을 캐면.}

10513 # 요오즌 자잔하~이 요래 캐서.{요기에 자잘하게 이렇게 캐서.}

10513 # 뿌둑뿌둑 씹꼬마 껌디~이 헐떡 버어집니다.{뿌도둑뿌도둑 씹으면 껌질이 헐떡 벗겨집니다.}

10513 # 감자맨치러.{감자처럼.}

10513 # 그너를 서말찌 소테다가 한: 술 쌀마마.{그것을 세 말짜리 술에 한 술 삶으면.}

10513 # 저거 학교 갈따올 따네 와서 머어라꼬.{애들 학교 갔다 올 동안에 와서 먹으라고.}

10513 # 그래가: 쌀마 노:마.{그렇게 삶아 놓으면.}

10513 # 툃툃툃툃툃 바라징기: 그 고구마아 그리 마시 이심니더.{툃툃툃툃툃 벌어진 것이 그 고구마가 그렇게 맛이 있습니다.}

10513 # 그래가:꼬 그긴 그으 고구마 서마지기 송궁거: 저거가 다 묵꼬.{그렇게 해서 그 고구마 세 마지기 심은 것 자기들이 다 먹고.}

10513 # 머어 무글까: 이심미꺼.{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10513 # 주루 감 묵꼬.{주로 감 먹고.}

10513 # 감낭기 마내서 감 묵꼬.{감나무가 많아서 감 먹고.}

10513 # 감도 이전 저어 떨깜 그기: 그래 마시 익꼬예.{감도 이전 저기 뽕은감 그것이 그렇게 맛이 있고요.}

10513 # 지금 단감 마덱심니더.{지금 단감 맛없습니다.}

10513 # 지금 마신능거 업심니더.{지금 맛있는 것 없습니다.}

10513 # 전::치 야글 조오서 그런능강.{전부 약을 줘서 그런지.}

10513 # 마신능거 업시미이더.{맛있는 것 없습니다.}

10513 # 고거마도예 그때쫘치는 머어 종자도 이전 조순고구마 먼.{고구마도요 그때즈음은
뭐 종자도 이전 조선고구마 뭐.}

10513 # 머: 요새는 머: 마신포 안하끼구마는.{뭐 요새는 뭐 맛있지도 않을 것이다.}

10513 # 그런는데 그 고구마르 쌀마나마 아아드리 그리 잘 묵꼬.{그랬는데 그 고구마를 삶
아놓으면 애들이 그렇게 잘 먹고.}

10513 # 그래 모더 커심니더.{그렇게 모두 컷습니다.}

10513 # 호박또 마~이 송구고.{호박도 많이 심고.}

10513 # 그래 그때쫘친 다 그래 사란는데.{그래 그때 즈음에는 다 그렇게 살았는데.}

10513 # 지끄른 다:: 조용기지 마내서.{지금은 다 좋은 것이 많아서.}

10513 # 조용굼만 묵꼬 안 삼니꺼.{좋은 것만 먹고 살잖습니까.}

10514 @ 어머~이 저어 간장도 그으.{어머니 저 간장도 그.}

10514 @ 간장 텡장 이렇건또 당가바시 보셜습니꺼?{간장 된장 이런 것도 담겨보셨습니까?}

10514 # 그러건또 전:부 소느로 다마가지고 다 안 묵꼬 사람심니꺼.{그런 것도 전부 손으로
담귀 가지고 다 먹고 살았잖습니까.}

10514 # 엔날 쿵: 모도 엔날 쿵: 시머가지고.{옛날 쿵 모두 옛날 쿵 심어가지고.}

10514 # 그래 간장 던장을 카안 도글 하나 다마가지고.{그래 간장 된장을 큰 독으로 하나
담귀 가지고.}

10514 # 그래 그 장 모도 돌시켜징 다 묵꼬.{그래 그 장 모두 돌(일년)까지 다 먹고.}

10514 # 던장도 다 묵꼬.{된장도 다 먹고.}

10514 # 그 사래미 마느~이 머어 마:~이 묵꼬 사람심니더.{그 사람이 많으니 뭐 많이 먹고
살았습니다.}

10514 # 그뎨 머 식꾸도 망코.{그때는 뭐 식꾸도 많고.}

10514 @ 간장을 우째 다말습니꺼?{간장을 어떻게 담겼습니까?}

10514 # 머어 저어 장은 언자 그래 미주를.{뭐 저 장은 인제 그래 메주를.}

10514 # 하~아 서말지 소테다 한:: 소슬 이리 끼리내아, 밋 소틀 끼리가지고.{세 말짜리 술
에다 한 술을 이렇게 끓여 내어, 몇 술을 끓여 가지고.}

10514 # 그거르 언자 그으 이기 엔나레는 디들뽕아가 이쨌심니더.{그것을 인제 그 이 옛날
에는 디덜방아가 있었습시다.}

10514 # 쿵:쿵 쨌~어가지고 덩거리가 지도록 쨌어가지고.{쿵 쿵 쨌어가지고 덩어리가 지도
록 쨌어 가지고.}

10514 # 그래 그거르 언자 미주뚜레 직 요새에도 미이진 이일 덩거리 안 함니꺼.{그래 그것
을 인제 메주틀에 요새에도 메주 이 덩어리 만들잖습니까.}

10514 # 그리이 그래 해가지고 그런:자.{그것을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인제.}

10514 # 설 아래 캐에서 설 시고 설 시고나머 담심니더.{설 아래 캐서 설 쇄고 설 쇄고 나
면 담급니다.}

10514 # 포옥 떠가: 익꺼등 미이주.{폭 떠서 있거든 메주.}

10514 # 떠가: 이스마 그얼 그래 막 콩 너말스으 단:말스 모도 그래 다맡습니다.{떠서 있으면 그것을 그래 뭐 콩 네 말씩 다섯 말씩 모두 그렇게 담겼습니다.}

10514 # 그래 다르마 그으 장이 그래 달고 이인데.{그렇게 담그면 그 장이 그렇게 달고 이렇는데.}

10514 # 요시이느 안 마시버예.{요새는 맛없어요.}

10514 # 엔날매리 안 마십.{옛날처럼 맛있지 않아요.}

10514 @ 엄, 텐장은 또오 어쨌 그으 간장 다마나코 텐장은 또 우쨌?{어머니, 된장은 또 어떻게 그 간장 담귀놓고 된장은 또 어떻게?}

@ 그래언자 간장은.{그래 인제 간장을.}

10514 # 된장은 언자 간자~아 그으서 나옵니다.{된장은 인제 간장 거기서 나옵니다.}

10514 # 간장을 이래 된장을 따라뿌마 간장이 미테 나로**.{간장은 이렇게 된장을 따라버리면 간장이 밑에 ****.}

10514 # 미테 이래 무리 데가: 인시미더.{밑에 이렇게 물이 되어 있습니다.}

10514 # 그걸 간장을 묵꼬.{그것을 간장으로 먹고.}

10514 # 된장은 언자 건지서 꺽꺽 누질 다마노머 누::러~이 항궁거치 그런능거.{된장은 인제 건지서 꺽꺽 눌러서 담아 놓으면 누런 황금같이 그런 것.}

10514 # 그래 삼도~에 그 녀م 청국짱을 떠아가지고 그래 썩꺼서.{그래 삼동에 그것 청국장을 띄워가지고 그렇게 섞어서.}

10514 # 그으 기여레에 그등 그래 다마나마 얼마나 잘 묵십니다 이런는데.{그 겨울에 그렇게 담겨 놓으면 얼마나 잘 먹습니다 이랬는데.}

10514 # 요시이느 그렇겐또 안 해 묵꼬.{요새는 그런 것도 해먹지 않고.}

10514 # 요신 똑 조용겐만 묵꼬.{요새는 똑 좋은 것만 먹고.}

10514 # 애애기도 할 꺼 업시미더, 이전 사덩 건.{애기도 할 것 없습니다, 이전 살던 것.}

10515 @ 그으 혹시 그개 적갈도 하먼 다마보셜습니까?{그 혹시 거기 젓갈도 한 번 담귀보셨습니까?}

10515 @ 적까른 어떻게 이셜습니까?{젓갈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10515 # 적갈린 미르치도 다르마 데고.{젓갈은 멸치도 담그면 되고.}

10515 # 인자 새 조구 새끼.{인제 새 조기 새끼.}

10515 # 그렇겐또 다마마 데고.{그런 것도 담그면 되고.}

10515 # 그래 인자 나매서 실꼬 오마.{그 인제 남해에서 싣고 오면.}

10515 # 인자 하꾸러 사가지고 한 하쿠서 사가:꼬.{인제 상자로 사가지고 한 상자씩 사가지고.}

10515 # 예, 단지 한: 단지스 다마나마.{예, 단 한 단지씩 담귀놓으면.}

10515 # 그랜자 푸옥 사가가 그기: 김치를 다마머 그리 마식꼬.{그래 인제 폭 삭혀서 그것이 김치를 담그면 그렇게 맛있고.}

10515 # 그으 모 모오 온간떼에 다 묵심니더 적까를, 미르치적까를.{그 뭐 뭐 온갖 곳에 다 먹습니다 젓갈을, 멸치젓갈을.}

10515 # 그리 밀치이 적까리 드러야 모도 마시 익꼬 그런심:더.{그렇게 멸치젓갈이 들어가야 모두 맛이 있고 그렇습니다.}

10515 # 그런:데 요새는 절른 사암들 그렇건또 안 묵심떠더.{그렇는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 그런 것도 먹지 않습디다.}

10515 # 머어슬 몽능고 머어 딘장 간장도 안 묵꼬예.{무엇을 먹는지 뭐 된장 간장도 먹지 않고요.}

10515 # 그를 저거는 안 무구도.{그것을 자기들은 안 먹어도.}

10515 # 나는 예든 묵든 그 버르시 데서 근능강.{나는 예전에 먹던 그 머룻이 돼서 그런지.}

10515 # 딘장을 떠 무뎈: 잘 너머가고.{된장을 떠 먹으면 잘 넘어가고.}

10515 # (웃음) 근 내 혼차 딘장도 찌지묵꼬.{그래 나 혼자 된장도 지저먹고.}

10515 # 머어 간장도 내가 여어가 묵꼬.{뭐 간장도 내가 넣어서 먹고.}

10515 # 그 그래 묵심미더.{그 그렇게 먹습니다.}

10515 # 우리 머느리는 머 전볼 짐:부 사다 묵꼬 조용거 묵꼬.{우리 머느리는 뭐 전부 사다 먹고 좋은 것 먹고.}

10515 # 그렇거어 안 무우예, 장도 안 무우.{그런 것 안 먹어요, 장도 안 먹어.}

10515 # 그렇기 머이 이정말 그 할끼 이심미꺼, 입또 닥 틀리는데.{그러니까 뭐 이적말(이전 말) 그것 할 것이 있습니까, 입도 다 틀리는데.}

10516 @ 아까 찌 어머~이 저어 누룩각꼬 술 당구능거 말쓰를 해주신크든예.{아까 저 어머 니 저 누룩가지고 술 담그는 것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10516 @ 그으 또 세무서:서 술 디비로 오모 또 송카능거 마슴도 해주션는데예.{그 또 세무 서에서 술 뒤지러 오면 또 숨기는 것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10516 @ 그 수를 그으 그게: 막걸림니까?(그 술을 그 그것이 막걸리입니까?)

10516 @ ** 그 머라 그랜습**?(** 그것을 뭐라고 그렸습니까?)

예, 그기 막걸림니더, 예.{예, 그것이 막걸리입니다, 예.}

@ ** 막걸림니까?(** 막걸리입니까?)

10516 @ 그러머 막걸리 말고예.{그러면 막걸리 말고요.}

10516 @ 또 머어 이 동네에서 또 당군 수리 또 일습니꺼?(또 뭐 이 동네에서 또 담근 술이 또 있습니까?)

10516 @ 예를 드러서 엔날.{예를 들어서 옛날.}

예:, 술도 여러 종뉴 아임니꺼.{예, 술도 여러 종류 아닙니까.}

@ 예.{예.}

10516 @ 고고 말씀 쯔 해주이소.{그것 말씀 쯔 해주십시오.}

10516 # 수를 엔자 큰이리나 치마.{술을 인제 큰일을 치르면.}

10516 # 잔치를 하마.{잔치를 하면.}

10516 # 내가 마 수를 싸를 마 한말씩 두말씩 이래 꼬두바블 찌가지고예.{내가 뭐 술을 쌀
을 뭐 한 말씩 두 말씩 고두밥을 찌서요.}

10516 # 그거를 큰:: 도게다 한:: 독 해여습니더.{그것을 큰 독에다 한 독 해 넣습니다.}

10516 # 해여:마: 이 수를 잔치 썰라카마 또 떠야데고 큰 사~아다 보내야데고, 이런머리.{해
넣으면 이 술을 잔치에 쓰려고 하면 또 떠야하고 큰 상에 보내야 하고, 이렇기 때문
에.}

10516 # 한:: 독써 이래 그진 누루굴 조금 지름니더.{한 독씩 이렇게 그진 누룩을 조금 흘습
니다.}

10516 # 누루굴 조금 질리가 한 이십빌 정도.{누룩을 조금 흘어서 한 이십일 정도.}

10516 # 차나락 지풀 탁: 추리부구 매에 썩꺼뿌고.{찰벼 짚을 탁 추려서 깨끗이 씻어버리
고.}

10516 # 한::쑤 쌀마가지고 그 무레다가.{한 술 삶아서 그 물에다.}

10516 # 청주르 답습니더.{청주를 담급니다.}

10516 # 그래 다마마예.{그렇게 담그면요.}

10516 # 이 술립또 쭈 여코, 구카에도 구카꼐또 쭈 여코.{이 술잎도 쭈 넣고 국화도 국화꽃
도 쭈 넣고.}

10516 # 그래가: 다마노마 한 이십빌 데마예 이리 제끼고 이 대:용시라고 이십미더.{그렇게
담귀놓으면 한 이십일 되면요 이렇게 젓히고 이 대용시라고 있습니다.}

10516 # 엔나레 대:용시라고 장도 뜨고 폭 질러가지고.{옛날에 대용시라고 장도 뜨고 폭 질
러가지고.}

10516 # 그걸가따가 단 그거 단지 지리대로 폭 질러노오마.{그것을 가지고 단(지) 그것 단지
길이대로 폭 질러놓으면.}

10516 # 노 노::라~이 수리에, 전주가.{노 노랑게 술이요, 전주가.}

10516 # 누루글 마~이 안 지리~이 건디기도 마~이 억꼬.{누룩을 많이 안 흘치니 건데기
도 많이 없고.}

10516 # 노::라~이 이래 사가가 일스마{노랑게 이렇게 삭아 있으면.}

10516 # 단지를 노코 또 따라:고 따라:고.{단지를 노고 또 따르고 따르고.}

10516 # 그래 따라:마 그 청주가 그래 마시 이십미더.{그렇게 따르면 그 청주가 그렇게 맛이
있습니다.}

10516 # 그래가지고 언자 그 찌익꺼기는 걸러가주고 언자.{그렇게해서 인제 그 찌꺼기는 걸
러서 인제.}

10516 # 그 탁주를 도자 도가수를 바다다가 썩꺼가지고 그래 잔치 안 썰니꺼.{그 탁주를 술
도가 술을 받아다 섞어서 그렇게 잔치에 쓰잖습니까.}

10516 # 그래 씨구.{그렇게 쓰고.}

10516 @ 어머~이 그 소주는 안 만드러 보****?{어머니 그 소주는 안 만들어 보[X셨습니
까X]?}

소주는 안 만드려 바:심니다.{소주는 만들어 보지 않았습시다.}

10516 # 소주느예 이 수리 먹따가 보마아 실: 때가 이심니다.{소주는요 이 술을 먹다가 보면
 쉴 때가 있습니다.}

10516 # 실: 때가 이서서 그 수를 인자 소테다가 여어노코예.{쉴 때가 있어서 그 술을 인제
 술에다 넣어 놓고요.}

10516 # 소두배~이로 이래 더부시노마.{술뚜경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10516 # 이 소두병 꼭따기: 꼭따리가 엔나레 이션습니다.{이 술뚜경 꼭지 꼭지가 옛날에 있
 었습시다.}

10516 # 소둥꼭따리 이거로 이래 이리 이래 노코 요 미테다가 안자.{술뚜경 꼭지 이것을 이
 령게 이리 이렇게 놓고 이 밑에다 인제.}

10516 # 저: 그르클 놀심니다.{저 그릇을 놓습시다.}

10516 # 이래 마 대애나 이래 노:코.{이렇게 뭐 대야나 이렇게 놓고.}

10516 # 이래 소두배~이 더부시난테 그따다 불로 소::술 미테 부서케 때마.{이렇게 술뚜경
 뒤집어 놓은 거기다 불을 술술 밑에 아궁이에 때면.}

10516 # 이 이 소두배~이 무리 안 뜨심나:꺼.{이 이 술뚜경 물이 따뜻해지잖습니까.}

10516 # 무리 뜨거부마 또 같고.{물이 뜨거워지면 또 같고.}

10516 # 또 뜨검:마 같고.{또 뜨거워지면 같고.}

10516 # 소주가 차암 마시 이심니다.{소주가 참 맛이 있습니다.}

10516 # 그래 낸 소주가.{그렇게 낸 소주가.}

10516 # 그래 찌끼기는 인자 소로 주고.{그래 찌끼기는 인제 소를 주고.}

10516 # 고래 언자 소주로 고래 내가:꼬.{그래 인제 소주를 그렇게 내어가치고.}

10516 # 그 그래도 언자 소주를 내고.{그 그래게도 인제 소주를 내고.}

10516 @ 그라모 저 소두뱅 * 더부시 논는간 디비: 논단 **.{그러면 저 술뚜경 더부시 놓는
 다는 것은 뒤집어 놓는다는 **}.}

예예예, 디비시 놔.{예예예, 뒤집어 놓는.}

10516 # 예, 디비시 노마 꼭때기 요오개 요오 요 미테예.{예 뒤집어 놓으면 꼭지 여기 여기
 밑에요.}

10516 # 예, 그르게 새애 요개 예.{예, 그릇 사이 여기 예.}

10516 # 지미 서리가지고 예.{김이 서려서 예.}

@ 아 그라모 그 지미.{아 그러면 그 김이.}

10516 @ 꼭따리 따라가지고 그 미테 똑똑 떠러지네.{꼭지 따라서 그 밑에 똑똑 떨어지네.}

10516 # 그래 떠러지가: 그 수리 그리 마시 이심니다, 소주가.{그렇게 떨어져서 그 술이 그
 령게 맛이 있습니다, 소주가.}

10516 # 우리 사랑어른은 내가 그래도 그래 해드리고.{우리 사랑어른은 내가 그래도 그렇게
 해드리고.}

10516 # 이 수를 또 여러 종뉴지예.{이 술을 또 여러 종류지요.}

10516 # 찹쌀로 농사르 마~이 지잉께.{찹쌀을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10516 # 찹쌀로 언자 꼬드바블 찌가저고.{찹쌀로 인제 고두밥을 찌서.}

10516 # 깨를 언잠: 이래 한 디 감니:더.{깨를 인제 이렇게 한 되 감니다.}

10516 # 방아까네 가 드르르르 가라다가.{방앗간에 가서 드르르르 갈아다가.}

10516 # 꼬두바블 찢 찌기.{고두밥을 찢 적에.}

10516 # 다 이꾸: 나마 고 우:다 소르르르 언자 깨로 요래 흐쳐서 언저가지고.{다 익고나면 그 위에다 소르르르 인제 깨를 이렇게 흘어서 얹어가지고.}

10516 # 고래 또 폭 때:가지고.{그렇게 또 폭 (불을) 때어가지고.}

10516 # 그 인자 시카:가지고.{그 인제 식혀가지고.}

10516 # 그: 인자 시 식쿠:고.{그 인제 식히고.}

10516 # 그따:다가 언자 기랄로 한 삼식깨 사 엔나렌 사심니더.{거기다가 인제 계란을 한 삼 십개 사 옛날에는 샀습니다.}

10516 # 그래 사다가 생기랄로 깨에서 한 양푸~이 깨노코.{그래 사다가 날계란을 깨서 한 양푼 깨어 놓고.}

10516 # 그래 인자 그으 누루굴 걸러가지고 그따:다 썩꺼서.{그래 인제 그 누룩을 걸러가지고 거기다가 섞어서.}

10516 # 그: 기랄 그거강 이래 썩꺼가:꼬{거기에 계란 그것과 이렇게 섞어가지고.}

10516 # 그래 이래 한: 단지 이래 해노마예.{그래 이렇게 한 단지 이렇게 해 놓으면요.}

10516 # 참: 잘 자심니더, 그: 마신타꼬.{참 잘 잡수십니다, 그것 맛있다고.}

10516 # 그래노모 그 술 떨쨌마장 그르게 지름 아임니꺼 예.{그렇게 해놓으면 그 술 떨 때마다 그릇에 기름 아납니까 예.}

10516 # 지르미 떨쨌마장 지르미 부꼬 이렌.{기름이 떨 때마다 기름이 붙고 이랬는데.}

10516 # 그래 그 그 술로 한 그르스 잡수마 그래 조아하시덩거러예.{그래 그 술을 한 그릇 씩 잡수시면 그렇게 좋아하시던 것어요.}

10516 # 그런 때미래 내가 웅:간 술로 다 다맡심니더.{그랬기 때문에 내가 온갖 술을 다 담 았습니다.}

10516 # 술 밀:상은 안 해봉기: 업습니더.{술 ??은 해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1.7. 질병과 민간요법

1.7.1. 각종 질병과 민간요법

10701 @ 저기: 살다보면:자 머 웅간 그 머어 병가통거또 날 수 안 일습니꺼?{저기 살다보면 인제 뭐 온갖 그 뭐 병 같은 것도 날 수 있잖습니까?}

10701 @ 병이 날 수 인는데.{병이 날 수 있는데.}

10701 @ 엔나레 참 시고레서 마니 그으 발생헐편 병: 중뉴하고.{옛날에 참 시골에서 많이 발생헐던 병 중뉴하고.}

10701 @ 또 그으 머 일테머 머 고뿌리 드르메는 머 여리 나아고 머 지침도 나고 이랄꺼 아 이미꺼?{또 그 뭐 이틀테면 뭐 감기가 들머는 뭐 열이 나고 뭐 기침도 나고 이럴 것 아납니까?}

10701 @ 그래, 그런 증상, 그 다메 그으 병을 어떠케 치료헐는지 이렇거에 대해서 생각나시는대로 말씀 머어.{그래, 그런 증상, 그 다음에 그 병을 어떻게 치료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 뭐.}

10701 @ 머 피부뽕가통거는 어떻게 이션습니까, 머 그렇거 함 생각나시는대려.{뭐 피부병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뭐 그런 것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10701 @ 머 부시럼 때까리도 양꼬 이랴슬꺼 아임니까?{뭐 부스럼 딱지도 앓고 이랴을 것 아납니까?}

10701 # 머어 우리는 머 애처베 머 피부뽕가통거 그렇거는: 몰란는데.{뭐 우리는 뭐 애초에 뭐 피부병 같은 것 그런 것은 몰랐는데.}

10701 # 요즈음 애드른 그래 피부뽕이 그래 마~이 생킨다커네.{요즘 애들은 그렇게 피부병 이 그렇게 많이 생킨다고 하네.}

10701 # 그래머 우리는 칠람매르 키아도 머 피부뽕 그렇거 머 안반는데.{그래 뭐 우리는 칠 남매를 키워도 뭐 피부병 그런 것 안 봤는데.}

10701 # 그래 절물썰는예 그렇기 나산습니더.{그래 젊을 때는요 그런 것이 나곤 합니다.}

10701 # 네, 우리가 이 크나들 오월 초이튼날 생사늘 하고.{예, 우리가 이 큰아들을 오월 초 이틀에 생산을 하고.}

10701 # 그 머어 그래 머어식 그래 나산싹띠더, 그때는.{그 뭐 그래 뭐가 그렇게 나곤 합디 다, 그때는.}

10701 # 어시땀띠라쿠.{어시땀띠라고.}

10701 # 으~ 어시땀띠라 그기.{응 어시땀띠라 그것이.}

10701 @ 어시땀띠가 ****?{어시땀띠가 [X무엇입니까X]?}

예 어시땀띠래~이 엔나레 어시땀띠라예:{예 어시땀띠 옛날에 어시땀띠라요.}

10701 @ 어시땀띠가 머뽕김니까?{어시땀띠가 어떤 것입니까?}

10701 # 어시땀띠가 이래 머 얼구레 모메 이래.{어시땀띠가 이렇게 뭐 얼굴에 몸에 이렇게.}

10701 # 막 툭툭툭 마아 이래 크기: 이래 나가지고 그직 공깍띠더, 예. {막 툭툭툭 마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서 그것이 굵습디다.}

10701 # 공기가지고 그래 곱마 그라~이 곱마 그 고분 얼굴도 마 사리 푸름푸름하~이 그리 지테예, 예.{굵아서 그래 그만 그러고나니 그만 그 고운 얼굴도 뭐 살이 푸름푸름하게 그렇게 되테요, 예.}

10701 # 그래 그 그래 절물썰 그래 바알습니더, 예 머어.{그래 그 그래 젊을 때 그래 봤습니 다, 예 뭐.}

10701 # 머어 잘 생기진 몬해:도 저 얼굴은 곱다캐는데 막 그랴고나양게네 곱 푸름푸름하~
이 그러습디더.{뭐 잘 생기지는 못해도 저 얼굴은 곱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하고 나
니까 고만 푸름푸름하게 그러습디다.}

10701 # 그래 애:드른 머 부시럼 알롱겔또 몬박꼬, 우리는.{그래 애들은 뭐 부스럼 앓는 것
도 못 봤고, 우리는.}

10701 @ 고 지금 어머~이 저어 애:드리만 이 아니고: 저.{그 지금 어머니 저 애들만이 이
니고 저.}

10701 @ 동네애: 먼 더러 우리 엔나레 드리 볼수 인능겔 아닐습니까?{동네에 뭐 더러 우리
옛날에 더러 볼 수 있는 것 있잖습니까?}

10701 @ 혹시 머 버짐가통거는 업선습니까?{혹시 뭐 버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10701 @ 버지른 어떨습니까, 어떠케 생깁?{버짐은 어떻게 생깁[X니까X]?}

10701 # 버지미 버짐도 여러 종뉴 아임니까, 예.{버짐이 버짐도 여러 종류 아닙니까, 예.}

10701 @ 말씀 좀 해주이소.{말씀 좀 해주십시오.}

10701 # 이 저어게 마른버짐은 애:드리 엔날 애:드른 몬 머거서.{이 저기 마른버짐은 애들이
옛날 애들은 못 먹어서.}

10701 # 예, 그으꼬 머어 몬 머거가아꼬 애:드리 빼:작 애비가아꼬 그래가: 이래.{예, 그 그
뭐 못 먹어서 애들이 바짝 야위어서 그래서 이렇게.}

10701 # 얼굴레 두러병두러병두렁하~이 그 버짐 피일습니더.{얼굴에 두렷두렷두렷하게 그
버짐이 피었습니다.}

10701 # 예, 그건 머어 병은 아인테 잘 무머 떠 갠:찬코.{예, 그건 뭐 병은 아인테 잘 먹으면
또 괜창고.}

10701 # 그 몬 무머 그래 그으 버지미 피고.{그 못 먹으면 그렇게 그 버짐이 피고.}

10701 # 또 우 쪼 소가 키우다보마, 또 버짐 핏미더.{또 소가 키우다보면, 또 버짐이 핏니
다.}

10701 # 그거는 소가.{그것은 소가.}

10701 # 혈:떡 저어 혈떡혈떡 이래 터리~이가 버어지고.{홀딱 저 홀딱홀딱 이렇게 털이 벗
겨지고.}

10701 # 도로방도로방도로방하~이 요래 소 버짐이 핏미더.{두렷두렷두렷하게 요렇게 소 버
짐이 핏니다.}

10701 # 그래 피마는 그기: 사랑게 올라예.{그렇게 피면은 그것이 사람에게 옴아요.}

10701 # 사라미 * 소로 팔리를 하다보온게네 사랑기: 오르마.{사람이 소를 팔리를 하다보니
까 사람에게 옴으면.}

10701 # 그이 사람이 요글 봄니더.{그게 사람이 고생을 합니다.}

10701 # 예 그래 요글 보마.{예 그렇게 고생을 하면.}

10701 # 그겔또 오 애저네는 야기 이십니까?{그것도 예전에는 약이 있습니까?}

10701 # 야게 업써서.{약이 없어서.}

10701 # 소비지문 머어 개똥하고 엔나레 소금에서 빠진 간수하고.{소비집은 뭐 개똥과 옛날
에 소금에서 빠진 간수와.}

10701 # 이래가: 송어 사 이 저 사금파리다가 깨진 사금파리다.{이렇게 해서 이 저 사금파
리에 깨진 사금파리에다.}

10701 # 깨징 그르게다아 이래 노코.{깨진 그릇에다 이렇게 넣고.}

10701 # 바을바을 끼리가아 그래 소르 발라주마.{바글바글 끓여서 그것을 소에게 발라주면.}

10701 # 그이 또 낙끼도 하고{그것이 또 낫기도 하고.}

10701 # 그 사랑게 올라노모 또 이 요글 봄니더.{그 사람에게 올아 놓으면 또 고생을 합니
다.}

10701 # 온:데 번지고.{여기저기 번지고.}

10701 # 마른버지문 안 번지는데 소비지임 번집니더.{마른버짐은 번지지 않는데 소비집은
번집니다.}

10701 # 그래 사랑게 오르코.{그래 사람에게 올고.}

10701 # 그르게 역 그 버짐도 머이 여러 종놈미더.{그렇게 그 버짐도 뭐 여러 종류입니다.}

10701 @ 그으.{그.}

또 아:들 머 태열이라꼬.{또 애들 뭐 태열이라고.}

10701 # 예, 태:열이라꼬 나:노마: 어떤 지베는 그견뚜 네리미인 이 인능장:.{예 태열이라고
낱아놓으면 어떤 집에는 그것도 내림이 있는지.}

10701 # 그래 저이 그기 부스름맨치러 고마 애드리 부스름마인치러 이리 데가아꼬.{그래 저
그것이 부스름처럼 고만 애들이 부스름처럼 이렇게 되어 가지고.}

10701 # 그래 또 키우미스 요글 보는 지비 이십띠더.{그래 또 키우면서 고생을 하는 집이
있습디다.}

10701 # 구우는 언자 이래 아:가 거리야 거리야 언자 거리 땡기야 바레 때가 무더야 난는다
کمنيدي.{그것은 인제 이렇게 애가 걸어야 걸어야 인제 걸어 다녀야 밭에 때가 묻어야
낫는다고 합니다.}

10701 @ 태여른?{태열은?}

예예, 그으는 태여리라 그코.{예, 그것은 태열이라 그러고.}

10701 # 극 그런 애:들도 익꼬.{그 그런 애들도 있고.}

10701 # 이는:네: 요새:는 애드리 중 커머 구맘 모물 근질기 시작하~이.{이랬는데 요새는 애
들이 좀 커면 그만 몸을 굼기 시작하니.}

10701 # 억 우리 손자들도 보잉께네.{우리 손자들도 보니까.}

10701 # 모를 마아 근지러썰 근지라꾸마아 몬전덕 그래사꼬요, 그기: 조매가 안 나사예.{몸
을 마 굼어서 가려워서 그만 못 견뎌서 그렇게 하고요, 그것이 좀처럼 안 나아요.}

10701 # 구키 큰 걱쟁이더마는.{그게 큰 걱정이던데.}

10701 # 우리어진 이 저게 요 쌍디~이 히~이가: 우리 손자가 두리미더.{우리 이 저기 요
쌍둥이 형이 우리 손자가 둘입니다.}

10701 # 투 형제미더.{두 형제입니다.}

10701 # 고대 하나는 고등학교고 하나는 중학교고 이런썬미더.{그 하나는 고등학생이고 하나는 중학생이고 이뤘습니다.}

10701 # 인님 자근니미 이리끼버텨 자:꾸 모를 근지리고우 그사티마는.{이 높 작은놈이 어릴 때부터 자꾸 몸을 굽고 그렇게 하더니.}

10701 # 그기 안주꾸중 그 근질고.{그게 아직까지 그 굽고.}

10701 # 아 위술려도 봉게노 그르코.{아 외손녀도 보니까 그렇고.}

10701 # 인 그기: 큰이리** 큰이럼떠더.{이 그게 큰일이** 큰일입니다.}

10701 # 그럭.{그래.}

@ 오새 아아들 그 아토피 피부라 그래가지고.{요새 아이들 그 아토피 피부라고 그래가지고.}

10701 # 그으 큰*떤데.{그 큰 [X일이X]던데.}

@ 큰 도시에 아:드리 그런습니더.{큰 도시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10701 # 구구 우떠키 해에테꼬.{그것 어떻게 해야 될까.}

10701 # 그러~이 위술려는 대학 일랑년하고.{그래 외손녀는 대학 일학년 하고.}

10701 # 이 또 미구글 간다꼬 공부하러 간다꼬 그래서.{이 또 미국을 간다고 공부하러 간다고 그래서.}

10701 # 그 미국 가면 쯔 낫따커네 또.{그 미국에 가면 쯔 낫다고 하네 또.}

10701 # ** 지부 오머 또 그러타쿠고.{** 집에 오면 또 그렇다고 하고.}

10701 # 그각 크 쿵 걱정이라예.{그것 큰 걱정이에요.}

10701 # **쿵 우어디 곡꼬여 얼굴도 이뿌고 이런는데.{** ??? 곱고 얼굴도 예쁘고 이렇는데.}

10701 # 극 그러~이 이럴찌기 그런능기: 지금도 그래 안난는다 안경미꺼.{그 그래 어릴적 그런 것이 지금도 그래 낫지 않는다고 하잖습니까.}

10701 # 그으르 우째야 텔깁:고.{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10701 # 그걸.{그것을.}

@ 예, 이드름은 어떻습니까?{예, 여드름은 어떻습니까?}

10701 # 이드름은 이드름은 언자 그 한시.{여드름은 여드름은 인제 그 한.}

10701 # 한 시 시보시나 데마 이드름 안 남니꺼.{한 시 십오세나 되면 여드름 나잖습니까.}

10701 # 이 이디럼 нама 그 머어.{여 여드름이 나면 그 뭐.}

10701 # 큰뜨 이드름도 마~이 나는 사라븐 또 머 마~이 나고.{그것도 여드름도 많이 나는 사람은 또 뭐 많이 나고.}

10701 # 오 머 작게 나는 사람: 작게 나고 다 그래 남떠더.{뭐 적게 나는 사람은 적게 나고 다 그렇게 남디다.}

10701 # 우리 아:들도 보잉께네.{우리 애들도 보니까.}

10701 # 이디럼 나각꼬 머 저거꺼징 찰고 이사십떠더.{여드름 나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찌고

이렇게 해썻습디다.}

10701 @ 어터게 째니까?{어떻게 째니까?}

10701 # *** 그레 저거꺼정 분뜰고 그레 짜잉께네 머시 하항게 나온다싸꼬.{*** 그레 자기 들끼리 붙들고 그레 짜니까 뭐가 하얀 게 나온다고 하고.}

10701 # 그리 짜라싸습띠더 예.{그렇게 째곤했습니다 예.}

10701 @ 네, 혹시 또 요시 여름 데모 언자 땀띠가통거는 엔나 안나습니거, 땀띠기 산능거. {네, 혹시 또 요새 여름 되면 인제 땀띠 같은 것은 옛날에 나지 않았습니까, 땀띠라고 하는 것.}

10701 # 아이구 마~이 나지예, 엔나레는 마~이 낫습니더.{아이구 많이 나지요, 옛날에는 많이 낫습니다.}

10701 # 엔나레는 질삼하고 삼비질사를 여르메 해이고 하고.{옛날에는 질삼하고 삼베 질삼 여름에 하고.}

10701 # 똑 보 보릴때로 때에서 바블 해 무건심니다.{또 보 보릿대를 때서 밥을 해 먹었습니다.}

10701 # 나무가 업서서.{나무가 없어서.}

10701 # 그레가아꼬 바블 해무마.{그렇게 해서 밥을 해 먹으면.}

10701 # 요 손 요거마아치는 요 껍띠기 화알딱 버어뿌 버어절뿌미더, 땀띠가 나서.{이 손 이 것만큼은 이 껍질이 활딱 벗어져버립니다, 땀띠가 나서.}

10701 # 그러코 머어.{그렇고 뭐.}

10701 # 엔나렌 또 디딜바~아다 바~아도 쩌~어 묵꼬.{옛날에는 또 디딜방아에다 방아도 찧어 먹고.}

10701 # 그런 시월 안 사람습니꺼.{그런 세월 살잖았습니까.}

10701 @ 그 땀띠는 우째 나살습니꺼?{그 땀띠는 어떻게 고쳤습니까?}

10701 # 마 안 나사고 찬바람 나른 저절로 얻서지구어 머어.{뭐 고치지 않고 찬바람 불면 저절로 없어지고 뭐.}

10701 # 하유 사랑 그으 머 사는 허용도 아임니다.{아이구 사람 그 뭐 사는 형용도 아닙니다.}

10701 # 그레 안 사람습:꺼, 엔나레.{그렇게 살잖았습니까, 옛날에.}

10701 # 땀띠 나바:야 머어 씨 여이 입때 땀띠 짜다라 나가지고 언자 찬바람 나마.{땀띠 나 봐야 뭐 이때 땀띠 많이 나가지고 인제 찬바람 불면.}

10701 # 그기 부::허~이 그레 업서짐미더.{그것이 뿌영게 그렇게 없어집니다.}

10701 # 그르마 그으 허무리 다 벽꼬.{그러면 그 허물이 다 벗겨지고.}

10701 # 에이그 지끔 그는 사람 어딘썸미꺼.{에이그 지금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10701 # 엔나레는 그 땀띠가 그러키 낫:습니더.{옛날에는 그 땀띠가 그렇게 낫습니다.}

10701 # 부시름 그으는 우째서 나미 낫습미까?{부스럼 그것은 어째서 낫니 낫습니까?}

10701 # 부시름도 그거 인자 왕땀띠가.{부스럼도 그것 인제 왕땀띠가.}

10701 # 땀띠 그기 인자 왕땀띠가 데:가지고.{땀띠 그것이 인제 왕땀띠가 돼가지고.}

10701 # 그기: 막 또 툭툭 골마가지고.{그것이 막 또 툭툭 굴아서.}

10701 # 그래가: 부스리미 데고.{그렇게 해서 부스럼이 되고.}

10701 # 부스리미 데:가지고 마 얼굴러 다 버리고 이저넨 그래 부시리미 나살:습니더.{부스럼이 되어서 뭐 얼굴을 다 버리고 이전에는 그렇게 부스럼이 나곤 했습니다.}

10701 # 그라모 부시름 그으는 또 또 나수는 법또 이슬꺼 아임니?{그러면 부스럼 그것은 또 또 고치는 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10701 # 우째 나살습니꺼?{어떻게 고쳤습니까?}

10701 # 그러마는 그으는 뎌 머 이사도 구때느 이사도 억꼬.{그러면 그것은 뭐 의사도 그때는 의사도 없고.}

10701 # 머어 머 짜라뿌고.{뭐 뭐 짜 버리고.}

10701 # 쿠인자이 익키마 언자 짜라뵝 고롱 구구 빠전뿌마 구래뚜 낙끼도 하고.{그 인제 익히면 인제 짜버리고 고름 그것 빠져버리면 그렇게 또 낫기도 하고.}

10701 # 글 머 야기 어딘심미꺼.{그 뭐 약이 어디 있습니까.}

10701 @ 에나레 고약가튼거는 업선습니꺼?{옛날에 고약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10701 # 고야기 이썰찌예.{고약이 있었지요.}

10701 @ 극 우째 발라썰는지 한 ***?{그것 어떻게 발랐는지?}

예, 고야기 이썰심미더.{예, 고약이 있었습니다.}

10701 # 고야기 이썰는데 이래.{고약이 있었는데 이렇게.}

10701 # 피우네 가마 요래 조~오다 요래 올리가 요래요래 주마.{병원에 가면 요래 종이에 다 요렇게 올려서 요래요래 주면.}

10701 # 고고로 언자 가따: 부치마 고약 그이 제일 조알썸미더.{그것을 인제 갖다 붙이면 고약 그것이 제일 좋았습니다.}

10701 # 고** 낙꼬.{??? 낫고.}

10701 # 주루 고야글 썸찌.{주로 고약을 썼지.}

10701 @ 에이구 머어 조약또 하고.{어이구 뭐 조약도 하고.}

10701 @ 어떤 조약 하셧습니까?{어떤 조약 하셨습니다?}

10701 @ 조약 말씀 좀 ***.{조약 말씀 좀 ***.}

조약을.{조약을.}

10701 # 우찌 여르메 해사늘 하고.{어떻게 여름에 해산을 하고.}

10701 # 그래 마 땀띠가 나가오 그너미 마아 왕땀띠가 데고.{그래 뭐 땀띠가 나서 그 높이 뭐 왕땀띠가 되고.}

10701 # 고마 그기 막 건지럭꼬 이래마.{고만 그것이 막 가렵고 이러면.}

10701 # 엔나레는 소태낭기 이썸심니더.{옛날에는 소태나무가 있었습니다.}

10701 # 지금 소태나무 업심미더.{지금은 소태나무 없습니다.}

10701 # 소태낭글 해:다가 푸욱 쌀마가지고.{소태나무를 해다가 폭 삶아가지고.}

10701 # 그따다가 ** 소구물 쪼끔 찌버여:가지고.{거기다가 [X인제X] 소금을 조금 집어 넣어
어서.}

10701 # 막 씹꼬.{막 씹고.}

10701 # 그래 바르고 그랜마아 그거스 그으 야기 그래 존습니다.{그래 바르고 그러면 그것
그 약이 그렇게 좋습니다.}

10701 # 예 그래:도 나사고.{예 그렇게도 고치고.}

10701 # 엔나렌 조야글 해가 안 나삼심니까{옛날에는 조약을 해서 고쳤잖았습니까.}

10701 # 또 오치 인찌예, 오치.{또 옷이 있지요, 옷이.}

10701 # 오치 오르지.{오치 오르지.}

10701 # 오치 오르마.{옷이 오르면.}

10701 # 하:이 이누머 오치 올라서 여:항 머어 몬살 지깅이지, 이 이래마.{이놈의 옷이 올라
서 여간 뭐 못살 지깅이지, 이 이러면.}

10701 # 그 오턴:자 밤나무르 쌀마가지고.{그 옷은 인제 밤나무를 삶아가지고.}

10701 # 보:한 사람도 밤낭게다 씹꼬며 꺼머집니다.{뽀얀 사람도 밤나무에다 씻으면 꺼떻게
됩니다.}

10701 # 그래도 멈 머 사라야지 머 그기 그러케 근지런습니다.{그래도 뭐 뭐 살아야지 뭐
그게 그렇게 가렵습니다.}

10701 # 그래가꺼 마: 조야글 해서 언자 그* 오틀 작꼬.{그렇게해서 마 조약을 해서 인제 그
옷을 잡고.}

10701 # 밤나무도 하고 저: 머.{밤나무도 하고 저 뭐.}

10701 # 웅간 정구치니 머어 쌀로 가라가지고 무레다 당가날:따가.{온갖 부추니(?) 뭐 쌀을
갈아가지고 물에다 담귀놔다가.}

10701 # 싸를 막 돌미~이르 가라가지고 그래가: 구 쌀도 조코.{쌀을 막 돌맹이로 갈아서 그
렇게 해서 그 쌀도 좋고.}

10701 # 그래 엔나레는 머 오치 오르모 그래 나사산 나삼습니다.{그래 옛날에는 뭐 옷이 오
르면 그렇게 고치곤 고쳤습니다.}

10701 # 들깨다 가라 바르고.{들깨도 갈아 바르고.}

10701 # 그렇기: 그리 야기 조습니다.{그런 것이 그렇게 약이 좋습니다.}

10701 # 엔나레는 머슨 이위~이 인나 야기 인나 머.{옛날에는 무슨 의원이 있나 약이 있나
뭐.}

10701 # 그래 모듈 어른드리 조야글 해가지고.{그래 모두 어른들이 조약을 해서.}

10701 # 지금 사람드른 조약또 안해예.{지금 사람들은 조약도 안 해요.}

10701 # 지금 애:들 몸 건지럼: 그거로.{지금 애들 몸 가려움 그것을.}

10701 # 저::게 사네 가마 산딸기가 이심니다.{저기 산에 가면 산딸기가 있습니다.}

10701 # 산딸기가 인능기 산딸기 글도 여러 종눔:더.{산딸기가 있는 것이 산딸기 그것도 여
로 종류입니다.}

10701 # 보:하~이 쏜니파리거치.{보양게 쏜있처럼.}

10701 # 고래가: 요래 딸기가 짜 자박자박 여능건또 익꼬.{그렇게해서 요래 딸기가 ????? 여는 것도 있고.}

10701 # 키가 크:고 키큰 낭게 그그 까시가 숭숭한데.{키가 크고 키 큰 나무 그것 가시가 춤춤한데.}

10701 # 그게에 또 딸기가 여러가지고 그에.{거기에 또 딸기가 열어서 그게.}

10701 # 그걸 언자 따서 모드 따묵끼도 하고 이래는 그거느 이럼 복분잼니더.{그것을 인제 따서 모두 따먹기도 하고 이러는 그것은 이름이 복분자입니다.}

10701 @ 아 예 그 저기 까시 인는 ***.{아 예 그 저기 가시 있는 ***.}

예 까시 인는 그기:.{예 가시 있는 그것이.}

10701 # 극 그 딸기가 이름이 복분잼니더.{그 그 딸기가 이름이 복분자입니다.}

10701 # 그럼 그 복분재로 찌다가, 폭:: 썰마가지고, 그 복분자가 까시가 만심니더.{그래 그 복분자를 찌서, 폭 삶아서 그 복분자 가시가 많습니다.}

10701 # 포옥 썰마가지고 그 무레다가 애들로 모요글 씨기고.{폭 삶아서 그 물에다 애들을 목욕을 시키고.}

10701 # 근지러버산능거 또 개나리 개나리 저기 이리미 머시니라.{가려워하는 것 또 개나리 개나리 저게 이름이 뗏이지.}

10701 # 저기 또 이럼 이썸미다.{저것이 또 이름이 있습니다.}

10701 # 저 개나리 저걸 해다가 폭: 썰마가지고.{저 개나리 저것을 해다가 폭 삶아서.}

10701 # 그래 또 애들로 모요글 씨기고 이래마.{그래 또 애들을 목욕을 시키고 이러면.}

10701 # 애:들 그 몸 건지러분거 이릴쩍 건지러웅건 난는답니더.{애들 그 몸 가려운 것 어릴적 가려운 것은 낫는답니다.}

10701 # 인테 요새 사람 그렇건또 안해예.{이런데 요새 사람은 그런 것도 안 해요.}

10701 # 그렇건또 안 하고 여사로 키아.{그런 것도 앓고 예사로 키워.}

10701 # 여사로 키아서 마 하이구 갈따 오마 마 손자들 그 근지러산능게 애가 씨:서.{예사로 키워서 뭐 아이구 갔다 오면 뭐 손자들 그 굵어 쌓는 것이 애가 쓰여서.}

10701 # 애가 씨이서 죽꺾꼬 이리타마는.{애가 씨워서 죽꺾고 이렇더마는.}

10701 # 그으 친손자니미 하나 그카고 위손자 하나 위솔러가 그카고.{그 친손자 놈이 하나 그렇게 하고 외손자 하나 외손녀가 그렇게 하고.}

10701 # 그느어 모미 근지러웅걸 바:씨예.{그 몸이 가려운 것을 봤어요.}

10701 # 우리는 칠람매르 키아도 그렇거 안 받는데.{우리는 칠남매를 키워도 그런 것 안 봤는데.}

10701 @ 엔나레 저어 기계가통거가꼬 머리를 안 까깁니까, 그라믄.{옛날에 저 기계 같은 것가지고 머리를 깎이잖습니까, 그러면.}

10701 @ 요건 머 머리.{요것은 뭐 머리.}

기계톡:.{기계톡.}

10701 @ 고고 함.{그것 한 번.}

기계독: 그기: 예 수~악캄니더 그기이, 기계독 그기:.{기계독 그것이 고약합니다 그것이, 기계독 그것이.}

10701 @ 그건 우뻤습니까?{그건 어떻습니까?}

10701 # 구구루 언자 기계독: 그기: 올라노마.{그것을 인제 기계독 그것이 오르면.}

10701 # 막 머리가 머 까지고.{막 머리가 뭐 까지고.}

10701 # 그런능 구굴.{그런 그것을}

10701 # 그 기계 지름 그걸 또 바르데.{그 기계 기름 그것을 또 바르데.}

10701 # 구구루 바르고 머어 우찌 우운 우째 또 그래 나삼:띠더.{그것을 바르고 뭐 어찌 어찌 어떻게 또 고칩디다.}

10701 # 기계도:기 그래 오르는 사람 이십띠더.{기계독이 그렇게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10701 @ 엔나레 누네 머 다래끼산능거 이렇건또 난찌예?{옛날에 눈에 뭐 다래끼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났지요?}

예예.{예.}

10701 @ 그으는 우뻤습니까?{그것은 어땀습니까?}

10701 # 다래끼 그으또 와 그래 나삼팅고.{다래끼 그것도 왜 그렇게 나든지.}

10701 # 다래기가.{다래기가.}

10701 # 우리지베 저거 어르~이 그래 다래끼가 나삼십띠더.{우리집에 애들 어른이 그렇게 다래끼가 나곤 함디다.}

10701 # 그때 머어 시집옹게 수물시살 자신는데.{그때 뭐 시집오니까 스무세살 잡수셨는데.}

10701 # 머 한창이거등.{뭐 한창이거든.}

10701 # 그래 다래끼가 나삼십띠더.{그래 다래끼가 나곤 함디다.}

10701 # 그래 다래끼가 나잉께네 애:들도 모도 그래예.{그래 다래끼가 나니까 애들도 모두 그래요.}

10701 # 다래끼 나사:.{다래끼가 나곤 해.}

10701 # 아유 그래 애로 무우심:더.{아유 그렇게 애를 먹었습니다.}

10701 @ 다래끼로 우째 나삼습니까?{다래끼를 어떻게 고쳤습니까?}

10701 # 구래 언자 구군 그건또 또 그리 익끼 터집니더.{그래 인제 그것은 그것도 또 그렇게 익어 터집니다.}

10701 # 마악 꼬 그꼬 그기: 골마가지고 또 터집니더.{막 그 그것이 끓아서 터집니다.}

10701 # 그래 터지고나마 그래 구러구러 낙꼬.{그래 터지고나면 그래 그러구러 났고.}

10701 # 터질파네는 또 익킬 파네 욱보고.{터지기 전에는 또 익을 때까지 고생하고.}

10701 # 그 욱 머 방수도 하고.{그 뭐 ??도 하고.}

10701 # 엔나레는 어리: 열기빔 챔비시 이션는데.{옛날에는 열레빔 참빔이 있었는데.}

10701 # 열기비슬 가지고, 엔탈 삭짜리가 이션심니더.{열레빔을 가지고 옛날 샷자리가 있었습니다.}

10701 @ 대살짜리*.{대삿자리.}

사 삭짜리 아심미꺼?{사 삿자리 아십니까?}

10701 @ 예예, 저기 미테 까능거 아입니까?{예, 저기 밑에 까는 것 아십니까?}

10701 # 삭.{삭.}

@ 머인꼐 저기: 그 맨바다게.{뭇니까 저기 그 맨바닥에.}

10701 # 맨바다헐 까라노~이 요새는 그 누부 자도 몬한다킵떠더.{맨바닥에 깔아놓으면 요새는 거기에 누워 자지도 못한다 합디다.}

10701 # 그따다가 와독와독와독와독 이랜:자 어리비슬 따까가지고.{거기다가 ?????? 이렇게 인제 얼레빗을 닦아가지고.}

10701 # 그래 그으 다래끼다 대애고 대애고 그래 찌지마는.{그래 그 다래끼에다 대고 대고 그렇게 지지머는.}

10701 # 또 우짬: 주저안썸니다.{또 어찌면 주저앉습니다.}

10701 @ 또 엔나레 먼 또 다리끼 그으 오 그하라고 양밥 인뜨 쓰고 **.{또 옛날에 뭇 또 다래끼 그 ??하라고 양밥 쓰고 ** }

예, 양밥이.{예, 양밥이.}

10701 @ 양밥 말스매 보이소, 그 재민능거 ***.{양밥 말썸 해보십시오, 그 재미있는 것 ***.}

10701 # 양바블 언자 그으르 저어 지레 언자 가다가.{양밥을 인제 그것을 저 길에 인제 가다가.}

10701 # 가다가 언자 돌미~이를 조오가고 지블 지이 노코.{가다가 인제 돌맹이를 주워가지고 집을 지어 놓고.}

10701 # 고 누써폴 하나 빼에서 그 아네다 여어노코{그 눈썹을 하나 빼서 그 안에 넣어놓고.}

10701 # 그 그래 그 구운마 니등아 가다가 차부마 상는다커디~이.{그 그래 그만 누든지 가다가 차버리면 삭는다고 하더니.}

10701 # 그래도사코 에이그 애무거십니다, 우리지베 아:들 다래끼 해서.{그렇게도 하고 에이고 애먹었습니다, 우리집에 애들 다래끼가 해서.}

10701 # 아:는 안해받따.{이 애는 안 해봤다.}

10701 # 그래 애로 무우예.{그렇게 애를 먹어요.}

10701 # 그걸떠 머어 때르 따라 그러통강.{그것도 뭇 때를 따라 그렇든지.}

10701 # 그거 큰 아:드리 그래 해 사:, 우리 둘째가 그래 다래끼르 해사:.{그거 큰 아이들이 그렇게 해, 우리 둘째가 그렇게 다래끼를 하곤 해.}

10701 # 땅거는 그래 안 해사던테.{다른 애는 그렇게 안 하던테.}

10701 # 다래끼르 어채컨 마~이 해사:.{다래끼를 어쨌건 많이 했어.}

10701 @ 다래끼가 주로 우게 남니꺼 ** 미테 남니꺼?{다래끼가 주로 위에 남니까 ** 밑에 남니까?}

10701 # 우에 납니다.{위에 납니다.}

@ 우게.{위에.}

10701 @ 미테 나능거는 업실습니까?{밑에 나는 것은 없었습니까?}

10701 # 미테 나마 민다래끼구.{밑에 나면 민다래끼고.}

10701 # 우에 남 모 윤다래끼고 머어 그에.{위에 나면 뭐 윗다래끼고 뭐 그레.}

10701 # 그에 우에 나능 그기: 그:랙 대단심니다.{그 위에 나는 그것이 그렇게 대단합니다.}

10701 # 아이고 우리 둘째가 그레 다래끼를 해삼떠이.{아이고 우리 둘째가 그렇게 다래끼를 하더니.}

10701 @ 저어 또 게을테면 또 그.{저 또 겨을되면 또 그.}

10701 @ 요:서 고뿌리라 켄습니까, 강기라 켄습니까?{여기서는 고뿔이라고 했습니까, 감기라고 했습니까?}

10701 # 강기라커기도 하고 고뿌리라커기도 하고.{감기라고 하기도 하고 고뿔이라고 하기도 하고.}

10701 @ 그거 한번 또 걸리몬.{그것 한 번 또 걸리면.}

10701 @ 어떤는지 우째 나산는지?{어떻는지 어떻게 고쳤는지?}

그레 걸리노마:.{그레 걸려 놓으면.}

10701 @ ***,

엔나레는 또 병원도 억꼬 그러~잉게네.{옛날에는 또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10701 # 인자 주루 머어 애:들 뜨시기 하고.{인제 주로 뭐 애들 따뜻하게 하고.}

10701 # 뜨시기 하고 고마 지치물 해도 그레가:꼬도 놀러 땡기고.{다뜻하게 하고 그만 기침을 해도 그렇게 해서도 놀러 다니고.}

10701 # 그레사마 뜨시기 해서 온또 쏘게르 나아 이피고.{그렇게하면 따뜻하게 해서 옷도 숨을 놓아서 입히고.}

10701 # 그레 뜨시기 해서 그레가: 인 그레그레 언자 뜨싱거 해미기고.{그레 따뜻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렇게 인제 따뜻한 것 해서 먹이고.}

10701 # 그레마 강기가 떠러지고.{그렇게 하면 감기가 떨어지고.}

10701 # 엔나레는 짐치르 다마가지고.{옛날에는 김치를 담귀가지고.}

10701 # 김치를 다마가: 짐치 입스파리로 여어서 나즈로 그 뜨신 국시기 그기 참 조습니다.
{김치를 담귀서 김치를 넣어서 낮에 그 따뜻한 김치죽 그것이 참 좋습니다.}

10701 # 예, 그거를 무그만 마: 이레 강기 들린데 코가 툭 티이고.{예, 그것을 먹으면 뭐 이렇게 감기 걸렸을 때 코가 툭 트이고.}

10701 # 그러마 지침도 낙꼬.{그러면 기침도 낮고.}

10701 # 무시가 그리 조습미더.{무가 그렇게 좋습니다.}

10701 # 무시르 빠지가지고 참지르를 씹꼬.{무를 빼져서 참기름을 섞고.}

10701 # 무시구글 끼리가지고 그레 강기에 아:고 어르~이고 그레 무우마 그레 머 강기가 낙꼬.{무국을 끓여서 그레 감기에 아이도 어른도 그렇게 먹으면 그레 뭐 감기가 낮

고.}

10701 # 그래 하 사람습니:꺼.{그렇게 살잖았습니까.}

10701 # 요새는 모도 비워네 가고 이런는데.{요새는 모두 병원에 가고 이렇는데.}

10701 # 그러구러 사라썸미더.{그러구러 살았습니다.}

10701 # 그래도 엔나레는 이런 머 나쁜 그렇거 머이 영:꼬.{그래도 옛날에는 이런 뭐 나쁜 그런 것 뭐 없고.}

10701 # 그 강기 머 고뿔 이살치 그으살치 머어.{그 감기 뭐 고뿔 이랬지 그랬지 뭐.}

10701 # 엔나레는 이 스 이런 병 이런 소리 안헐심니다.{옛날에는 이 ? 이런 병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10701 # 당노니, 머어 당노라커는 이기 엔나레는 이기 조갈뻘~이라캐썸니다.{당노니, 뭐 당노라고 하는 이것이 옛날에는 이것을 조갈병이라고 했습니다.}

10701 # 조갈뻘.{조갈병.}

10701 # 물로 무거사아서 조갈뻘~이라캐썸니다.{물을 먹어대서 조갈병이라고 했습니다.}

10701 # 예 지금 당노라커대.{예 지금 당노라고 하대.}

10701 # 예, 그 혹시 이저네도 이썰썬, 익끼는 네.{예, 그 간혹 이전에도 있었어, 있기는 네.}

10701 # 아이구 아무는 조갈뻘~이 걸릴판다, 이쿠고.{아이고 아무개는 조갈병이 걸렸단다, 이렇게 말하고.}

10701 # 그래도 머 비워~이 이썬 비워네 가반나 머 구카다가 머 중는 사람 죽꼬 사는 사람 사라예.{그래도 뭐 병원이 있어 병원에 가봤나 뭐 그러다가 뭐 죽는 사람 죽고 사는 사람 살아요.}

10701 @ 혹시 어머~이 저기 동네에 중풍 걸린 사람 함 보신 저기 이습니꺼 중풍?{혹시 어머니 저기 동네에서 중풍 걸린 사람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풍?}

10701 # 중풍?{중풍?}

10701 # 이 동네는 그느 사람 업습니다.{이 동네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10701 @ 머 이 동넨 아이더라도 그 중풍은 어 어떠 어떻습니까?{뭐 이 동네는 아니더라도 그 중풍은 어 어떠 어떻습니까?}

10701 # 중풍이라 가능거는.{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10701 # 그기 풍 아이미:꺼.{그것이 풍이잖습니까.}

10701 # 풍으 푸~으로 바라므로 오능긴데.{풍은 풍으로 바람으로 오는 것인데.}

10701 # 그 바라므로 오는데 여: 우리 일가 한 양바는.{그 바람으로 오는데 여기 우리 일가 한 양반은.}

10701 # 요새느 그 병도 안 죽습미더.{요새는 그 병도 안 죽습니다.}

10701 # 안 죽꼬 머어 자:꾸 비워네 땡깁게네.{안 죽고 뭐 자꾸 병원에 다니니까.}

10701 # 머 그대:로 유지해가꼬 고래도 사라예.{뭐 그대로 유지해서 그렇게도 살아요.}

10701 # 안 죽십미더.{안 죽습니다.}

10701 # 그으 그 그런 병 들리가지고.{그 그 그런 병 걸려가지고.}

10701 # 욱 보는 사람: 보고.{고생하는 사람은 (고생)하고.}

10701 # 모 몬 나수고 고마 중풍환자가 데에가:꼬.{못 고치고 그만 중풍 환자가 돼서.}

10701 # 그래 그으 그마 시월 넘기다가 안 죽심니까.{그래 그 그만 세월 넘기다가 죽잖습니까.}

10701 # 그 너른 병은 머슨 넘 병인지.{그 놈의 병은 무슨 놈의 병인지.}

10701 # 완따커마 사람 조집니다.{왔다고 하면 사람을 조집니다.}

10701 # 그 조심해에 탬니다.{그 조심해야 됩니다.}

10702 @ 예에, 저어 또 이 그으 임숙 이거 잘 몬 무:가지고 생기는 병도 안 일습니까?{예, 저 또 이 그 음식 이거 잘 못 먹어서 생기는 병도 있잖습니까?}

10702 @ 예 머어 설사도 그러코 그지예.{뭐 설사도 그렇고 그렇지요.}

10702 @ 토사강낭카능거또 그러코.{토사곽란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10702 # 그 우째 ** 저:게 음스글 잘 몬 무막 그는수가 일습니다.{그 어떻게 저기 음식을 말 못 먹으면 그런 수가 있습니다.}

10702 # 음스글 우예 차붕거를 묵꼬 보마:{음식을 어떻게 찬 것을 먹고 보면.}

10702 # 쏙 냉한 사라른 또 설사뺑 오고.{속이 찬 사람은 또 설사병이 오고.}

10702 # 그래 설사뺑 이래 음숙 잘 몬 무우서 오는 병은.{그래 설사병 이래 음식 잘 못 먹어서 오는 병은.}

10702 # 머어 우리는 마 주루 참사를 마~이 안하고 그애 쪼꼬 쪼끔.{뭐 우리는 뭐 주로 참쌀을 많이 하지 않고 그래 조금 조금.}

10702 # 예에 한 오큼씩 폭:: 꼬아가지고.{이렇게 안 움큼씩 폭 고아가지고.}

10702 # 그 파:바: 이으쓰 바븐 하면 썻습니다.{그 팍팍 밥을 하면 썻습니다.}

10702 # 그래 매:매 거치뿌고.{그래 매매 ??버리고.}

10702 # 참살로 폭:: 꼬아가지고.{참쌀을 폭 고아가지고.}

10702 # 그래 뜨시구르 해가:꼬 그일 힌:주글 한그룩 무우뿌마 여름 배는 고마 나사뺑니다.
{그래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 흰죽을 한 그릇 먹어버리면 여름 배는 고만 나아버립니다.}

10702 # 그기: 지일 야깁니다.{그게 제일 약입니다.}

10702 # 여름 배 아풍거는.{여름 배 아픈 것은.}

10702 # 그러코 또 부인드른 이래 마 쪼기 차바서 이래 아파산는 사라미 이십니다.{그렇고 또 부인들은 이래 뭐 속이 차서 이렇게 아프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702 # 인는데.{있는데.}

10702 # 저::기 나가마는 용무초 아시지예?{저기 나가며는 익모초 아시지요?}

10702 # 용무추 그기 그리 조습니다.{익모초 그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10702 @ 예에, 씨붕거 아입니까?{예, 쓴 것 아닙니까?}

10702 # 그해 용무초로 비:다가.{그래 익모초를 베어다가.}

10702 # 어 대추가 조습니다.{어 대추가 좋습니다.}

10702 # 예 대추강 용무추강 가치 여어가지고.{예 대추와 육무초를 같이 넣어가지고.}

10702 # 그 또 부인드른 백또래도 조치예.{그 또 부인들은 백도라지도 좋지요.}

10702 # 그러~이 여어가:꼬 폭:: 쌀마 무마.{그렇게 넣어가지고 폭 삶아 먹으면.}

10702 # 그기: 보약쥬 그런 보야기 업썸니다.{그것이 보약 중 그런 보약이 없습니다.}

10702 # 어 엔나레 정승지배 저어 혼자텐 오 과보가 애기르 가아 애기르 가진는데.{응 옛날
에 정승집에 저 혼자 된 과부가 애기를 가 애기를 가졌는데.}

10702 # 구러디: 열달 채아서 노잉께네 애를 난:는데.{그러더니 열달 채워서 놓으니까 애를
낳았는데.}

10702 # 구우 구루차모 고마 그 지배 모살게 안 텨니꺼?{그 그러면 고만 그 집에 못 살게
되잖습니까?}

10702 # 그 그래 인자 큰 쥐르 직꼬.{그 그래 인제 큰 죄를 짓고.}

10702 # 그으 그 과보가 지이 약 해무웅기: 생각키:써.{그 그 과부가 자기 약 해 먹은 것이
생각나서.}

10702 # 이 야글 먹꼬 내가 이런 이리 인는데 시퍼서.{이 약을 먹고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싫어서.}

10702 # 물로 팔팔 끼리다가 그 아:로 무레트 초오여풍께 용무추더랍니다.{물을 팔팔 끓여서
그 아이를 물에 집어 넣으니까 익모초더랍니다.}

10702 # 그만큼 용무추가 조탐니더, 부인들께.{그만큼 익모초가 좋답니다, 부인들에게.}

10702 # 그: 엔나레는 그 엔나레는 그런 마리 이설찌예.{그 옛날에는 그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지요.}

10702 # 그래 엔나레는 그리각 그래가꼬도 모도 또 부인드리 야글 해묵꼬.{그래 옛날에는
그렇게 그래가지고도 모두 또 부인들이 약을 해먹고.}

10702 # 또 낙꼬.{또 낫고.}

10702 # 엔나레 아이라도 요즘도 부인드른 배:작 애비느 사람.{옛날이 아니라도 요즘도 부인
들은 바작 야위는 사람.}

10702 # 머: 또 쏘:기 냉해가:꼬 육보는 사람 그느사람 살찌느 사라믄 덜 조코.{뭐 또 속이
차서 고생하는 사람 그런 사람 살찌는 사람은 덜 좋고.}

10702 # 그래 용무초가 제일 조습니더.{그래 익모초가 제일 좋습니다.}

10702 # 이 아무 부인이라도.{이 아무 부인이라도.}

10702 # 아:무 부인이라도 용무초오 조심:더, 용무초하고 대추하고느 참 지지립니더.{아무 부
인이라도 익모초가 좋습니다, 익모초와 대추는 참 짝꿍(?)입니다.}

10702 @ 어머~이 용무초 함 캐아바스 보썸습니꺼?{어머니 익모초 한 번 키워봤 보셨습니
까?}

10702 # 용무추 그거 한 피이마 세아노마 온 지배 씨가 텨니더.{익모초 그것 한 포기만 심
어 놓으면 온 집에 씨가 됩니다.}

10702 # 그러가지고 그기: 고마 나가지고 이래 무성하게 크마.{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냥 나가

지고 이렇게 무성하게 크면.}

10702 # 비이가지고 비테다 말류마 안 데고예.{배어서 별에다 말리면 안 되고요.}

10702 # 크눈 비이서 이랴 중등중등 싸리가지고 그릉지이다 말류:니더.{그 놈 배어서 이래
듬성듬성 썰어서 그늘에다 말립니다.}

10702 # 그늘에다가 말류:마.{그늘에다 말리면.}

10702 # 안 보하코 비테다 말류:머 보:하~이 바래이뿌고.{보양잘고 별에다 말리면 보양게
바래버리고.}

10702 # 고래가지고 이이령 바람 안 드가구로 나이롱 요새는 마 나이롱 안 조습니꺼.{그렇
게 해서 이렇게 바람 들어가지 않게 나일론 요새는 뭐 나일론 좋잖습니까.}

10702 # 포대:다가 꼬옥꼭 발바 여나마 심너~이 가도 괜찬심니더.{포대에다 꼭꼭 밟아 넣어
놓으면 십년이 가도 괜찬습니다.}

10702 # 고래 탕 너어노코.{그렇게 딱 넣어놓고.}

10702 # 그래 지끄른 머어 저어 액끼스 약 짜는데 안 쎄습니꺼?{그래 지금은 뭐 저 진액 약
짜는 데 많잖습니까?}

10702 # 그래 마~이 해가지고 그런데에 가서 야글 짜라가지고 가따노코 일련:내 무구도 데
고.{그래 많이 해서 그런데 가서 약을 짜서 갖다놓고 일년내 먹어도 되고.}

10702 # 안 조심니꺼 세워리.{좋잖습니까 세월이.}

10702 # 엔나레느 둥구리르 때애가지고 폭:: 고아가지고 그래 무견습니더.{옛날에는 그루터
기를 때어서 폭 고아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10702 # 그래 무연는데 부인들게느 그기 참 졸습니더.{그렇게 먹었는데 부인들에게는 그것
이 참 좋습니다.}

10702 # 예 그래 무그만 모미 보하코.{예 그렇게 먹으면 몸이 좋아지고.}

10702 # 오마 잔병치레 안 해사코.{그만 잔병치레 하지않고.}

10702 @ 용무초 그거는 꿈또 색깔도 안 이쁨니꺼?{익모초 그것은 꽃도 색깔이 이쁘잖습니
까?}

10702 # 꼬치 마 짜잡하~이 이련심니더, 짜잔 짜잡하~이 이련능거.{꽃이 마 자잘하니 이렇
습니다, 자잘 자잘하니 이련 것.}

10702 # 극 그기 지끄른 야글 처사:서예.{그 그것이 지금은 약을 치니까요.}

10702 # 엔나레느 마넌습니더.{옛날에는 많았습니다.}

10702 # 인테 야글 처사:서 조매가 업심니더, 이련테도.{이랬는데 약을 치니까 좀처럼 없습
니다, 이련 테에도.}

10702 # 예 송구서 재배 안한다메는 업습니더.{예 심어서 재배하지 않은 다음에는 없습니
다.}

10702 # 우리 늘근 사람도 그기: 그래 졸습니더.{우리 늙은 사람(에게)도 그것이 그렇게 좋
습니다.}

10702 # 늘근 사람도 마: 이 머쓰 쏘기 아푸고 이리 히미 영꼬 이럴때느 그거를 무어 우.{늙

은 사람도 뭐 뭣 속이 아프고 이렇게 힘이 없고 이럴 때는 그것을 먹어.}

10702 # 저게 양가도 지베서도 둥구리 달마 폭:: 쌀마가지고{저기 가지 않아도 집에서 그 루터기 ?? 폭 삶아가지고.}

10702 # 그래 비~이에 여어노코 요샌: 냉장고가 오죽 조습니꺼.{그래 병에 넣어놓고 요새는 냉장고가 오죽 좋습니까.}

10702 # 그래가가 따뜰해~이해가꼬 묵꼬.{그렇게해서 따뜻하게 해서 먹고.}

10702 # 꾸리나 좀 태아가지고.{꿀이나 좀 타서.}

10702 # 그르 그기: 억씨 씹심니더.{그래 그것이 아주 씹니다.}

10702 # 고래 꿀로 좀 태아가죽 그래 모 항킵석 마시마.{그래 꿀을 좀 타서 그래 뭐 한 컵 썩 마시면.}

10702 # 마 쏘기 수루루 피이고 쏘글 떠파고, 그기: 줄습니더.{뭐 속이 스프룩 퍼지고 속을 데우고, 그것이 좋습니다.}

10702 # 조은 약 썰:심니더 엔나레도.{좋은 약 많습니다 옛날에도.}

10702 # 이런는데 지끄른 머어 머 야글 처사:서 약테능거 업씨예.{이랬는데 지금은 뭐 뭐 약 을 처서 약 되는 것 없어요.}

10702 # 나도 지끔도 냉냥고다 움무초로 다리서 여어노코 이썸니더.{나도 지금도 냉장고에 다 익모초를 다리서 넣어놓고 있습니다.}

10702 # 그기: 인자 내애 내따네는 보야기라.{그것이 인제 내 내판에는 보약이라.}

10702 # 언자 모 쏘오기 착꼬 욱 불상하마 또 그놈 하나 마시뿌마 갠찬코.{인제 뭐 속이 차 고 고생할 것 같으면 또 그놈 하나 마셔버리면 괜찮고.}

10702 # 그러썸니:더 예.{그렇습니다 예.}

10702 # 그래서 음 따라:들도 그러타커마 한 솔 해주고.{그래서 음 딸애들도 그렇다고 하면 한 솔 해 주고.}

10702 # 미느리도 한 솔 해주고.{며느리도 한 솔 해주고.}

10702 # 그래 우리 메느리드리 그으살습니더.{그래 우리 며느리들이 그룹니다.}

10702 # 어머님 그런 야글 해조사:서 우리가 이래 건강함니더 이캅니더.{어머님 그런 약을 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함니다 이룹니다.}

10702 @ 저 어머~이도 사라게실때 움무초 저거 참:.{제 어머니도 살아 계실 때 익모초 저 것 참.}

10702 @ 또 그으 움동초하고.{또 그 인동초하고.}

10702 @ 그덴 노꼴라무하고 이렇거어가지고 폭:: 고아가지고.{그때는 노나무하고 이런 것들 을 폭 고아서.}

10702 # 몸 아픈 사람 그그느으 만신 뼈골 아픈데.{몸 아픈 사람 그것은 만신 뼈골 아픈데.}

10702 @ 그래 그으서 맨날 뼈골 아플때 조타 그러시고.{그래 그래서 맨날 뼈골 아플 때 좋 다 그러시고.}

10702 @ 그래고.{그리고}

만신:: 빼고를.{만신 빼골를.}

10702 @ 저 언제 둘째:: 누나가 마사네 여어 사는데.{저 언제 둘째 누나가 마사네 여기 사는데.}

10702 @ 그 누나가 딸딸딸딸 나코 다셋 다서번째 아드를 나아스습니다.{그 누나가 딸딸딸 딸 넣고 다서 다섯번째 아들을낳았습니다.}

아하.{아하.}

10702 @ 궂:께네 이 그 엔나레 이 구바글 얼마 눈치를 얼마나 씨대게서 바닥꼈습니꺼.{그러니까 이 그 옛날에 이 구박을 얼마 눈치를 얼마나 시택에서 받았겠습니까.}

10702 @ 그~잉께 조리할 때가 업서서 언자 ??? 친정에 오능거, 딸난 제로.{그러니까 조리할 때가 없어서 언제 ??? 친정에 오는 것, 딸 낳은 죄로.}

10702 @ *** *** 말씀해주시던 그런 얘기 용모초니 머어 이렇거.{??? ??? 말씀해주시던 그런 이야기 익모초니 뭐 이런 것.}

10702 @ 술로 당가가구도 그라고 그래마: 누나가 그으 그래가꼬 누나가.{술로 담귀서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뭐 누나가 그 그렇게 해서 누나가.}

용무포를?{익모초를?}

10702 @ 용모초나 이렇거를 너어가아꼬.{익모초나 이런 것을 넣어서.}

아 그그 옹간 나무 약나무로 예에.{아 그것 온갖 나무 약나무로 예.}

10702 # 약나무로 일곱까지로 약나물 폭:: 싸리다가 썰마가지고.{약나무를 일곱가지를 약나무를 폭 썰어서 삶아가지고.}

10702 # 예 그여 그래 저어 야글 해무우사:마.{예 그래 그렇게 저 약을 해먹으면.}

10702 # 이 그에 부인드른 저 생사늘 해사 그런능가.{이 그 여 부인들은 저 생산을 하서 그런지.}

10702 # 만:시니 그리 아품니더.{만신이 그렇게 아됩니다.}

10702 # 나도 만:시니 아파서 이 농사 질따가예.{나도 만신이 아파서 이 농사 짓다가요.}

10702 # 밥 몬 해주고 일꾼 수발 몬해서 농사 마랴심니더.{밥 못 해주고 일꾼 수발 못 해서 농사 말았습니다.}

10702 # 아투굼 아파사턴지.{어찌나 아프던지.}

10702 # 그래 생산해사코 하는 사랑 그래 아파사마.{그렇게 생산하고 하는 사람 그렇게 아프곤 하면.}

10702 # 머이 이가: 덩기민서 치 머 치료박꼬.{뭐 의가(醫家) 다니면서 치 뭐 치료받고.}

10702 # 물리치로 바악꼬 이산는 그으느. {물리치료 받고 이러는 그것은.}

10702 # 아무 소용업심니더.{아무 소용없습니다.}

10702 # 차:: 우리도 내 소느로 머: 옹:가 양나무로 구해가지고.{저 우리도 내 손으로 뭐 온갖 약나무를 구해가지고.}

10702 # 그때느 머 사네 가마 마 양나무 안 켜썸니꺼.{그때는 뭐 산에 가면 뭐 약나무 많았잖습니까.}

10702 # 그래 양낭글 해다가 폭:: 쌀마가저고.{그래 약나무를 해서 폭 삶아서.}

10702 # 주:루 그렇:거르 마~이 해무운는데.{주로 그런 것을 많이 해먹었는데.}

10702 # 그래서 그런능강 어째서 그런능고.{그래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그런 것인지.}

10702 # 지금 나사에.{지금 나아요.}

10702 # 그 늘궁께 그기 나습니더.{그 늙으니까 그것이 낫습니다.}

10702 # 절물쎄 그리크마푸등기.{쥼을 적에 그렇게 아프던 것이.}

10702 # 그러코 머.{그렇고 뭐.}

10702 # 날거튼 사라문: 일도 무지무지 험심니더.{나 같은 사람은 일도 무지무지 했습니다.}

10702 # 머 참 하느레 해배킨 나른 머 밤:나덱씨 일도 억씨: 해웁심니더 머.{뭐 참 하늘에
해 박힌 날은 뭐 밤낮없이 일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뭐.}

10702 # 업는 가정에 드리와가지고.{업는 가정에 들어와서.}

10702 # 머: 머슨 요랑도 업시 시그늘 살미.{뭐 무슨 요령도 없이 살림(?)을 살며.}

10702 # 움지이기더 마~이 움지이고.{움직이기도 많이 움직이고.}

10702 # 생산도 마~이 하고 그래 그러팅가.{생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턴가.}

10702 # 그래 아파서: 어 머 이래가:꼬는 농사 몬직꺄따카미 머 어르~이.{그래 아파서 어
뭐 이래가지고는 농사 못 짓겠다고 하며 뭐 어른이.}

10702 # 마::콤 그 농장 다 뚜디리 파라가지고.{말끔 그 농장 다 팔아가지고.}

10702 # 자식들마다 공부 씨이고.{자식들마다 공부시키고.}

10702 # 머 장개 디릴 방 어더 주고.{뭐 장가 들일 방 얻어 주고.}

10702 # 그려그*그럭끈 마아 나도 쪼까넬쎄 시자아서 이적쎄 농사진:다꼬 골병 드런는
데.{????? 뭐 나도 조그마할 적 시작해서 이때까지 농사짓는다고 골병 들었는데.}

10702 # 나도 좀 핀타: 갈란다.{나도 좀 편하다가 가련다.}

10702 # 이이 동네서 다 그캅니더.{이 동네에서 다 그렇게 말합니다.}

10702 # 천지 그 어른거치 그래 마음 묵고 마음대르 해뿌느느느 어른 엄따킴니더.{천지에
그 어른같이 그렇게 마음먹고 마음대로 해버리는 어른 없다고 합니다.}

10702 # 고마 농사 마라 마라뽀띠더.{그만 농사도 말아 말아버립니다.}

10702 # 다아 너그 인자는 무꼬 사드록 다 내가 해나스~이.{다 너희 인제는 먹고 살도록
다 내가 해놨으니.}

10702 # 너그야 어예 사등가 살도록 내가 다아 따가나스~이.{너희야 어떻게 살든지 살도록
내가 다 닦아놓았으니.}

10702 # 너그 버리 묵꼬 사라라.{너희 벌어서 먹고 살아라.}

10702 # 에이 이 이래가:꼬느 누구매도 몬 전딘다.{이 이렇게 해서는 너희 엄마도 못 견딘
다.}

10702 # 마 야:우 나도 농사 안 질란다.{마 아이구 나도 농사 안 지으련다.}

10702 # 한 시보년 피넨심니더.{한 십오년 편했습니다.}

10702 # 핑코 자기 마: 주립 다 하고.{편하고 자기 뭐 나들이 다 하고.}

10702 # 그루 마 펜타: 갇심니더.{그 뭐 편하다가 갇습니다.}

10702 # 그래 자숙드리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신 어르~이지.{그래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신 어르이지.}

10702 # 이 농사 지:마 농사 몬 맘니더, 욱시미 나서예.{이 농사 지으면 농사 못 맙니다, 욱심이 나서요.}

10702 # 이거를 농사를 지야 도~이 안 나옴니꺼.{이것을 농사를 지어야 돈이 나오잖습니까.}

10702 # 이렇게 자기도 사려여데고 자숙뜰또 보구즈글 해주:야 살지.{이러니까 자기도 살아야 되고 자식들도 ???을 해줘야 살지.}

10702 # 이런는데 우리집 이 어르는 마.{이런데 우리집 이 어른은 뭐.}

10702 # 언자는 마 너그야 마: 우웨 살기나.{인제는 뭐 너희야 뭐 어떻게 살거나.}

10702 # 나는 내대로 살고 너그는 너그대로 살고.{나는 나대로 살고 너희는 너희대로 살고.}

10702 # 그래 마 농사 안 직꼬 함머 사라볼란다.{그래 뭐 농사 안 짓고 한 번 살아보려다.}

10702 # 그리 때리치아뿌고 그래 머 좀 핑케 살다가 가시고나~이.{그래 때려치워버리고 그래 뭐 좀 편하게 살다가 가시고 나니.}

10702 # 자숙드리 그래 들 걸린다컵떠더.{자식들이 그래 덜 걸린다고 함디다.}

10702 # 예 나가 마내도 농사 직고 살라꼬.{예 나이가 많아도 농사 짓고 살려고.}

10702 # 머 자숙들 생강는다꼬 자:꾸 일르 해삼스마.{뭐 자식들 생각한다고 자꾸 일을 했으면.}

10702 # 하이구 우라버지가 그러케 그래 하시고 가신는데 시퍼서 걸리:컨데.{아이구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그래 하시고 가셨는데 싫어서 걸린건데.}

10702 # 일 일찌기 마라뿌고.{일 일찍이 말아버리고.}

10702 # 딱 자기 고마마 단도리 다 해각꼬 머.{딱 자기 그만 뭐 단속 다 해가지고 뭐.}

10702 # 놀러 댕기고.{놀러 다니고.}

10702 # 마: 추룸 댕기고.{마 나들이 다니고.}

10702 # 그러 그마 피 핑키 그래 좀 사시다 가신킴니더.{그래 그만 피 편하게 그렇게 좀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10702 # 그래 그런 어르~이 어렵따킴니더 동네서도.{그래 그런 어른이 어렵다고 합니다 동네에서도.}

10702 @ 그럴습니더.{그렇습니다.}

예, 동네서도 어렵따킴니더.{예, 동네에서도 어렵다고 합니다.}

10702 @ 농사: 여페 보고는 안 질 수 억꺼든예 예예.{농사 옆에 보고는 안 지을 수 없거든요 예.}

예예, 안 질수 업담니더.{예, 안 지을 수 없담니다.}

10702 # 이런는데 이 어르는 고래 탁 치아뿌고.{이런데 이 어른은 그렇게 탁 치워버리고.}

10702 # 그래 인자 장: 술로 애중하시지.{그래 인제 늘 술을 애중하시지.}

10702 # 애중하시도 참:: 술 하나는 정신익끼 자심니더, 요새 내가 아:로 고깝니더.{애중하셔도 참 술 하나는 정신있게 잡수십니다, 요새 내가 애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10702 # 우리 우 우리 이 이 선새~이 술로 조아해예.{우리 우 우리 이 이 선생이 술을 좋아해요.}

10702 # 술로 조아합니더.{술을 좋아합니다.}

10702 # 그리게 수 술로 묵꼬 오테러 데머 그 사마.{그렇게 수 술을 먹고 어디를 다니며 그렇게 해 쌓으면.}

10702 # 아버지 이런 말씀 이즈머 안 텐데~이.{아버지 이런 말씀 잊으면 안 된다.}

10702 # 너그한테 어떠키 당부로 하고 가신노.{너희에게 어떻게 당부를 하고 가셨느냐.}

10702 # 아무리 너그 아버지느 수리 조아도.{아무리 너희 아버지는 술이 좋아도.}

10702 # 수를 사이믈 하고 수를 무우야지.{술을 사양(?)을 하고 술을 먹어야지.}

10702 # 수른 함부둥 무머 안 텐다.{술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10702 # 수를 함부딩 무:마:{술을 함부로 먹으면.}

10702 # 함부두롱 뭉:다, 수를 마~이 무머 모메 해가 오고.{함부로 먹는다, 술을 많이 먹으면 몸에 해가 오고.}

10702 # 함부두룩 노는 사라문 주색직끼 조극 조아하고.{함부로 노는 사람은 주색잡기 좋아하고.}

10702 # 노름 조아하는 사람은 살리메 폐가 오고.{노름 좋아하는 사람은 살림에 폐가 오고.}

10702 # 절::때로 내 마를 기피 드르래이, 이카고 가신는데.{절대로 내 말을 깊이 들어라, 이렇게 하고 가셨는데.}

10702 # 너그 아버지 말씀 허어늘 드르마 안텐데 내가 더러 이깝니더.{너희 아버지 말씀 허언으로 들으면 안 된다 내가 더러 이렇게 합니다.}

10702 # 그래도 수를 질기에.{그래도 술을 즐겨요.}

10702 # 구른데도 술 끄는 사람 딱 꼬너뽑떠더.{그런데도 술 끄는 사람은 딱 끊어버립디다.}

10702 # 머어 우리 큰 아들도 술 조아하고 둘째도 술 애중헐는데.{뭐 우리 큰 아들도 술 좋아하고 둘째도 술을 애중했는데.}

10702 # 딱 꼬너뽑떠더.{딱 끊어버립디다.}

10702 # 근데 이 사람 두 사라문 안 데.{그런데 이 사람 두 사람은 안 돼.}

10702 # 이 쌍디~이 두 사람: 안테.{이 상등이 두 사람은 안 돼.}

10702 # 담배도 안 데고.{담배도 안 되고.}

10702 # 담배도 안 데고.{담배도 안 되고.}

10703 @ 어머~이 그라고 또 지금까진 맥께 언자 머 뱅거통거 가지고 말스믈 하신.{어머니 그러고 인제 또 지금까지는 몇 개 인제 뭐 병 같은 것 가지고 말씀을 하셨.}

10703 @ 이걸말고 또 어떤 머 병드리 또 안 이션습니, 예를 드러서.{이것말고 또 어떤 병들이 또 안 있었습니, 예를 들어서.}

아는 째치 대답하겐심니더.{아는 만큼 대답하겠습니다.}

10703 @ 예예, 그으 엔나에 얼굴 얼근 사람들 이션찌예?{예, 그 옛날에 얼굴 엷은 사람들
있었지요?}

10703 # 예예?{예?}

10703 @ 얼굴 얼근 사람.{얼굴 엷은 사람.}

10703 # 얼근 사람 이찌예.{엷은 사람 있지요.}

10703 @ 머라캔습니꺼, 그거르 갑따가.{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10703 # 얼근 사라른 그그 엔나레는 주사도 옥꼬.{엷은 사람은 그그 옛날에는 주사도 없고.}

10703 # 병원도 엉꼬.{병원도 없고.}

10703 # 그래가지고 그 소임이라꼬.{그래가지고 그 손님(천연두)이라고.}

10703 # 그그 큰소님이라کم니더.{그것 큰손님이라고 합니다.}

10703 # 그으 그그 중한 병이 어떨때 오마.{그 그 중한 병이 어떨 때 오면.}

10703 # 온: 동네가 해예.{온 동네가 해요.}

10703 # 예, 하마.{예, 하면.}

10703 # 또 안 얼꼬 잘 너무가는 사람: 잘 너무 가고.{또 엷잖고 잘 넘어가는 사람은 잘 넘
어가고.}

10703 # 그때 사람 애: 마니 안 주긴십니꺼.{그때 사람 애 많이 죽였잖았습니까.}

10703 # 그래 암만 마~이 나아도 몽키알습니더.{그래 아무리 많이 낳아도 못 키웠습니다.}

10703 # 흥진 소이메 다 이러뿌고.{흥역 손님에 다 잃어버리고.}

10703 # 칠람매 팔람매도 자꾸 이러뿌고 이라뿌고.{칠남매 팔남매도 자꾸 잃어버리고 잃어
버리고.}

10703 # 그래 아: 다 주일뿌고.{그렇게 애를 다 죽여버리고.}

10703 # 그때느 머: 자숙 쿡: 몬 한 사래미 만습니더{그때는 뭐 자식 구경 못한 사람이 많습
니다.}

10703 # 요새는 이워니 좋아서.{요새는 의원이 좋아서.}

10703 # 가서 방치를 안 함니꺼.{가서 예방을 하잖습니까.}

10703 # 이리 이릴찌기 머어 방치르 하마.{이리 어릴 적에 뭐 예방을 하면.}

10703 # 그리 그래구마 갠찬테예, 예.{그래 그렇게 그만 괜찮데요.}

10703 # 이인 마 머 귀창코.{이 마 뭐 괜찮고.}

10703 # 아유 머: 그그 소~악캅니더.{아이구 뭐 그것 흉악합니다.}

10703 # 그래 마 잘만하마 얼거뿌고.{그래 뭐 잘못하면 엷어버리고.}

10703 # 예, 그거르 잘몬하머 얼거뿌고.{예, 그것을 잘못 하면 엷어버리고.}

10703 # 또 우째 그 또 저지리하머 얼거뿌고 그런십니더.{떠 어떻게 그 또 부정을 타면 엷
어버리고 그렇습니다.}

10703 # 그그르 참:: 그 씨길찌게 조시플 해야 테는데.{그것을 참 시킬 때에 조심을 해야 되
는데.}

10703 # 우째 엔나레느 부어케다 불로 때애가꼬 생선도 꼭꼬예.{어떻게 옛날에는 아궁이에

다 불을 때서 생선도 굽고요.}

10703 # 지사로 지내마 생선도 꼭꼬 찌고 하는데.{제사를 지내면 생선도 굽고 찌고 하는데.}

10703 # 그 그런 지슬 하고나마 고마 그리 얼거뵙니다.{그 그런 짓을 하고 나면 그만 그렇게 얹어버립니다.}

10703 # 예예, 참 조심합니다.{예, 참 조심합니다.}

10703 # 인테 홍진또 머 요새 아아드른 홍진도 안 합니다.{이런데 홍역도 뭐 요새 아이들은 홍역도 안 합니다.}

10703 # 머어 점:부 주사르 마치서 그랭:께 홍진합니까, 안 합니다.{뭐 전부 주사를 맞혀서 그렇게 하니까 홍역합니까, 안 합니다.}

10703 @ 엔나레 ** 그으 꼬옥 헨찌예?{옛날에 ** 그것 꼭 했지요?}

10703 # 예: 꼭 해질기리예.{예 꼭 하고말고요.}

10703 # 그거르 씨기나:야 이절뿐다 안 캐썸니까.{그것을 시켜놓아야 잊어버린다고 하잖았습니까.}

10703 # 또 그따다가 우째 그건 그그 쿵 쿵 과개 그기 오마.{또 거기다 어찌 그것 그 큰 큰 손님 그것이 오면.}

10703 # 잘못하마 마 다 안 주긴심니까.{잘못하면 뭐 다 죽었잖습니까.}

10703 # 그래 그래가:꼬 잘 헨 사람은 또 어러거뵙고.{그 그래가지고 잘 한 사람은 또 얹어버리고.}

10703 # 그 그리 히미 드런심니다.{그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10703 # 이 우리 쌍디~이 키울쥼마 해도 그때매 해도 좀 시워리 어드바가:꼬.{이 우리 쌍둥이 키울 적만 해도 그 때만 해도 좀 세월이 어두워가지고.}

10703 # 비원도 마~이 영꼬 이러마.{병원도 많이 없고 이러면.}

10703 # 그때는 또 배길지치물 해.{그때는 또 백일기침을 해.}

10703 # 배길지치물 하마 배길 해애 텨니다.{백일기침을 하면 백일을 해야 됩니다.}

10703 # 크야 두리 배길지치물 거더거가 그래애 요글 보고.{그 둘이 백일기침을 얻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10703 # 그래 고때는 또 이워니 이서서.{그래 그때는 또 의원이 있어서.}

10703 # 그래 땡김: 주사를 마치고 이래도 그리키 요글 보고.{그래 다니면서 주사를 맞히고 이렇게 해도 그렇게 고생을 하고.}

10703 # 어 요건뜨른 또 홍진도 또 순하게 합띠더.{이것들은 또 홍역도 또 순하게 합디다.}

10703 # 근또 세월 때 따라 하능강.{그것도 세월 때 따라 하는지.}

10703 # 그래 순하게 하고.{그렇게 순하게 하고.}

10703 # 그 머어 이거 우리는 요 쌍디~이느 일견짜~이 키얏습니다.{그 뭐 이것 우리는 이 쌍둥이는 일같지 않게 키웠습니다.}

10703 # 그렇거를 잔빙치리 마~이 안 해예.{그런 것을 잔병치레 많이 안 해요.}

10703 # 마~이 안 하고 그래 잘 쿵띠더.{많이 안 하고 그래 잘 쿵디다.}

10703 # 그기 엔나레는 흥진 그그 참 무섭심니더.{그것 옛날에는 흥역 그것 참 무섭습니다.}

10703 # 직끄른 그런때미러 야: 하나 둘 다 안 키암니까.{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애를 하나 둘만 다 키우잖습니까.}

10703 # 뽕치기는 우째 헐습디꺼?{불거리는 어떻게 했습디까?}

예예?{예?}

@ 불치기.{불거리.}

10703 # 뽕치기?{불거리?}

10703 # 뽕치기도 해사안쨌.{불거리도 하곤 했지.}

10703 @ 뽕치긴 우 우 우째서 생기는 겁니까?{불거리는 어 어 어째서 생기는 것입니까?}

10703 # 뽕치기는 또 무다:~이 그 머 태게 모~아리가 이래 생기거마.{불거리는 또 무단히 그 뭐 턱에 멍울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다.}

10703 # 모~아리가 생기가아꼬 고마 그기: 모~아리가 자꾸 커가:꼬.{멍울이 생겨가지고 그 만 그것이 멍울이 자꾸 커져서.}

10703 # 벌:거~이 해가아꼬 그래 그 불치기라고 해사심니더.{벌짱게 해가지고 그래 그 불거리라고 하곤 했습니다.}

10703 # 그래해도 머 개 그카다 갠찬코.{그렇게 해도 뭐 그러다가 괜찮고.}

10703 @ 그음 터잡니까 어잡니까?{그럼 터트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10703 # 그래 그애똥 그건떠 마 상는 머: 야기 일 머어슬 조야글 해사치.{그래 그래 또 그것 도 뭐 삭는 뭐 약이 있 똥을 조약을 하곤 하지.}

10703 # 자다가 저 밤추미 제일 조타쿠고.{자다가 밤 침이 제일 좋다고 하고.}

10703 # 그래 예, 할매드리 여페 딜:꼬 자미서:.{그래 예, 할머니들이 옆에 데리고 자면서.}

10703 # 마련하고 그 밤추를 자:꾸 발라사.{마련하고(?) 그 밤 침을 자꾸 발라.}

10703 # 그래 고마 상는 수가 익꼬.{그래 그만 삭는 수가 있고.}

10703 # 그 밤춤도 야기 줄습니더.{그 밤 침도 약이 좋습니다.}

10703 # 이거 맥 *** 발란쨌네예, 불라.{이것 ???? 발랐겠네요, 발라.}

10703 # 그이 그래 삭심니더.{그게 그렇게 삭습니다.}

10703 @ 예예.{예.}

10703 @ 어머~이 혹시 그: 여개 코미테 요개 켜:지가지고.{어머니 혹시 그 여기 코밑에 여 기 켜져가지고.}

10703 @ 말 잘 몬하는 사람도 안 이션습니까?{말 잘 못하는 사람도 있잖았습니까?}

10703 @ 그름 머라 ***,{그것을 뭐라고 [X했습니까X]?}

켜보.{언청이.}

10703 @ 에 고고 함 말슴 좀 해주이소.{예 그것 한 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10703 # 켜보은 먹 그으른 사람 배속: 빙스~이지.{언청이 뭐 그런 사람은 배넷병신이지.}

10703 # 배소게서 고래가: 나왈쨌.{배 속에서 그렇게 해서 나왔지.}

10703 # 고래가: 나오매 이지저네느 그으를 도리가 업서가:꼬 켜보가 데:가: 안 사람심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면 이전에는 그것을 도리가 없어서 언청이가 돼서 살았습니까.}

10703 # 이런데 지꾸든 집는다깝떠더.{이랬는데 지금은 집는다고 합디다.}

10703 # 예 딱 집:뿌머 갠찬타깝떠더.{예, 딱 기워버리면 괜찮다고 합디다.}

10703 # 무어 이 태중에 저:게 잘 몬하마.{뭐 이 태중에 저기 잘 못하면.}

10703 # 저저리하머 그러탐니더.{부정을 타면 그렇다고 합니다.}

10703 # 예 머를 자즈 잘 저저르하마.{예 뗏을 잘 잘 부정을 타면.}

10703 # 머 꺽뚜글 곤친다.{뭐 굴뚝을 고친다.}

10703 # 머어 태중에 머 머: 손 몬델때다 소늘 대고나마.{뭐 태중에 뭐 뭐 손 못 델 데에다 손을 대고 나면.}

10703 # 그런때미로 임신~이 데마 조시물 안 합니까.{그렇기 때문에 임신이 되면 조심을 하잖습니까.}

10703 # 임신~이 데마 모도 그 그:느 손 대마 안텐다.{임신이 되면 모두 그 거기는 손 대면 안 된다.}

10703 # 그그느 하아 그 이른 하마 안 텐다 이래.{그것은 하 그 일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10703 # 조시물 합니더, 조심하능거 마넛찌예.{조심을 합니다, 조심하는 것 많았지요.}

10703 # 머어 흥진 씨이고 이렇겅또 조시물 하고 가리고.{뭐 흥역 시키고 이런 것도 조심을 하고 가리고.}

10703 # 너머 장:사도 가지마라.{남의 장사에도 가지 마라.}

10703 # 머: 마~이 가릴심니더.{뭐 많이 가렸습니다.}

10703 # 그럼 가리야 텨니더.{그럼 가려야 됩니다.}

10703 # 그래 머: 굳 이 이저네는 똥물도 퍼내고 아니랴습니까.{그래 뭐 구 이 이전에는 똥물도 퍼내고 이랬잖습니까.}

10703 # 추무리로 가: 저다내고{추마리를 가지고 저다내고.}

10703 # 그도 그렇겅또 하지마라:.{그 그런 것도 하지마라.}

10703 # 가리능기 만심니더.{가리는 것이 많습니다.}

10703 @ 혹시 그: 압 몬보는 사람은 업섯습니까?{혹시 그 앞 못보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10703 @ 저: 동네나 또 엽동네나 암 모뽏는 사람?{저 동네에나 또 옆동네에나 앞 못보는 사람?}

10703 # 암모뽏느 사래미 혹:시 이찌예.{앞 못보는 사람이 혹시 있지요.}

10703 @ 그는 머라켄습니까?{그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10703 # 혹:시 인는데 그으는 또 사다가 병신테는 수도 익꼬.{혹시 있는데 그것은 또 살다가 병신되는 수도 있고.}

10703 # 사다가 그래 봉사테는 수도 익꼬.{살다가 그렇게 봉사되는 수도 있고.}

10703 # 또어 배속: 봉사도 익꼬.{또 뱃속 봉사도 있고.}

10703 # 예 배속: 봉사도 이래.{예 뱃속 봉사도 이래.}

10703 # 여: 아래 우리 일가 한지베는 보잉께네.{여 아래 우리 일가 한 집에는 보니까.}

10703 # 구리~이가 저어 담부라~아 이리 타고 드가능거로.{구렁이가 저 담벼락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것을.}

10703 # 극 그기 임신할때.{ 그 그게 임신할 때.}

10703 # 구구 머이 풀썩개가 안 이십니까.{그것 뭐 부집게가 있잖습니까.}

10703 # 머인 이에 뎡따커등강 이랜능가.{뭐 이 대었다고 하던가 이랬는가.}

10703 # 그 아:를 나아노웅게 고마 누~이 누~이 봉사예.{그 애를 낳아놓으니까 고만 눈이 눈이 봉사요.}

10703 @ 동네서 이선습니까?{동네에서 있었습니까?}

10703 # 예예, 그래각꼬 지금꺼정 봉사라.{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봉사라.}

10703 # 살고 이십니다.{살고 있습니다.}

10703 # * 그런 그렇건또 조심해애 데고.{그런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10703 # 그 그런 진또 안 해애 데는데.{그 그런 짓도 안 해야 되는데.}

10703 # 그런 지슬 하잉게 조심 해:데고.{그런 짓을 하니까 조심 해야 되고.}

10703 @ 또 배소게서부터 다리를 절고.{또 뱃속에서부터 다리를 절고.}

#예.{예.}

10703 # 또오 이 치끔 한 오십때: 육십때 그으 그그 순간에는.{또 지금 한 오십대 육십대 그 그 무렵에는.}

10703 # 소아마비를 마~이 헐:쌔:더.{소아마비를 많이 했습니다.}

10703 # 소아마비를 그때느 아물 머: 조치도 억꼬.{소아마비를 그때는 아무 뭐 조치도 없고.}

10703 # 고마 말:건 아:가 고마 다리도 몬 써고.{그만 멀쩡한 애가 그만 다리도 못 쓰고.}

10703 # 팔도 몬 써고 이래마 소아마비라킹기:써.{팔도 못 쓰고 이러면 소아마비라고 하는 것이 있어.}

10703 # 그래가:꼬 말 병시~이가 데아 찢룩빠리가 마:~이 생기고.{그래가지고 그만 병신이 되어서 절름발이가 많이 생기고.}

10703 # 곰배파리 마~이 생기고 안 그랜십니까.{곰배팔이 많이 생기고 그랬잖습니까.}

10703 @ 곰배파리는?{곰배팔이는?}

곰배파른 마 이 팔 몬써고.{곰배팔은 뭐 이 팔 못쓰고.}

0703 # 마 팔 몬써고 이래가: 마 이 이래 장: 이 이래가 덩기는 사암 그기 곰배파리고.{뭐 팔 못쓰고 이렇게 해서 뭐 이 이래 늘 이 이렇게 다니는 사람 그것이 곰배팔이고.}

10703 @ 아 예 *** 이선따 그지예?{아 예 *** 있었다 그죠?}

10703 @ 혹시 이 등이 이래 구부가:꼬 여 툃: 티:노:고 이런 사람들 업선십니까?{혹시 이 등이 이렇게 굽어가지고 여기 툃 튀어나오고 이런 사람들 없었습니까?}

10703 @ 그으는 머라켄습니?{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만치예.{많지요.}

10703 # 그런 사람: 함부두룩 모대 주루 부인드리 그러썸니다.{그런 사람이 뭐 함부로 모두

주로 부인들이 그렇습니다.}

10703 # 이 동네도.{이 동네도.}

10703 @ 아이 저기.{아니 저기.}

머 부인드리 머어 예 이를 함부두루 하고.{뭐 부인들이 뭐 예 일을 함부로 하고.}

10703 # 머어 애기노코 함부두루 꿈지이고.{뭐 애기 넣고 함부로 움직이고.}

10703 # 우리는 우리 아:드리 그:칸다.{우리는 우리 애들이 그렇게 말한다.}

10703 # 우리 엄마느 그러콤 저:게 이를 마~이 해:도.{우리 엄마는 그렇게 저기 일을 많이 해도.}

10703 # 그래도 어테 나서매 자세가 꼰꼰해서 갠찬타 이:캄니더.{글래도 어디 나서면 자세가 꼰꼰해서 갠찬다 이렇게 말합니다.}

10703 # 그으르 마 어떤 사라른 마 땅을 물고 안 텡김니꺼.{그 마 어떤 사람은 마 땅을 물고 다니잖습니까.}

10703 # 하아: 땅을 물고 대~이는 사람 이 동네도 만습니더.{하아 땅을 물고 다니는 사람이 동네에도 많습니다.}

10703 # 그런 사람드른 모도 태정 태중에 모드 병을 어더가:꼬{그런 사람들은 모두 태중 태중에 모두 병을 얻어가지고.}

10703 # 머 생산하고 조리 잘 몬하고.{뭐 생산하고 몸조리 잘 못하고.}

10703 # 함부두롱 마 꿈지:고 그래가: 병 얻는 사래미 만심니더.{함부로 뭐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병 얻는 사람이 많습니다.}

10703 # 또 우째 혹:시 머: 엔나레느 꼬치도 따가지고 지붕에 너럴습니더.{또 어찌 혹시 뭐 옛날에는 고추도 따가지고 지붕에 널었습니다.}

10703 # 집찌붕에.{짚 지붕에.}

10703 # 발가아~이 안 느러썸니꺼.{발강게 늘잖았습니까.}

10703 # 크래 느러라 꼬치 늘러 올라가다 또 자빠진 사람도 익꼬.{그래 널러 고추 널러 올라가다가 또 자빠진 사람도 있고.}

10703 # 지붕에 너쩰 사람도 빙시~이가 데고.{지붕에서 떨어진 사람도 병신이 되고.}

10703 # 머 그런 사람: 만심니더.{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10703 # 사다가보마.{살다가보면.}

10703 # 예이 이저네야 그 머: 사람 머 사랑김:니꺼.{이 이전에야 그 뭐 사람 뭐 산 것입니까.}

10703 @ 이 기: 몬뜰는 사람은 업설습니꺼?{이 귀 못듣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10703 # 몬뜰는 사람드 이찌예.{못듣는 사람도 있지요.}

10703 # 그거뜨 배속빙시~이.{그것도 배넛병신.}

10703 # 도 크다가 빙시~이 데는 수가 익꼬.{또 크다가 병신이 되는 수가 있고.}

10703 # 크다가 귀에 무리 나사코.{크다가 귀에 물이 나고.}

10703 # 이 귀가 이으 양주게 으 기:마꼬가 노가아뿌가:꼬.{이 귀가 이 양쪽에 고막이 녹아

버려서.}

10703 # 그래가:꼬.{그래가지고.}

@ 머가예:??{뭐가요?}

10703 # 귀마꼬라커대.{귀고막이라고 하대.}

10703 # 예.{예.}

10703 # 그기: 노가뿌가꼬.{그것이 녹아버려서.}

10703 # 자::꾸 그그 고름 나산능거로 몬 나수고.{자꾸 그 고름 나는 것을 못 고치고.}

10703 # 지꾸문 곤치지마는 몬곤치고 나뚜잉께.{지금은 고치지마는 못고치고 놔두니까.}

10703 # 그기: 고마 영글고 기:마 빙시~이가 테에서 평생네 몬득꼬.{그것이 그만 굳고 ??면 뭐 병신이 돼서 평생동안 못듣고.}

10703 # 그래썸띠더.{그렇습디다.}

10703 # 이 동네도 그런 사람: 일심니더.{이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10703 # 그름마 시지블 와노~이 실랑이 저런 사라를 디일꼬 몬산다꼬.{그래 뭐 시집을 와 놓으니 신랑이 저런 사람을 데리고 못 산다고.}

10703 # 고마 도마~을 가뿌고 그런사래미 이썸띠더.{고만 도망을 가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10703 # 그래 도마~을 가뿌고.{그래 도망을 가버리고.}

10703 # 이 얘:기가 질마 안텐다{이 얘기가 길면 안 된다.}

10703 # 그: 아들 하나르 나:노코.{그 아들 하나를 낳아 놓고.}

10703 # 그러마 음: 각시르 내비리뵙 가뿌고 나~이.{그래 마 음 각시를 내버리고 가버리고 나니.}

10703 # 클 그이 이 이 귀 귀 어더븐 사래미 그래도 마:몬 이 참 청백거치 글 그 그개가: 꼬.{그 이 이 귀 귀 어두운 사람이 그래도 마음은 이 참 청백같이 그 그래가지고.}

10703 # 그 아들 하나르 키아고.{그 아들 하나를 키우고.}

10703 # 크애 그래가:꼬 살리물 사란는데.{그 그래가지고 살림을 살았는데.}

10703 # 저: 건니 저에 참니더, 새집 지:가:꼬 이래 삼니더.{저 건너 저기에 삽니다, 새집 지어서 이렇게 삽니다.}

10703 # 부자르 잘 심니더, 그 아드리 커가지고.{부자로 잘 삽니다, 그 아들이 커서.}

10703 # 예예, 그 아드리 커가지고.{예, 그 아들이 커가지고.}

10703 # 그래가:꼬 아들 하나르 키아가: 손자 둘 손 손녀 하나 이래 나:가:꼬.{그래가지고 아들 하나를 키워서 손자 둘 손 손녀 하나 이렇게 나아가지고.}

10703 # 손부보고 소 손서보고.{손부보고 손 손서보고.}

10703 # 그: 먹찌그러 한마~이가 지끔: 그래 막 자숙한테 호요 호성박꼬.{그 귀머거리 할머니가 지금 그렇게 뭐 자식한테 효성받고.}

10703 # 그래 양 크 안 삼:니꺼.{그렇게 살잖습니까.}

10703 # 잘 삼니더, 지끔 대접 잘 박꼬.{잘 삽니다, 지금 대접 잘 받고.}

10703 # 그리 잘 사면서 그 머 아들 손자도 서울 각 공부해가:꼬.{그리 잘 살면서 그 뭐 아들 손자도 서울 가서 공부해가지고.}

10703 # 그: 공무원~이고 손부도 공무원~이고.{그 공무원이고 손부도 공무원이고.}

10703 # 또 자근 손자도 지금 대학 하고 익꼬.{또 작은 손자도 지금 대학 하고 있고.}

10703 # 그래 잘 삼니더.{그렇게 잘 삼니다.}

10703 # 그리 그리이 참 이 실랑도 업써 그리 사라가:꼬.{그래 참 이 신랑도 없이 그렇게 살 아가지고.}

10703 # 그래 요새:는 큰소리치고 그래 삼니더.{그래 요새는 큰소리치고 그렇게 삼니다.}

10703 @ 저: 또 보몬 마를 몬하는 사람도 안 이션습니까?{저 또 보면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었잖습니까?}

10703 # 마를 몬하느 사람.{말을 못하는 사람.}

10703 @ 더듬는 사람도 이슬?{더듬는 사람도 있을?}

마를 마를 몬하는 사암도 혹시 이썬니더.{말을 말을 못하는 사람도 혹시 있습니다.}

10703 # 예:, 마를 몬하는 사람 그그느 또 버부리랑 버부리랑 만내가:꼬.{예, 말을 못하는 사람 그것은 도 병어리랑 병어리랑 만나가지고.}

10703 # 여: 우리 딸래 봉게.{여기 우리 딸네 보니까.}

10703 # 버부리랑 버부랑 마차노~이.{병어리랑 병어리랑 맞춰놓으니.}

10703 # 크이 여자느 그래 야무치:예.{그 이 여자는 그렇게 야무져요.}

10703 # 야무친데 마를 몬하는데.{야무친데 말을 못하는데.}

10703 # 그래도 애:드르 삼남매르 나노옹께 그래 또 잘 쿠고.{그래도 애들을 삼남매를 낳아 놓으니 그렇게 또 잘 크고.}

10703 # 이런는데 실랑 각시 싸워사이.{이런는데 신랑 각시 싸우곤 해.}

10703 @ 마를 몬하는데 싸*.{말을 못하면서 싸*.}

예, 마를 몬하미서 충도리 나사:서.{예, 말을 못하면서 충돌이 나곤 해서.}

10703 # 그래 실랭이 뚜더리 패고 이캐싸.{그래 신랑이 두드려 패고 이렇게 해.}

10703 # 그캐사미 참 여자는 참 존는데.{???? 참 여자는 참 좋은데.}

10703 # 그그 그리구러 삼떠더.{그그 그리구러 삼디다.}

10703 # 그래도: 갈쫄도 모르고.{그래도 갈 쫄도 모르고.}

10703 # 어 먼 머어 실랑도 버릴쫄도 모르고 그래그래 삼디더.{어 뭐 뭐 신랑도 버릴 쫄도 모르고 그렇게 그렇게 삼디다.}

10703 # 엔나레는 그느 사암도 다:: 겔호늘 하고.{옛날에는 그런 사람도 다 결혼을 하고.}

10703 # 암::만 불상한 사람도 겨로늘 하고 이래 사란는데 지끄른 머.{아무리 불상한 사람도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뭐.}

10703 # 사대육신: 다: 머 머 핑코 업 부모 잘 만나고 이는 사암도 이 동네 장개 몽가는 사람: 짝 찰습니더.{사지육신 다 뭐 뭐 편하고 부모 잘 만나고 이런 사람도 이 동네에 장가 못가는 사람 짝 찼습니다.}

10703 # 이 우리 일 서 성씨드리 총가기 여남치나 일심니더.{이 우리 이 성씨들이 총각이
여남은 이나 있습니다.}

10703 # 그기 크니리라예.{그것이 큰 일이에요.}

10703 # 그 장개를 몽가예.{그 장가를 못 가요.}

10703 # 그래 언자 머: 베트나:미라 쿠더나.{그래 인제 뭐 베트남이라고 하더나.}

10703 # 월람이라킵떠더 예.{월남이라고 합디다 예.}

10703 # 그개 한 여: 한 집 우리집 우리 일가 한 지븐.{거기에 한 여기 한 집 우리집 우리
일가 한 집은.}

10703 # 그래 서른여덟살 문:는데.{그래 서른여덟 살 먹었는데.}

10703 # 그리 장개르 몬 디리고 그: 머 중시내비가 일따킵떠더 .{그렇게 장가를 못 들고
거기에 뭐 중신아비가 있다고 합디다.}

10703 # 매자가 이서가주고.{중매쟁이가 있어가지고.}

10703 # 그래 언자 그 매자한테 부타글 해가주구.{그래 인제 그 중매쟁이에게 부탁을 해가
지고.}

10703 # 처제르 딜:꼬 완는데.{처자를 데리고 왔는데.}

10703 # 모리 이로일랄 내일 모리 이로일랄 겨론합니다.{모레 일요일에 내일 모레 일요일에
결혼합니다.}

10703 # 근데 딜:꼬 와가지고 이 수물니살 먼따커더나 처자가.{그런데 데리고 와서 이 스물
네살 먹었다고 하더나 처자가.}

10703 # 딜:꼬와서 마 이 집 잘살고.{데리고 와서 마 이 집 잘살고.}

10703 # 어~어 따리 다서시고 아드리 하내인데.{어 딸이 다섯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10703 # 막: 이 떠들고 일찌.{막 이 받들고 있지.}

10703 # 도~이 이승게 돈 주지 온 해이피지.{돈이 있으니까 돈 주지 옷 해 입히지.}

10703 # 막: 이 이래 떠들고 이승게 조아예.{막 이 이렇게 받들고 있으니까 좋아요.}

10703 # 그래 조아하미서.{그렇게 좋아하면서.}

10703 # 우쨌등가 시미서가: 사우가 다서신데{어쨌든지 힘이 있어서(?) 사위가 다섯인데.}

10703 # 사운 다서시 점:부 그를 써서 저: 이 새디기로 말로 자:꾸 써기능기라.{사위 다섯이
전부 글을 써서 저 이 새댁에게 말을 자꾸 시키는거라.}

10703 # 말로 써기고 연시블 써이고.{말을 시키고 연습을 시키고.}

10703 # 그 처남 하나 장개 디릴라꼬 이래사~이{그 처남 하나 장가 들이려고 이러니.}

10703 # 그래 여개 딜꼬 와농께네 사라미 참 착하답니더.{그래 여기에 데리고 와보니 사람
이 참 착하답니다.}

10703 # 그래 모리: 겨론 씨임니더.{그래 모레 결혼 시킵니다.}

10703 @ 아 살고 인네예?{아 살고 있네요?}

예, 살고 이심니더.{예, 살고 있습니다.}

10703 # 그래가: 보메 저게 가서 겨로늘 또 헐땀니더.{그렇게해서 봄에 저기에 가서 결혼을

또 했답니다.}

10703 # 충가기 가가지고.{충각이 가서.}

10703 # 그래 겨로늘 하고 완는데.{그래 결혼을 하고 왔는데.}

10703 # 그래 처자르 보내돌라꼬 그래 인자 처자가 나왓써예.{그래 처자를 보내달라고 그래
서 인제 처자가 나왔어요.}

10703 # 그래 매자가 언자 이 처자르 디꼬 나오가지고.{그래 중매쟁이가 인제 이 처자를 데
리고 나와서.}

10703 # 사라미 그리 조습니더.{사람이 그렇게 좋습니다.}

10703 # 조탐니더.{종답니다.}

10703 # 그래 언자 어른들로 그리 싱길쭈 알고.{그래 인제 어른들을 그렇게 섬길 줄 알고.}

10703 # 그기 사람드리 엔날 우리 이 조선 풍속강 똑갸땀니다.{거기 사람들이 옛날 우리 이
조선 풍속과 똑 같답니다.}

10703 # 부모 싱길쭈 알고 가장 싱기쭈 알고 이래.{부모 섬길 줄 알고 가장 섬길 줄 알고
이렇게.}

10703 # 그래 이 사라미 차캐:예.{그래 이 사람이 착해요.}

10703 # 그래 착캐가:꼬 언자 말도 언자 쪼꿈 하고.{그래 착해가지고 인제 말도 인제 조금
하고.}

10703 # 그래 실랑이 부산 인는데.{그래 신랑이 부산에 있는데.}

10703 # 그래 실랑 따라갈라꼬 인자 집또 구해노코 이런는데.{그래 신랑 따라가려고 인제
집도 구해놓고 이렇는데.}

10703 # 그래 충가기 그칸다 앙카나.{그래 충각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잖니.}

10703 # 엄마 미테 안주 좀 더: 더 배아가죽 그래 나와야 테지 그래 나오마 안 텐다꼬. {엄
마 밑에서 아직 좀 더 더 배워가지고 그렇게 나와야 되지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고.}

10703 # 가실꺼정마 좀 딜꼬 이스라 켜.{가을까지만 좀 데리고 있으라고 해.}

10703 # 처자가 아이고 기명씨 따라가고지바요 가고지바요 이산다양캄니꺼.{처자가 아이고
기명 씨 따라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잖습니까.}

(웃음)

10703 # 그래 얼라맨치르 모도 떠들고 일땀니더.{그래 아기처럼 모두 떠받들고 있답니다.}

10703 # 이래잉께네 이 지배 온 사람: 참 잘 완심니더.{이러니까 이 집에 온 사람 참 잘 왔
습니다.}

10703 # 요새느 머 그래라도 장개르 가야지.{요새는 뭐 그렇게라도 장가를 가야지.}

10703 # 구온또 그래 디릴다가 시입짜리르 천냥짜리 맨들 지비 익꼬.{그것도 그렇게 데려다
가 세입(?)짜리를 천냥짜리로 만들 집이 있고.}

10703 # 또 천냥짜리로 시입짜리 맨들 지비 인는데.{또 천냥짜리를 세입(?)짜리로 만들 집이
있는데.}

10703 # 그는 사람 디리다가 팔리르 잘 해애데.{그런 사람 데려다가 관리를 잘 해야 돼.}

10703 # 이지베느 마 똥: 먼:꺼치 그래 상:께네.{이집에는 뭐 똑 뭐같이 그렇게 하니까.}

10703 # 그래 언자 말도 잘하고.{그래 인제 말도 잘하고.}

10703 # 허 그러답니더.{허 그렇답니다.}

10703 # 그래 언자 니일모래 겨론 씨김:다, 여: 와서.{그래 인제 내일모래 결혼 시키니다, 여
기 와서.}

10703 # 저:서 했는데 또 여: 와서 언자 겨론 씨인담:다.{저기서 했는데 또 여기 와서 결혼
시킨답니다.}

10703 # 지끔 장개 몽가는 그기 큰 일 아임니꺼.{지금 장가 못 가는 그것이 큰일 아닙니까.}

10703 # 그기 큰 일임니더.{그것이 큰일입니다.}

10703 # 이 이 처재는 우리 동네 처재는 마~이 엄는데.{이 이 처자는 우리동네 처자는 많
이 없는데.}

10703 # 충가기 만썸니더.{충각이 많습니다.}

10703 # 충가기 머 머 장개 몽가고 머.{충각이 뭐 뭐 장가 못 가고 뭐.}

10733 # 이 머 머시 여남:씨나 이래가 고마.{이 뭐 뭇이 여남은명이나 이렇게 그만.}

10733 # 크~일 난심니더.{큰일났습니다.}

(웃음)

10704 @ 어머~이 혹시 저 그 머 뽕을 나살라고 무대~이나 머어 박수가튼.{어머니 혹시
저 그 뽕 병을 고치려고 무당이나 뭐 박수 같은.}

10704 @ 무당이나 박수가튼 사람들 치~애가야고 굳하고 이당거 한 본 보신 경엄 일스심니
꺼?{무당이나 박수 같은 사람들 청해서 굿하고 이런 것 한 번 보신 경험 있으십니
까?}

일찌예.{있지요.}

10704 # 이찌예.{있지요.}

10704 # 우리: 기뜰 절물째는 그러거 마:~이 했습니더.{우리 젊을 적에는 그런 것 많이 했
습니다.}

10704 # 그런 일러 마~이 했습니더.{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10704 # 이 지끄른 다 병워네 가고.{이 지금은 다 병원에 가고.}

@ 말씀쭌 **. {말썸 쭌.}

10704 # 우 머 무당이 무슨 소용이 이십니꺼 이런는데.{어 뭐 무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꺼
이런는데.}

10704 # 그때 쭌치느 머어 무당은 억씨: 모도 마~이 해심니더.{그때 쭌에는 뭐 무당은 아주
모두 많이 했습니다.}

10704 # 그그는 머어 난는다쿠고 나순다쿠고.{그것은 뭐 낫는다고 하고 고친다고 하고.}

10704 # 지금 그그 업서도 사는데.{지금 그것 없어도 사는데.}

10704 # 마~이 했찌예.{많이 했지요.}

10704 # 혹:시 참 답따:른 새미 판다꼬.{혹시 답답하면 우물 판다고.}

10704 # 그래가:꼬 또 효험 보는 사람: 보고.{그래가지고 또 효험 보는 사람은 보고.}

10704 # 지금 무당 엄심니더.{지금 무당 없습니다.}

10704 @ 그으 무당이 구슬 하면 어쨌미까, 바를 새가아서 합니꺼 우쨌 합니꺼?{그 무당이
곳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밤을 새가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10704 @ 바를 새아가꼬 합미까 우쨌미까?{밤을 새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10704 # 예예 엔나레는 바를 새아고 뚜디리고 이래 구슬 헨는데.{예 옛날에는 밤을 새워 두
드리고 이렇게 곳을 헨는데.}

10704 # 요즈:문 돈마 마~이 도라쿠고.{요즘은 돈만 많이 달라고 하고.}

10704 # 고마 대강 헤어뿌고 그래 안한담니더.{고만 대강 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
다.}

10704 # 클머 크래 아 머 무당써서 난는 병도 익꼬.{그 머 그래 뭐 무당써서 낫는 병도 있
고.}

10704 # 요즈문 머 점재~이 그: 마~이 안 조아합니더.{요즘은 뭐 점쟁이 그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10704 @ 동네에 머테 머 무당에 누가 일선습니까?{동네에 어디 뭐 무당이 누가 있었습니
까?}

10704 @ 사람 동네사람이 무당이 텐 그런 사람 일습니?{사람 동네사람이 무당이 된 그런
사람 있습니까?}

10704 # 이 동네는 무당 안 남니더.{이 동네에는 무당 안 남니다.}

10704 @ 머 무당 그은또 머 타고 시~이 내리야 텐다 사태예.{뭐 무당 그것도 뭐 타고 신
이 내려야 된다고 하대요.}

10704 @ 그런걸.{그런 것.}

그렇거 머 마학 꾸씩 그근또 싱꾸슬 해애 템니다.{그런 것 뭐 막 그것도 내림곳을
해야 합니다.}

10704 @ 그 함면 말씀 해주이소.{그것 한 번 말씀 해주십시오.}

10704 # 싱꾸슬 하마 시~이 들리가: 살리물 몬살고.{내림곳을 하면 신이 들려서 살림을 못
살고.}

10704 # 만:날 시~이 들리가 땡기미서.{만날 신이 들어서 다니면서.}

10704 # 그래 그: 사타가.{그래 그렇게 하다가.}

10704 # 그래 언자 또 또 무당이 무당한테 가따 저를 해가지고.{그래 인제 또 또 무당이 무
당한테 가서 점을 해가지고.}

10704 # 또 쨌 저 무당이 또 구슬 해:라쿠고.{또 저 무당이 또 곳을 하라고 하고.}

10704 # 막: 시늘 청해 안차라쿠고 그래가:꼬.{막 신을 청해 앓히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10704 # 고마 시~이 부터가: 모메 부터가:꼬.{고만 신이 붙어서 몸에 붙어가지고.}

10704 # 그래 곱: 무다~이 대데예.{그래 고만 무당이 되데요.}

10704 # 크느 무다~이 테가:꼬 마: 땡기미 뚜디리고.{그래 무당이 도이서 뭐 다니면서 두드

리고.}

10704 # 마: 점재~이가 데고 그 머 그런십떠더, 무당도.{뭐 점쟁이가 되고 그 뭐 그렇습디다, 무당도.}

10704 # 머 이 동네에는 그런 사람 업써도.{뭐 이 동네에는 그런 사람 없어도.}

10704 # 모 무당 데는 사램: 그래 텨떠더.{뭐 무당 되는 사람이 그렇게 됩디다.}

10704 # 그으 마아 시~이 부터가:꼬.{그 뭐 신이 붙어가지고.}

10704 # 엔나레는 그음 사래미 신도 마~이 부터예.{옛날에는 그 사람에게 신도 많이 붙어요.}

10704 # 지끔 그는 사람 업썸니더.{지금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10704 @ 시니 부투모 어떠습니꺼 쥘 평소하고 사래미 달라집니꺼?{신이 붙으면 어떻습니꺼 쥘 평소와 사람이 달라집니꺼?}

시~이 붙 시~이 부툼: 사람 다르지예.{신이 붙 신이 붙으면 사람이 다르지요.}

10704 # 여 다르고 하는 행동도 다르고.{다르고 하는 행동도 다르고.}

10704 # 고마 마 흥실상실한 소리해싸코.{고만 뭐 ????한 소리를 하고.}

10704 # 그 신 그기: 울키 드러가지고 도늘 버리묵꼬 살마느 갠찬는데.{그 신 그것이 옹게 들어서 돈을 벌어 먹고 살면 괜찮은데.}

10704 # 잘 몬 들면 직꾸석 조지고 그런썸니더.{잘 못 들면 집안 망치고 그렇습니다.}

10704 # 구래도 엔나레는 장가로 가고 시지불 가도.{그래도 옛날에는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도.}

10704 # 그기 애드리 기론 잘몬하마 점재~이 지베 겨로늘 해노마 그기: 또 물림템니더.{그것이 애들이 결혼 잘못하면 점쟁이 집에 결혼을 해 놓으면 그것이 또 물림됩니다.}

10704 # 그긴 떠 내리미 템니더.{그것이 또 내림이 됩니다.}

10704 # 그래 고마 삼대고 사대고 머 그 지븐 직구숙 조집니더.{그래 그만 삼대고 사대고 뭐 그 집은 집안 망칩니다.}

10704 # 그걸: 단디: 알고 게론 해애테지.{그것을 단단히 알고 결혼을 해야 되지.}

10704 # 그걸 참 이릅 그렇건또 어려바예.{그것 참 어렵 그런 것도 어려워요.}

10704 # 요새느 그렇기 업찌마느.{요새는 그런 것이 없지마는.}

10704 # 엔나레는 그래썸니더.{옛날에는 그랬습니다.}

10704 # 무당이라커머 천한 사램아임니꺼.{무당이라고 하면 천한 사람이잖습니꺼.}

1.7.2. 약초 캐는 과정과 주변 이야기

10705 @ 어머~이 아까 그 용모초 말스플 해주신는데예.{어머니 아까 그 익모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0705 @ 그으또 용모초도 약초 아임니이꺼?{그것도 익모초도 약초 아닙니까?}

약초지예.{약초지요.}

10705 @ 그러믄 언자 용모초는 아까 말스믄 하시서 드럭꼬예.{그럼 인제 익모초는 아까 말
 쑤믄 하시서 들었고요.}

10705 @ 산이나 드레 나가시가지고 약초 혹시 머 캐본 경험 이스십니까?{산이나 들에 나가
 서서 약초 혹시 뭐 캐어본 경험 있으십니까?}

10705 # 약초 아~잉기 아~잉기 업습니더.{약초 아닌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10705 # 다: 약춘미더.{다 약초입니다.}

@ 고고 쫌 말씀해.{그것 쫌 말씀해 [X주십시오X].}

10705 # 저: 저 저 노구치~이 일찌예?{저어 저 저 할미꽃 있지요?}

10705 # 할미꽃.{할미꽃.}

10705 # 그 노구치도.{그 할미꽃도.}

10705 # 엔나레는 판 야기 억꼬.{옛날에는 다른 약이 없고.}

10705 # 노구치르 정월따레 모도.{할미꽃을 정월달에 모두.}

10705 # 노구치르 캐:다가.{할미꽃을 캐어다가.}

10705 # 보:하~이 고 뿌리르 썩꺼가지고 가서.{보양게 그 뿌리를 썩어가지고 가서.}

10705 # 고래 폭: 쌀마서 집찌비 수를 해 무운습니더.{그렇게 폭 삶아서 집집마다 술을 해
 먹었습니다.}

10705 # 그 바블 해가주고 고 술로 해무:마.{그 밥을 해가지고 그 술을 해 먹으면.}

10705 # 그기: 일러네 방베비래.{그것이 일년의 예방이라.}

10705 # 잔벙치리 안 하고.{잔병치레 안 하고.}

10705 # 모두 다: 모메 조코.{모두 다 몸에 좋고.}

10705 # 고래 그그 노구치~이 술로 해무마.{그래 그것 할미꽃 술을 해 먹으면.}

10705 # 그리 일런내 장수한다커미서.{그래 일년 내에 장수한다고 하면서.}

10705 # 그래 노구치 술러 그래 담마목꼬 이랜는데.{그래 할미꽃 술을 담귀 먹고 이랬는데.}

10705 # 지끔 머 그렇건또 합니까:데.{지금 뭐 그런 것도 합니까 어디.}

10705 # 노구치가 사랑게 그리 조탐니더.{할미꽃이 사람에게 그렇게 좋답니다.}

10705 # 임 지끄믄 사네 오만:: 잡푸리 나사:서 노구치도 잘 육꼬예.{음 지금은 산에 온갖 잡
 풀이 나서 할미꽃도 잘 없고요.}

10705 # 잘 엄는데 우리 여아:느 저가부지 산소 인데 가무 마~이 일따커미서 캐다가 여: 짜
 다라 송구사티~이.{잘 없는데 우리 이 애는 자기 아버지 산소 있는 데 가면 많이 있
 다고 하면서 여기 많이 심곤 하더니.}

10705 # 봄새르 나살습니더, 꼬치 피살습니더.{봄새에 납니다, 꽃이 피니다.}

10705 # 지똥산 할미꼬튼 늘그나 절므나 다 꼬꾸라진다고.{뒹동산 할미꽃은 늙으나 젊으나
 다 꼬꾸라진다고.}

10705 # 할미꼬치.{할미꽃이.}

10705 # 그걸떠 야기 데고.{그것도 약이 되고.}

10705 # 약 안 더능기 업습니더.{약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 또오:또 어떻게: 인습니까?{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705 # 구래가 언자.{그래 인제.}

10705 @ 쑥: 애기 쑥 해주이소.{쑥 이야기 쑥 해주십시오.}

쑥:기 쪼치예.{쑥이 좋지요.}

10705 # 예예, 지금 야글 처사서 쑥또 업따.{예, 지금 약을 처서 쑥도 없다.}

10705 # 잘: 먹기 힘들니더.{잘 먹기 힘들니다.}

10705 @ 엔나레*?{옛날에요?}

야글 처사:서.{약을 처서.}

10705 # 약 안 치닌테가 인심니꺼.{약 안 치는 데가 있습니까.}

10705 # 이래.{이렇게.}

@ 엔날 쑥 캐등거 함 말씀 해주이소.{옛날에 쑥 캐던 것 한번 말씀 해주십시오.}

10705 @ 그레 쑥 ***.{그레 쑥 ***}

예, 엔나레는 쑥또 쑥또 업스스 몬 캐무우썅니더.{예, 옛날에는 쑥도 쑥도 없어서 못 캐어 먹었습니다.}

10705 # 하더 엄는 사람: 쑥뿌리~이 답 캐묵꼬.{하도 없는 사람들이 쑥뿌리 다 캐어 먹고.}

10705 # 쑥뿌리~이 캐가: 때로 이귀고.{쑥뿌리 캐서 때를 잇고.}

10705 # 그: 쑥 그그르 캐:서 나무리라꼬 여어 곡식 쪼꿈 여어가꼬.{그 쑥 그것을 캐서 나물 이라고 넣어 곡식 조금 넣어가지고.}

10705 # 그레 모도 엄서그르 안 해 무운심니꺼.{그레 모두 음식을 해먹었잖습니까.}

10705 # 그런머리 쑥또 잘 엄 잘 모 무우썅디, 엔나레는.{그랬기 때문에 쑥도 잘 없 잘 못 먹었습니다, 옛날에는.}

10705 # 드레 나물도 잘 몬 뜨던꼬예.{들에 나물도 잘 못 뜯었고요.}

10705 # 썸나물도 여러: 종눔미더.{썸나물도 여러 종류입니다.}

10705 # 인테 썸나물도 그:이 지끔 우리는 나시라커는데.{이렇는데 썸나물도 그것 지금 우리 는 나시라고 하는데.}

10705 # 그거를 저: 도시기 이래 내~이라کم니더.{그것을 저 도시에서는 이래 냉이라고 합니 다.}

10705 # 그으 그그는 지일 드레서 일찍 인자 올로오는데.{그 그것은 제일 들에서 일찍 인제 올라오는데.}

10705 # 그: 그그 올로올때는 소가 엔나레는 소가 제일: 살기가 힘들뻔니더.{그 그것 올라올 때는 소가 옛날에는 소가 제일 살기가 힘들 때입니다.}

10705 # 또: 사라몬 떠 강코테 힘들뻔니더.{또 사람은 또 감꽃에 힘들 때입니다.}

10705 @ 언제때예?{어느 때에요?}

10705 # 강꼬테 강꼬치 피마:.{감꽃에 감꽃이 피면.}

10705 # 강꼬치 피마 그때가 제일 보리도 몬묵꼬.{감꽃이 피면 그때가 제일 보리도 못 먹 고.}

10705 # 양시기 업서서.{양식이 없어서.}

10705 # 제:일 힘들땡니더 그때가.{제일 힘들 때입니다 그때가.}

10705 # 엽 이래 보리가 나마는.{이렇게 보리가 나면은.}

10705 # 보리로 이거 서가:인은 지금 보리 드레 아~이십니까?{보리를 이것 서서 있는 지금 보리 들에 있잖습니까.}

10705 # 서가: 인는 이거르 대가리르 말::키 뜨더 쌀도 안 등거리예.{서서 있는 이것을 대가리를 전부 뜯어 쌀도 안 든 것을.}

10705 # 이리 떠더가지고.{이렇게 뜯어가지고.}

10705 # 그거르 이 이래 어신 드스게다 노코 사:삭 비비가지고.{그것을 이 이렇게 거친 명석에 놓고 삭삭 비벼서.}

10705 # 지이끄리 때끄리가 업써서예.{저녁거리 땃거리가 없어서요.}

10705 # 그거르 바~양까네 가서 코옥꼭 빠사가지고.{그것을 방앗간에 가서 꼭꼭 빵아가지고.}

10705 # 그래 언자 저 때르 이루고.{그래 인제 저 때를 이루고.}

10705 # 또 그을또 보리가 모지래서.{또 그것도 보리가 모자라서.}

10705 # 보릴때로 새:파랑거로 보릴대개~이채 비이다가.{보릿대를 새파란 것을 보릿대궁이 채로 베어다가.}

10705 # 새애파라~이 포옥 찌가주고.{새파랗게 폭 찌가지고.}

10705 # 보릴때 그으로 또 방양 바~아 호바게다 콕::콕 빠사가지고.{보릿대 그것을 또 방아 확에다 콕콕 빵아가지고.}

10705 # 그래가 무:마 그건또 곡숙때라서 부새기 안 나고.{그렇게해서 먹으면 그것도 곡식대라서 부황이 안 나고.}

10705 # 그래 사렘: 먹꼬 사래예.{그래 사람이 먹고 살아요.}

10705 # 곡숙 아이라도.{곡식 아니라도.}

10705 # 그래 때개~이도 그래 모드 엔나레는 그래 묵꼬 사랄습니더.{그래 대궁이도 그래 모두 옛날에는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10705 # 해가 지마 이지베도 빠시고 저지베도 빠시고.{해가 지면 이 집에도 빵고 저 집에도 빵고.}

10705 # 죽꺼리 빠신다꼬.{죽거리 빵는다고.}

10705 # 엔나레 그때 이승만 시대 아~임니까.{옛날에 그때 이승만 시대 아닙니까.}

10705 # 그래 안 사랄십니까.{그렇게 살았잖습니까.}

10705 @ 그라문 그 움모초 노구치 쑥 나시 인자 이렇게 전부 다아 그으 약초 아임니까?{그러면 그 익모초 할미꽃 쑥 냉이 인제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약초 아닙니까?}

10705 # 또 어떻기 이설습니까?{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10705 # 저:게 썬내~이도 다:: 야김니더.{저기 썬냉도 다 약입니다.}

10705 # 썬내~이 종뉴가 만심니더 이런데.{썬바귀 종류가 많습니다 이런데.}

10705 # 찐내~이가 꼬들빼기라고 일습니더, 꼬들빼기.{쓴냉이가 고들빼기라고 있습니다, 고들빼기.}

10705 # 그그는 뱀추 몬냥으로 미테 뿌리가 듭니더.{그것은 배추 모양으로 밑에 뿌리가 듭니다.}

10705 # 에 멀테 뿌리가 드능거.{예 밑에 뿌리가 드는 것.}

10705 # 그: 도시이 지끔 그으르 재배르 마~이 합니더.{그 도시에 지금 그것을 재배를 많이 합니다.}

10705 # 이런테:도 마~이 남니더.{이런테도 많이 남니다.}

10705 @ 말씀 좀 해주이소.{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그글 언자 캐:다가.{예, 그것을 인제 캐다가.}

10705 # 봄새르도 고고르 삭카가지고 또 요래 막: 만낙께 문치서.{봄새로도 그것을 삭혀가지고 또 이렇게 막 맛있게 무쳐서.}

10705 # 고래도 묵꼬.{그렇게도 먹고.}

10705 # 고기: 또 마시 익꼬.{그게 또 맛이 있고.}

10705 # 가으레도 그으루 또 언자 머 사서도 묵꼬 캐에서도 묵꼬.{가을에도 그것을 또 인제 뭐 사서도 먹고 캐서도 먹고.}

10705 # 뿌리가 몽탕몽탕하~이 이런능거.{뿌리가 몽푹몽푹하게 이런 것.}

10705 # 그래 그그를 마식께 적꾸게다 고래 또 짐치르 다마가꼬 묵꼬.{그래 그것을 맛있게 젓국에다 그렇게 또 김치를 담귀가지고 먹고.}

10705 # 또 칼찐내~이라고 이십니더{또 칼쓴냉이라고 있습니다.}

10705 # 여:러 종뉴지예.{여러 종류지요.}

10705 # 칼신내:~이라고 이 인는 그구느 이르미 가시랑굽니더, 가시랑구.{칼쓴냉이라고 이 있는 그것은 이름이 가시랑구입니다, 가시랑구.}

10705 @ 가시랑고카능게 ** 칼찐내~이 그거하고 갠 가통김니까?{가시랑고라고 하는 것이 칼쓴냉이 그것과 같은 것입니까?}

10705 # 논뚜름미테 쨌쨌쨌쨌쨌하~이 요어래 이피 쨌쨌쨌쨌하~이 쨌쨌 *** 고론능거 그기 그리 마시 이십니더.{논두렁 밑에 길쭉길쭉길쭉하게 여렇게 얹이 길쭉길쭉하게 그런 것 그게 그렇게 맛이 있습니다.}

10705 # 그걸 뜨더다가예 삭:꿈 디쳐가지고.{그것을 뜯어다가요 살짝 데쳐가지고.}

10705 # 이래 진무레다가 매애 우라뿌마 씨붕기가 빠집뿌고.{이래 ?물에다 매우 우려버리면 쓴 맛이 빠져버리고.}

10705 # 고래 엉가~이 우라 썰마나:마.{그래 어지간히 우려 삶아놓으면.}

10705 # 무리 불그리하~이 이러심:더.{물이 불그레하게 이렇습니다.}

10705 # 그거 언자 씨분 물 그거 안 빠지야 마싹찌.{그것 인제 쓴 물 그것 안 빠져야 맛있지.}

10705 # 빠지뽀: 마시 업서예.{빠져버리면 맛이 없어요.}

10705 # 그래 고거러 무치노:마 된장 좀 여코 양념 가추 여서 무치노마.{그래 그것을 무쳐놓으면 된장 좀 넣고 양념 갖춰 넣어서 무쳐놓으면.}

10705 # 참: 마시 이십니더 그기:,{참 맛이 있습니다 그것이.}

10705 # 머어 나물도 지금 그래 안 해무:서 그러치.{뭐 나물도 지금 그렇게 해먹지 않아서 그렇지.}

10705 # 드레 인는 나물도 마신능기: 쎄:십니더.{뜰에 있는 나물도 맛있는 것이 많습니다.}

10705 # 이래 또 저: 진달래라꼬.{이래 또 저 진달래라고.}

10705 # 예, 노랑꼐 피능거.{예, 노란꽃 피는 것.}

10705 @ 아 진달래 꼬치 노랑습니까?{아 진달래 꽃이 노랑습니까?}

10705 # 진달래꼬치 이래 쭈구지는 지다양코 우에 우에 노:라~이 납작하여 그래 피능기 그기:,{진달래 꽃이 줄기는 기다랗고 위에 위에 노랗게 납작하게 그렇게 피는 것 그것이.}

10705 # 온: 드레 그저네는 안 마낼습니꺼.{온 뜰에 그전에는 많았잖습니까.}

10705 # 그래 마내도: 그 지금 그근또 야글 처사:서 업습니더.{그렇게 많아도 그 지금 그것도 약을 쳐서 없습니다.}

10705 # 그거르 캐:다가 물도 해묵꼬.{그것을 태다가 물도 해 먹고.}

10705 # 그애 머 저어 마애나마 엑끼수두 짜라다노코 묵꼬.{그래 뭐 저 많이 나면 진액으로 짜다놓고 먹고.}

10705 # 그게 떠 남자들에게 그래 조탐니더.{그게 또 남자들에게 그렇게 좋답니다.}

10705 @ 예 어머~이 그 진달래 고그 한 번 쯤 말스믈 좀 더 해주이소.{예 어머니 그 진달래 그것 한 번 쯤 말씀을 좀 더 해주십시오.}

10705 @ 그게 사네 나는 꼐 진달래가 아니고.{그게 산에 나는 꽃 진달래가 아니고.}

진달래 아이 사네 안 남니더.{진달래 아니 산에 안 남니다.}

10705 # 사네 안 나고 저: 드레도 나고 논뚜르메도 나고.{산에 안 나고 저 뜰에도 나고 논두렁에도 나고.}

10705 # 이 머어 지배도 나고 아무테나 남니더.{이 뭐 집에도 나고 아무테나 남니다.}

@ 진달래가예?{진달래가요?}

#예.{예.}

10705 # 그으라 카.{그거라.}

@ 그그는 쥔내~이 종뉴는 아~이지예?{그것은 쏜냉이 종류는 아니지요?}

쥔내~이 아임니꺼.{쏜바귀 아닙니까.}

10705 @ 그이 쥔내~임니꺼?{그게 쏜냉이입니까?}

예 쥔내~이 예.{예 쏜냉이 예.}

10705 # 그 쥔냉이 종뉴는 전:부 요리 톱 떠만 다 저지 나옵니더.{그 쏜냉이 종류는 전부 이렇게 톱 떼면 다 진이 나옵니다.}

10705 # 그도 쥔내~이 아임니꺼.{그것도 쏜냉이 아닙니까.}

10705 # 찐내~이 종류는 다 전 나옵니:더.{썸냉이 종류는 다 진이 나옵니다.}

10705 @ 그라몬 혹시 어머~이 그 진달래라고 말씀하신 그기: 혹시 그깁니껴?(그러면 어머니 진달래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혹시 그것입니까?)

10705 @ 그라머 민들레카능 그깁니껴?(민들레라고 하는 그것입니까?)

민들레 아임니껴 그기:.(민들레 아닙니까 그것이.)

@ 그기 요즘 말로 민들레카는 그기:지예?(그게 요즘 말로는 민들레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민드 요서니 요즘 민들레라 양킴니껴.(예 민들 요즘은 민들레라고 하잖습니까.)

10705 # 이 그기: 이르미 소똥꾸부레~임니더, 엔나레는.{이 그 그것이 이름이 소똥꾸부랭이입니다, 옛날에는.}

10705 @ 머예?(뭐요?)

세똥 소똥꾸부리~이라킴니더, 꾸부레~이.{쇠똥 소똥꾸부랭이라고 합니다, 꾸부랭이.}

10705 # 지금 머: 이르믈 점:부 조은 이르믈 지이가:꼬.{지금 뭐 이름을 전부 좋은 이름을 지어가지고.}

10705 # 또 또: 찐내~이가 일찌.{또 또 썸냉이가 있지.}

10705 # 또 찐내~이가 인느, 요 아페 나가마.{또 썸냉이가 있는데, 요 앞에 나가면.}

10705 # 인 너블너블너벌하~이 이래 짜다라 지끔 저어 인능거 저거 아래도 뉘가 한 보따리 꺼꺼가더라.{이 너블너블너블하게 이렇게 수없이 지금 저기 있는 것 저것 그저께도 누가 한 보따리 꺼어 가더라.}

10705 # 그그는 짐승이 무우도 조코.{그것은 짐승이 먹어도 좋고.}

10705 # 사라미 무구도 조코.{사람이 먹어도 좋고.}

10705 # 그그르: 봄세르마 꺼꺼가꼬 또 씹싸몽는 사람도 익꼬.{그것을 봄세에 꺼어가지고 또 씹싸먹는 사람도 있고.}

10705 # 서우레 가마 마이 파라예.{서울에 가면 많이 팔아요.}

10705 # 이진 내버리는 풀 업습니더.{이진 내버리는 풀 없습니다.}

10705 # 지금 야글 처사서 그러치.{지금 약을 처서 그렇지.}

10705 # 버리는 풀 업습니더, 다: 몽능깁니더.{버리는 풀 없습니다, 다 먹는 것입니다.}

10705 @ 그러므예 아까예 나시라 양그랜습니까?(그러면요 아까요 나시라고 그랬잖습니까?)

10705 # 나시 예.{냉이 예.}

@ 나시 그으또 찐내~이 종늬니까?(냉이 그것도 썸냉이 종류입니까?)

10705 # 그으느 찐내~이 아임니더.{그것은 썸냉이 아닙니다.}

10705 # 예, 나시는 찐내~이 아임니더.{예, 냉이는 썸냉이 아닙니다.}

10705 # 그그는 보메 일찌기 서라레도 캐고.{그것은 봄에 일찍이 설 전에도 캐고.}

10705 @ 나시는예?(냉이는요?)

10705 # 서랄: 삼:동내 나오고 그으느.{설 전 삼동 내내 나오고 그것은.}

10705 # 그글 또 도시 그래 씨우대.{그것을 또 도시에서는 그렇게 쳐주데.}

10705 # 삼동내: 나오고 봄:내 캐고.{삼동내내 나오고 봄내내 캐고.}

10705 # 이래도 거기 탄 탄 푸리 여리 무성하~이 나올라커마 저너른 꼬치 피뽀니다.{이래도 그것이 탄 탄 풀이 이렇게 무성하게 나오려고 하면 저 놈은 꽃이 피어 버립니다.}

10705 # 제일 * 일 일찍 데뽀니다.{제일 일찍 돼버립니다.}

@ 나시 나시가요?{냉이 냉이가요?}

10705 # 예 나시가 제일 일찍 데뽀니다.{예 냉이가 제일 일찍 돼버립니다.}

10705 @ 고논 딱 그웁카며는 요오 하얀 그오 진 안나옴니꺼?{그것은 딱 그렇게 하면 요기 하얀 그 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10705 # 그으느 그그느 집 안 나옴니다.{그것은 그것은 줍 나오지 않습니다.}

10705 # 예 썬내~이가 집 나오지.{예 썬냉이가 줍 나오지.}

10705 # 그그느 집 안 나옴니다.{그것은 줍 나오지 않습니다.}

10705 # 인테 고그느 또 마시 새뜩카지.{이런데 그것은 또 맛이 새뜻하지.}

10705 # 예 된장 찌지는데도 좀 여어마 향이 나고.{예 된장 지지는 데도 좀 넣으면 향이 나고.}

10705 # 과: 국또 끼리고.{그거로 국도 끓이고.}

10705 # 그래 그그느 또 냉이 그근 또 오만테 이 머 고기 요리도 하고.{그래 그것은 또 냉이 그것은 또 온갖데 이 뭐 고기 요리도 하고.}

10705 # 그런때미 도시 마~이 남니다, 그기:.{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많이 납니다, 그것이.}

10705 # 그으기 그래 또 사랑게 조슴니다.{그게 그렇게 또 사람에게 좋습니다.}

10705 # 안 조응거 업슴니다.{좋잖은 것이 없습니다.}

10705 # 더어 풀명사근.{풀명색은.}

10705 @ 그라믄.{그러면.}

다:: 몽는 종뉴고.{다 먹는 종류이고.}

10705 @ 또오 머 약 데는 또 또 풀 또 업슴니꺼?{또 뭐 약 되는 또 또 풀 또 없습니까?}

10705 @ 지금 말스믄 쭉 네 다 저거나아꺼든예.{지금 말씀을 쭉 예 다 적어 놓았거든요.}

10705 @ 또: 또 빠징거 일따 시푸시머 말씀해주이소.{또 또 바진 것 있다 싶으시면 말씀 해주십시오.}

10705 # 그래 언자 또: 저어 논뚜렁에 가마: 어더게 그런데 가마 화련초라꼬 이심니다.{그래 인제 또 저기 논뚜렁에 가면 언덕에 그런 데 가면 화련초라고 있습니다.}

10705 # 화련초가 엔나레 문:둥나무라킵니다.{화련초가 옛날에는 문둥나무라고 합니다.}

10705 # 뽁뽁뽁버 얼건따꼬.{뽁뽁뽁뽁 얹었다고.}

10705 @ 문둥나무라 그기 하린초라 ****?{문둥나무라 그게 화련초라 ****?}

예 화련초.{예 화련초.}

10705 # 화련초가.{화련초가.}

10705 # 그그 언자 약 데라꼬 꺾꺼마느 화련초라커구 꼬심니다.{그것 인제 약 되라고 꺾으

면 활연초라고 하고 꺾습니다.}

10705 # 그기: 저:게 약할라꼬 이레 뜨더러 가마.{그게 저기 약하려고 이렇게 뜯으러 가면.}

10705 # 화련초 뜨더라간다 이깁니다.{활연초 뜯으러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10705 # 이런는데.{이런데.}

 @ 그기 푸릅니꺼 나뭇니꺼?{그게 풀입니까 나무입니까?}

 # 예 나물.{예 나물.}

10705 # 그걸때 나무리라 봄새러 나능거.{그것도 나물이라 봄새에 나는 것.}

10705 @ 나무에서 남니까 푸릅니까 그냥?{나무에서 남니까 풀입니까 그냥?}

10705 # 이 봄새러 이레 씨가 남니:더.{이 봄새에 이렇게 씨가 남니다.}

10705 @ 아 그냐 푸리네예 그라*.{아 그냥 풀이네요 그러면.}

 # 예 푸리지예.{예 풀이지요.}

10705 # 그러~이 그거늬 뽕뽕뽕뽕 열경때미로 문둥나무라کم니더.{그래 그것은 뽕뽕뽕뽕 얻었기 때문에 문둥나무라고 합니다.}

10705 @ 머이 머 머 머지 *****?{뭐 뭐 뭐 뭐지 *****?}

10705 @ 저도 바아슬긴 저도 초네서 커서 아깁네.{저도 봤을 건데 저도 촌에서 커서 알건데.}

10705 @ 이름 이름마 가꼬 모르건네예.{이름 이름만 가지고 모르겠네요.}

 # 기 기: 이람: 화련출니더, 화른초.{그 그게 이름 활연초입니다, 화련초.}

10705 # 그 그런데도 창원도 마~이 남니더.{그 그런데도 창원에도 많이 남니다.}

10705 # 그그 화련초 그그를 언자 뜨더가지고.{그것 활연초 그것을 인제 뜯어가지고.}

10705 # 또 이레 만:신 아픈 사람.{또 이렇게 만신이 아픈 사람.}

10705 # 그래 뜨더서 그으르 뜨 썰마가 술도 해묵꼬 단술도 해묵꼬{그래 뜯어서 그것을 또 삶아서 술도 해먹고 단술도 해먹고.}

10705 # 그으뜨 야기 조습니더.{그것도 약이 좋습니다.}

10705 # 이:래가:고 전신네 다친데.{이래가지고 전신에 다친데.}

10705 # 뽕골 쭈시는데 이런데는: 미나리하고 쭈하고 썬내~이하고 구구 화련초하고.{뽕골 쭈시는데 이런데는 미나리하고 쭈하고 쓴냉이하고 그것 활연초하고.}

10705 # 이레 뜨더가지구이 그 너물 코::꼭 빠썸니더.{이렇게 뜯어가지고 그 놈을 콕콕 뺄습니다.}

10705 # 추징거르 빠사가지고.{젓은 것을 뺄아가지고.}

10705 # 그리 이레 나느 어른들 핀차느마 그래 야글 해썸니더.{그렇게 이렇게 나는 어른들이 편찮으면 그렇게 약을 했습니다.}

10705 # 엔나레 어른든: 지 질사물 해서 다미 잘 마치사:서.{옛날에 어른들은 길쌈을 해서 담이 잘 걸리곤 해서.}

10705 # 아지겐 자고나몬 고마 거동을 몬하시:.{아침에 자고나면 그만 거동을 못 하시.}

10705 # 그래 어머님 또 어데 편찬습니꺼.{그래 어머님 또 어디 편찮으십니까?}

10705 # 또 내가 허리가 마친:다.{또 내가 허리가 걸린다.}

10705 # 그래 가서 그래 뜨더다가 가지:가지 뜨더다가.{그래 가서 그래 뜯어다가 가지가지 뜯어다가.}

10705 # 콧:콧 찌어가지고 지이게 잘 췌게 뜨뜯::하~이 해가:꼬.{콧콧 찢어가지고 저녁에 잘 적에 따뜻하게 해서.}

10705 # 그래 어른 허리다 여 떡: 부치*.{그래 어른 허리에다 떡 부치면.}

10705 # 아이고 야:야 고마 자고난게 영 놀리기 난따.{아이고 애야 그만 자고 나니까 영 움 직이기 낫다.}

10705 # 그래 글:마 닐찌게 또 함 부치보입시더.{그래 그러면 내일 저녁에 또 한 번 붙여 보 십시다.}

10705 # 그래 그래 부치디리만 낙꼬: 나꼬 그런십떠더.{그래 그렇게 붙여 드리면 낮고 낮고 그렇습디다.}

10705 @ 그라머 또 문둥나무도 말슴 해주설꼬.{그러면 또 문둥나무도 말씀해주셨고.}

10705 @ 여:느 영두꾸라캅니꺼, 머 그렇거 업습니꺼?{여기는 영경퀴라고 함니까, 뭐 그런 것 없습니까?}

10705 @ 영더꾸라카* 업습니까?{영더꾸라고 하는 것 없습니까?}

10705 # 웅 영 웅 웅구꾸 영거꾸.{영경퀴.}

@ 영구꾸?{영거꾸?}

10705 # 영거꾸.{영경퀴.}

@ 예, 영거꾸가 또 야기지예?{예, 영경퀴가 또 약이지요?}

10705 # 예, 영구꾸는 보약임니더.{예, 영경퀴는 보약입니다.}

10705 # 어 영구꾸는 보약이라서 엔나레 사네 가서, 여히는 엄심니더.{어 영경퀴는 보약이라 서 옛날에 산에 가서, 여기는 없습디다.}

10705 # 저 야사~이라서.{저 야산이라서.}

10705 # 저어: 저에 지푼 산주~우 드리가며 영구꾸가 꼬치 이만::치 크고.{저기 저 깊은 산 중에 들어사면 영경퀴가 꽃이 이만큼 크고.}

10705 # 이른능기 꼬치 벌:거~이 조심니더.{이런 것이 꽃이 벌건 것이 좋습니다.}

10705 @ 그으뜨 침 일습니까?{그것도 침이 있습니까?}

10705 # 예예, 저 안 싱꼬.{예, 저 심지 않고.}

@ 치미 업습니까?{침이 없습니까?}

10705 # 침 일찌예.{침 있지요.}

10705 @ 치민능 그기지예?{침 있는 그것이지요?}

10705 # 치미 이래 꼬치 치미 숭숭숭숭 이래.{침이 이렇게 꽃이 침이 숭숭숭숭 이렇게.}

10705 # 그래 그: 저:게 꼬다안 꼬단나서.{그래 그것 저기 꽃 안 꽃 안 나서.}

10705 # 이래 영구꾸 여: 도들췌게.{이래 영경퀴 여기 돈을 적에.}

10705 # 그를 캐마 우봉뿌리~이매이러 그러습니더.{그것을 캐면 우영 뿌리처럼 그렇습니

10705 # 우봉뿌리~이매이러 그러거로 그래 꽤~이러 가:가서.{우영뿌리처럼 그런 것을 그래 팽이를 가지고 가서.}

10705 # 그래 언자 캐마.{그래 인제 캐면.}

10705 # 우봉뿌리~이매이러 지다아~이 그런능거 그:르 캐:다가.{우영뿌리처럼 기다란 그런 것 그것을 캐다가.}

10705 # 엔나레느 전:치 바~아다 안 쩌~어습니꺼.{옛날에는 전체 방아에다 찼엇잖습니까?}

10705 # 이래 쩌~어가지고 그:르 지불 내에서 바깥냥반 미긴다꼬 이래하고.{이래 찼어가지고 그것을 즈을 내서 바깥냥반 먹인다고 이렇게 하고.}

10705 # 지금: 갈마 안 텨니꺼.{지금은 갈면 되잖습니까.}

10705 # 그 그 영구꾸가 사랑게 조심니더.{그 그 영경귀가 사람에게 좋습니다.}

10705 # 이러는데 머: 영구꾸르 또 매 요새 그러거 안 썸니더.{이런데 뭐 영경귀를 또 뭐 요새 그런 것 안 씹니다.}

10705 # 도저이 안 썸니더.{도무지 안 씹니다.}

10705 # 엔나레 묵꼬 사랑능거 이: 예기지.{옛날에 먹고 살았던 것 이 얘기지.}

10705 # 아 머 엔나레느 그래 사랑찌마는 지금 그러거 썸니꺼, 어데.{아 뭐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마는 지금 그런 것 씹니까, 어디.}

10705 # 엔나레느 그래 묵꼬 사랑심니더.{옛날에는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10705 @ 영거꾸도 이설꼬 그람: 그:는 업써습니까?{영경귀도 있었도 그러면 그것은 없었습니까?}

10705 @ 저기 더더근 업설습니까?{저기 더덕은 없었습니까?}

더덕떠 일찌예.{더덕도 있지요.}

10705 @ 예예, 그도 약초 아입니까?{예, 그것도 약초 아닙니까?}

10705 # 더더기 약초가 아이고 더더기 반찬도 해묵꼬.{더덕이 약초가 아니고 더덕이 반찬도 해먹고.}

10705 # 그래 요새 모대 지금 심구 지베서 싱구:가:꼬.{그래 요새 모두 지금 심어 집에서 심어가지고.}

10705 # 그래 언자 뿌리~이르 캐서.{그래 인제 뿌리를 캐서.}

10705 # 더더글가: 웅가꺼 다 하지예.{더덕으로 온갖 것 다하지요.}

10705 # 예, 그래 해묵꼬.{예, 그렇게 해먹고.}

10705 @ 도래도 불래는 바테 양키아고 사네 안 이설습니까?{도라지도 본래는 밭에 안 키우고 산에 있었잖습니까?}

10705 # 그그느 산또래 아임니꺼.{그것은 산도라지 아닙니까.}

10705 # 사네 나능거느 산또래니:더.{산에 나는 것은 산도라지입니다.}

10705 # 그거르캐.{그것을 캐.}

@ 집또래하고 다릅니까?{집도라지와 다릅니까?}

예.{예.}

10705 # 그으르 캐다 지베 송구도 데고.{그것을 캐다가 집에 심어도 되고.}

10705 # 지베 송구도 데고.{집에 심어도 되고.}

10705 # 사네 사네 낭 그거느 더 야기 더 조코.{산에 산에 난 그것은 더 약이 더 좋고.}

10705 @ 산또래 그거 함 말씀 쫘 해주이소.{산도라지 그것 한 번 말씀 쫘 해주십시오.}

예, 산또라지.{예, 산도라지.}

10705 # 산또, 꼬치 저: 두가지아임니까 도래꼬치.{산도, 꽃이 저 두 가지 아니까 도라지꽃이.}

10705 # 보:하키 피능기 익꼬.{보양게 피는 것이 있고.}

10705 # 오 보라새그로 피능각:꼬.{어 보라색으로 피는 것이 있고.}

10705 # 두가집니다.{두가지입니다.}

10705 # ** 도라지가 조치예.{** 도라지가 좋지요.}

10705 # 도라지가 부인들기도 조코.{도라지가 부인들에게도 좋고.}

10705 # 위정양반들도 오래텐 도래 그렇거.{외정(?)양반들도 오래 된 도라지 그런 것.}

10705 # 머: 야을 야글 해자시마 조코.{뭐 약 약을 해잡수시면 좋고.}

10705 # 그래 저:게 오래텐 도래느 뿌리~이가 큼니다.{그래 저기 오래 된 도라지는 뿌리가 큼니다.}

10705 # 한 오룽년 키아마 동삼맘모찌합니다.{한 오륙년 키우면 동삼 못지 않습니다.}

10705 # 그래가지고 글 머: 엔나렌: 닥또 쌀마묵꼬.{그래가지고 그 뭐 옛날에는 닭도 삶아 먹고.}

10705 # 어 글 그 도래르 여:서 닥또 쌀:묵꼬.{어 그래 그 도라지를 넣어서 닭도 삶아 먹고.}

10705 # 하: 웅:가 야글 그래 해무산는데.{온갖 약을 그렇게 해먹곤 했는데.}

10705 # 요즈웅 그렇건또 안 하고.{요즘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10705 # 도래느 이 동네는 마~이 송굽니다.{도라지는 이 동네는 많이 심습니다.}

10705 # 어테등가 안 조습니까.{어디든가 좋잖습니까.}

10705 # 지사 나물도 조코.{제사 나물로도 좋고.}

10705 # 도시:는 점:부 수입 드룡:고 가:꼬.{도시에는 전부 수입 들어온 것 가지고.}

10705 # 그래 사서 지사르 써는데.{그래 사서 제사에 쓰는데.}

10705 # 여거 사람드른 전::치 송구, 웅와 마~이 송구가지오.{여기 사람들은 전부 심어 많이 심어가지고.}

10705 # 도래르 마:~이 송구각 그래 웅간 반찬 해묵고.{도라지를 많이 심어서 그래 온갖 반찬 해먹고.}

10705 # 휘테 해묵꼬.{?? 해먹고.}

10705 # 그 약초도 써고.{그 약초도 쓰고.}

10705 # 도래가 조:심니다.{도라지가 좋습니다.}

10705 # 오래텐 도래는 동삼 한가집니다.{오래된 도라지는 동삼과 마찬가지로입니다.}

10705 # 요거에 대가리가 요래 큼::그.{이렇게 대가리가 이렇게 큰 것.}

10705 # 오래테매 해:수가 오래 템: 요거 따개면 노:랑 무리 드릴썬니다.{오래 되면 햇수가 오래 되면 요거 쪼개면 노란 물이 들어 있습니다.}

10705 # 예 노 노:라니 요리썬니다.{예 노랑게 이렇습니다.}

10705 # 그 그르 그렇거느 참 야게 조썬니다.{그 그건 그런 것은 참 약에 좋습니다.}

10705 @ 그: 딱지라카는 업썬습니까?{그 딱지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10705 @ 딱지?{딱지?}

10705 # 딱지는 멍:고:~{딱지는 무엇인지?}

10706 @ 그라른 그: 아까 저 도래는 동네서 마니 키안다 그리썬찌예?{그러면 그 아까 저 도라지는 동네에서 많이 키운다고 그러셨지요?}

10706 @ 그라르네 도래말고 또 머어 약초를 동네에서 키아능거 또 다른 약초는 업습니까? {그러면은 도라지 말고 또 뭐 약초를 동네에서 키우는 것 또 다른 약초는 없습니까?}

10706 @ 도래 말고는예.{도라지 말고는요?}

10706 # 동네서 키아는데.{동네에서 키우는데.}

10706 # 그기: 요새에느 또 업편 약초가 생기가저고.{그게 요새에는 또 없던 약초가 생겨서.}

10706 # 엔나래느 업썬는데.{옛날에는 없었는데.}

10706 # 그 이리미 이리미 안 새앵:킨:다.{그 이름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

10706 # 여:는 마~이 송구산는데.{여기는 많이 심곤 하는데.}

10706 @ 그라른 어머~이 그으 생각 안 나시능거는 머 두시고예.{그러면 어머니 그 생각 나지 않는 것은 뭐 두시고요.}

10706 @ 도래르 우째 키아는지 그 씨웁 씨를 뿌리야 텔꺼 아입니까?{도라지를 어떻게 키우는지 그 씨를 뿌려야 될 것 아닙니까?}

10706 @ 그레가:꼬 그그머 멘년가 키아야 텔꺼 아입니까, 그거?{그렇게 해서 그것 뭐 몇 년 간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씨르 뿌리마.{씨를 뿌리면.}

10706 @ 그고 한 번 도래 키아능거 하먼 말씀해주이소.{그것 한 번 도라지 키우는 것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 도래 씨는.{*** 이 도라지 씨는.}

10706 # 도래는 씨로 틀마 마~이 나옵니더.{도라지는 씨를 털면 많이 나옵니다.}

10706 # 움무추 씨맨치 자잔::하~이 이리 마~이 나오마.{익모초 씨처럼 자잘하게 이렇게 많이 나오면.}

10706 # 고그르 언자 바다나따가.{그것을 인제 받아 놓았다가.}

10706 # 요래: 바틀 장만해가지고.{요렇게 밭을 장만해서.}

10706 # 그그는 그 그라:마 안 템니더.{그것은 가꾸면(거름주면) 안 됩니다.}

10706 # 아무건또 앙그라:는 땅에.{아무것도 거름 안 주는 땅에.}

10706 # 요래요래 기러가조오.{요렇게 요렇게 ??가지고.}

10706 # 그래 졸:졸 흐치노코.{그리고 졸졸 흘쳐놓고.}

10706 # 아무꼐또 안 덕꼬.{아무거도 덮지 않고.}

10706 # 모미 하대 야칸때미로.{몸이 하도 약하기 때문에.}

10706 # 지풀가따가 딱 딱: 딱 여래 덤심니더.{짚을 가져다 딱 딱 딱 이렇게 덮습니다.}

10706 # 고랑 고래~이 지풀 요래 더퍼노만.{고랑 고랑마다 짚을 이렇게 덮어놓으면.}

10706 # 하:유 엄청시리 남니더 그기이, 예.{아휴 엄청나게 납니다 그것이, 예.}

10706 @ *** ***,

예 고령기 마~이 남니더.{예 그런 것이 많이 납니다.}

10706 # 그래 인자 구구루 나능거로 머 일련내에 키우마 밥떠꺼리거치 그웁 기기: 지해 쵸
핍니다.{그래 인제 그것을 나는 것을 뭐 일련내 키우고 나면 밥풀같이 그것이 그해에
꽃이 핍니다.}

10706 # 예 그래도 지해 꼬치 핍니다.{예 그래도 그 해에 꽃이 핍니다.}

10706 # 그래 그래 지해 꼬치 피마 그 이드매 그그로 캐가주고 모종을 함니다.{그래 그렇게
꽃이 피면 그 이듬해 그것을 캐가지고 모종을 함니다.}

10706 # 캐가지: 모종을 하마 그 지봉 여래 뿌리~이가 생깁니다.{캐가지고 모종을 하면 그
제법 이렇게 뿌리가 생깁니다.}

10706 # 고오로 모종의 해나마 민년 데마 안 컴니:꺼.{그것을 모종을 해놓으면 몇년 되면 커
잖습니까.}

10706 # 그리 인자 그으 캐무올때 데마.{그래 인제 그것 캐어 먹을 때가 되면.}

10706 # 이 너멀 드물게 송구노마 가지가 착척척척 벌고.{이 놈을 드물게 심어 놓으면 가지
가 착척척척 벌어지고.}

10706 # 쏘물게 송구노마 가지가 털 벌고 그러썸니다.{술게 심어 놓으면 가지가 털 벌어지
고 그렇습니다.}

10706 # 인삼도 여기 인사므 가지가 여개 인사므 가지가 마니 버리야 텨니다.{인삼도 여기
인삼은 가지가 여기 인삼은 가지가 많이 벌어져야 됩니다.}

10706 @ 인삼 인습니꺼 동네에?{인삼이 있습니까 동네에?}

업서도.{없어도.}

10706 # 업서도 우리 향국 인사믄 가지가 마~이 벌고.{없어도 우리 한국 인삼은 가지가 많
이 벌어지고.}

10706 # 매:꿈한 그그느 전부 수입입니다.{매끈한 그것은 전부 수입된 것입니다.}

10706 # 예, 매:꿈향거느.{예, 매끈한 것은.}

10706 # 인삼찌배 가마 매:꿈향거 줍니다.{인삼집에 가면 매끈한 것 줍니다.}

10706 # 그기: 찌 오른 인삼 아임니:더.{그것이 저 옳은 인삼 아닙니다.}

10706 # 우리 금산삼 모드 이런 사믄 대가리 요개 몽탕하~이 요러코.{우리 금산삼 모두 이
런 삼은 대가리 여기가 몽탕하니 요렇고.}

10706 # 마: 여어 트리~이가 또 우병: 안합니까.{뭐 여 털이 또 무성하잖습니까.}

10706 # 고고르 머어 이에 매: 씹찌말고.{그것을 뭐 이 매 찢지 말고.}

10706 # 오독오독 저: 모도 트리이 고어로 요래 뜨더가지고 오독오독 씹꺼가지고.{오독오독 저 모두 털 그것을 요렇게 뜯어가지고 오독오독 찢어가지고.}

10706 # 그리 야글 해무, 해무우마 야기 테는데.{그렇게 약을 해먹, 해먹으면 약이 되는데.}

10706 # 그 너무 보:하~이 씹꺼도 약 안데고 그러십니다.{그 너무 보얹게 찢어도 약이 되잖고 그렇습니다.}

10706 # 도래도 머 꺾띠이 까마 얼마든 까집니다, 보:하~이 이런는데.{도라지도 뭐 꺾질 까면 얼마든지 까집니다, 보얹게 이렇는데.}

10706 # 그으 약 하능거느 꺾띠이 마~이 앙깁니다.{그 약 하는 것은 꺾질 많이 까지 않습니다.}

10706 # 보하케 앙까고 흥만 매: 씹꺼뿌고 그래 약합니다.{보얹게 까지 않고 흥만 매 찢어버리고 그렇게 약합니다.}

10706 # 그래서 씨부라꾸.{그래서 쓰라고.}

10706 # 그 다클 키아노코예 다크 키아노코.{그 닭을 키워놓고요 닭을 키워놓고.}

10706 # 도래를 여:서 그래 쌀마가 자시보이소.{도라지를 넣어서 그렇게 삶아서 잡쉴보십시오.}

10706 # 참 운매나 마시 인능고.{참 얼마나 맛이 있는지.}

10706 # 도래 여코 대추 여코.{도라지 넣고 대추 넣고.}

10706 # 그리 인삼도 좀 여코 그래가 다클 쌀마나마 마시십니다.{그래 인삼도 좀 넣고 그렇게 해서 닭을 삶아 놓으면 맛있습니다.}

10706 @ 그럼 아까 *.{그럼 아까.}

찹살 여코.{찹쌀 넣고.}

10706 @ 어머~이 그 저:기 도래 그으르가따가 모종을 한다 안 그러셧슴**?(어머니 그 저기 도라지 그것을 가지고 모종을 한다고 그러셨잖습니까?)

10706 @ 그래가꼬.{그래가지고.}

모종을 합니다.{모종을 합니다.}

10706 @ 빼가지고 다른데 심는다 그 말씀임니까.{빼서 다른 데 심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예 예.}

10706 @ 그 자리서 캐와지는 앙코예?(그 자리에서 키우지는 않지요?)

10706 @ 볼래 씨 뿌린 데서예?(본래 씨 뿌린 데에서요?)

그 자리 그:도.{그 자리 거기도.}

10706 # 키 씨 뿌린 자리 그으도 이래 종자를 나아뚜고.{씨 뿌린 자리 거기에도 이렇게 종자를 놓아두고.}

10706 # 와~이 이래 엉가~이 와:벽합니더, 거기 마~이 올라와서.{뭐 이렇게 어지간히 ?? 합니다, 그게 많이 올라와서.}

10706 # 그러쨌게 구어로 캐애가꼬.{그럴 적에 그것을 캐가지고.}

10706 # 고래 자잔항거로 요래 또 골로 기리고 고 또 모종을 합니다.{그렇게 자잘한 것을 이렇게 또 골을 타서 거기 또 모종을 합니다.}

10706 # 모종을 쏘물게 해노마 이기 몸띠~이가 가지가 마~이 안 벌고.{모종을 솔게 해놓으면 이것이 몸둥이가 가지가 많이 안 벌어지고.}

10706 # 이 드물게 해노마 가지가 마~이 벌고 이러쨌니다.{이 드물게 해 놓으면 가지가 많이 벌어지고 이렇습니다.}

10706 # 그래가지고 막 쪼록쪼록 기리고 마 함바짜리:석 모드 여:는 송굽니다.{그래가지고 막 족족 타고 마 한 발뺨기썩 모두 여기는 심습니다.}

10706 # 그래 송구가지고 어 또 고구 또 모지리 캐무우만.{그렇게 심어가지고 어 또 그것 또 모조리 캐서 먹으면.}

10706 # 민년 일따가 하이 이택 탱거느 똑 캐애가지고 또 휘테 해묵꼬.{몇년 있다가 한 이태 된 것은 또 캐서 또 ?? 해먹고.}

10706 # 또 한 삼년 탱거느 또 지사도 씨고 그근 또 쌀마 씨고.{또 한 삼년 된 것은 또 제사에도 쓰고 그것은 또 삶아서 쓰고.}

10706 # 익 이래 여:는 그래 모두 도래를 마~이 몰 재배르 합니다.{이 이렇게 여기는 그렇게 모두 도라지를 많이 모두 재배를 합니다.}

10706 # 도래 그기 조습니다.{도라지 그것이 좋습니다.}

10706 # 지 지금 도래는 전:부 수입 드리옹거 아임니까.{지 지금 도라지는 전부 수입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10706 @ 그라운 도래 그거 해가지우 까가지고 시장에도 내고 이래 안 합니미까?{그러면 도라지 그것 해가지고 까서 시장에도 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0706 # 까고 양까고 요래 묵치가지고.{까든 까지 않든 요렇게 몽쳐가지고.}

10706 # 요래 몽쳐가지고 아리: 나느 한몽티~이 상:께네 사처너~이더라.{요렇게 몽쳐서 그저께 나느 한몽팅이 사니까 사천원이더라.}

10706 # 고고로 사가지고 그래 저: 다마네기 액끼스르 하는데 여어가꼬 해:서 시쨌 아들 조:서 보냈습니다.{그것을 사가지고 그래 저기 양파 진액 아는 데 넣어가지고 해서 셋째 아들 줘서 보냈습니다.}

10706 # 이 날 씨라꼬 또 도~이 도늘 부치따커길래.{나에게 쓰라고 또 돈 돈을 부쳤다고 하길래.}

10706 # 아이가 머어 이 자숙근또 자숙 정도 머 푸마시가 이십니다.{아이가 뭐 이 자식 것도 자식 정(情)도 뭐 품앗이가 있습니다.}

10706 # 또 에라이 이 녀들 손자들 이거 다마네기 이거럼 마~이 머그마 머리가 조탐니다.{또 ??? 이 녀들 손자들 이것 양파 이것을 많이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답니다.}

10706 # 머리가 조탐니다.{머리에 좋습니다.}

10706 # 여:개 왕 왕사~이라커는데 요 우에 동네.{여기 왕산이라고 하는데 요 윗 동네.}

10706 # 그 우리 성가가 마~이 사는데.{거기 우리 성가가 많이 사는데.}

10706 # 애:들로 공부할찌기 다마네기르 그리 마~이 미인답니더.{애들에게 공부할 적에 양파를 그렇게 많이 먹인답니다.}

10706 # 다마네기르 마~이 미기잉께 애:드리 머리가 그리 조탐니더.{양파를 많이 먹이니까 애들이 머리가 그렇게 좋답니다.}

10706 # 그런때미로 다마네기로 마~이 무덤 농사로 지이가 마~이 무라커능기라.{그렇기 때문에 양파를 많이 모두 농사를 지어서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것이라.}

10706 # 그래 지금 엑기스르 마~이안함니꺼.{그래 지금 진액을 많이 하잖습니까.}

10706 # 그 그래 머: 아리 이 떠분데.{그래 뭐 그저께 이 더운데.}

10706 # 떠 한 술 해보낼습니더.{또 한 술 해 보냈습니다.}

10706 # 우리 이 지븐 그렇건또 잘 안 머거.{우리 이 집은 그런 것도 잘 안 먹어.}

10707 @ 그: 조약 마~이 만드셴찌예?{그 조약 많이 만드셨지요?}

10707 # 예, 만드러살:심니더.{예, 만들곤 했습니다.}

10707 # 언 조야글 음 재료 약초 아임니꺼?{어 조약을 음 재료 약초 아십니까?}

10707 # 머어 약초 *** ** 조야글 우터케 만드셴는지?{뭐 약초 *** ** 조약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10707 @ 어머~이 직쩍 한 번?{어머니 직접 한 번?}

조약또.{조약도.}

10707 # 그으 내가 모미 아파서 이래.{그 내가 몸이 아파서 이렇게.}

10707 # 해 무웅께네.{해 먹으니까.}

10707 # 고지 들질 안하고 다리 수술꺼정 험파마느.{곧이 듣지를 앓고 다리 수술까지 했다 마는.}

10707 # 우리 바꺼터르는 그래 마: 다리가 핀차내가:꼬.{우리 바깥어른은 그래 뭐 다리가 편 찰아가지고.}

10707 # 고마 거르믈 몬 거꼰따 갠:따사:서.{그만 걸음을 못 걷겠다고 그렇다해서.}

10707 # 이기 두 노~이니 이카마 어찌케하꼬.{이 두 노인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10707 # 그래가 자기가 언자 강노다~아서 애애:르 함께네.{그래서 자기가 인제 경로당에서 얘기를 하니까.}

10707 # 어느 칭구가.{어떤 친구가.}

10707 # 그 대동어른 그랄:께 아이고.{그 대동어른 그럴 것이 아니고.}

10707 # 내가 조은 야글 구해주꺼~이요 황장모기라고 일심니더.{내가 좋은 약을 구해 줄게요 황장목이라고 있습니다.}

10707 # 황장목 아시지예?{황장목 아시지요?}

10707 @ ****.

인자 잉깁물거튼 열매 여는 그기 황장모김니더.{인제 잉크물 같은 열매 여는 그것이 황장목입니다.}

10707 # 그걸때 지금 캐사:서 업심니더.{그것도 지금 캐곤 해서 없습니다.}

10707 @ 미테 뿌래~이 하:야~이 커다라~이 나능 그거.{밑에 뿌리가 하얗고 커다랄게 나
는 그것.}

예예, 그거.{예, 그거.}

10707 # 그그느예 뿌리~이가 아주 큼거느 마 사람만 합니더.{그것은요 뿌리가 아주 큰 것
은 마 사람만 합니다.}

10707 @ 칙맹커 그렇거** 커:다랑거?{칙처럼 그런 것 ** 커다란 것?}

칙맨치러 예 예.{칙처럼 예 예.}

10707 # 그글 무군디~이로 그래 저: 캐주미서 이거를 쌀마가지고 술로 해잡수이소.{그것을
묵은 덩이를 그래 저 캐주면서 이것을 삶아서 술로 해 잡수십시오.}

10707 # 근 그카미서 캐조:서.{그 그렇게 말하면서 캐웠어.}

10707 # 캥 참 그그르 고아서 쌀마가지고 수를 해드린떠만.{참 그것을 가지고 와서 삶아가
지고 술을 해드렸더니만.}

10707 # 한 단지 해잡숙꼬 두 단지 해잡숙꼬 짹: 나사뿌데.{한 단지 해 잡숫고 두 단지 해
잡숫고 짹 나아버리데.}

10707 # 그그때 그리 조아예.{그것도 그렇게 좋아요.}

10707 # 그기: 또 생거느 참: 도캅니더.{그것이 생것은 참 독합니다.}

10707 @ 잘못 무머 중능다카는**.{잘못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10707 # 잘못 무머 죽심니더.{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10707 # 근:데 그를 술로 해노코.{그런데 그것을 술로 해놓고.}

10707 # 우리 이 어르는 수를 조아하시잉께.{우리 이 어른은 술을 좋아하시니까.}

10707 # 그래 그 또 수리 그리 마시 이십떠더.{그래 그 또 술이 그렇게 맛이 있습니다.}

10707 # 그래 밭 단지 해잡숙꼬나디~이마느 다리 나사가: 잘 땡기다가 가신심니더.{그래 몇
단지 해 잡수시고 나더니마는 다리가 나아서 잘 다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10707 # 그그떠이 야기고.{그것도 약이고.}

10707 # 저::게 누룽나무 안 이십니꺼.{저기 누룩나무 있잖습니까.}

10707 @ 누룽나무?{누룩나무?}

#누룽나무.{누룩나무.}

10707 @ 아 고오느 제가 잘 모르는.{아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누웅나무 아시지예?{누룩나무 아시지요?}

10707 @ 에이 모릅니더, 그거 말씀해주이소.{아니 모릅니다,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10707 # 누룽룩나무가 그기: 이리임 또 머억꼬?{누룩나무가 그것이 이름이 또 뭐지?}

10707 # 누룽나무로 지금 처::치 누룽낭글 껍띠기를 비깅니더.{누룩나무를 지금 전부 누룩나
무를 껍띠기를 벗깅니다.}

10707 # 봄새르마 누룩나무 껍띠~이르 빅끼마 송게 모양으로 짹: 빼끼집니더.{봄새로 누룩
나무 껍띠기를 벗기면 송기 모양으로 짹 벗겨집니다.}

10707 # 그그를 빅끼서 저: 장사하는 사래미 이심니더.{그것을 벗겨서 저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0707 # 마: 장:: 이리 비기가:꼬 자~아 가따 파는 사렘: 이심니더.{뭐 늘 이렇게 벗겨가지고 장에 갖다 파는 사람 있습니다.}

10707 # 그걸: 저: 물도 해묵꼬.{그것을 저 물도 해먹고.}

10707 # 머: 쪽 안 조은 사람 거과 생산씨~이고.{뭐 속 안 좋은 사람 ?? 생산시키고.}

10707 # 쪽비~이 난 사람 나뽕거 처내고.{속병이 난 사람 나쁜 것 처내고.}

10707 # 그래 그그 그 나무 그래 또 조습니더.{그래 그거 그 나무 그렇게 또 좋습니더.}

10707 # 그래가:꼬 여은 또 그그르 마~이 씨웁니더.{그래가지고 여기는 또 그것을 많이 씩니다.}

10707 # 물덴 물더 끼리가:꼬 냉장고 여어노코 그래 물더 장: 마시고.{물도 물도 끓여가지고 냉장고 넣어놓고 그래 물도 늘 마시고.}

10707 # 그 누룽나무 그근또 그리 야기 조습니더.{그 누룩나무 그것도 그렇게 약이 좋습니더.}

10707 # 큰 그을 누룽나무도 오만테 조습니더.{그 그것 누룩나무도 오만 테 좋습니더.}

10707 # 이비 아파가꼬 이블 입빠~이 나서 버리도 모나는 그는 사암도 그그를 머그마가:.
{입이 아파서 입을 입병이 나서 벌리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그것을 머금어가지고.}

10707 # 자::꾸 머거마가: 녁구고 녁구고.{자구 머금어서 넘기고 넘기고.}

10707 # 그흔 처 그그르 그리 무거사:마 입뽕도 나사뿌고.{그것 저 그것을 그렇게 먹으면 입병도 나아버리고.}

10707 # 요새도 이뽕 난는다컵떠더.{요새도 입병 낫는다고 함디다.}

10707 # 그 낭게 그래 야기 조습니더.{그 나무가 그렇게 약이 좋습니더.}

10707 @ 아 예, 누룽나무가 나무가 큼니꺼?{아 예, 누룩나무가 나무가 큼니까?}

10707 # 크지, 크:기 키우머 크고.{크지, 크게 키우면 크고.}

10707 # 요:거 아페 저거 비임니더.{요것 앞에 저기 보입니더.}

10707 # 우리지베 여:도 마~이 이썸는데.{우리집에 여기도 많이 있었는데.}

10707 # 조게 조: 조개.{저기 저 저기.}

10707 # 서서 보마.{서서 보면.}

10707 # 저 부갓집 담부라~이 저게.{저 부갓집 담벽에 저기에.}

10707 # 그으 누룽낭기 쿡:기 이심니더.{저기 누룩나무가 큰 것이 있습니다.}

10707 @ 낸 나중예 가서 ***. {내 나중예 가서 ***.}

요개 점보때 선찌예?{요기 전봇대 서있지요?}

10707 @ 예.{예.}

예, 점보때에 조거 부터가: 선는 나무 저기 누룽나무니더.{예, 전봇대에 저기 붙어서 서있는 나무 저게 누룩나무입니다.}

10707 @ 아: 저 낭게 저거 ***. {아, 저 나무 저것 ***.}

이 예 이푸리 자잔하고.{이 예 잎이 자잘하고.}

10707 # 예 저기: 누룽나무입니다.{예, 저것이 누룽나무입니다.}

10707 # 저 나무가 그래 야기 조습니다.{저 나무가 그렇게 약이 좋습니다.}

10707 # 엔나레느 저:게 엄는 사람 뜨더서 저: 나물도 해묵꼬.{옛날에는 저기 없는 사람은 뜯어서 저것 나물도 해 먹고.}

10707 # 그랜는데 지금 저거르 빼끼가:꼬 마~이 팝니다.{그랬는데 지금 저것을 벗겨가지고 많이 팝니다.}

10707 # 창녕자~아 가마 삼쳐넌 주마 한 따불석 줍니다.{창녕장에 가면 삼천원 주면 한 단 썩 줍니다.}

10707 # 그으르 도~이라꼬 언자 비끼가: 파는 사람 팔고.{그것을 돈이라고 인제 벗겨서 파는 사람 팔고.}

10707 # 약도 썬:찌예.{약도 많지요.}

10707 # 칩떠 야기고.{칩도 약이고.}

10707 @ 아 참 치근 우쨌습니까?{아 참 칩은 어떻게 했습니까?}

10707 # 칩또 몬 캐:서 그러치 봄새르 사마 쿵:거 안 나오니까.{칩도 못 캐서 그렇지 봄새에 사면 큰 것 나오잖습니까.}

10707 # 그 치기.{그 칩이.}

10707 # 그으며 암치기 익꼬 쑥치기 는는데.{그것도 암칩이 있고 수칩이 있는데.}

10707 # 그그 그근또 술 마~이 무거산는 사람 주치에 그리 조탐니다.{그것 그것도 술 많이 먹곤 하는 사람 숙취에 그렇게 좋답니다.}

10707 # 그러고 아무나 무그마 조코.{그리고 아무나 먹으면 좋고.}

10707 # 그기 칩또 아무나 무:머 남자들 무:머 조코.{그게 칩도 아무나 먹으면 남자들 먹으면 좋고.}

10707 # 그러 난 남정네드른 그으로 술도 머: 다머노코 묵꼬.{그래 남정네들은 그것을 술도 뭐 담귀놓고 먹고.}

10707 # 엔나레는 머 그 그 때도 살고 그그러 가지고.{옛날에는 뭐 그 그 때도 때우고 그것을 가지고.}

10707 # 그 그에 때르 사라도 그으는 부색판:나고 그래 사랑게 조탐니다.{그 그것으로 때를 때워도 그것은 부황도 안 나고 그렇게 사람에게 좋답니다.}

10707 @ 머:도 안 나고예?{뭐도 안 나고요?}

10707 # 치글 그글 언자 장만해가: 양시기 업서서.{칩을 그것을 인제 장만해서 양식이 없어서.}

10707 # 그그르 양식사마 쥘어가지고 무를 걸러가지고.{그것을 양식삼아 쥘어가지고 물을 걸러가지고.}

10707 # 그래 안추마 보:하십니다.{그래 가라앉히면 보양합니다.}

10707 # 그글 언자 마 수지비도 떠 묵꼬.{그것을 인제 뭐 수제비도 떠 먹고.}

10707 # 그애 그래 마 그그르 양식사마 그래 치글 그래 캐다 무언땀니다.{그래 그그렇게 뭐 그것을 양식삼아 그렇게 줍을 그렇게 캐다 먹었답니다.}

10707 # 그러 그래 묵꼬 엔나레 그래 사람땀니다.{그래 그렇게 먹고 옛날에 그렇게 살았답니다.}

10707 # 그 칙또 조아예, 사랑게.{그 줍도 좋아요, 사랑게.}

10707 @ 암칙 익꼬 순 쑥칙 인따 그리션:테.{암칙이 있고 수침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10707 @ 그으 어 우쭈게 다릅니까?{그 어 어떻게 다릅니까?}

쑥 쑥치근.{수 수침은.}

10707 # 쑥치근 무리 마~이 안 나오고.{수침은 물이 많이 나오잖고.}

10707 @ 암치근 그지 부~이 마~이 난땀니다.{암침은 그 가루가(분이) 많이 난답니다.}

10707 # 오갈피가 일찌 또.{오가피가 있지 또.}

10707 # 요즘 오갈피가 만습니다.{요즘 오가피가 많습니다.}

10707 # 나노 이 이새 아나서 오갈피를 마~이 사다 송곤떠~이마느.{나는 이 이사 안 와서 오가피나무를 많이 사다 심었더니만은.}

10707 # 지베 마 다 치아뿌고 업따.{집에 뭐 다 치워버리고 없다.}

10707 # 오갈피가 그리 조심니다.{오가피가 그렇게 좋습니다.}

10707 # 오갈피 그그 집 터시리가 너어 너르거나 이래 머 어데 바치 익끼나 이르마.{오가피 나무 그것 집터가 너르 너르거나 이렇게 뭐 어디 밭이 있거나 이르면.}

10707 # 오갈피 그으 민나무 송구노마예, 한 해 크마 요래 크능거.{오가피나무 그것 몇 그루 심어놓으면요, 한 해 크면 요렇게 크는 것.}

10707 # 읍: 나치나 카리나 가: 요래 썩: 빠지노마.{요렇게 낫이나 칼이나 가지고 요렇게 썩 빠져 놓으면.}

10707 # 설 시고 보메느 여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설 쇄고 봄에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10707 # 여러: 가지가 나오마.{여러 가지가 나오면.}

10707 # 그글 가시레마 또 때구리가 웅웁하~이 이르마.{그것을 가을이면 또 ??? ???? 이런 면.}

10707 # 그그르 쫘사가지고 또 야글 함니다.{그것을 쫘아서 또 약을 합니다.}

10707 # 억씨기 썩심니미더, 그기:.{아주 썩니다, 그것이.}

10707 # 요새 오갈피 이렇거떠 마~이 안 함니까.{요새 오가피나무 이런 것도 많이 하잖습니까.}

10707 # 그래 그그에 또 남정드리 그 글 또 그기 그리 조코.{그래 그것 또 남정들에게 그 또 그것이 그렇게 좋고.}

10707 # 남정들 그글 머그마예 살도 보드라바지고.{남정들 그것을 먹으면요 살도 보드라워지고.}

10707 # 쑥:또 핑코.{속도 편하고.}

10707 # 그으 오갈피가 머 물도 해, 물 끼리는데 여:가:꼬 무우도 조코.{그 오가피가 뭐 물도 해, 물 끓이는데 넣어가지고 먹어도 좋고.}

10707 # 오갈피가 마~이 지끔 씨입니다.{오가피가 많이 지금 쓰입니다.}

10707 # 열매가 또옥 그거 잉किन물 열매매리 이렇게 자박자박자박 얹니다.{열매가 똑 그것 잉किन물 열매처럼 이런 것이 자박자박자박 얹니다.}

10707 # 마~이 얹니다.{많이 얹니다.}

10707 # 그애 그그 오갈피 그 민나무 이스마 그근또 야게 조코 화초도 조코 그런심니다.{그래 그것 오가피나무 그 몇 그루 있으면 그것도 약에 좋고 화초도 좋고 그렇습니다.}

10707 @ 오갈피 열매가 머슨 물거터고예?{오가피나무 열매가 무슨 물 같다고요?}

10707 # 잉किन물맨치러 그런습니다.{잉किन물처럼 그렇습니다.}

10707 @예예, 그런습니까?{예, 그렇습니까?}

10707 @ 그으 잉किन물거튼기: 아까 저: 항장구 열매도?{그 잉किन물 같은 것이 아까 저 항장목 열매도?}

그그 그으느 항장궁 열매고.{그것 그것은 항장목 열매고.}

@ 그으뜨 잉किन물거치예?{그것도 잉किन물 같지요?}

예.{예.}

10707 # 이 이근뜨 잉किन물맨치러 그 항장모맨치러 그래 얹니다.{이 이것도 잉किन물처럼 그 항장목처럼 그렇게 얹니다.}

10707 # 그래 그 그그 오갈피가 지끔 마~이 씨입니다.{그래 그 그것 오가피가 지금 많이 쓰입니다.}

10707 @ 아:, 어머~이 직쩍 키우보셨습니까?{아, 어머니 직접 키워보셨습니까?}

예.{예.}

10707 # 예 키움마 그래 한해마 키움마 요래 크능거.{예 키우면 그렇게 한 해만 키우면 그렇게 크는 것.}

10707 # 가시레 요구르 싹: 요래 울루 빠진 이리 빠지나마 여어서 마디마디 도다가주고.{가을에 요것을 싹 요렇게 위로 깎아 이렇게 깎아놓으면 여기서 마디마디 돌아가지고.}

10707 # 도다가 어벅:하~이 보매 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돌아서 ??하게 봄에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10707 # 그래 여러: 가지가 나오마 그그르 언자 똑 여러 가지 그으르 키움마 그으서 꼬치 뽕니다.{그래 여러 가지가 나오면 그것을 인제 똑 여러 가지 그것을 키우면 거기서 꽃이 뽕니다.}

10707 # 꼬치 피가: 또 열매가 열마 우리 이 집에는 구굴: 따가주고 장녀네 한나무 여릉거로 따가꼬 술 다마농게 수리 마신타 이사티~이.{꽃이 피고 또 열매가 열면 우리 이 집에는 그것을 따가지고 작년에 한 그루 연 것을 따가지고 술 담귀놓으니까 술이 맛있 다 이러더니.}

10707 # 그: 내가 말 이릉거로 다 따뿌떠마느.{그것 내가 전부 이른것(일찍 여는 것)을 다

파버렸더니.}

10707 # 그 가지 꺾어서 안 연다사터라, 언자 내너네는 열끼다.{그 가지 꺾어서 열지 않는다
고 하더라, 인제 내년에는 열 것이다.}

10707 # 머 약 안 데능기: 업심니더.{뭐 약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10707 # 그 오갈피도 송구이소.{그 오가피나무도 심으십시오.}

10707 # 오갈피 봄새르메예 한 나무 마년숙만 주마 머.{오가피나무 봄새예요 한 그루 만원
씩만 주면 뭐.}

10707 # 머이 민나무 지베 가따 송구노:마 그을뜨 야게 조습니더.{뭐 몇 그루 집에 가져다
심어 놓으면 그것도 약에 좋습니다.}

10707 # 기기 저: 인삼강 이과리가 똑갑습니더.{그것이 저 인삼과 잎이 똑 같습니다.}

10707 # 인삼 이푸리강 똑: 갑습니더.{인삼 잎과 똑 같습니다.}

10707 # 그런때미리 이이 성부~이 인삼 야게 인삼강 갑뎡니더.{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성분
이 인삼 ?? 인삼과 갑뎡니다.}

10707 # 그 엔나레느 그기 어테서 나완나 하마 진진 산중에서 나왓썬예.{그 옛날에는 그것
이 어디서 나왔냐면 깊은 산중에서 나왔어요.}

10707 # 진진 산중에서 나완는데 지끄른 그기: 머 혼합니더.{깊은 산중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그것이 뭐 혼합니다.}

10707 # 오갈피가 만:썸니더.{오가피나무가 많습니다.}

10707 # 그으 그 저 위정들 그: 자시마 조코.{그 그 저 ??들 그것 자시면 좋고.}

10707 # 술 마~이 자시는 사람 그으르 자시마 머 술 해독또 데고 그래 조탐니더.{술 많이
잡수시는 사람 그것을 잡수시면 뭐 술 해독도 되고 그렇게 좋답니다.}

10707 # 약 안 데능기 이십니꺼?{약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10707 # 야기 참 조습니더, 모도 그렇기.{약이 참 좋습니다, 모두 그런 것이.}

10707 # 이 빼골 아픈 사라믄.{이 빼골 아픈 사람은.}

10707 # *** 음나무, 굴피나무, 쥐피나무, 인동초.{*** 음나무, 굴피나무, 계피나무, 인동초.}

10707 # 머어 그렇거로 이히* 오갈피 **여러가지 그래 여:가:꼬 폭:: 썸마가주구 그 무레다
술로 해가주어.{뭐 이런 것을 오가피나무 여러 가지 그렇게 넣어가지고 폭 삶아서 그
물에다 술을 해가지고.}

10707 # 나느 술도 오만: 수르 다 해받습니더.{나는 술도 오만 술을 다 해봤습니더.}

10707 # 술로 해가주구 그래 나뚜고 무우마 그 그래 야게 조습니더.{술을 해가지고 그렇게
놔두고 먹으면 그렇게 약에 좋습니다.}

10707 # 술 자믄 잘몬하머 초꼭 데뽐니더.{술 잘못하면 좇국 돼버립니다.}

10707 # 시이서 몬 묵습니더.{시어서 못 먹습니더.}

10707 # 그으며 또 잘 해애 데지.{그것도 또 잘 해야 되지.}

10707 # 또 지베 가시가지고 그기 조탄다 술 한 번 해바라.{또 집에 가서서 그것이 종단다
술 한 번 해봐라.}

10707 # 잘못하며 잘못하며 초가 데뽐니더.{잘못하면 잘못하면 초가 돼버립니다.}

10707 @ 조금 저네 **그 음나무.{조금 전에 그 음나무.}

10707 @ 굴피나무.{굴피나무.}

10707 @ 지피나무.{계피나무.}

지피나무.{계피나무.}

10707 @ 인동초.{인동초.}

10707 # 그 그래 그러거.{그 그래 그런 것.}

10707 @ 고 하나하나 좀 또 설명 좀 해주이소, 음나무는 뭐니까?{그 하나하나 좀 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음나무는 뭐니까?}

10707 # 음나무예?{음나무요?}

10707 # 음나무가 안 혼합니께 자~아 가마.{음나무가 혼하잖습니까 장에 가면.}

10707 # 까시가 송송향거.{가시가 송송한 것.}

10707 # 예 까시익 음나무는 까시가 막 모메 까시가 송:송한 그기: 음나무니더.{예 가시 음 나무는 가시가 막 몸에 가시가 송송한 그것이 음나무입니다.}

10707 # 그래 음나무: 음나무로 저: 닥케다 여어서 썬마무마 그: 달 그래 마시썬니더.{그래 음 나무 음 나무를 저 닭에다 넣어서 삶아 먹으면그 닭이 그렇게 맛이 있습니다.}

10707 # 음나무는 아무나 안 썬마 목심니께.{음나무는 아무나 삶아먹지 않습니다.}

10707 # 그리어 아무나 이런 닥 썬마몽는데 음나무 여:가 썬마마 마시썬니더.{그래 아무나 이렇게 닭 삶아 먹는 데 음나무 넣어서 삶으면 맛이 있습니다.}

10707 # 대초 좀 여코 이래가 썬마마.{대추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삶으면.}

10707 # 그으느 아무건또 안 여코에 음나무 여코 대추 점 여코 이래가: 폭:: 썬마노마 그 고 기가 그래 마시썬니더.{그것은 아무것도 넣지 않고요 음나무 넣고 대추 좀 넣고 이렇게 해서 폭 삶아 놓으면 그 고기가 그렇게 맛이 있습니다.}

10707 # 그래 봄새르 함머 썬마 잡수보이소.{그래 봄새에 한 번 삶아 잡썬보십시오.}

10707 @ 굴피나무는 뭐니까?{굴피나무는 무엇입니까?}

10707 # 굴피나무 자~아 가마 꺾떠기 넙떡:하~이 이래 비끼가 팍니더.{굴피나무 장에 가면 꺾테기 넙적하게 이렇게 벗겨서 팍니다.}

10707 # 예 그근 또 으뜸나무라고 이신미더.{예 그것 또 으뜸나무라고 있습니다.}

10707 # 으뜸나무 일따카는 그근또 또 허리 아픈 사람 모도 그 몽능기인데.{어름나무 있다고 하는 그것도 또 허리 아픈 사람 모두 그 먹는 것인데.}

@ 으뜸나무가 ****?{어름나무가 *****?}

10707 # 어름나 어름나무 굴피나무 지피나무.{어름나 어름나무 굴피나무 계피나무.}

10707 # 어이 머: 어 그 그 저 음나무.{뭐 그 그 저 음나무.}

10707 # 하악 그래 여러:가지로 하유 요새는 아무도 그러거 약 안 해묵썬니더.{하 그래 여러 가지를 요새는 아무도 그런 것 약 해먹지 않습니다.}

10707 @ 지피나무가 뭐니까?{계피나무가 무엇입니까?}

10707 # 지피낭기: 산초.{계피나무가 산초.}

10707 # 산초가 지피나무 아임니이꺼.{산초가 계피나무 아닙니까.}

10707 # 예 그래 산초 그근또 피를 나쁜피를 나쁜피 제거씨이고.{예 그래 산초 그것도 피를 나쁜 피를 나쁜 피 제거시키고.}

10707 # 피가 조아집니더.{피가 좋아집니다.}

10707 # 요새 아:들도 그 몸 건지러붕거 그렇거 모 춤 해미이마 조을긴데 안 해.{요새 애들도 그 몸 가려운 것 그런 것 뭐 좀 해먹이면 좋을 것인데 안 해.}

10707 # 어머~이 그 저 지피나무하고 산초나무하고 가통검니까 다****.{어머니 그 저 계피나무와 산초나무가 같은 것입니까 다*****.}

10707 # 지피나무나 저: 맵꼬.{계피나무는 저 맵고.}

10707 # 구곤툼 다 가치 산초라컬끼고마느.{그것 다 같이 산초라고 할 것이다.}

10707 # 또 지피강 똑:가친 생이 생긴는데.{또 계피와 똑같이 생겼는데.}

10707 # 그그는 난디나무라컴니더.{그것은 난디나무라고 합니다.}

10707 @ 무슨 나무예?{무슨 나무요?}

난디.{난디.}

10707 # 난디나무로커는데.{난디나무라고 하는데.}

10707 # 똑::가치 생긴 종군제 개으지 껌썸니이더 난디느.{똑같이 생긴 종류인데 검습니다 난디는.}

10707 # 난데는 껌:꼬.{난디는 검고.}

10707 # 쥐피는 빨꼬.{계피는 붉고.}

10707 # 예예 지피느 나무가 까시도 빨꼬.{예 계피는 나무가 가시도 붉고.}

10707 # @ 난디나무도 가시 일습**?{난디나무도 가시가 있습니까?}

난디나무느 까시가 껌:꼬.{난디나무는 가시가 검고.}

10707 @ 까시도 이스 인는데.{가시도 있 있는데.}

10707 # 까시가 숭숭합니더.{가시가 숭숭합니다.}

10707 # 그 몸떠~이 까시가 부턴는데.{그 몸둥이 가시가 붙었는데.}

10707 # 그래 모미 난디낭궁 껌꼬 지피낭근 빨꼬 그러썸니더.{그래 몸이 난디나무는 검고 계피나무는 붉고 그렇습니다.}

10707 # 그래 그러 인자 쥐피 그그는 마~이 안 썸니꺼.{그래 그래 인제 계피 그것은 많이 쓰잖습니까.}

10707 # 도시:도.{도시에도.}

10707 # 그이 산초지.{그게 산초지.}

10707 @ 인동초는 ** 우뚜습니까?{인동초는 ** 어떻습니까?}

10707 # 인 인동초느 인동초도 요새 이십니꺼.{인동초는 인동초도 요새 있습니까.}

10707 # 저: 율파리: 모드 키아가지고.{저 율타리에 모두 키워가지고.}

10707 # 인동초 요에 꼬치 나발맨치 요리 피고.{인동초 요래 꽃이 나팔처럼 요렇게 피고.}

10707 # 모미 빨:가코 달강녕쿨가치.{몸이 빨강고 달강녕쿨처럼.}

10707 # 그렇게 또이 인동초가 이십니다.{그런게 또 인동초가 있습니다.}

10707 # 이래 뽕뽕 뭉치가 그래 파능거.{이렇게 둘둘 뭉쳐서 그렇게 파는 것.}

10707 @ 예 큰 덩굴로 올라가지예?{그건 덩굴로 올라가지요?}

10707 # 그넌 그기: 인동초고.{그놈 그것이 인동초이고.}

10707 # 자:~에 엔나레느 양나무 마~이 파라사:심니다.{장에 옛날에는 약나무 많이 팔곤했습니다.}

10707 # 그래 파라산는 그렇거 사가:꼬.{그래 파는 그런 것 사가지고.}

10707 # 그래가: 폭:: 쌀마가 이리 만습니다, 그렇거 해무올라카면.{그렇게해서 폭 삶아서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 해 먹으려고 하면.}

10707 # 그래 우리느 그렇거 해무:살때 그런능가.{그래 우리는 그런 것 해 먹어서 그렇는지.}

10707 # 이래 늘금께네 좀 덜항그 꺾심니다.{이래 늙으니까 좀 덜한 것 같습니다.}

10707 # 하유 돈도 마:~이 까묵꼬 약또 억수로 묵꼬.{돈도 많이 까먹고 약도 아주 많이 먹고.}

10707 @ 오~을 마 나무가 참 마~이 양나무가 그저노웅께 양나무 아~잉기: 업네예.{오늘 뭐 나무가 참 많이 약나무가 그러고 보니 약나무 아닌 것이 없네요.}

10707 # 양나무 아~잉기: 업습니다.{약나무 아닌 것이 없습니다.}

10707 # 양나무 아~잉기: 억꼬.{약나무 아닌 것이 없고.}

10707 # 보메는 이리 입 도들 켜느 땡기미서 참:부 사늘해가: 땡기미서.{봄에는 이렇게 잎들을 때는 다니면서 전부 ??해서 다니면서.}

10707 # 이래 백까지르 뜨드서 말랴가주고 그래 그그러 빠사:서 화:늘 진는데가 일땀니다, 대구가마.{이렇게 백까지를 뜯어서 말려가지고 그래 그것을 뺑아서 환을 짓는데가 있습니다, 대구에 가면.}

10707 # 그래 화늘 지이노코 그래 무그마 그금뜨 떠 야기 조코 웅:가: 이풀 뜨드서, 그이 그래 야기 조탐니다.{그래 환을 지어놓고 그렇게 먹으면 그것도 또 약이 좋고 온갖 잎을 뜯어서, 그게 그렇게 약이 좋답니다.}

10707 # ** 지금 그렇거 합니까.{그래 지금 그런 것 합니까.}

10707 # 이기 또 한가지가 인는데 그기: 안 새앵킨다.{이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지 않는다.}

10707 # 안 생각킨:다.{생각나지 않는다.}

10707 # 그기 이림: 와 안 새앵키노.{그게 이름이 왜 생각나지 않지.}

10707 # 여 모드 농사 지:산는데.{여기 모두 농사 지어쑤는데.}

10707 @ 그도 양나무니까?{그것도 약나무입니까?}

예.{예.}

10707 # 빠 다친데도 조코.{빠 다친데에도 좋고.}

10707 # 홍아씨.{홍화 씨}

10707 # 홍화씨.{홍화 씨.}

10707 # 그 홍화씨가 저: 꼬필제마 꼬치 참 조습니미더.{그 홍화씨가 저 꽃 필 적이면 꽃이 참 좋습니다.}

10707 # 요 화초도 데고 고래 우붕시~이맨치르 여래 열매가 여는데.{화초도 되고 그래 우렁이처럼 이렇게 열매가 여는데.}

10707 # 고오서 씨가 생기가지고.{거기서 씨가 생겨서.}

10707 # 보:하~이 씨가 생긴:데.{보양게 씨가 생기는데.}

10707 # 그 너미 그리크 꼬시이에.{그 놈이 그렇게 고소해요.}

10707 # 예 뽀까가지고 무를 해노마 그러키 꼬시고.{예 볶아서 물을 해 놓으면 그렇게 고소하고.}

10707 # 그기: 뽀 다친 사람도 조코.{그게 뽀 다친 사람에게는도 좋고.}

10707 # 그으 그기 그기: 그리 또 사랑게 그리 조담니더, 홍화씨가.{그 그기 그것이 그렇게 또 사람에게 그렇게 좋답니다, 홍화씨가.}

10707 # 홍화씨가 비삼니더.{홍화씨가 비쌉니다.}

10707 # 한디에 그 사오마넌 한담니더.{한 되에 그 사오만원 한담니다.}

@ 한 디:에.{한 되에.}

10707 # 한 디:에.{한 되에.}

10707 # 그래 그 여: 여:는 농사 마~이 지사십니더, 홍화씨로.{그래 그 여기 여기는 농사 많이 짓습니다, 홍화씨를.}

10707 @ 그러든 한 디에 사오마넌스 하모 한 마린 거트면 엄청 비싸겄따 그지예.{그러면 한 되에 사오만원씩 하면 한 말인 것 같으면 엄청 비싸겄다 그지요.}

*** 엄청 비싸지예.{엄청 비싸지요.}

10707 # 그래 그 그기 또 올개는 마 비가 오웅게네 마 씨글라캐사서 모도.{그래 그 그게 또 올개는 뭐 비가 오니까 뭐 썩으려고 해서 모두.}

10707 # 궁:그~이 머 꺾꺼다가 못 지베다 가따 머 걸치서 말랴:도 자꾸 썩는다카사터라.{근 근이 뭐 꺾어다가 모두 집에다 갖다 걸쳐서 말려도 자꾸 썩는다고 하더라.}

10707 # 그래 머 꺾떠기는 그래 감치리해도.{그래 뭐 꺾떠기는 그렇게 까무리해도.}

10707 # 어 나도 그 저네 요케:다가이 요개다 바틀 헐는데.{나도 그 전에 요기다가 요기에 밭을 했는데.}

10707 # 요기 요:다 송구보웅게네 그 그기 그래 꼬십떠더.{요기 요기에다 심어보니까 그 그게 그렇게 고소합디다.}

10707 # 그래 저 우리 손잔놈 다리로 농구하다아 다리르 다친따 크사킬래.{그래 저 우리 손잔놈 다리를 농구하다가 다리를 다쳤다고 그러길래.}

10707 # 그래 그으러 뽀가가고 물 해미이라카미서 뽀까주~이 어떠: 꼬시든지.{그래 그것을 볶아가지고 물 해먹이라고 하면서 볶아주니까 어찌나 고소하던지.}

10707 # 하이구야 이이 이리키 꼬싱기 다 인나 내기 이살:따.{하이구야 이게 이렇게 고소한
것이 다 있나 내가 이렇게 말했다.}

10707 # 그래 짜금 여: 탄 사람 마~이 합니더.{그래 지금 여기 다른 사람은 많이 합니다.}

10707 # 우린 농사르 안 하잉께 그러치.{우리는 농사를 안 하니까 그렇지.}

10707 # 그래 마 집찌비 모더 해산심니더.{그래 집집이 모두 합니다.}

10707 @ 홍화씨를예?{홍화씨를요?}

10707 @ 그는 우째 우째 가꿈니꺼?{그건 어떻게 어떻게 가꿈니까?}

10707 @ 재배를 우째 합니꺼?{재배를 어떻게 합니까?}

10707 # 구웅 머 이런 보통 머어 곡숙 가꾸드시 보메.{그건 뭐 이런 보통 뭐 곡식 가꾸듯이
봄에.}

10707 # 보메 일찌기 예 씨를 뿌리가저고.{봄에 일찍이 예 씨를 뿌려서.}

@ *****.

10707 # 구 씨로 뿌리가지고 그래 고 올라오마.{그 씨를 부러가지고 그래 그 올라오면.}

10707 # 나느 저:게 뽀바 내비리기 아까버서 그그르 삭끔 디치가: 나물 해무우 땀떠더.{나는
저기 뽀아 내비리기 아까워서 살짝 데쳐서 나물 해먹어도 됩디다.}

10707 # 쏘무잉께네.{술아서.}

10707 # 고애 고래 구굴 담상하~이 키아나마 시~이가 크고.{그래 그렇게 담상담상하게 키
워놓으면 송이가 크고.}

10707 # 쏘물마안 시~이가 작꼬.{술면 송이가 작고.}

10707 # 그래가:꼬 구거를 마 이 여:는 마~이 그래 송굼니더, 송구가:꼬.{그래가지고 그것을
뭐 이 여기는 많이 그렇게 심습니다, 심어가저고.}

10707 # 글 모드 뚜디리고 그래살심니더.{그 모두 두드리고 그러합니다.}

10707 # 극 우에 그 지베 그 지베 그:는.{그 위에 그 집에 그 집에 거기는.}

10707 # 교순님들 가시는 그 지베는 그런 농사 마~이 하니~이더.{교수님들 가시는 그 집
에는 그런 농사 많이 합니다.}

10707 # 마~이 하고 그 지베는 마 역:쑤로 농사합니더.{많이 하고 그 집에는 뭐 아주 많이
농사합니다.}

10707 # 바치 머: 스물일고마지기가 이런능거 머.{밭이 뭐 스물일곱마지기인가 이런거 뭐.}

10707 # 그 영감 할마~이 역:쑤로 합니더, 농사도 잘 하고예.{그 영감 할머니 아주 많이 합
니다, 농사도 잘 하고요.}

10707 # 그래가요.{그래요.}

10707 @ 그 그 할머~이하고는 동서가~이 동시가~이지예?{그 할머니와는 동서간 동서간
이지요?}

10707 # 예, 우리 그그지베는 향너리 노품니:더.{예, 우리 그 집에는 향렬이 높습니다.}

10707 # 향너리 참 노품니더.{향렬이 참 높습니다.}

10707 @ 그러슨미, 동시가~이 아이고 *** 가른 아지매빨.{그렇습니까 동서간이 아니고 그

러면 아주머니빨.)

예 예 할 할머니때 할머~임니더, 할머~이.{예 예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10707 # 그 지비 제일 향녀리 여드 이 동네서 노품니더.{그 집이 제일 향렬이 여기 이 동네에서 높습니다.}

10707 # 이런는데 그 지베 그 그 아지매가 이원 중 그런 이워~이 엄습니더.{이렇는데 그 집에 그 그 아주머니가 의원 중 그런 의원이 없습니더.}

10707 # 웅:각 야기라커능거느 마 점:부 자기가 재배해각꼬.{온갖 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부 자기가 재배해가지고.}

10707 # 참:: 약글 지:서 지:이내는데 그그 아들 딸 참:부 영감님 웅:가 약글 다 해밉니더.{참 약을 지어서 지어내는데 그 아들 딸 전부 영감님 온갖 약을 다 해서 먹읍니다.}

10707 # 그즈 그으 보통 사람 아임니더.{그 보통사람 아닙니다.}

10707 # 이원도 아주 마 큰 이워~임니더.{의원도 아주 뭐 큰 의원입니다.}

10707 # 그래 웅:가 약 다 해밉니더.{그래 온갖 약 다 해먹읍니다.}

10707 # 그런데미르 그래 그 지베 자녀들도 모도 신체가 조코.{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 집의 자녀들도 모두 신체가 좋고.}

10707 # 그그 아저씨넌 만날 땡기미 낙수 노습니더.{그 아저씨는 매일 다니면서 낚시합니다.}

10707 # 일도 마는 사래미 처: 땡기미 낙수를 나예.{일도 많은 사람이 저 다니면서 낚시를 해요.}

10707 # 낙수나가: 고기도.{낚시해서 고기도.}

@ 낙수 낙수가 뭘니?{낙수 낙수가 뭘니까?}

10707 # 낙수로 나깁니더.{낚시를 낚습니다.}

10707 # 고기.{고기.}

@ 아아 이거예.{아 이거요.}

10707 # 그래가지고 고길: 마~이 자바가지고.{그렇게해서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10707 # 그 고기르 가:따가 오:만 이런 양난무르 여:가:꼬.{그 고기를 가져다가 온갖 이런 약 나무를 넣어가지고.}

10707 # 그래 가서 엑끼스르 짜라가꼬.{그래 가서 진액을 짜가지고.}

10707 # 모:도 그래 미기마 그래 모도 모미 보하고.{모두 그렇게 먹이면 그렇게 모두 몸이 보하고.}

10707 # 그 아집마 그래 비이도 이워~임니더.{그 아줌마 그렇게 보여도 의원입니다.}

10707 # 모르능거 영꼬 그런심:더.{모르는 것 없고 그렇습니다.}

10707 @ 모리닝기 엄는 사라플 머라 머라잡니꺼?{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10707 @ 이워이 이워~이라캔 머.{이원이 이원이라고 해 뭐.}

10707 # 예 이워~이 이원 이원질하는 사람 향가집니더.{예 의원이 의원 의원질 하는 사람

한가지입니다.}

10707 # 예 이원강 간썸니더.{예 의원과 같습니다.}

10707 # 구록 머 문하능건또 옥꼬 모르능건또 우꼬.{그래 뭐 못하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10707 # 그 아쭈모 그런심니더.{그 아쭈마 그렇습니다.}

10707 # 글 농사도 그리큼: 마~이 직꼬.{그 농사도 그렇게나 많이 짓고.}

10707 # 예예 농사도 마~이 지이가지고 자녀들또 전:부 사두루 해노코.{예 농사도 많이 지어가지고 자녀들도 전부 살도록 해놓고.}

10707 # 잘삼니더.{잘삼니다.}

10707 # 그으 바깥어른도 농사직꼬 그래 사라도 이런 우리 대중에 모두 추릅떠 하고.{그 바깥 어른도 농사짓고 그렇게 살아도 이런 우리 대중에 모두 나들이도 하고.}

10707 # 그래 머 말쭙부~이나 하고 그래 삼니더.{그래 뭐 말깨나 하고 그렇게 삼니다.}

1.8. 세시풍속과 놀이

1. 세시풍속

10801 # 예, 어른 계시마 정월달 내:서 머 손니미 들고.{예, 어른 계시면 정월달 내내 뭐 손님이 들고.}

10801 # 그래 머 우리드른 머 안자불새:도 옥꼬.{그래 뭐 우리들은 앓아볼 새도 없고.}

10801 # 엔나레는 모도 다:: 어른 모시마 모다 그래 모시고.{옛날에는 모두 다 어른 모시면 모두 그렇게 모시고.}

10801 # * 빈수 인는 지베도 점:부 설시일따꼬.{* 빈소 있는 집에도 전부 설쇠었다고.}

10801 # 다:: 엄시글 모도 다: 챙기서 보내고 챙기고 오고 가고.{다 음식을 모두 다 챙겨서 보내고 챙기고 오고 가고.}

10801 # 엔나레는 그래썸니더.{옛날에는 그랬습니다.}

10801 # 정월달 한달.{정월달 한 달.}

10801 @ 그래 언자 설나레는: 그러먼자 아치메 일:나서 먼저.{그래 인제 설날에는 그러면 인제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10801 @ 조상님들 제사도, 먼저 부모님들 제사도, 머 제사가 아니고 참 저 머 부모님께 그:.{조상님들 제사도, 먼저 부모님들 제사도, 뭐 제사가 아니고 참 저 뭐 부모님께 그.}

10801 @ 그 인사도 *** 세배도 드리고 제사도 모시고 손님들도 오고 안 그람니까?{그 인사도 *** 세배도 드리고 제사도 모시고 손님들도 오고 그렇잖습니까?}

예, 초하룻날.{예, 초하룻날.}

10801 @ 설나를 어찌케 보낸는지 고:뿌터 한번 말씀* ****.{설날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것부터 한 번 말씀[X해 주십시오X].}

10801 # 설나레는 머 아치메 일짱 모도 수하드리 이러나가지고.{설날에는 뭐 아침에 일찍 모두 아랫사람들이 일어나서.}

10801 # 참 모도 시수로 하고.{참 모두 세수를 하고.}

10801 # 정성:꼰 어른들한체: 어른들한테.{정성껏 어른들께 어른들께.}

10801 # 그레 머: 세배 인사로 모더 저를 하고.{그레 뭐 세배 인사로 모두 절을 하고.}

10801 # 그레 메 애들또 모더 저를 하고.{그레 뭐 애들도 모두 절을 하고.}

10801 # 그레가언자 차레르 안 지냄니꺼.{그렇게 하고 인제 차레를 지내잖습니까.}

10801 @ 예:, 차레를 우째 지내씀니까?{예, 차레를 어떻게 지냈습니까?}

10801 # (웃음)

10801 # 차레로 머, 다 머 옛날부터.{차레를 뭐, 다 뭐 옛날부터.}

10801 # 우리지븐 이래 서, 동아느로 이래 하고 이서~이, 예:.{우리집은 서[X쪽X], 동향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예.}

10801 # 장 저:게 서쪼그로 어 참 지우로 모십니다. 조상을 모십니다.{항상 저기 서쪽으로 어 참 지방을 모십니다.}

10801 # (입 다시는 소리) 그레 조상을 모시고.{그렇게 조상을 모시고.}

10801 # 그레 언자 대소가가 머 마네~잉께네.{그레 인제 대소가가 뭐 많으니까.}

10801 # 우리는 머 엔나레는 청도 쪼끄맹:코.{우리는 뭐 옛날에는 청도 조그맣고.}

10801 # 마당을 하나, 엔나레는 덕서김니다.{마당을 하나, 옛날에는 명석입니다.}

10801 # 더서글 펴고 그레 모더 저를 하고.{명석을 펴고 그렇게 모두 절을 하고.}

10801 # 머 크지베 지사로 모시마 전::치 크지베서 음부글 다하고 나마.{뭐 큰집에 제사를 모시면 전부 큰집에서 음복을 다하고 나면.}

10801 # 기차집뜨른 머 음복할 여어도 업꼬.{지차집들은 뭐 음복을 할 틈도 없고.}

10801 # 또 우리집뜨른 야:무도 기차집뜨리 지사가 업꼬.{또 우리집들은 아무도 지차집들이 제사가 없고.}

10801 # 그레 우리 큰지베마 그레 모도 지사로 모시고.{그레 우리 큰집에만 그레 모두 제사를 모시고.}

10801 # 그레 다:: 모더 여게 모이 모이고 그레씀니다.{그레 다 모두 여기 모이고 그랬습니다.}

10801 # 그때는 머도 부산 우리는 머도 부산에 마~이 살고.{그때는 모두 부산 우리는 모두 부산에 많이 살고.}

10801 # 이래 하~이께네 여게 다: 안사래도 왕:가 사래미 만씀니다.{이러니까 여기 다 살잖아도 원체 사람이 많습니다.}

10801 # 그레 에나레는 그리 지사로 모신는데.{그레 옛날에는 그렇게 제사를 모시는데.}

10801 # 지끄른 언자 우리 큰아들지베 그레 안 모심니꺼.{지금은 인제 우리 큰아들 집에 그

렇게 모시잖습니까.}

10801 @ 그러며는 그 저: 대보름날 머 그럼 참 정월 대보름은 어떻게 지내십니까?{그러면 그 저 대보름날 뭐 그러면 참 정월 대보름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10801 # 저럼, 정월 대보름미 서리 큰 서립니더.{정월 대보름이 명절이 큰 명절입니다.}

10801 # 저:게 언자 그건 농사로 마지해서.{저기 인제 그것은 농사를 맞이해서.}

10801 # 그래 언자 농사 자원할라꼬.{그래 인제 농사 자원(?)하려고.}

10801 # 새부게 일찌기 이러나서.{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10801 # 저어게 모도 머리 깡고 옥까라 익꼬.{저기 모두 머리 감고 옷 갈아 입고.}

10801 # 그 그래 엔나레는 그런 정성으로 해씀니더.{그래 옛날에는 그런 정성으로 했습니
다.}

10801 # 그래 가지고 머 넘 머~이 농사밥 한다꼬.{그렇게 해서 뭐 남보다 먼저 농사밥 한
다고.}

10801 # 그래 일:라서 어 아침을 일찌이 하고.{그래 일어나서 아침을 일찍이 하고.}

10801 # 그래 또 어른들 언자 그날 아치메 일찍 언자 조숙도 디리고.{그래 또 어른들 인제
그날 아침에 일찍 인제 조식 드리고.}

10801 # 아침도 디리고.{아침도 드리고.}

10801 # 모두 그래씀니더, 아치메 이:러나서 엔나레는 떡꾸글 끼리 가지고예.{모두 그랬습니
다, 아침에 일어나서 옛날에는 떡국을 끓여 가지고예.}

10801 # 저어게 밥 안 자시서 아:고 어르~이고 떡꾸를 끼리가:꼬 그래 모도 쪼끔씩 쪼끔씩
무우마.{저기 밥 안 잡수시고 애고 어른이고 떡국을 끓여가지고 그래 모두 조금씩 조
금씩 먹으면.}

10801 # 그때는 와:: 모도 저: 마른버지미 피:사아썸니꺼.{그때는 왜 모두 저 마른버짐이 피
곤 했잖습니까.}

10801 # 마른버짐 안 핀다 카미~이 그래 모도 미기고.{마른버짐 피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래 모두 먹이고.}

10801 # 그래 아치메 또 기발:개라꼬, 예 기발:개라꼬 또 수를 언자.{그리고 아침에 또 귀밝
이라고, 예 귀밝이라고 또 술을 인제.}

10801 # 일찌기 언자 한잔 잡숙꼬 아:들 미미 쪼끔씩 미기고. (웃음){일찍이 인제 한 잔 잡
수시고 애들 먹 조금씩 먹이고.}

10801 # 지금 그래다나는데 그케는. (웃음){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그때는.}

10801 # 그땐 쫘 웅커싸아씀니더.{그 즈음에는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10801 @ 그때 밥또 머 그때 오곡밥 안 지었썸니꺼?{그때 밥도 뭐 그때 오곡밥 지었잖습니
까?}

10801 # 예, 오곡빠블 지이 가지고. {예, 오곡밥을 지어 가지고.}

@오곡빠블 어찌게 지인는지 함말씀 해주이소.{오곡밥을 어떻게 지었는지 한 말씀 해주십
시오.}

10801 # 오곡빠블 언자 수시농사르 해가지고 그때연 지배서 수시농사도 해:습니더.{오곡밥을 인제 수수 농사를 해가지고 그때는 집에서 수수 농사도 했습니다.}

10801 # 조비 농사도 하고 수씨 농사도 해 바: 가지고.{조 농사도 하고 수수 농사도 해가지고.}

10801 # 디딜빠~아다가.{디딜방아에다가.}

10801 # 이래 폭:폭 썰거마 싸리 나옵니더.{이렇게 폭 폭 썰면 쌀이 나옵니다.}

10801 # 그래 언자 그 싸를 언자 씨꺼서 모도.{그래 인제 그 쌀을 씻어서 모두.}

10801 # 그래 자꼬글 가치 씨꺼** 찹살하고 씨꺼 가:꼬.{그렇게 찹곡을 섞어서 찹쌀과 섞어 가지고.}

10801 # 바블 마:~이 해노코.{밥을 많이 해 놓고.}

10801 # 그나른 점더럭 그래 오곡빠블 묵꼬.{그 날은 저물도록 그렇게 오곡밥을 먹고.}

10801 @ (웃음). 그때 아치메: 새부게 또는 아치메 아:드리 그: 복조리 가지고.{그때 아침에 새벽에 또는 아침에 애들이 그 복조리를 가지고.}

10801 # 예, 예 그래사아습니더, 예, 그래 사코. {예, 예 그러곤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10801 # 또 소도 저 일런중에 밥주는 나리라꼬.{또 소도 저 일년 중에 밥 주는 날이라고.}

10801 # 그래 언자 나물로코: 양쭈게다 나무를 노코.{그래 인제 나물 놓고 양쪽에다 나물을 놓고.}

10801 # 그 복파네다 바블로코 이래 주:보마.{그 복판에다 밥을 놓고 이렇게 주어 보면.}

10801 # 소가 나물로 무우모 송년테게따이 이카고.{소가 나물을 먹으면 흥년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10801 # 밥부텅 썩: 따까 무우뿌모 풍년테게따 카고 그래습니더.{웃음}{밥부터 썩 닦아 먹어 버리면 풍년 되겠다고 말하고 그랬습니더.}

10801 # 그래 바블 조어습니더.{그렇게 밥을 주었습니다.}

10801 # 개는 저:기 일찍 주모 보름날 일찍 주마 파래~이 생긴다컨데.{개는 저기 일찍 주면 보름날 일찍 주면 파리 생긴다고 하는데.}

10801 # 크:미씨 늑게 조어습니더.{그러면서 늑게 줬습니더.}

10801 # 그런데 그느므 지끔: 그 개파리 아십니까?{그런데 그 놈의 지금 그 개파리 아십니까?}

10801 # 개파리. {개파리.}

@ 개한테 분는게::.(입맛다시는 소리) {개한테 붙는 것이.}

10801 @ 소한테 분는거는 크다:양기 부꼬 이래산:는데 개한테 부는거는 잘 모르.{소한테 붙는 것은 커다란 것이 붙고 이랬는데 개한테 붙는 것은 잘 모르[X했습니다X].}

10801 # 개한테 분는거 모르시지예? {개한테 붙는 것 모르시지요?}

@ 잘 모르게습니더.{잘 모르겠습니다.}

10801 @ 함말씀해 주이소.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아, 개파리르 아무도 모르, 너도 야야 모르제? {아, 개파리를 아무도 모르[X는구나X], 너

도 이야야 모르지?)

#2 모르겐.{모르겠[X네요X].}

10801 # 개파리는예, 하:항기: 노르짱하~이 해가꼬 배가 볼록볼록볼록해 가.{개파리는요 하
안 것이 노르스름하게 해가지고 배가 볼록볼록볼록해서.}

10801 # 요흡:찌, 저 대가리가 쪼깨::능기:.{??? 저 대가리가 조그마한 것이.}

10801 # 그렇기 바리 가물가물가물하~이 큼니더, ***** 어부 큼니더.{그런게 발이 ??????
하니 큼니다.}

10801 # 하이구 개:기:: 하글하글하글 달라드러싸아서.{아이구 개에게 와글와글와글 달려들어
쌓아서.}

10801 # 개가 몬살고 그때는 약또 억꼬예.{개가 못살고 그때는 약도 없고요.}

10801 # 그래 개파리가 그리 끌코.{그때 개파리가 그렇게 끌고.}

10801 # 개:기: 비룩또 끌코.{개벼룩도 끌고.}

10801 # 아이구 지끔 그 개파리가 어데로 간능고.{아이고 지금 그 개파리가 어데로 갔는지.}

10801 # 개파리 아는 사라미 업쏘.{개파리 아는 사람이 없어.}

10801 @ 어~어, 개파리가 아이고 저는 ** 처음 듣는 말씀.{음, 개파리가 아이고 저는 처음
듣는 말씀[X입니다X].}

10801 # 개패리가 노리짱하~이 이리썸니더.{개파리가 노르스름하니 이렇습니다.}

10801 # 노리짱하~이 납작하~이.{노르스름하니 납작하니.}

10801 # 고거는 아리 탱글탱글탱글 썰코.{그것은 알이 탱글탱글탱글 슬고.}

10801 # 그거 알로 논는 모애~이지예.{그게 알을 놓는 모양이지요.}

10801 # 그러가아 머 파리가 마 개애기 바글바글바그 부꼬.{그렇게 해서 뭐 파리가 뭐 개에
게 바글바글바글 붙고.}

10801 # 그래 개가 구부러지 죽꼬 이래썸니더.{그러면 개가 구부러져 죽고 이랬습니다.}

10801 @ 그 개파리 개패리는 운제썸 마이.{그 개파리는 개파리는 언제썸 많이.}

10801 # 이~이 여르메.{여름에.}

10801 # 예, 오뉴워레.{예, 오뉴월에.}

10801 # 그 개파리가 그리 끄리썸니더.{그 개파리가 그렇게 끌었습니다.}

10801 # 봄나모 고마 개파리가 생깁니더.{봄 지나면 그냥 개파리가 생깁니다.}

10801 @ 그라고 대보름데모 또 머이 그 저 달집 태아고 앙그래썸니꺼?{그리고 대보름 되면
또 뭐 그 저 달집 태우고 그러잖았습니까?}

10801 @ 그렇거 쪼깨 생각나시능거 함말씀 해주이소. {그런 것 조금 생각나시는 것 한 번
말씀 해주십시오.}

예, 달집 머.{예, 달집 뭐.}

10801 # 달집 태운다꼬 모도.{달집 태운다고 모두.}

10801 # 절머~이드리 짜다라 모도 달지불 산만대~이다: 지이노코.{젊은이들이 많이 모두
달집을 산꼭대기에다 지어놓고.}

10801 # 그래 모더 지풀 가와서.{그리고 모두 짚을 가지고 와서.}

10801 # 그래 해마지 달로, 달찌블 살고.{그렇게 해마다 달을, 달집을 사르고.}

10801 # 그래 달집 살마 그따아다가 엔나레는 다리비다가 쿡을 다마가지고.{그렇게 달집을 사르면 거기다가 옛날에는 다리미에다 쿡을 담아서.}

10801 # 그걸 언내이 그따아다 뽀까가꼬 그래 지이무우마 머.{그것을 인제 거기다가 볶아서 그렇게 주워 먹으면 뭐.}

10801 # 오 머머 마른버짐 안 피고 머 여름 안탄다 사민서.{뭐뭐 마른버짐 안 피고 뭐 여름 안 타다고 하면서.}

10801 # 그래도 사코.{웃음}{그렇게도 하고.}

10801 @ 또 그 정월따레 머 노리도 마이 안 해께습니까?{또 그 정월달에 뭐 놀이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10801 @ 그 말고도 윤노리도 해써끼고.{그것 말고도 웃놀이도 했을 것이고.}

10801 @ 널떠기도 해슬끼고.{널뛰기도 했을 것이고.}

10801 @ 그 다:메 지뽈노리도 하셔찌예, 그 깡통가통거 돌리사아면서.{그 다음에 쥐불놀이도 하셨지요, 그 깡통 같은 것 돌리면서.}

10801 @ 지불노리. {쥐불놀이.}

예, 지불노리라 캐삼: 노리라 캐사메 해사아썅니다.{예, 쥐불놀이라고 하면서 놀이라 하면서 하곤 했습니다.}

10801 @ 그 담메 머 지신불끼도 발끼도 이서슬끼고.{그 다음에 뭐 지신밟기도 있었을 것이고.}

10801 # 지신도 발:꼬.{지신도 밟고.}

10801 @ 윤노리 우째헐는지 함먼 말씀해 주이소.{웃놀이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말씀 해주십시오.}

10801 # 지신도 발:꼬, 윤노리 하고 그 꼬테 지신발:꼬 모도.{지신도 밟고, 웃놀이 하고 그 끝에 지신 밟고 모두.}

10801 @ 윤노리는 우째해썅니까?{웃놀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10801 # 윤노리 머머 이래 보통 하드시.{웃놀이는 뭐 이렇게 보통 하듯이.}

10801 # 여게는 정월따리마 지금도 윤노리 함니다.{여기는 정월달이면 지금도 웃놀이 합니다.}

10801 # 그로 인자 온 동네 사래미 모이가지고.{그것을 인제 온 동네 사람이 모여서.}

10801 # 그리 윤노리하고.{그렇게 웃놀이 하고.}

10801 # 그래 언자 이기고 지고 언자 해게리 нама 마 메구도 치고.{그래 인제 이기고 지고 인제 해결이 나면 뭐 썰과리도 치고.}

10801 # 그래 언자 지신도 함 발:꼬.{그래 인제 지신도 한 번 밟고.}

10801 # 엔나레는 집지미 지신 발바썅니다.{옛날에는 집집이 지신 밟았썅니다.}

10801 @ 어째 발바썅니까?{어떻게 밟았썅니까?}

10801 # (웃음) 집지비 지신 발른다꼬.{집집이 지신 밍는다고.}

10801 # 발브모 우리 저 애드론 꼬갈로 씨고.{밍으면 우리 저 애들은 꼬갈을 쓰고.}

10801 # 카:이 따라댕기멘서 그래 언자 춤도 추싸꼬. (웃음){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인제 춤도 추고.}

10801 # 그래 쪼깁쩍부터 시~이 마네. (웃음){그렇게 조그마할 적부터 신이 많아.}

10801 @ 그때 그: 지신 지신 발블때: 그 먼저 집지가꼬 할 때는 머머 노래도 안 이써서거씀 니꺼?(그때 그 지신 밍을 때 그 먼저 집 지어가지고 할 때는 뭐 노래도 안 있었겠습 니까?)

10801 @ 예::라 지시나 싸꼬 그렇거 혹씨 생각나시능거 업습니꺼? {에라 지신아라고 하고 그런 것 혹씨 생각나시는 것 없습니까?}

예, 예, 예, 그으 싸아습니더.{예, 예, 예,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10801 # 아이 머 그기 머 생각납니꺼?(아니 뭐 그것이 뭐 생각납니까?)

10801 # 그래 언자 드갈때는 언자, 문여소 문여소 쿠고 주인양반 문여소 쿠고 그래 안드감 니꺼.{그래 인제 들어갈 때는 인제, 문 여소 문 여소라고 하고 주인양반 문 여소라고 하고 그렇게 들어가잖습니까.}

10801 @ 한번 더 말씀해 주이소. 한번 더 말씀해 보이소. 드리갈때: {한번 더 말씀 해주십시오. 한 번 더 말씀 해보십시오. 들어갈 때.}

10801 # 예, 드리갈때.{예, 들어갈 때.}

10801 # 드리갈때 삼짜게 드리갈때 인자.{들어갈 때 삼짝에 들어갈 때 인제.}

10801 # 씨르 치고.{쇠를 치고.}

10801 # 문여소 문여소 주인양반 문여소, 구카미 드감니더.{문 여소 문 여소 주인양반 문 여소, 그렇게 하며 들어갑니다.}

10801 @ 문여소 문여소 주인양반 문여소.{문 여소 문 여소 주인양반 문 여소.}

10801 # 나그네 손님 드감니더, 그카미 드감니더.{나그네 손님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하며 들어갑니다.}

10801 @ 노을때는 또 다른말 또 이씀니꺼?(나을 때는 또 다른 말 또 있습니까?)

10801 # 나을때는 머머 요요 언자 주어메 올라서마.{나을 때는 뭐뭐 요기 인제 ??에 올라서 면.}

10801 # 성주에.{성주에.}

10801 # 머 성주니메 뽀늘 바다.{뭐 성주님의 본을 받아.}

10801 # 이택성주 모실찌 어는 어는 대모기 모신노. (웃음){이 택 성주 모실 적에 어는 어는 대목이 모셨나.}

10801 @ 그런거 중요한데, 함번 더 그런거: {그런 것 중요한데, 한 번 더 그런 것.}

10801 @ 그때 지신발블때에 그 하신 그 이짜** 드리갈때 머.{그때 지신 밍을 때에 그 하신 그 ???? 들어갈 때 뭐.}

10801 @ 머 씨치면서 머 문여소 머 카고 그 다으메 성주푸리하고 이렇거 안 이습니꺼.{뭐

쇠 치면서 뭐 문 여소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주풀이하고 이런 것 있잖습니까.}

10801 @ 생각나시는대로 함말씀해 주이소. {생각나시는 대로 한 번 말씀 해주십시오.}

예, 그래해 사아씀니다.{예,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10801 # 이택성주 모신 모신 대모기 어는 대모기 모신노.{이 택 성주 모신 모신 대목이 어느 대목이 모셨나.}

10801 # 압::지베 김대목 디찌베 박대목, 어~어.{앞 집에 김 대목 뒷 집에 박 대목, 응.}

10801 # 씨툭 태툭 거러노코.{쇠툭 ?툭 걸어놓고.}

10801 # 이택성주 모신네. 머 다 이저뿌습니다.{이 택 성주 모셨네. 뭐 다 잊어버렸습니다.}

10801 @ (웃음) 잘하시네예.{잘 하시네요.}

10801 # (웃음) @ (웃음)

10801 # 그기: 만치.{그것이 많지.}

10801 @ 그 주왕한테는 양 안비러씀니까?{그 조왕한테는 빌지 않았습니까?}

10801 # 조왕에도 머, 여러 절:치 열:여러 조왕님예.{조왕에게도 뭐, 여러 ?? 열여러 조왕님 요.}

10801 # 조왕님저네도 하고.{조왕님전에도 하고.}

10801 # 그래 언자, 머 문서가 만습니까.{그래 인제, 뭐 ??가 많습니까.}

10801 # 그래 온지베 썬 뚜디리고 그래.{그렇게 온 집에 쇠 두드리고 그렇게.}

10801 # 발꼬 나가고.{밟고 나가고.}

10801 # 그 언자 구 구때는 언자 또 술 한잔 자시고.{그 인제 그 그때는 인제 또 술 한잔 잡수시고.}

10801 # 모두 술도 한잔씩 자시고.{모두 술도 한 잔씩 잡수시고.}

10801 # 그래 지베 댕기 나가마.{그래 집에 다녀 나가면.}

10801 # 일런내 양과태평하고.{일년 내내 안과태평하고.}

10801 # 그리 조타 캐심니다.{그렇게 좋다고 했습니다.}

10801 # 그래 서낭님 모시노코.{그리고 서낭님 모셔놓고.}

10801 # 그래 성뉴님저네 그래.{그래 성주님전에 그래.}

10801 # 불씨노코 초뿔케에 노코 그래 장바다 술쳐노코.{불 켜놓고 촛불 켜놓고 그리고 잔 마다 술 쳐놓고.}

10801 # 그래: 돈도 노코 그래 그래 해씀니다.{그리고 돈도 놓고 그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10801 # 그래 지쭈 형:시대로 하고시픈대로 그래 모도 하고.{그래 자기의 형색(?)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모두 하고.}

10801 @ 어머이 널도 떠어 보셨습니까?{어머니 널도 띄어 보셨습니까?}

10801 @ 널떠기.{널뛰기.}

예, 널도 떠:찌예.{예, 널도 뛰었지요.}

10801 @ 널 그거 우째 만드러가이고 우째 뽀니까?{널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뽀니까?}

10801 # 그때는 널로 마~이 띠이썬니다.{그때는 널을 많이 뛰었습니다.}

10801 # 참 엔나레 총각도 머리 땅코.{참 옛날에 총각도 머리 땅고.}

10801 # 처녀도 머리 땅코.{처녀도 머리 땅고.}

10801 # 딴머리는 능충능충 땅코.{뒤통머리는 능청능청 땅고.}

10801 # 참 궁초댕기로 디리고.{참 궁초댕기 들고.}

10801 # 그래 가이고 너를 띠마.{그렇게 해서 널을 뛰면.}

10801 # 카, 머리가 너풀너풀 그거 그거또 불만하지예.{머리가 너풀너풀 그것 그것도 불만하지요.}

10801 # 그래,잘 띠는 사라믄 잘 올라가고.{그래, 잘 뛰는 사람은 잘 올라가고.}

10801 # 몬띠는 사라믄 몬올라가고 그래.{못 뛰는 사람은 못 올라가고 그렇게.}

10801 # 머 너리도 띠썬니다.{뭐 널도 뛰었습니다.}

10801 # 군데도 띠고.{그네도 뛰고.}

10801 @ 군데는 그: 추서게.{그네는 그 추석에.}

추서게.{추석에.}

10801 @ 지끄믄 언자 제가 정월따레.{지금은 인제 제가 정월달에.}

예, 예, 추서게.{예, 예, 추석에.}

10801 @ 그라믄 지불노'리라 캐썬니까, 지'불'노리가 캐썬니까?{그러면 쥐불놀이라고 했습니까, 쥐불놀이라고 했습니까?}

10801 # 강통에다 불다마가아언자 아으레꺼정.{강통에 불 담아서 인제 아이들끼리.}

10801 # 지'불'노리라 커등가, 지불노'리라 카등가.{쥐불놀이라고 하던가 쥐불놀이라고 하던가.}

10801 @ 고거는 우썰해썬니까?{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10801 # 그 어어 머 그 머슬 기르믄 여언능가 불로 덩가가지고 그래사썬디더.{그 어 뭐 그 뒷을 기름을 넣었는지 불을 땡겨서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10801 @ 그럼 언자 이월따릅니다이.{그럼 인제 이월달입니다.}

10801 @ 정월따레는 언자 설랄: 대보름: 머.{정월달에는 인제 설날 대보름 뒷.}

10801 @ 윤노리도 하고 널띠기도 하고 지뽈노리도 하고 달집도 태우고 헐는데.{웃놀이기도 하고 널뛰기도 하고 쥐불놀이기도 하고 달집도 태우고 했는데.}

10801 @ 이월딸 데모, 음녀 이월딸 되모 어떤 풍소기 이서썬니까? {이월달 되면, 음력 이월달 되면 어떤 풍속이 있었습니까?}

10801 # 이월 초하룬나리 컨설 아임니까.{이월 초하룻날이 큰 명절 아닙니까.}

10801 # 이월 초하룬나리 데마.{이월 초하룻날이 되면.}

10801 # 집썰마중.{집집마다.}

10801 # 이월 초하룬날 썰라꼬 덕서게다가 엔나레는 나락글 너러노마.{이월 초하룻날 쓰러고 명석에다 옛날에는 벼를 널어 놓으면.}

10801 # 그 나라글 디덜빠~아 썰~어가아 바블 해썬디더.{그 벼를 디덜방에다 썰어서 밥을

했습니다.}

10801 # 너리노:모 그 나라글 주위무우모 새가 쪼구루: 구부러 중는다 캐썸니다.{널어 놓으면 그 벼를 주위 먹으면 새가 쪼로록 굴러 죽는다고 했습니다.}

10801 # 그마~이꿈 머어시 이편 몬내~이지예.{그만큼 뭐가 있었던 모양이지요.}

10801 # 그래 가아꼬 그 나라글 쪼어서 바블 해서.{그렇게 해서 그 벼를 쪼어서 밥을 해서.}

10801 # 예, 그래 머 바블 해서 그 참: 온소테 바블 마당 가운데 뜨다 노코.{예, 그렇게 뭐 밥을 해서 그 참 온 술의 밥을 마당 가운데 떠다가 놓고.}

10801 # 온시리다 또 떠글 켜서.{시루에다 또 떡을 켜서.}

10801 # 그래 가따 노코.{그렇게 가져다 놓고.}

10801 # 엔나레는 저: 대구, 대구가 그래 마시 이시십니다.{옛날에는 저 대구, 대구가 그렇게 맛이 있었습니다.}

10801 # 대구로 무시로 빼지 여:서.{대구에 무를 빼져 넣어서.}

10801 # 구글 끼리서.{국을 끓여서.}

10801 # 그래가 또 마 엔나레는 또 사구고 버지기고.{그렇게 해서 또 뭐 옛날에는 사기고 자배기고.}

10801 # 그거 사그레다가 얼베디기 퍼다노코.{그것 사기그릇에다 ???? 퍼다가 놓고.}

10801 # 그래가꼬 물한도~이 여다 노코.{그렇게 해서 물 한동이 여다 놓고.}

10801 # 그 정화수 바치노코 그래.{그 정화수 바쳐놓고 그렇게.}

10801 # 그: 하느님저네 그래 비러사십떠더, 어른드리.{그 하느님 전에 그렇게 빌곤 합디다, 어른들이.}

10801 # 우리는 몰라도.{우리는 몰라도.}

10801 # 그래 모도 일련:네 식꾸 들미야:고.{그래 모두 일년 내내 식구 들먹이고.}

10801 # 그래 비러사십떠더.{그렇게 빌곤 합디다.}

10801 # 그래 엔나레는 그런 영거미 이선능가 모르게십떠더.{그래 옛날에는 그런 영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0801 # 그래 참 이워리 큰서립니다.{그래 참 이월이 큰 명절입니다.}

10801 # 지끄른 머 이워리 초하루가 인나.{지금은 뭐 이월에 초하루가 있나.}

10801 @ 그때 데모 또 머 머 바람 영동할미 바람올린다 사코.{그때 되면 또 뭐 뭐 바람 영동할미 바람올린다고 하고.}

10801 # 그거 바람 아임니꺼.{그것이 바람이잖습니까.}

10801 @ 방금 그기: 바람임니꺼? {방금 그것이 바람입니까.}

예.{예.}

10801 # 바라문 언자 소지쪼~오로.{바람은 인제 소지를.}

10801 # 이래 큼거 백찌.{이렇게 큰 것 백지.}

10801 # 백찌 한장 사고, 또 소지쪼~오가 이십니다.{백지 한 장 사고, 또 소지가 있습니다.}

10801 # 그래 전치 소지쪼~오로 사가꼬.{그렇게 전부 소지를 사서.}

10801 # 미::미 식구대로 소지로 올리고.{?? 식구대로 소지를 올리고.}

10801 # 그래: 그래 일런내 그래 모도.{그래 그렇게 일년 내내 그렇게 모두.}

10801 # 양과태평해 달라 카메 그래 어른드리 그래 비러사십떠더.{안과태평하게 해달라고 하며 그렇게 어른들이 그렇게 빌곤 합디다.}

10801 # 그래 그래 빌고.{그래 그렇게 빌고.}

10801 # 오 언자 저 이월 초다새는 초다새끼정은 서:리지예.{이 인제 저 이월 초닷새는 초닷새까지는 명절이지요.}

10801 # 그때는 머 손님도 마~이 드러사코.{그때는 뭐 손님도 많이 들고.}

10801 # 그리 이월 한달은 그리 질겁게 그리 잘 놉니다, 엔나레는.{그렇게 이월 한달은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잘 놉니다, 옛날에는.}

10801 @ 또 머 이월따래 머 또 다른 머 그 풍소근 업서습니까?{또 뭐 이월달에 뭐 또 다른 뭐 풍속은 없었습니까?}

10801 # 예, 그 그라 그라마마 이월뺨 무구마 마 호미들고 드레 감니더.{예, 그 그렇게 그렇게 하면 이월밥 먹으면 뭐 호미 들고 들에 갑니다.}

10801 # 그 엔나레는 마 지시미 나사~이.{그 옛날에는 뭐 김이 나니까.}

10801 # 전:치 오미끄트로 지시물 자바야 데~이.{전부 호미끝으로 김을 잡아야 되니.}

10801 # 머 설마 시이따카마 드레 양감니꺼.{뭐 설만 쇠면 들에 가잖습니까.}

10801 # 그래 드레 가서 논매고 반매고.{그래 들에 가서 논매고 밭매고.}

10801 @ 언자 사뭇립니더.{인제 삼월입니다.}

예.{예.}

10801 @ 사뭇레는 어떤: 풍소기 이서습니까?{삼월에는 어떤 풍속이 있었습니까?}

10801 # 사 사:머레는 머 풍속또 업꼬, 그지 사뭇 삼지.{삼 삼월에는 뭐 풍속도 없고, 그지 삼월 삼진날.}

10801 # 조은나리라커능거 하고.{좋은날이라고 하는 것 하고.}

@ 예.{예.}

10801 # 그래 마.{그래 뭐.}

10801 @ 삼진날 우째 보내습니까? {삼진날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 예?{예?}

10801 @ 삼지는 우째 보내씀니까?{삼진날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10801 # 타뭇 삼지예? {삼월 삼진날요?}

@ 예.{예.}

10801 # 사뭇 삼지는 저: 문중에.{삼월 삼진날은 저 문중에.}

10801 # 모도 문:중 문주~이 그래 저어 향교로 모시노코.{모두 문중 문중이 그래 저 향교에 모셔놓고.}

10801 # 향교로 다:: 우때 어른들 향교로 모시노코.{향교에 다 윗대 어른들 향교에 모셔놓고.}

10801 # 그래 각 문중마정: 손니를 한분씩 초대로 합니다.{그래 각 문중마다 손님을 한 분씩 초대합니다.}

10801 # 그래가지고 그 손니미 모도 그 문주~우 가서 모도 그 하 참.{그렇게 해서 그 손님이 모두 문중으로 가서 모두 그 참.}

10801 # 대모에 모도 향:이를 절을 합니다.{??에 모두 절을 합니다.}

10801 # 그래 다:: 저를 하고.{그렇게 다 절을 하고.}

10801 # 그래 사멸 사멸 초열:끼꺼정 다 그래해습니다.{그렇게 삼월 삼월 초열흘까지 다 그렇게 했습니다.}

10801 # 그래 문중마다 모모한부를 청해가지고.{그래 문중마다 모두 한 분을 청해서.}

10801 # 그래 가시는 부~이 도포익 도포하고.{그래 가시는 분이 도포 입[X고X] 도포하고.}

10801 # 그래 정성껏 가서 그집 조사~을 모시고.{그렇게 정성껏 가서 그 집 조상을 모시고.}

10801 # 문중:마정 그래 그집 그 문중에서 소를 치고.{문중마다 그렇게 그 집 문중에서 손님을 치르고.}

10801 # 그래습니다. 이 봄데마 모도 소니를 마니 쳐습니다.{그랬습니다. 이 봄 되면 손님을 많이 치렀습니다.}

10801 # 재슬래, 재스레.{재실에 재실에.}

10801 @ 그게 사멸날 ***. {그게 삼월달 ***.}

예, 사멸 사월로 고래:습니다.{예 삼월 사월을 그렇게 했습니다.}

10801 # 사월딸도 구* 그러코.{사월달도 그렇고.}

10801 # 머 사멸따레 언자 머 꼬피고 이피고 그래 언자.{뭐 삼월달에 인제 뭐 꽃 피고 있나고 그래 인제.}

10801 # 사월까지 사멸른 초추~이라 하고 사워른 초하라 하고 안 그러습니꺼.{사월까지 삼월은 초춘이라고 하고 사월은 초하라고 하고 그렇잖습니까.}

10801 # 그때는 모도 다 이 어른드리 모도 참 두루마글 입꼬.{그때는 모두 다 이 어른들이 모두 참 두루마기를 입고.}

10801 # 창오슬 입꼬 모도 추루블 할때고 그러심니더.{창옷을 입고 모두 나들이를 할 때고 그렇습니다.}

10801 @ 그 언자 사월따른 아무래도 그 초파이리 클:꺼 거튼데.{그 인제 사월달은 아무래도 그 초파일이 클 것 같은데.}

10801 @ 초파이레 어떠케 보낸:지 하문.{초파일에 어떻게 보냈는지 한 번.}

10801 # 초파일, 예.{초파일, 예.}

@ 예.{예.}

10801 # 예, 초파이레는 머.{예, 초파일에는 뭐.}

10801 # 엔나레는 엔나레 엔나레는 동네서도 등을 다데예.{옛날에는 옛날에 옛날에는 동네에서도 등을 달았어요.}

10801 # 우리: 쪼끄만할께는 동네서도 저: 저:: 압사네도 관등달고 디산에도 관등달고.{우리 조그마할 적에는 동네에서도 저 저 앞산에도 관등 달고 뒷산에도 관등 달고.}

10801 # 그래 모도 등을 등을 달고 사월초파일 조은나이라꼬.{그렇게 모두 등을 등을 달고 사월초파일이 좋은 날이라고.}

10801 # 그래던데 지끄른 저레나 달까 동네 담니꺼.{그렇게 하던데 지금은 절에나 달까 동네에 담니까?}

10801 # 그래 머 풍소기 그래습니더.{그래 뭐 풍속이 그랬습니더.}

10801 @ 동네:서 어데 저레 다니는 부니 만습니꺼?{동네에서 어디 절에 다니는 분이 많습니까?}

10801 # 예:, 지끔 저레 다니는 땡기는 사라미 만습니더.{예, 지금 절에 다니는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10801 # 이 동네는 예수르 안미꼬 열:추 저레 땡깁니더.{이 동네에는 예수를 안 믿고 거의 절에 다닙니다.}

10801 @ 그래 저레 가서는 어떠케 합니꺼?{그래 절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10801 # (웃음) 저레 가만 머.{절에 가면 뭐.}

10801 # 머 부처님저네 저란해사습니꺼.{뭐 부처님 전에 절 하지 않습니까.}

10801 # 모도 자식들 모도 조쿠로 해도라꼬.{모두 자식을 모두 좋게 해달라고.}

10801 # 그래 모도 비러 빌고 저를 해사코.{그렇게 모두 빌어 빌고 절을 하고.}

10801 # 머 평:상내 땡기머 절하고.{뭐 평생 내내 다니며 절을 하고.}

10801 @ 언자 오월따립니더.{인제 오월달입니다.}

예.{예.}

10801 @ 오월따레는 어떤 노리가 이서습니꺼? 풍소기 어떻게 이서습니꺼?{오월달에는 어떤 놀이가 있었습니까?}

10801 # 오워른 다노가 아~이십니꺼.{오월은 단오가 있잖습니까.}

10801 # 오워른 또 다노가 엔날버텨 다노가 또 큼니더.{오월은 또 단오가 옛날부터 단오가 또 큼니다.}

10801 # 그래 가지고 머 다노에 머 어이 저 머 쟁피는 어디이땡공 쟁피 뜨더 머리감는다 싸코.{그래서 뭐 단오에 뭐 저 뭐 창포는 어디에 있던지 창포 뜯어 머리 감는다고 하고.}

10801 # 예, 그럭 그러 오월 다노로 그리 즐거끼 녕깁니더.{예, 그렇게 오월 단오를 그렇게 즐겁게 넘깁니다.}

10801 # 지끄른 또 우리는 저레 갑니더.{지금은 또 우리는 절에 갑니다.}

10801 @ 아, 다노날도예? {아, 단옷날도요?}

예, 다논날.{예, 단옷날.}

10801 # 여어게 영사네 영명사가 인 이습니더.{여기 영산에 영명사가 있습니다.}

10801 # 예, 그 저레 가마 그게 저: 다노 구슬 크게 해예.{예, 그 절에 가면 거기에 저 단오

곳을 크게 해요.}

10801 # 크게 하는데 그어 가마 대접또 잘 하고.{크게 하는데 거기에 가면 대접도 잘 하고.}

10801 # 그래 참 하로 질겁기 잘 노다가 옵니다.{그렇게 참 하루 즐겁게 잘 놀다가 옵니다.}

10801 @ 다노구슬 그 우째합니까?{단오 곳을 그 어떻게 합니까?}

10801 # 천::치:: 다오구슬 모도 웅::간 머.{전체 단오 곳을 모두 온갖 뭐.}

10801 # 머 실령이다 머머.{뭐 신령이다 뭐뭐.}

10801 # 당사~이다 오::만 그 조상 귀신을 청해서 막:: 꼬따리해노코.{당산이다 오만 그 조상 귀신을 청해서 막 ??해놓고.}

10801 # 그 모도 청해 안출:떠더.{그 모두 청해서 앉힙니다.}

10801 # 그래 노코 머 산신도 모시노코.{그렇게 해 놓고 뭐 산신도 모셔놓고.}

10801 # 그래 저레서 그림 가는 사람마정 절하고.{그래 절에 가는 사람마다 절을 하고.}

10801 # 그 그래 잘: 합떠더.{그 그렇게 잘 합디다.}

10801 # 그리 손님 대접또 잘하고 그저레서.{그래 손님 대접도 잘하고 그 절에서.}

10801 # 그 주:지 데는 시니미 안주 나도 밍살 안 무우편데.{그 주지 되는 스님이 아직 나이도 몇 살 안 먹었던데.}

10801 # 그리 잘해예.{그렇게 잘해요.}

10801 # 참 잘합니다.{참 잘합니다.}

10801 @ 어머~이 혹시 옛날 단온날 동네서 친정이나 여게서 그 씨름거튼거 한적 이서습니까?{어머니 혹시 옛날 단옷날 동네에서 친정이나 여기에서 그 씨름 같은 것 한 적이 있었습니까?}

10801 @ 단온날 씨름해습니까?{단옷날 씨름 했습니까?}

10801 # 모리게습니더, 그렇거는 헨는가 어옴는고.{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했는지 어쨌는지.}

10801 @ 그러면 저 유워레는 어떻게 이서습니까?{그러면 저 유월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10801 # 유워레는 머 오월유워레는 농사진는다꼬.{유월에는 뭐 오뉴월에는 농사짓는다고.}

10801 # 농사진는다꼬 유월꺼정은 모심기로 하고.{농사 짓는다고 유월까지는 모심기를 하고.}

10801 # 모:심기로 하고 미~이 이 농초네는 머.{모심기를 하고 뭐 이 이 농촌에는 뭐.}

10801 # 함: 바뽀니꺼. 바뽀처리 데:서.{바쁘잖습니까. 바쁜 철이 돼서.}

10801 # 그래 머 어째 넝간:능공.{그래 뭐 어떻게 넘겼는지.}

10801 # 마리 그러십니더.{말이 그렇습니다.}

10801 @ 유워른 머.{유월은 뭐.}

유워른 머 미끼등 너머간다쿠고.{유월은 뭐 미끼등 넘어간다고 하고.}

10801 # 미끼등 유월 어정: 칠월.{미끼등 유월 어정 칠월.}

10801 # 둥둥 파월 고마 그래 너머간담니더.{둥둥 팔월 그냥 그렇게 넘어간담니다.}

10801 @ 예 미끈등 유월 어정 치월 뚱뚱 파월.{미끄덩 유월 어정 칠월 뚱뚱 팔월.}

10801 # 그래 농사짓따가 보~이 시가~이 그래 빠르답니더.{그렇게 농사 짓다가 보니 시간이 그렇게 빠르답니다.}

10801 @ 치리레는 쫘 머 행사가 이서슬가튼데예.{칠월에는 쫘 뭐 행사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10801 # 아:휴 치릴도 행사도 업습니더.{아이고 칠월도 행사도 없습니더.}

10801 # 머 더버서 머.{뭐 더워서 뭐.}

@ 백쫘 안이서습니꺼?{백중 있잖습니꺼?}

10801 @ 저기 치릴.{저기 칠월.}

백쫘이 인찌예.{백중이 있지요.}

10801 @ 백쫘도 인꼬 그 저 칠석또 안 이서습니꺼.{백중도 있고 그 저 칠석도 있잖습니꺼.}

예.{예.}

10801 # 칠석또 이꼬 백중또 인는데.{칠석도 있고 백중도 있는데.}

@ 예.{예.}

10801 # 칠석게는 엔나레는.{칠석에는 옛날에는.}

10801 # 저 소미기러 가마 소궁떠~이 귀신 따라온다꼬.{저 소 먹이러 가면 소영덩이에 귀신 따라 온다고.}

10801 # 저무두롱 이찌마라 쿠고. (웃음){저물도록 있지 말라고 하고.}

10801 # 예, (웃음) 칠서게.{예, 칠석에. 예.}

@ 예.{예.}

10801 # 그래 언자 어 백쫘에는 조상님 모도.{그래 인제 백중에는 조상님 모두.}

10801 # 조상님나리라꼬, 운동하는나리라꼬.{조상님 날이라고, 운동하는 날이라고.}

10801 # 저름 저레 모도 가서 조상님 종우 가시라꼬 모도 빌로 가사습니더.{지금 절에 모두 가서 조상님 좋은데 가시라고 모두 빌러 가 썻습니더.}

10801 # 조상업는 지비 이십니꺼.{조상 없는 집이 있습니꺼?}

10801 # 그리 모도 빌로 가사습니더.{그렇게 모두 빌러 가썻습니더.}

10801 @ 백쫘날 어데 어데서 빔니꺼?{백중날 어디 어디서 빔니꺼?}

10801 # 저레 가서.{절에 가서.}

@ 저레 가서.{절에 가서.}

예.{예.}

10801 # 저레 가서, 조상님 모시난:데가 이십니더.{절에 가서, 조상님 모셔놓은 데가 있습니다.}

10801 # 예, 그게 도늘 노코.{예, 거기에 돈을 놓고.}

10801 # 그래 저를 해사습니더.{그렇게 절을 해 썻습니더.}

10801 @ 이때쫘: 데모 열추 농사 언자 지심메고 하능거 끄단납니꺼?{이때 쫘 되면 거의 농사 인제 김매고 하는 것 끝나잖습니꺼?}

10801 # 농사는 언자 끄단나습니꺼, 머.{농사는 인제 끝나잖습니꺼, 뭐.}

10801 # 언자 추수한:다꼬.{인제 추수한다고.}

10801 # 마 해: 딜란는다꼬 또 옥보지.{뭘 해서 들인다고 또 고생하지.}

10801 # 이런데 온 바테는 올개는 끝 다 나심니다.{이런데 밭에는 올해 끝이 다 났습니다.}

10801 # 가시레는 머 오곡짜고를 해 딜론는데.{가을에는 오곡잡곡을 해 들여놓는데.}

10801 # 올래는 참:부 이래 갈가 가무러서 다 말라뿌고 바꼬기 업답니다.{올해는 전부 이래 가물 가물어서 다 말라버리고 밭곡(식)이 없답니다.}

10801 # 지일 꼬치가 큰닐니라 커네.{제일 고추가 큰일이라고 하네.}

10801 # 땅거는 엄는데로 사람 데는데.{딴 것은 엄는 대로 살면 되는데.}

10801 # 꼬치는 안묵꼬 안데는데 꼬치가 큰니리람니다.{고추는 안 먹고 안 되는데 고추가 큰일이라고 합니다.}

10801 # 꼬치가 전:치 야글 쳐서.{고추가 전부 약을 쳐서.}

10801 # 모도 쪼갠서 인능거 말라죽찌마라꼬 자:꾸 야글 치고.{모두 조금씩 있는 것 말라 죽지 말라고 자꾸 약을 치고.}

10801 # 또 그거또 안나온답니다.{또 그것도 안 나온답니다.}

10801 # 머 비사두룩 꼬치가 나오다 아나고.{뭘 비싸도록 고추가 나오지도 않고.}

10801 # 꼬치 사묵끼가 제일 큰니리겐네.{고추 사먹기가 제일 큰일이겠네.}

10801 # 땅거는 엄는데 살마 텨니다.{딴 것은 없는 대로 살면 됩니다.}

10801 @ 저 파리레는 또 어떻게 이서습니까?{저 팔월에는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10801 # 파리른 언자 그 가비지.{팔월은 인제 그 가위지.}

10801 # 으 파럴 가우.{응 팔월 가위.}

10801 @ 근: 우뚜습니까?{그것은 어떻게습니까?}

10801 # 그래 또 머 일런내 농사 지:가지고.{그래 도 뭐 일년 내내 농사 지어가지고.}

10801 # 그래 모도 조상님 모신다꼬.{그래 모두 조상님 모신다고.}

10801 # 그 정성뀐 해 가오.{그 정성껏 해서.}

10801 # 그래 언자 모도 도시:서 모도 자식뜰 오고.{그래 인제 모두 도시에서 모두 자식들 오고.}

10801 # 그래 조상님저네 그래 머.{그렇게 조상님 전에 그렇게 뭐.}

10801 # 모도 지소로 장마내노코 저를하고 앙그램니꺼.{모두 제수를 장만해 놓고 절을 하고 그랬잖습니까.}

10801 @ 그나른 머 그네도 띠고 이래 안합니까?{그 날은 뭐 그네도 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0801 # 예, 엔나레는.{예, 옛날에는.}

@ 군데띠기 캐씀니까?{군데뛰기라고 했습니까?}

10801 # 저: 머 나무에다 조은 낭게다가 그네쫄로 매애노코.{저기 뭐 나무에다 좋은 나무에다 그넷줄을 매어 놓고.}

10801 # 그래 모다 군데떠고.{그렇게 모두 그네 뛰고.}

10801 # 또 이 중너네는 또.{또 이 즈음에는 또.}

10801 # 머 노래자랑한다꼬 노래도 불러사코.{뭐 노래자랑한다고 노래도 부르고.}

10801 # 이래했는데 요새는 머 초네 사람도 업꼬.{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뭐 촌에 사람도 없
고.}

10801 # 애:들도 억꼬.{애들도 없고.}

10801 # 그래 파러리 너머갑니더.{그렇게 팔월이 넘어 갑니다.}

10801 @ 혹시 그: 파럴테메는 그 강강술래 사코 엔나레 그렇기 이승거가튼데.{혹시 그 팔월
되면은 그 강강술래라고 하고 옛날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10801 # 엔나레 아:드리 그래해 사아쫘니다.{옛날에 애들이 그렇게 해 쫘았습시다.}

10801 @ 그 함: 생각나시모 말씀해 주이소.{그 한 번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0801 # 아이구 모르계썰니다.{웃음}{아이고 모르쫘습니다.}

10801 # 그래 아:드리 그어사쫘떠더.{그래 아이들이 그렇게 해 쫘습디다.}

10801 # 강강술래 캐사미서.{강강술래라 하면서.}

10801 # 이리 저거꺼정 모도 붙들고.{이렇게 자기들끼리 모두 붙들고.}

10801 # 그거 그 그래 머슨 소리 해사터마는.{그거 그 그렇게 무슨 소리 해 쫘터만은.}

10801 # {웃음}

10801 @ 그: 또 추수테메는 머 또 안 난듭니까, 몽는거.{그 또 추석 되면은 뭐 또 안 만듭
니까, 먹는 것.}

10801 @ 요서 머 송편니라 캄니까, 기떠기라 캄니까?{요새 뭐 송편이라고 합니까, 귀떡이라
고 합니까?}

예, 송편송편 안함니까.{예, 송편송편 하쫘습니까.}

10801 @ 그 송페는 우쫘함니까?{그 송편은 어떻게 합니까?}

10801 # 송페는.{송편은.}

10801 # 모도 새곡식 해가지고.{모두 새 곡식 해 가지고.}

10801 # 카오: 오오: 웅가 새곡서글 해가지고.{그 온갖 새 곡식을 해 가지고.}

10801 # 그래 언자 싸를 빠사:서.{그래 인제 쌀을 빵아서.}

10801 # 그 머 자꼬글 소를 여쿠 그래가 송페해:서.{그 뭐 잡곡으로 속을 넣고 그렇게 송편
했어.}

10801 # 그래 항거석 다마노코.{그래 한껏 담아 놓고.}

10801 # 그래 머.{그래 뭐.}

10801 # 머 작꼭 썩거서 찰 찰떡또 해서 노코.{뭐 잡곡 섞어서 찰 찰떡도 해서 놓고.}

10801 # 그래 해 사쫘니다. {그래 해 쫘았습시다.}

@ 송편 아네 머가 드리갑니까?{송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10801 # 송편 아네는 콩도 빠사서.{송편 안에는 콩도 빵아서.}

10801 # 콩꼬물도 드리가고.{콩고물도 들어가고.}

10801 # 또 동비:~이라꼬, 예 양대라 킴니더, 그거를.{또 동부라고, 예 양대라고 합니다.}

10801 # 그 송구서 그거또 양대도 썰마서 양대고물도 하고.{그것 심어서 그것도 동부도 삶아서 동부고물을 하고.}

10801 # 그래 드리갑니더.{그렇게 들어갑니다.}

10801 # 송편 모야~이 우뚜습니꺼?{송편 모양이 어떻습니꺼?}

10801 # 모야~이 여거:가지지예.{모양이 여러 가지지요.}

10801 # 모야~이 머 동글동글하~이도 맨들고.{모양이 뭐 동글동글하게도 만들고.}

10801 # 쫄쫄하~이도 맨들고.{길쭉하게도 만들고.}

10801 # 머이 지쭈 솜씨대로 그래 여러가짐니더.{뭐 자기 솜씨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10801 # 모나기도 하고.{모가 지기도 하고.}

10801 @ 구월따레는 또 머가 이서습니꺼?{구월달에는 또 뭐가 있었습니꺼?}

10801 # 구월따른 언자 가을 안함니꺼.{구월달에는 인제 가을하잖습니꺼.}

10801 # 가을 언자 농사 지이나양거 모도 거다디리고.{가을 인제 농사 지은 것 모두 거둬들이고.}

10801 # 올해 지끄른 구월따레 가으리 끄치 다 얼추 다 남니더.{올해 지금은 구월달에 가을이 끝이 다 얼추 다 남니다.}

10801 # 여게는 마늘로 송구니 전:치 마늘 다마내기.{여기는 마늘을 심으니 전체 마늘 양파.}

10801 # 엔나레는 시월딸꺼정 헐는데.{옛날에는 시월달까지 했는데.}

10801 # 지끄른 이드른 나락 저거 노러무리하마 다 밍니더.{지금은 이 들은 벼 저것 노르끼하면 다 밍니다.}

10801 # 나락 입뚜 익뚜룩 안나똥니더.{나락 익도록 놔 두지 않습니다.}

10801 # 마늘 하그리 하러로 늑까: 송구마 마느리 손해고.{마늘 하루 하루를 늦게 심으면 마늘이 손해고.}

10801 # 일찌기 송구마 드기고 그러탐니더.{일찍 심으면 득이고 그렇답니다.}

10801 # 그르~잉께네 마 망 나라글 머머 푸르등가 마등가 다 비이뻘니더.{그러니까 뭐 막 벼를 뭐 뭐 푸르든지 말든지 다 베어 버립니다.}

10801 # 그리 비이뻘고 마 일찌기 마늘 송구노오마 마느리 서라래 시:푸러~이 꼭 안 어블림니꺼.{그렇게 베어 버리고 뭐 일찍이 마늘 심어 놓으면 마늘이 설 전에 시퍼렇게 짝 어울리잖습니꺼.}

10801 # 그거 마늘 농사로 크기 생각찌 나랑농사 저거는 생각안함니더.{그것 마늘 농사를 크게 생각하지 벼농사 저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10801 # 여어는 머 나락농사는 생각안함니더.{여기는 뭐 벼농사 생각하지 않습니다.}

10801 # 머 양시~이나 하고 모도 그기지.{뭐 양식이나 하고 모두 그런 것이지.}

10801 @ 그럼 그 마늘 구월따레 그 송군다 말씀임니꺼? {그럼 그 마늘 구월달에 심는다는

말씀입니까?)

예.{예.}

10801 # 올해는 파랗따래 송군다 꺾떠더. 윤다리 인서서.{올해는 팔월달에 심는다고 합니다. 윤달이 있어서.}

10801 # 기끔 집찌비 마늘 꺾니다.{지금 집집마다 마늘 꺾니다.}

10801 # 그리 언자 마늘 쪼가리를 까가지고 구월따래 다 송군다 꺾떠더.{그렇게 인제 마늘 쪽을 까서 구월달에 다 심는다고 합니다.}

10801 # 여:게는 머 머 농사 마늘 마이 송구는 사라믄 열따썰 빠루코도 송구고. {여기는 뭐 뭐 농사 마늘 많이 심는 사람은 열다섯 블럭도 심고.}

10801 # 머 말 문함니더.{뭐 말 못합니다.}

10801 # 그래가 진:치 마늘로 가 삼니더.{그렇게 해서 전체 마늘을 가지고 삼니다.}

10801 # 마늘로 가꼬 사는데라서 판농사는 힘 안씹니다.{마늘을 가지고 사는 데라서 판 농사는 힘쓰지 않습니다.}

10801 @ 머 아까 농사 마늘농사 지일때 머선 머.{뭐 아까 농사 마늘 농사 지을 때 무슨 뭐.}

10801 @ 엔날 거트모 멘마지기 진는다, 멘팽 진는다 그랜는데.{옛날 같으면 몇 마지기 짓는 다, 몇 평 짓는다 그랬는데.}

10801 # 예.{예.}

@ 아까 어머~이 말쓰메는 보모 머 멘 뽀로코 진는다**. {아까 어머니 말씀에는 보면 뭐 몇 블럭 짓는다**.}

10801 @ 멘 뽀로코 ***. {몇 블럭 ***.}

엔나레는 민 마지기 캔는데.{옛날에는 몇 마지기라고 했는데.}

10801 # 지끄믄 한 부루꾸가 구십 저 구백아홉팽가 머꼬, 야:야!{지금은 한 블럭이 구십 저 구백 아홉 평인가 뭐고, 이 애야!}

10801 #2 그 구백, 한 천팽 텬니다. {그 구백, 한 천 평 됩니다.}

@ 아:.{아.}

10801 # 에 함 한:도가리가 그러습니더.{에 한 한 도가리가 그렇습니다.}

10801 # 그렇게 그그로 마 열 열또가리도 지꼬 열따서 또가리도 지꼬 마늘로 그리 송굼니 더.{그러니까 그것을 뭐 열 열 도가리도 짓고 열다섯 도가리도 짓고 마늘을 그렇게 심습니다.}

10801 # 그래 송구머예, 이 보메 마늘 켈 때 마.{그래 심으면요, 이 봄에 마늘 켈 때 뭐.}

10801 # 온::테 머 차완~이다 머 진해다 머 온 천지 사래미 여: 다 옵니다.{온 데 뭐 창원이 다 뭐 진해다 뭐 온 천지 사람이 여기 다 옵니다.}

10801 # 다 와서 송구고.{다 와서 심고.}

10801 # 보메 사월따래 켈쎄도 그러코.{봄에 사월달에 켈 적에도 그렇고.}

10801 # 사라미 마:~이 모아듭니더.{사람이 많이 모여듭니다.}

10801 # 기 이이 동네 이리 비이도예 돈 만습니더.{그 이 동네 이렇게 보여도요 돈 많습니
다.}

10801 @ 아: 그래 마~이, 그 저쩌 시월따레는 머를 합니까?{아, 그렇게 많이, 그 저 시월달
에는 무엇을 합니까?}

10801 # 시월따레는 언자 농사 얼:추 지이노코.{시월달에는 인제 농사 얼추 지어놓고.}

10801 # 시월초하린날버텨 우리 성씨네는 시월초하린날버텨 모사 시작습니더.{시월 초하룻
날부터 우리 성씨네는 시월 초하룻날부터 묘사 시작합니다.}

10801 # 모사 대중 묘사르 시월 초하린날 지뵈니더.{묘사 대중 묘사를 시월 초하룻날 지뵈
니다.}

10801 # 요:: 아페 저 큰 조상.{여기 앞에 저 큰 조상.}

10801 # 예, 여: 드로는데, 맥사안서 드로마.{예, 여기 들어오는데, 맥산에서 들어오면.}

10801 # 창녕서 드로마 여: 사~이 안 이습디꺼?{창녕에서 들어오면 여기 산이 있잖습디
꺼?}

10801 # 그: 켈: 큰 어르~인데.{거기가 제일 큰 어른인데.}

10801 @ 시조 하라버지예? {시조 할아버지요?}

예, 시조 하라버지예.{예, 시조 할아버지요.}

10801 # 그게 ** 온 천지 모도 이 성씨네가 다 모아가지고.{거기에 ** 온 천지 모두 이 성
씨네가 다 모여 가지고.}

10801 # 그 하룬난버텨 지뵈니더.{그 하룻날부터 지뵈니다.}

10801 # 그래 지내마.{그렇게 지내면.}

10801 # 머 보름까까지 그리 대중묘사로 모십니더, 이래고.{뭐 보름까지 그렇게 대중묘사를
모십니다, 이래고.}

10801 # 대중묘사 모시고 나야 모도 언자 지쭈 파종에 또 묘사로 모시고.{대중묘사 모시고
나야 모두 인제 자기들 파계에 또 묘사를 모시고.}

10801 @ 그렇게 시월따레는 언자 마 묘사 모시는 다리다이***?{그러니까 시월달에는 인제
뭐 묘사 묘사 모시는 달이다 [X그렇지요X]?}

예.{예.}

10801 # 시월따른 묘사달 아임니꺼.{시월달은 묘사달 아닙니까.}

@ 예.{예.}

10801 @ 그럼 동지따레는 우째합니까?{그럼 동짓달에는 어떻게 합니까?}

10801 # 동지따레는 언자 농사 다 지이노코 편하지예.{동짓달에는 인제 농사 다 지어놓고
편하지요.}

10801 # 동지서따른 안 편합니꺼.{동지선달은 편하잖습니까.}

10801 @ 그 트키 언자 동지따레는 마마 파쭈글 아마 끼리가지고 양그래습니꺼?{그 특히 인
제 동짓달에는 뭐 팔죽을 아마 끓여 가지고 그랬잖습니까?}

예.{예.}

10801 @ 파쭈근 우찌 끼리는지예?{팔죽은 어떻게 끓이는지요?}

동지따레 파쭈 끼린다꼬 그어 사심니다.{동짓달에 팔죽 끓인다고 그리해 썻습니다.}

10801 @ 파쭈또 머머 여러:가지가 이슬꺼 가튼데.{팔죽도 뭐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 데.}

예.{예.}

10801 @ 그 파쭈 기리능거:.{그 팔죽 끓이는 것.}

예.{예.}

10801 @ 어머~이 끼려 보셔면 그: 경험담 하먼 들리 주이소.{어머니 끓여 보셨던 그 경험담을 한 번 들려 주십시오.}

(웃음)

10801 # 엔나레는 식꾸가 마느~이.{옛날에는 식구가 많으니.}

10801 # 식꾸가 마느~이.{식구가 많으니.}

10801 # 엔날 조선 소치 조선술 조선시 소치 이서심니다.{옛날 조선술이 조선술 조선쇠 술이 있었습시다.}

10801 # 그 소테다가 주글 한: 소서~이 이래 파틀 썰마 그래 끼리마.{그 술에다가 죽을 한 술씩 이래 팔을 삶아 그래 끓이면.}

10801 # 언자 새알로 비비:서 수지비로 마:~이 비비노코.{인제 새알심을 비벼서 수제비를 많이 비벼 놓고.}

10801 # 그리 언자 주글 끼립니다.{그렇게 인제 죽을 끓입니다.}

10801 # 그리 끼리노오마 모다 식꾸대로 그래 퍼다묵꼬.{그렇게 끓여 놓으면 모두 식구대로 그렇게 퍼다 먹고.}

10801 # 머 이운사람도 갈라묵꼬.{뭐 이웃 사람과도 나눠 먹고.}

10801 # 그런데 지금은 팔죽도 양끼립니다.{그런데 지금은 팔죽도 안 끓입니다.}

10801 # 팔죽끼리는 사람도 업습니다.{팔죽 끓이는 사람도 없습시다.}

10801 @ 그뎐 머 팔죽 새알 그: 무우메는 또 머 나 한살 더 몽는다사코 그런말.{그때는 뭐 팔죽 새알심 그것 먹으면 또 뭐 나이 한 살 더 먹는다고 하고 그런 말.}

10801 # 나 한살 더 묵꼬. (웃음){나이 한 살 더 먹고.}

10801 @ 그래서 새알 머 맥께 더 무우가:꼬 나 한살 더무울끼라 이런 그 그런 얘기도 이서 찌예?{그래서 새알심 뭐 몇 개 더 먹어 가지고 나이 한 살 더 먹을 것이라 이런 그 그런 얘기도 있었지요?}

10801 # 그어 사알습니다.{그렇게 해 썻습시다.}

10801 @ 그렇거 얘기 쏘 해 주이소.{그런 것 얘기 쏘 해 주십시오.}

10801 # 새알 작끼 무우모 나 작끼 몽는데이 이 사코.{새알심 적게 먹으면 나이 적게 먹는 다 이렇게 하고.}

10801 # 그리 얼서근너른 고지득꼬.{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곧이듣고.}

10801 # 그 머 또 앙고지 듣는너른 앙고지 득꼬.{그 뭐 또 곧이듣지 않는 사람은 곧이듣지

않고.}

10801 # 그리 모도 주글 끼리가지고 그래 마이 퍼노코 엔나레는 그래.{그렇게 모두 죽을 끓여 가지고 그렇게 많이 퍼 놓고 옛날에는 그렇게.}

10801 # 퍼다 무우산는데 지끄른 과쭈또 안묵꼬.{퍼다 먹어 썩는데 지금은 팔죽도 안 먹고.}

10801 # 무울 사람도 업꼬.{먹을 사람도 없고.}

10801 # 그엿또 멧절 아임니꺼, 동지.{그것도 멧절 아닙니까, 동지.}

10801 @ 그라모 섰파레는 우쨌습니까?{그러면 섰달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0801 # 서딸도 머 그럭저럭 고마 섰딸 한달 마 핑키 안 너머감니꺼.{섰달도 뭐 그럭저럭 그냥 섰달 한 달 뭐 편하게 넘어가잖습니까.}

10801 # 그래 머 일러니 머 그래 퍼뜩거습니더.{그래 뭐 일년이 뭐 그렇게 퍼뜩 갑습니다(재빨리 지나갑니다).}

10801 @ 저: 서딸 그믐나레는 머 잠자모 머 머리가 세:진다 사코.{저 섰달 그믐날에는 뭐 잠자면 머리가 쉰다고 하고.}

예예.{예예.}

10801 @ 머::{뭐.}

눈서비 시니.{눈썹이 세니.}

@ 아 눈서비 신다 캐습니까.{아 눈썹이 쉰다고 했습니까.}

10801 @ 그래서 우 그렇거 안 이서습, 잠 못자게 하고.{그래서 우(리) 그런거 안 있었습[X니까X], 잠 못자게 하고.}

10801 @ 고령거 한말씀.{그런 것 한말씀.}

10801 # 엔나레 저거 모도 여 여러시 크마.{옛날에 자기들 모두 여럿이 크면.}

10801 # 그래 장난할라꼬, 그래 앙그레 사아심니꺼.{그렇게 장난하려고, 그렇게 안 그렇게 해 썩았습니까.}

1.8.2. 전통 놀이

10802 @ 예 지금까지 어머~이 그: 일련 열두다레 어떤: 노리가 이서꼬 어떤: 풍소기 이서꼬 그 이렇거 쭈 말쓰를 해 주셔습니다.{예 지금까지 어머니 그 일련 열두 달에 어떤 놀이가 있었고 어떤 풍속이 있었고 그 이런 것 쭈 말쓰를 해 주셨습니다.}

10802 @ 어 인제부터는예, 그: 노는 노리, 트키 노리 중에서 언자 그 여자드리 주로 노는 노리 안 이습니까.{어 이제부터는요, 그 노는 놀이, 특히 놀이 중에서 인제 그 여자들이 주로 노는 놀이 있잖습니까.}

10802 @ 남자드른 머 씨르를 헨다거나.{남자들은 뭐 씨름을 헨다거나.}

10802 @ 또 머 줄다리기를 헨파 이렇기 일파 그러며는, 여자드른 언자 머 고무줄 노리라든지 머 또. {또 뭐 줄다리기를 헨다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여자들은 인제 뭐 고무줄 놀이라든지 뭐 또.}

10802 @ 사방치기라든지.{사방치기라든지.}

머 고무줄 노리라고 해 사습띠더.{뭐 고무줄놀이라고 해쌍습디다.}

@ 머 여러가지 안 이션겐습니꺼, 그러머는.{뭐 여러 가지 있잖았습니꺼, 그러면은.}

10802 @ 그: 여자드리 또 어릴때 어릴때 주로 노란뽀 노리는 어떻게 이션는지예?(그 여자
들이 또 어릴 때 어릴 때 주로 놀았던 놀이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요?)

10802 # 응 깔래도 박꼬.{응 공기놀이도 하고.}

10802 # 고무줄도 하고.{고무줄놀이도 하고.}

10802 # 찰래는 우째 합니까.{공기는 어떻게 합니까?}

10802 # 깔래는예?{공기는요?}

10802 # 머 깔래는 돌미~이 따드머 가지고.{뭐 공기는 돌멩이 다듬어 가지고.}

10802 # 지끄른 자갈도 마는데.{지금은 자갈도 많은데.}

10802 # 그때는 또 깔래를 따드머 가지고.{그때는 또 공기를 다듬어 가지고.}

10802 # 그기 다석깨그라야 마찌.{그게 다섯 개라야 맞지.}

10802 # 그래 다선나틀 가지고.{그렇게 다섯 날을 가지고.}

10802 # 그래 깔래를 바다사습니더.{그렇게 공기놀이를 했습니다.}

10802 # 그 또 남자애:드른 자치기로 하고.{그 또 남자애들은 자치기를 하고.}

10802 # 그래 노라사티~이.{그렇게 놀곤 하더니.}

10802 @ 깔래라능게 다석깨 돌매이 그거로 해가지고 요오레 반능거.{공기라는 것이 다섯
개 돌멩이 그것으로 해 가지고 요렇게 받는 것.}

10802 # 그래 바습니더.{그렇게 받습니다.}

@ 고 그래.{그 그렇게.}

10802 # 머 안 이습니까. 하나식 무꼬 둘식 무꼬 산는거 안 이습니꺼.{뭐 있잖습니까. 하나
씩 먹고 둘씩 먹고 하는 것 있잖습니까.}

@ 또 이 이 이래도 하고.{또 이 이 이렇게도 하고.}

10802 # 머 그: 여르 가집니더.{뭐 그것 여러 가지입니다.}

10802 @ 머 머 그 이름들 안 이습니꺼.{뭐 뭐 그 이름들 있잖습니까.}

10802 @ 이러함 머 ***,{이름 한 번 뭐 ***,}

예 머 그 뭘.{예 뭐 그 뭣.}

10802 # 또 자세고 머시고 그건 다 이저뿌습니더.{또 ??고 뭣이고 그것 다 잊어 버렸습니
다.}

10802 @ (웃음) # 그 다 이르미 이십니더.{그 다 이름이 있습니다.}

10802 @ 예: 고무주른 어떠케 해습니까?(예 고무줄은 어떻게 했습니까?)

10802 # 고기는 즈그 그거 저그 펄쩍펄쩍 띠:싸테예.{그것은 저거 그거 저거 펄쩍펄쩍 뛰어
쌍데요.}

10802 # (웃음) 따라:들 그으 키울찌게 머 그거 할라꼬 지배 드로다 아날라쿠고.{딸아이들
그 키울 적에 뭐 그것 하려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으려고 하고.}

10802 @ 그럼 그거는 어떠습니까.{그럼 그것은 어떻습니까.}

10802 @ 마당에 금 끄어가지고.{마당에 금 그어 가지고.}

예.{예.}

10802 @ 돌맹이 거룻거 가꼬 차고 가능거 고러 그르 멀캐썬니까?{돌맹이 같은 것 가지고 차고 가는 것 그것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해싸십디꺼.{그렇게 해 썬습디다.}

10802 # 그거는 머 빵노링가.{그것은 뭐 빵놀이인가.}

@ 예:.{예.}

10802 @ 그래 빵노리 그거는 우썰:썬니까?{그래 빵놀이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10802 # 그래 언자 기리노코.{그래 인제 (그려 놓고.}

10802 # 돌미~이 떤지노코 그노를 차서.{돌맹이 던져 놓고 그 놈을 차서.}

10802 # 구녕구녀~이 그거로 연는 모애~이지.{구멍 구멍에 그것을 넣는 모양이지.}

10802 # 그래 그 언자 빵에 걸리마 안데고.{그래 그 인제 빵에 걸리면 안 되고.}

10802 # 고래 고래 가아꼬 노는 모야~입떠더.{그렇게 그렇게 가지고 노는 모양입디다.}

10802 # 우리들 클썰게는: 점:부 그거로 일본말로 해따.{우리들 클 적에는 전부 그것을 일본말로 했다.}

10802 # 일본말로 점::부 머 자새반능기:다 머:시다.{일본말로 전부 뭐 자새(공기) 받는 것이 다 뗏이다.}

10802 # 이거 하나하나 시아리능기 다 점:부 일본말로 해썬니더.{이것을 하나하나 세는 것을 다 전부 일본말로 했습니다.}

10802 @ 기억나십니까?{기억나십니까?}

10802 # 그건또 안 하~이 다 인저뿌스미꺼, ****.{그것도 안 하니 다 잊어버렸지 뭇니까, ****.}

10802 # 그 이이 일본말, 요새는 하나들 시지예, 이러는데.{그 이것 일본말, 요새는 하나 둘 세지요, 이러는데.}

10802 # 그때는 이거러미 일리삼사라 쿠고, 이썰 니: 산 시 이리 치고.{그때는 ????? 일리삼사라고 하고, 이썰 니 산 시 이렇게 치고.}

10802 # 추 주:꺼지~이 인자 여리고.{쿠 주까지 인제 열이고.}

10802 # 그래 해 사:십니더, 이래 머.{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뭇.}

10802 # 그거 다 자새 받는 거거또.{그거 다 공기 받는 그것도.}

10802 # 도노도노 마~이요 캐 사아미.{도노도노 마~이요라고 해 썬으면서.}

10802 # 일본말로 그리 해:꼬.{일본말로 그렇게 했고.}

10802 # 우리는 다 일본말 하고 커썬니더.{우리는 다 일본말 하고 켜했습니다.}

10802 # 우리 클썰~으이는.{우리 클 적에는.}

@ 그때 일본말 하라꼬 교유글 그때 바다습니까?{그때 일본말 하라고 교육을 그때 받았습니까?}

예:{예.}

10802 # 그림, 마~이 바다습니더.{그림, 많이 받았습시다.}

10802 # 조선마른 절때 몬하구로 하고.{조선말은 절대 못하게 하고.}

@ 만야게 조선말 하모 우째:습니까?{만약에 조선말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10802 # 조섬말 하마 벌시우고 머.{조선말 하면 벌세우고 뭐.}

10802 # 이래 지~으글 야핵하는데도 가마 점:부 일본글로 배우고.{이렇게 저녁을(에) 야학 하는 데도 가면 전부 일본글을 배우고.}

10802 # 이 조선 조선 이거 요새는 구거지예?{이 조선 조선[X말X] 이것 요새는 국어지요?}

@ 예:{예.}

10802 # 조오생고도 익카고. {조생고도 이렇게 말하고.}

10802 # 그때는 점:부 일본말로 해습니더.{그때는 전부 일본말로 했습시다.}

10802 @ 만야게 우리말로 하다가: 누가 어데 저 우리말 한다꼬 고 어데 머 찢러 이리하메 는 벌도 박꼬 이래따맨서예?{만약에 우리말을 하다가 누가 어디 저 우리말 한다고 그 어디 뭐 찢러 이렇게 하면은 벌도 받고 이랬다면서요?}

10802 @ 그렇거를 한번 여페서 보서썸니꺼, 직쩍 그런.{그런 것을 한 번 옆에서 보셨습니까, 직쩍 그런.}

10802 # 우리도 해:찌예.{우리도 했지요.}

10802 # 그래 가:꼬 시보시 너른 사람 시집 양가고 인는 처재는 빼:가고.{그래 가지고 심오 세 넘은 사람 시집 안 가고 있는 처자는 빼가고.}

10802 # 그 그리 마~이 앙 가습니꺼.{그 그렇게 많이 가잖았습니까.}

10802 # 그리 우리드른 시집또 일찍 오고.{그래 우리들은 시집도 일찍 오고.}

10802 # 그 그때는 모도 그래습니더.{그 그때는 모두 그랬습시다.}

10802 # 싱낭도 말:키 일쩍시대.{식량도 전부 일정시대.}

10802 # 지배와서 다 들초가 가고.{집에 와서 다 들추어 가고.}

10802 # 아:무리 송카:도 들키모 다 가주가뿌고.{아무리 숨겨도 들키면 다 가져가 버리고.}

10802 # 이 무명질삼도 엔나래는 바테다가 점부 모카로 송거습니더.{이 무명 길쌈도 옛날에 는 밭에다 전부 목화를 심었습시다.}

10802 # 모카로 심머가지고 그 점:부 질사를 해야 오슬 해 입는데.{목화를 심어 가지고 그 전부 길쌈을 해야 옷을 해 입는데.}

10802 # 이넘 밍 명도 따노아마 공출디이라.{이놈 명 명도 따 놓으면 공출이더라(?).}

10802 # 예, 머 오또 몬해익게 하고.{예, 뭐 옷도 못해 입게 하고.}

10802 # 질삼도 몬하고 가마~이 이서가고 언자 오슬 해 익꼬.{길쌈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인제 옷을 해 입고.}

10802 # 머 그때는 싱냐~이고 모카고 머 다 들며:가고.{뭐 그때는 식량이고 목화고 뭐 다 들춰 가고.}

10802 # 이래 명:도 하나하나 손토블 이래 까가지고 명시를 까가지고.{이렇게 명도 하나하나

손톱으로 이렇게 까 가지고 명씨를 까 가지고.}

10802 # 어 어른 계시는 사라문 언자 질사를 하고.{이 어른 계시는 사람은 인제 길쌈을 하고.}

10802 # 맘:대로 몬해서.{마음대로 못해서.}

10802 # 그래 언자 목썰기로 요래 저 나무로 가지고 썰기르 목썰기르 해서 안차 노코.{그래 인제 씨아를 요래 저 나무를 가지고 씨아를 나무 씨아를 해서 앓혀 놓고.}

10802 # 그래 고거로 점:부 모카로 이리 둘러서 그 씨를 까십니다.{그래 그것으로 전부 목화를 이렇게 둘러서 그 씨를 잸습니다.}

10802 # 그 씨를 까가주고 그래 언자 소느로 활로 탕가가지고 그거로 언자.{그 씨를 까 가지고 그렇게 인제 손으로 활로 튕겨 가지고 그것을 인제.}

10802 # 할머니가 물리이다 자사서 그래 질사를 하고.{할머니가 물레에다 자아서 그렇게 길쌈을 하고.}

10802 # 질사를 해고: 오슬 해 익꼬 아:들또 해 이피고.{길쌈을 해서 옷을 해 입고 아이들도 해 입히고.}

10802 @ 예:{예.}

그래 안 사라습니까.{그렇게 살았잖습니까.}

10802 # 일:쟁시대는 사람도 빼:가고.{일정시대에는 사람도 빼어 가고.}

10802 # 곡식 모과 전:치 다 가:가고.{곡식 목화 전부 다 가져 가고.}

10802 # 인능거 엄스십니다.{있는 것 없었습니다.}

10802 # 그러~이 몬무꼬 사라찌 머.{그러니 못 먹고 살았지 뭐.}

10802 # 그때는 처 송년도 저사코예.{그때는 저 흥년도 저 쌓고요.}

10802 # 이 지그른 점:부 전수지로 무를 퍼서 농사르 이리 진는데.{이 지금은 전부 저수지에 물을 퍼서 농사를 이렇게 짓는데.}

10802 # 무함빠~알 나올떼가 엄스~이 송녀~이 안 지고 맘니까.{물 한 방울 나올 테가 없으니 흥년이 안 지고 맙니까.}

10802 # 언자 우리 하라부지 거튼 사라문 밤낫업씨 한도가리 구해가 무올라꼬.{인제 우리 할아버지 같은 사람은 밤낮없이 한 도가리 구해서 먹으려고.}

10802 # 무를 퍼서 그래 가아꼬 싱냐~을 장망코 이래썸니다.{물을 퍼서 그렇게 해서 식량을 장만하고 이랬습니다.}

10802 # 그래 가지고 우째 참.{그렇게 해서 어찌 참.}

10802 # 참 참 저어게, 그 부~이 와 안 새앵키이노.{참 참 저기, 그 분이 왜 생각이 안 나지.}

10802 # 대통냥.{대통령.}

10802 # 박 대통냥.{박 대통령.}

10802 # 반 박 대통녕 드려서고 고마 살기가 안 데:심니까.{박 박 대통령 들어서고 그만(이제) 살 수 있게 되었잖습니까.}

10802 @ 예::{예.}

그리 살기가 데:가주고.{그렇게 살기가 돼 가지고.}

10802 # 어 모도:: 이 찜:부 창녕 천지 여:{어 모두 이 전부 창녕 천지 여기에.}

10802 # 땅이 찜:부 이집 부자찜 땅입니다.{땅이 전부 이 집 부자찜 땅입니다.}

10802 # 이 동네 집터고 이 근방에 찜:부 집터고 찜:부 부자찜 땅입니다.{이 동네 집터고 이 근방에 전부 집터고 전부 부자찜 땅입니다.}

10802 # 이 집 부자찜 땅입니다.{이 집 부자찜 땅입니다.}

10802 # 이래 이러~이 농사 지이노아모 수구글 마:{이렇게 이러니까 농사 지어 놓으면 수곡을 마.}

10802 # 엔나레는예 지금 삼십말 나능거 그 엔나레는 열말도 못내 무우습니다.{옛날에는 지금 삼십 말 나는 것 그 옛날에는 열 말도 못나게 먹었습니다.}

10802 # 비료가 이십니꺼, 야기 이십니꺼.{비료가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10802 # 이래 진는 농사 그건또.{이렇게 짓는 농사 그것도.}

10802 # 뚜디리 가주고 부자찜 수곡 가따 주마 목떠리째~이마 들고 드론다 캐습니다.{두드려 가지고 부자찜 수곡 갖다 주면 ??????? 들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10802 # 그:래 곡시기 나야지.{그렇게 곡식이 나야지.}

10802 # 그 다아다가 일짱시대르 대이노웅게네.{거기에다가 일짱시대를 당해 놓으니까.}

10802 # 말:키 들마가 가뿌지.{모두 공출해 가 버리지.}

10802 # 이 그 참 그때 궁근 안 사라습니꺼.{이 그 참 그때 궁근이 살지 않았습니까.}

10802 # 그때 이승만 시댁니다.{그때 이승만 시대입니다.}

10802 # 이승만 시대 그러키 요글 보아십니다.{이승만 시대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10802 # 그래 여여 박정희 시대 드로가지고.{그래 여여 박정희 시대 들어와 가지고.}

10802 # 마 이 인는 사람 엄는 사람 포업시 사라야 텐다.{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표없이 살아야 된다.}

10802 # 고마 부자찌베다가 상환농이라꼬 으 땅깁쓴 모두 주고.{그만 부자집에다가 상환용이라고 땅값을 주고.}

10802 # 부자찌베다가 땅깁쓸 주고.{부자집에다가 땅값을 주고.}

10802 # 내 쥐고 인는 전답 말:키 내아프로 이저~이 데:가꼬.{내 쥐고(짓고) 있는 전답 모두 내 앞으로 이전이 되어서.}

10802 # 그래 지금 지춤 머 토지가 안 데썸니꺼.{그래 지금 각자 뭐 토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10802 # 이런 부자찌븐 영:골털판 나뿌지 고마.{이런 부자집은 ???? 나버렸지 그만.}

10802 # 그래 언자 이 집 집터도 고만 도늘 쪼매서 주고 고마 찜:부 내 아프로 다 하고.{그래 인제 이 집 집터도 그만 돈을 조금씩 주고 그만 전부 내 앞으로 다 하고.}

10802 # 이래가: 살기가 데에십니다.{이렇게 해서 살기가 되었습니다.}

10802 # 이니 부자찌븐 고마 안 망해십니꺼.{이러니(?) 부자집은 그만 망했잖습니까.}

10802 # 그래 그래 망해따가.{그래 그래 망했다가.}

10802 # 이 지비 엔나레 참 만서꾸느 지빈데.{이 집이 옛날에 참 만석꾼의 집인데.}

10802 # 그래 술:땅 망향께네 자손도 안 나고.{그렇게 몽땅 망하니까 자손도 안 나고.}

10802 # 살림도 가고.{살림도 가고.}

10802 # 이 고마 그래 가지고 마 큰지비 마 망해습니더.{이 그만 그래 가지고 마 큰 집이 망했습니다.}

10802 # 그래뿌고.{그렇게 되어 버렸고.}

10802 # 그래 언자 요: 성재경씨라꼬 고 재종가~임니더.{그래 인제 요 성재경씨라고 그 재종간입니다.}

10802 # 재종가~인데, 그 융정시강 재종가~인데.{재종간인데, 그 융경씨와 재종간인데.}

10802 # 헤:리미라꼬 안 이~이십니꺼.{헤림이라고 안 있습니까.}

10802 # 헤:리미강 융경씨 융정썬 저거 크나부지고.{헤림이와 융경씨 융정씨는 자기 큰아버지이고.}

10802 # 요 고고 고래 아들 형지부~인데.{요 그그 그렇게 아들 형제분인데.}

10802 # 그래 그 헤리미 아버지가 이부그로 너머가가지고.{그래 그 헤림이 아버지가 이북으로 넘어가 가지고.}

10802 # 하:도 잘 나떠람니더.{(헤림이 아버지가) 워낙 (인물이) 잘 났더랍니다.}

10802 # 인물도 하:도 잘 나고 똑뚜꾸 이래 가꼬 너머가고.{인물이 워낙 잘 나고 이래 가지고 (북으로) 넘어가고.}

10802 # 여: 식꾸 술:뺨 다 데리따가 다 안 주거뿌습니꺼.{여기 식구 몽땅 다 데려갔다가 다 죽어버렸잖습니까.}

10802 # 따 딸 하나 нама심니더.{딸 딸 하나 남았습니다.}

10802 # 딸 하나 낭고 헤리미 고그 하나 낭고.{딸 하나 남고 헤림이 하나 남고.}

10802 # 고기: 남맨:데.{그것이 남맨데.}

10802 # 그래 아들 하나 낭고 딸 하나 낭고 고래 낭고.{그래 아들 하나 남고 딸 하나 그렇게 남고.}

10802 # 크 큰 언자 참 성국때기라꼬.{큰 큰(=본처인) 인제 참 성국댁이라고.}

10802 # 저:기 따리 서인데.{저기 딸이 셋인데.}

10802 # 이부그로 마 디리고 갑디더.{이북으로 마 데리고 갑디더.}

10802 # 가다가 딸 둘 죽꼬, 엄마 죽꼬.{가다가 딸 둘 죽고. 엄마 죽고.}

10802 # 주구뿌고 그 큰 딸 하내이 нама서예.{죽어 버리고 그 큰딸 하나가 남았어요.}

@ 성국때기?{성국댁?}

10802 # 예, 성국때기도: 그 본처가.{예, 성국댁도 그 본처가.}

@ *** 도라가입시더.{(본이야기로) 돌아가십시다.}

10802 # 그 헤리미는 처브 따림니더.{그 헤림이는 첩의 딸입니다.}

10802 # 본처의 딸 아임니더.{본처의 딸 아닙니다.}

10802 @ 그래서 남아구나, 예.{그래서 (살아)남았구나, 예.}

예.{예.}

10802 # 그래 이: 그래 그집 마 이부그로 가 그리 데:뿌고.{그래 이 그래 그 집 마 이북으로
가 그리되어 버리고.}

10802 # 이 이 머 큰집 부자찌븐 응정씨는 머 자손또 업꼬 머 그 그러코.{이 이 뭐 큰집 응
정씨는 뭐 자손도 업고 뭐 그 그렇고.}

10802 # 그래 이자 이 요짜: 요 요 지비 자근지빔니다.{그래 인제 이 요쪽 여 여 집이 작은
집입니다.}

10802 # 성재경씨라꼬.{성재경씨라고.}

10802 # 그래 그부~이 언자, 참.{그래 그 분이 인제, 참.}

10802 # 부:리영화르 해, 그 지배는.{부귀영화를 해, 그 집에는.}

10802 # 아들도 사형지:고.{아들도 사형제이고.}

10802 # 그래 마 참 재산도 이꼬 이른는데.{그래 마 참 재산도 있고 이렇는데.}

10802 # 그 집 두째 아드리, 크:나들또 여: 대구 협성 부자 아임니까, 이래도.{그 집 둘째 아
들이, 큰아들도 대구 협성 부자 아십니까, 이래도.}

10802 # 두째 아드리 마 그러키 부자라커네예.{둘째 아들이 마 그렇게 부자라고 하네요.}

10802 # 그거시 참:.{그것이 참.}

10802 # 호요~이 내가 저 저 지배 멍창 한번 가봅니다.{간혹 내가 저 저 집에 그냥 한번
가봅니다.}

10802 # 가보마 야: 요: 명기가 요고 요온데.{가 보면 야 요 명기가 여기 여긴데.}

10802 # 이 이 명기가 어떤 명기건데 여어는 이리키 저:게 참 살리미 부기하능공.{이 이 명
기가 어떤 명기이건데 여기는 이렇게 저기 참 살림이 부귀하는가.}

10802 # 그래 시퍼예.{그래 싫어요.}

10802 @ 그 머 차이가 이릅디까?{그 뭐 차이가 있습디까?}

10802 # 어이 저런 사라문 전잘때 엄는 부자 아임니까.{어이 저런 사람은 건줄 데 없는 부
자 아십니까.}

10802 @ 그 그러니까 명기가 이릅디까?{그 그러니까 명기가 있습디까?}

10802 # 명:기가 이따 안 컴니까.{명기가 있다고 하잖습니까.}

10802 # 그런데 이 서리 지니서리랍니다.{그런데 이 설이 지네설이랍니다.}

10802 # 지네서린데 지네 대가리:라 카네, 저어가.{지네설인데 지네 대가리라고 하네, 저기
가.}

10802 # 근데 그 큰지븐 머 왜 망헨노 하마.{그런데 그 큰집은 왜 망했는가 하면.}

10802 # 이: 금방 천지에 황사네고 이름인는 돌 다 실코와예, 그 응경씨가.{이 금방 천지에
황산에고 이름있는 돌 다 실고 와요.}

10802 # 다 시러다가 이 지배다가 다 가따 나:예.{다 실어다가 이 집에다 갖다 놓아요.}

10802 # 그 지배 함: 가볼만합니다.{그 집에 한 번 가서 볼 만합니다.}

10802 # 그래 다 가따 나아~이 팔또 석수~이 드로가: 지비 안텐다 양킴니꺼.{그렇게 다 갖다 놓아서 팔도 돌이 들어와서 집이 안 된다고 하잖습니까.}

10802 # 그래가: 지니 대가리다가 돌로 그리키 가따 누지라서 지비 안텐다 캐썸니더.{그래 지네 대가리에다 돌을 그렇게 갖다 눌러서 집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10802 @ 아, 그 재미이는 애기네예.{아, 그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10802 # 예, 그러는데 지끔 머 그 재경씨 아드른 두째 아드림니더.{예, 그렇는데 지금 뭐 그 재경씨 아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10802 # 게:일로 큰 부*, 도~이 만탐니더.{제일로 큰 부[X자X], 돈이 많답니다.}

10802 # 이 머 집또 백:지 마 조선 천지예.{이 뭐 집도 괜히 뭐 조선 천지예.}

10802 # 엔날: 조은지비라커능거는 다 뜨더다 지이찌.{옛날 좋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 뜯어다 지었지.}

10802 # 내:비리능거 재서리다 머시다.{내버린 것 재실이다 뭣이다.}

10802 @ 저 가볼라카모 머 그냥 가볼쑤 이습니까, 아이모 허당을 바꼬?{가 보려고 하면 뭐 그냥 가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허락을 받고?}

10802 # 가볼쑤 이십니더.{가 볼 수 있습니다.}

10802 # 머 저:게 언주 이 이 지베 구경꾼 마~이 들킴니더, 요새도 마~이 드는데 언자.{뭐 저기 이제 이 집에 구경꾼 많이 들 것입니다, 요새도 많이 드는데 인제.}

10802 # 무~이 열리:서마: 언자 드가바도 데는데.{문이 열려 있으면 인제 들어가 봐도 되는 데.}

10802 # 저: 무~이 점:부 도라가뎌 대끼슬킴니더, 쟁기슬킴니더.{저 문이 전부 돌아가면 닫혔을 것입니다, 잠겼을 것입니다.}

10802 # 문 끄니이가 이슬썰에는 마~이 드감니더.{문끈이 있을 적에는(?=문이 열려 있을 적에는) 많이 들어갑니다.}

10802 # 인테 아프로 머머 이지베.{이렇는데 앞으로 뭐 뭐 이 집에.}

10802 # 마~이 마경꾼 마~이 끄러킴니더.{많이 구경꾼이 많이 꿔울 것입니다.}

10802 @ 그런데 운 무는 운제: 열림니꺼?{그런데 언(제) 문은 언제 열립니까?}

10802 # 무~인 인자 이 지비 지블 지:야.{문이 인제 이 집이 집을 지어야.}

10802 # 지블 지이마 봄:내 지십떠더.{집을 지으면 봄내 짓습디다.}

10802 # 봄내 진는데 집 마:~이 지이나십니더.{봄내 짓는데 집 많이 지어 놓았습니다.}

10802 # 지:난:는데 인지 여서채로 더 진는다 커네.{지어 놓았는데 지금 여섯 채를 더 짓는다고 하네.}

10802 # 그 그 집 일련: 집찢찌기는 무~이 확: 열림니더.{그 그 집 ?? 집 지을 적에는 문이 확 열립니다.}

10802 # 그래머머 대목또 와서 이꼬 요새는 더부노웅께네 일로 안하는갑습떠더.{그래 뭐 뭐 대목도 와서 있고 요새는 더우니까 일을 안 하는 것 같습디다.}

10802 # 그래가 인지 참바람 나모 머 문 여러 노코.{그래서 이제 찬바람 나면 뭐 문 열어

놓고.}

10802 # 외국 손님도 마~이 끌코 그러십니다.{외국 손님도 많이 끌고 그렇습니다.}

10802 # 이 집 정가기 저: 우에도 정가기 이꼬.{이 집 전각이 저 위에도 전각이 있고.}

10802 # 우에도 골짜글 하나 이 마 웅:갸 나무로 다 송구노코.{위에도 골짜기를 하나 이 뭐 온갖 나무를 다 심어 놓고.}

10802 # 이 부자집 골짜글 하나 차지해가이 이십니다.{이 부자집 골짜기를 하나 차지해 있습니다.}

10802 @ 예:, 골짜기 그거 음식점입니까?{예, 골짜기 그것 음식점입니까?}

10802 # 음식찌미 아이고.{음식점이 아니고.}

10802 # 골짜글 하나 그 지베서 웅:갸 나무로 시므고.{골짜기를 하나 그 집에서 온갖 나무를 심고.}

10802 # 그 머 조키 합니더, 지끔.{그 뭐 좋게 합니다, 지금.}

10802 # 그리 해 사슴니더.{그렇게 해 씁습니다.}

@ 그:도 이 지바~입니까?{거기도 이 집안입니까?}

10802 # 네 네, 이 지비, 이 집 그리해사슴니더.{네 네, 이 집이, 이 집이 그렇게 해 씁니다.}

10802 # 그 무슨 저:게 시로 타고 난능고.{그 무슨 저기 시를 타고 났는지.}

10802 # 그 사라문 아마 씨도 도~이 양까부진답니더.{웃음}{그 사람은 아무리 씨도 돈이 줄지 않는답니더.}

@ {웃음} 허: 참.{허, 참.}

10802 # 군테 그 나도 한 육십 대:갈깁니더.{그런데 그 나이도 한 육십 돼 갈 겁니다.}

10802 # 육십 대:갈깁니더, 둘째 아드리.{육십 돼 갈 겁니다, 둘째 아들이.}

10802 # 시 시째는 육십너인데, 저 저 큰아드른.{세 셋째는 육십넷인데, 저 저 큰아들은.}

10802 # 그래 그러쿰; 그런 지비 이서예.{그래 그렇게 그런 집이 있어요.}

10802 @ 근테 언자 그: 명기가 사알 해가꼬 우리 여: 성박싸 집브로 사알 너머오능갑슴니더.{그런데 인제 그 명기가 살살 해서 우리 여기 성 박사 집으로 삭 넘어 오는 것 같습니다.}

10802 # 저어게 그래 언자 우리가 노인드리 이래 집지을찌게 놀러갑니더.{저기 그래 인제 우리가 노인들이 이렇게 집을 지을 적에 놀러갑니다.}

10802 # 그 대몽또 언자 한동네거치 사잉께네. {그 대목도 인제 한동네(사람)처럼 사니까.}

10802 # 잘 알지예, 큰대목 저근대목.{잘 알지요, 큰대목 작은대목.}

10802 # 그리 이래 가마 막 할머~이들 온다고 방가:하고 작찌도 따드마 주고 이:사씀니더. {그래 이렇게 가면 할머니들 온다고 반가워하고 지팡이도 다듬어 주고 이렇게 해 씁니다.}

10802 # 그라마 언자 그: 이래 도라보고.{그러면 인제 그 이렇게 돌아보고.}

10802 # 세:상에 여거여언데, 다미 샌:데.{세상에 여기가 여긴인데, 담 (하나) 사이인데.}

10802 # 이 지븐 우째 이리키 도~이 만능코 쿠마.{이 집은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은가라고 하면.}

10802 # 동네 할머~이드리 그:캄니더.{동네 할머니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10802 # 와 대동때기는 이집카마 몬하나?{왜 대동택은 이집보다 못하느냐?}

10802 # (웃음) 너문 그: 캄니더.{남은 그렇게 말합니다.}

10802 @ 대동때기 어무~이 태콤니까?{대동택이 어머니 택흡니까?}

10802 # 예, 대동때이가 태 태꿈니더.{대동택이 택흡니다.}

10802 # 대동때기는 머 이 집뽀다 몬하나.{대동택은 뭐 이 집보다 못하느냐?}

10802 @ 마썸니더.{맞습니다.}

10802 @ 마썸니더, 몬함니까, 어데.{맞습니다, 못함니까, 어디.}

10802 # 알고 보모 이 집뽀다 알 몬하다.{알고 보면 이 집보다 안 못하다.}

10802 # 그 대땡센:데 서러 이 명기가 너머다 땡길낀:데.(웃음){그 대 땡 사인테 서로 이 명기가 넘어다 다닐 것인데.}

10802 @ 그렇게 우리 성박사도 나오고 앙그랍니까.{그러니까 우리 성 박사도 나오고 안 그럽니까.}

그어 사아머 인는마느. {그렇게 해 썹으면서 웃는다.}

10802 @ 성박사!{성 박사!}

#2 예!{예!}

10802 @ 인제 명기가 서::설: 너머오는 중이거든.{인제 명기가 설설 넘어노는 중이거든.}

10802 # 너머오는 중이 아니고 머 본대 여: 확: 티이가: 이서습니더.{넘어오는 중이 아니고 뭐 본테 여기에 확 트여 있었습니더.}

10802 # 이 지비 확 티이가: 이선는데.{이 집이 확 트여 있었는데.}

@ 성박사, 잘 데거든 내 너무 갈세하지 마소.{성 박사, 잘 되거든 내 너무 팔세하지 마소.}

10802 # @ (일동 웃음)

10802 # 그래 다 이 지베서 나스~잉께네.{그래 다 이 집에서 났으니까.}

10802 # 머: 명기 바다 날:짜.{뭐 명기 받아 났지.}

10802 # 그래 언자 이 지비 본냐~아 올때: 올때 우리 하이 우리 시어른.{그래 인제 이 집이 본테 윗대 윗대 우리 시어른.}

10802 # 저: 살림지비람니더, 이 지비.{저 살림집이람니다, 이 집이.}

10802 # 이 지베서 그래 우리 하라부지드른 그 이 지베서 다 태:날땡니더.{이 집에서 그래 우리 할아버지들은 그 이 집에서 다 태어났답니더.}

10802 # 이런는데 고마 마 우리 살 살리미 들과~이 나서.{이런데 그만 마 우리 살 살림이 거덜이 나서.}

10802 # 마 고마 집터르 저 지베다 파라뿌고 그래땡니더.{마 그만 집터를 저 집에다 팔아버리고 그랬답니더.}

10802 # 우리 하라부지도 엔나레 참: 학짜 어르~임:니더.{우리 할아버지도 옛날에 참 학자

어른입니다.}

10802 # 그 마을 타고 참 재시레 예, 참 학짱 어르~이 안자서.{그 말을 타고 참 재실에 예, 참 학자 어른이 앉아서.}

10802 # 공부도 가르치고 이래따커는데.{공부도 가르치고 이랬다고 하는데.}

10802 # 그래 저 집한테 마 빼끼능기라.{그래 저 집한테 마 빼앗겼던 것이다.}

10802 # 그래 머 우리집또 안 조습니껴.{그래 뭐 우리 집도 좋잖습니까.}

10802 # 머 이만하마 데지예.{뭐 이만하면 되지요.}

10802 @ *** 지니서런데 그 도를 마~이 가따 나애편.{*** 지네설인데 그 돌을 많이 갖다 놓았다.}

10802 # 예, 지베다가 크:래 도를 마~이 가따 나코.{예, 집에다가 그래 돌을 많이 갖다 놓고.}

10802 # 그래~잉께네 마 웅:가 팔또 석스~이.{그러니까 마 온갖 팔도 석승이.}

#2 그 지베 고인돌까지 가따*.{그 집에 고인돌까지 갖다 [X놓았습니다X].}

10802 # 도리 드러서 머 도 도리 드러서 망한다 캐썸니더.{돌이 들어서 뭐 돌 돌이 들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10802 # 저 드가메예, 지도로 가지고 모슬 돌로가: 싸노코.{저 들어가면요, 지도로 가지고 못을 돌로 싸 놓고.}

10802 # 아네 지도 모시 익꼬 그러심:더.{안에 지도 못이 있고 그렇습니다.}

10802 # 모시 이꼬 그게 고기가 나고.{못이 있고 거기에 고기가 나고.}

10802 # 고디~이가 짜다라 익꼬.{우렁이가 많이 있고.}

10802 # 머: 그: 아네 드가보마 볼만함니더.{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볼 만합니다.}

10802 # 우리 이 여: 담 안싸서는 한 지비라서 이 쪼차댕기습니더.{우리 이 여기에 담 안 쌓아서는 한 집이라서 쫓아다녔습니다.}

10802 @ 그: 나무도 큼:거 만치예?{거기에 나무도 큰 것이 많지요?}

10802 # 예, 나무도 큼:거 만심니더.{예, 나무도 큰 것이 많습니다.}

10802 # 망코, 머 대바테 유명하기 해 노코.{망고, 뭐 대밭에(대밭을) 유명하게 해 놓고.}

10802 @ 얼마나 너릅니까?{얼마나 너릅니까?}

10802 # 예?{예?}

@ 얼마나 너릅니까, 저기.{얼마나 너릅니까,저기.}

10802 # 너르지예.{너르지요.}

10802 #2 구천평.{구천 평.}

10802 # 너릅니더.{너릅니다.}

10802 # 엔나레는 저 아네서 저: 동네 이래 지내댕기고 질로 지내댕기고 이래습니더.{옛날에는 저 안에서 저 동네 이래 지나다니고 길로 지나다니고 이랬습니다.}

10802 # 지끄른 이리 조은 지릴 나사:서 그러코.{지금은 이렇게 좋은 길이 나 쌓아서 그렇고.}

10802 # 그 질도: 머 이 지베서 질도 동네 질도 마~이 내 주고.{그 질도 뭐 이 집에서 질도 동네 질도 많이 내 주고.}

10802 # 참 동네 부자가 이스~응께네 인심도 써사심니더.{참 동네 부자가 있으니까 인심도 써 씁습니다.}

10802 # 그 아버지가 참: 인시미 조아심니더.{그 아버지가 참 인심이 좋았습니다.}

10802 # 아버지 엄마가 참: 인시미 조아심니더.{아버지 어머니가 참 인심이 좋았습니다.}

10802 # 그래 가:꼬 머 저래 시상 베리고도 엄마 아버지 모도 들미사코 그래 사심니더. 우리 일가로 그래 조아하고.{그래 가지고 뭐 저래 세상 떠나고도 어머니 아버지 모두 들먹여 썩고 그렇게 해 씁습니다. 우리 일가를 그렇게 좋아하고.}

10802 # 그래 인시미 조아심니더. 이 어른은 머 평소예 저 드레 가서 이래 조석 간파 나안 데도.{그렇게 인심이 좋았습니다. 이 어른은 뭐 평소예 저 들에 가서 이렇게 조석 갖다 놓았는 데도.}

10802 # 허이 그 만니께따, 저 줌 내 머거보자.{어이 그 맛있겠다, 저것 줌 내 먹어 보자.}

10802 # 이 사랜서, 그 재경씨가 그래 사래미 덕꼬. {이렇게 해 썩으면서, 그 재경씨가 그렇게 사람이 덩고(=후덕하고).}

10802 # 그래 음식또 양가리고 어테등가 가마 만니따쿠고.{그래 음식도 안 가리고 어디든가 가면 맛있다고 하고.}

10802 # 그래 사래미 조아습니더.{그렇게 사람이 좋았습니다.}

10802 # 그 엄마도 그러코.{그 어머니도 그렇고.}

10802 # 그런네 아드리 사형제 아임니꺼, 그 지븐.{그렇게 해 놓으니 아들이 사형제 아닙니까, 그 집은.}

10802 # 그** 영감 할마~이 다 주거솜니더.{그** 영감 할머니 다 죽었습니다.}

10802 # 저:게 경화~이 아페 동사~이 그어른 동산 아임니꺼.{저기 경환(?) 앞에 동상이 그 어른 동상 아닙니까.}

10802 @ 어디에예?{어디에요?}

10802 # 경화~이어, 으베 경화~이.{경환에, 읍에 경환.}

10802 # 그 동상 서솜니더.{그 동상 섰습니다.}

10802 # 그어른 동사~임니더.{그 어른 동상입니다.}

10802 @ 아이고 저 그 말씀 잘 드러솜니다.{아이고 저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802 # (웃음) 이 이런 얘기나 하까 머.{이 이런 얘기나 할까 뭐.}

10802 @ 아 예 예.{아 예 예.}

할 마리 이썸니꺼.{할 말이 있습니까.}

=1 열매나 잎을 먹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

=1 @ 저어 그 일찌옐 두르비라카능거 일찌예?{그거 있지요 두릅이라고 하는 것 있지요?}

=1 # 두릅 인찌예.{두릅 있지요.}

=1 @ 그으는 어떤습미?{그것은 어떻습니까?}

=1 @ 두르브 두르분 나물 해몽능거 아임니꺼.{두릅은 나물 해먹는 것이잖습니까.}

=1 # 아 두르분 나무고 그 야근 아이고?{아 두릅은 나물이고 그것은 약은 아니고?}

두르분.{두릅은.}

=1 # 두르분 저: 어덕에 모드 송구노코.{두릅은 저 언덕에 모두 심어놓고.}

=1 # 집가시 송거노코.{집가에 심어놓고.}

=1 # 이래 도드마 그 요래요래 도드마 그으르 꺼꺼가지고 그으르 그래.{이렇게 돌으면 그
 요렇게 돌으면 그것을 꺾어가지고 그것을 그래.}

=1 # 두릅 두루비 그 또 사랑게 조탐니더, 안 조용기 이십니꺼.{두릅 두릅이 그 또 사람에게
 좋답니다, 좋잖은 것이 있습니까.}

=1 # 그 그래 두루불 비쌌니더, 도시:.{그 그래 두릅은 비쌌니다, 도시에는.}

=1 @ 고고 미테서 올로오능기: 익꼬 또 나무우서 따는 두릅또 안 이십니까?{그것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고 또 나무에서 따는 두릅도 있잖습니까?}

=1 # 나무: 따는 두리비 익꼬 또 땅뚜리비 익꼬.{나무에서 따는 두릅이 있고 또 땅두릅이 있
 고.}

=1 @ ****.

=1 # 땅두르비라커능 그으느 우리느 모름니더.{땅두릅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1 # 땅에서 이래 뿌리~이 이래 올로오능거 뜨더 몽는다쿱떠더, 그으느.{땅에서 이렇게 뿌
 리 이렇게 올라오는 것 뜯어 먹느다고 함디다, 그것은.}

=1 # 땅뚜르분.{땅두릅은.}

=1 # 이근 나무우기:서 크는 그그는 까시가 송송하~이.{이것 나무 위에서 크는 그것은 가시
 가 송송하께.}

=1 # 그래 그그느 까시 송송한 두릅.{그래 그것은 가시가 송송한 두릅.}

=1 @ 그으 두릅하고 쯔 비슬하~이 온나무하교도 달망:게 가중나무 이선찌예?{그 두릅과
 쯔 비슷한게 옷나무와도 닮은 것 가죽나무 있었지요?}

=1 # 가중나무.{가죽나무.}

=1 @ 가중임니꺼 까주깁가 머?{가죽입니까 까죽인가 뭐?}

가죽.{가죽.}

=1 @ 가죽? 예.{가죽? 예.}

예 가죽.{예 가죽.}

=1 # 그 인자 지끄므 가죽뚜 마~이 엄습니더.{그 인제 지금은 가죽도 많이 없습니다.}

=1 @ 가주근 어제 우째해애가꼬 *****?{가죽은 어떻게 *****?}

가 가죽 가죽또.{가죽도.}

=1 # 옹:가끈 다 안 해묵습니꺼.{온갖 것 다 해먹잖습니까.}

=1 # 머: 가죽집치도 다마노마 마식꼬.{가죽김치도 담귀놓으면 맛있고.}

=1 # 나물도 해나마 마식꼬.{나물도 해놓으면 맛있고.}

=1 # 머: 텐장 찌지는데도 여: 묵꼬.{뭘 된장 지지는데도 넣어 먹고.}

=1 # 가죽또 오만 데 다 씹니더.{거가죽도 온갖 데 다 씹니다.}

=1 # 지금 가주기 억:씨: 비삼니더.{지금 가죽이 아주 비쌉니다.}

=1 # 잘 업서서.{잘 없어서.}

=1 # 가죽짐치르 다마서.{가죽김치를 담귀서.}

=1 # 따~아 여어노코 어 그래 머:.{딱 넣어놓고 어 그래 뭘.}

=1 # 하내 이태가도 비나다 아나고{한해 이태 가도 변하지도 않고.}

=1 # 구 가죽짐치가 마시심니더.{그 가죽김치가 맛이 있습니다.}

=1 # 지배 가죽낭그로 한나무속 키아마.{집에 가죽나무를 한 나무씩 키우면.}

=1 # 그기 생강시럽습니더.{그것이 ??스럽습니다.}

=1 # 이룬데 지금 사람은 가죽뚜 안 무구예.{이룬데 지금 사람은 가죽도 안 먹어요.}

=1 @ 가죽나무 키아며 생강시럽다캔습니까?{가죽나무 키우면 생강스럽다고 했습니까?}

=1 @ 생강시러* 우찌?{??스러운 어떻게?}

고기 생강시러빙기 왜 생강시럽나마.{그게 ??스러운 것이 왜 ??스럽냐면.}

=1 요거르 아시 뜨더묵꼬나마 또 돌심니더 예.{요것을 한 번 뜯어먹고나면 또 돌습니다 예.}

=1 # 요거 아시 뜯 아시 고거 참 마신심니더.{요것 처음 뜯 처음 그것 참 맛있습니다.}

=1 # 요거 아시 돌능거 고고로 요래 뜨더가:꼬.{요것 처음 돌는 것 그것을 요렇게 뜯어가지고.}

=1 # 보드라붕겔 또 뜨더묵꼬나마 또 요:서 또 도다가저고{보드라운 것을 뜯어먹고나면 또 요기서 또 돌아가지고.}

=1 # 그래 두불까죽 시불까죽 다 뜨더묵심니더.{그래 두벌 가죽 세벌 가죽 다 뜯어먹습니다.}

=1 # 예, 그 질기느 사람 가주글 참 질김니더.{예, 그 즐기는 사람은 가죽을 참 즐깁니다.}

=1 # 아이구, 이 만타 그제?{아이구, 이 많다 그렇지?}

=1 # 그스 자꾸 생각형게 홍화씨꺼정 웅가끼 다 나오네.{그 자꾸 생각하니까 홍화씨까지 온갖 것이 다 나오네.}

=1 @ 성 성노 저거또 약 안 함니꺼?{석류 저것도 약하잖습니까?}

=1 # 성뉴 성뉴가 조탐니더.{석류 석류가 좋답니다.}

=1 # 성뉴가 요새 그래 조탐니더.{석류가 요새 그렇게 좋답니다.}

=1 # 지침 하느 사람도 조코.{기침 하는 사람에게도 좋고.}

=1 # 예, 지침 하느 사람도 조코.{예, 기침하는 사람에게도 좋고.}

@ 성뉴 그으느 오째 우째 해 묵습니꺼?{석류 그것은 어떻게 해 먹습니까?}

=1 # 성뉴루 우리는 술로 담십떠더.{성류를 우리는 술을 담급디다.}

=1 # 술로 다마노코.{술을 담귀놓고.}

=1 # 그래 한잔속 묵꼬.{그렇게 한 잔씩 먹고.}

=1 # 또 저걸로 여 또개서 말랴:노코.{또 저것을 쪼개서 말려놓고.}

=1 # 지침 해산는 사람도 조코.{기침하는 사람에게도 좋고.}

=1 # 그래 성뉴가 조탐니더.{그렇게 석류가 좋답니다.}

=1 # 우리 이 지베느 저 매실 저거를 따가고.{우리 이 집에는 저 매실 저것을 따가지고.}

=1 # 매실로 수를 부:서.{매실에 술을 부어서.}

=1 # 그래 다마 노습떠더.{그래 담귀 놓습디다.}

=1 # 수를 부:서 그래 다마논게 {술을 부어서 그렇게 담귀놓으니까.}

=1 # 이 저기 돌시 돌시나 데두룩 나뭇따가 {저것이 한해 한해나 되도록 놓아두었다가.}

=1 # 그래 무리 노:라~이 수리 노:라~이 우리나라가지고.{그래 물이 노랗게 술이 노랗게 우러나서.}

=1 @ 매실 ****.{매실 ****.}

그 그기 그래 시:고.{그 그것이 그렇게 시고.}

=1 @ 참 공어 마시 마 억씨 시고.{참 그 뭐 맛이 뭐 아주 시고.}

@ 추미 돛니더.{침이 돛니다.}

=1 # 그랜는데 그기: 야기 그리 조아예.{그랬는데 그것이 약이 그렇게 좋아요.}

=1 # 밤새도록 무우도 안 책코.{밤새도록 먹어도 안 취하고.}

=1 # 안 책꼬.{안 취하고.}

=1 # 그으로 나뭇고 그래 한잔스 무:마 그래 모메 조탐니더.{그것을 놔두고 그렇게 한잔씩 먹으면 그렇게 몸에 좋답니다.}

=1 # 공게 저 형제가네 모이노마 밤새:두룩 그 술로 그리 무우도.{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 모여놓으면 밤새도록 그 술을 그렇게 먹어도.}

=1 # 안: 심니꺼, 이래도 쨌쨌 그슬치:도 그기 무운 무우마노마 그래 조탐니더.{시잖습니까 이래도 쨌쨌 ??? 지어도 그게 먹어만 놓으면 그렇게 좋답니다.}

=1 # 저: 저저 액끼스로 담능거느 매실 저거르 설탕 일키로 그 매실 일키로 그리 담십니더.
{저 어 저저 진액을 담그는 것은 매실 저것을 설탕 일킬로 그 매실 일킬로 그렇게 담 습니다.}

=1 # 그래 내가 어 딸로: 모도 메뉴리로 올개느 말:키 갈:치주온따.{그래 내가 어 딸에게 모 두 며느리에게 올해는 전부 가르쳐줬다.}

=1 # 말:키 너거 저어게 매실르 사가지고 액끼스르 다마라.{전부 너희 저기 매실을 사서 진 액을 담귀라.}

=1 # 그 집찌비 다마라.{그 집집이 담귀라.}

=1 # 저어 비영기를 타고 가다가도 저: 매실 액끼스 그그르 사가:꼬 이래 머그며 가마 멀미 안함니더.{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저 매실 진액 그것을 사서 먹으면서 가면 멀미 하잖습니다.}

=1 # 암만 멀리 가도 매실 액끼스 그: 징기고 마시며 가마 멀미 안함니더.{아무리 멀리 가도 매실 진액 그것 지니고 마시면서 가면 멀미 하잖습니다.}

=1 # 구르코 쪽 아픈 사람도 조코.{그렇고 속 아픈 사람도 좋고.}

=1 # 저거 매시리 참 야기 조심니다.{저것 매실이 참 약이 좋습니다.}

=1 # 머 지베 교수님도 다마살끔:니다.{뭘 집에 교수님도 담글겁니다.}

=1 @ 매시리 챔버터 요 이션습니꺼, 아이머는 머:{매실이 처음부터 여기 있었습니까, 아니 먼은.}

=1 # 지금 매실 매실.{지금 매실 매실.}

@ *** 볼래 볼래부터 * 매시리 이션습니꺼, 동네에?{*** 본래 본래부터 * 매실이 있었습니까, 동네에.}

=1 # 어: 이션는데 운:는 이 나무로 쿵거로 사다 송구던데.{어 있었는데 우리는 이 나무를 큰 것을 사서 심던데.}

=1 # 저: 매시리 지끄프 혈함니다.{저 매실이 지금은 값이 싸니다.}

=1 # 혈심니다, 마 안 비사고.{값이 싸니다, 마 안 비싸고.}

=1 # 매실 당가가꼬 여르메 머: 음노수 사물:꺼 억꼬.{매실 담귀가지고 여름에 뭘 음료수 사 먹을 것 없고.}

=1 # 예에, 매실 일킬로.{예, 매실 일킬로.}

=1 # 주이 저이 설탕 일킬로 다마노마.{저 설탕 일킬로 담귀놓으면.}

=1 # 그래 마차서 한단지 다마나마예.{그렇게 맞춰서 한단지 담귀놓으면요.}

=1 # 그으를 좀 한 도오달 데마.{그것을 좀 한 두어달 되면.}

=1 # 이래 미테 여너마 설타~이 까라안습니다.{이렇게 밑에 넣어놓으면 설탕이 가라앉습니다.}

=1 # 이래:이래 저서노코 민뻔 저서날:따가.{이렇게이렇게 저어놓고 몇 번 저어놓았다가.}

=1 # 이 여르메 어 학생들또 나갠따 오농거 그그 냉장고다 물로 물로 팔팔 끼리서 시카노코.{이 여름에 학생들도 나갔다 오는 것 그것을 냉장고에다 물을 물을 팔팔 끓여서 식혀놓고.}

=1 # 그래 인자 그그 물로 버어가 무:애데지, 그난 독캐서 몬 묵심니다.{그래 인제 그것 물을 부어서 먹어야 되지, 그냥은 독해서 못 먹습니다.}

=1 # 그래 여어노코 아무라도 음노수로 그래 한잔씩 자시마 그기 그래 사람모메 조심니다. {그래 넣어놓고 아무라도 음료수로 그렇게 한잔씩 자시면 그것이 그렇게 사람 몸에 좋습니다.}

=1 # 매실로 송구이소.{매실을 심으십시오.}

=1 # 매실.{매실.}

@ 지베 자~웅기 하나 이깁 인는데 잘 안 여러예 지베꺼는.{집에 작은 것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잘 안 열어요 집에 것은.}

=1 # 지베서어?{집에서?}

=1 # 아 그주 매실.{그 매실.}

@ *****.

=1 # 매시리 잘 크는데.{매실이 잘 크는데.}

=1 # 우리 주 딸레 찌비도 저: 한나무 인능기 지바네 잘 안 커드라.{우리 저 딸네 집에도 저 한 그루 있는 것이 집 안에 잘 안 커더라.}

=1 # 그 차위는 잘 안 데능갑따.{그 창원은 잘 안 되나보다.}

=1 @ 가쁜 차위~이라도 잘 데는 데는 잘 텐:데 제 지배는 잘 안 데:예.{같은 창원이라도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제 집에는 잘 안 돼요.}

=1 @ 제가 아마 깨올러서 잘 몬 잘 몬 키우는 모양입니다.{제가 아마 깨올러서 잘 못 잘 못 키우는 모양입니다.}

그 매시리.{그 매실이.}

=1 # 매시리 사랑게 조습니더.{매실이 사람에게 좋습니다.}

=1 # 그래 그근또 머: 그렁건또 머 지배서 다마가 몽느기: 암마 푸지지.{그래 그것도 뭐 그 런 것도 뭐 집에서 담귀서 먹는 것이 아무래도 푸지지.}

=1 # 그래 나는 올개 말키 미느리고 따리고 침:부 매실 담능거로 갈차조오가지고.{그래 나는 올해 모두 머느리고 딸이고 전부 매실 담그는 것을 가르쳐줘 가지고.}

=1 # 그리 언자 매실 언자 따라:가지고 무우라.{그래 인제 매실 인제 따뤄가지고 먹어라.}

=1 # 그 술 버어낭거는 내년 이때꺼정 가마~이 나뒸고.{그 술 부어놓은 것은 내년 이때가 지 가만히 놔두고.}

=1 # 구래가:꼬 따라 묵꼴랑.{그렇게해서 따뤄 먹고는.}

=1 # 그: 설탕 여은 매실 고고느 고따다가 또 술로 분습니더.{그 설탕 넣은 매실 그것은 거기다가 또 술을 붓습니다.}

=1 # 다 따라묵꼬나마.{다 따뤄먹고 나면.}

=1 # 술로 버어가꼬 그래 또 저서노오마.{술을 부어서 그렇게 저어놓으면.}

=1 # 조곤:딱 나뒸:따가{??? 놔뒸다가.}

=1 # 그러 가을쫌치 이래 따라마마 그 수리 그래 마시썸니더.{그렇게해서 가을쫌에 이렇게 따뤄먹으면 그 술이 그렇게 맛이 있습니다.}

=1 # 암만 몬 몽는 사암도 묵십니더.{아무리 못 먹는 사람도 먹습니다.}

=1 @ 그 참 ** 심니까, 그지에 매시리예.{그 참 ** 심니까, 그렇지요 매실이요.}

=1 # 그 그래 설탕 여응거는 안 십니더.{그렇게 설탕 넣은 것은 시지 않습니다.}

=1 @ 그렁께 ** 설탕 안 영* **.{그러니까 ** 설탕 ****.}

=1 @ 시다카머 또.{시다고 하면 또.}

설탕 술 술 여은 그거느 참 시고예.{설탕 술 술 넣은 그것은 참 시고요.}

=1 # 요러 요러가:꼬 언자 매실로 처으메느 모드 내비리도 내 안 내비릴꺼 업습떠더.{요래 요래가지고 인제 매실을 처음에는 모두 내버리지도 내 안 내버릴 것이 없습디다.}

=1 # 그그로 가: 폭:: 쌀마가저고 또.{그것을 가지고 폭 삶아가지고 또.}

=1 # 저어 그그르 꼬치장을 담대.{저 그것으로 고추장을 담그대.}

=1 # 꼬치장을 다마 아마 나뒸도 안 시답니더.{고추장을 담귀서 아무리 놔뒸도 안 시답니

다.}

=1 # 안 비난합니다.{안 변한답니다.}

=1 # 고래 또 꼬치장을 당 여:느 또 그래느 사람도 익꼬 그러터라.{그렇게 또 고추장을 잠
여기는 도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

=1 # 그래 매실 저기: 오만데 다 조아예.{그래 매실 저것이 온갖 데 다 좋아요.}

=1 @ 어머~이 저기: 매실뱅크 생깁거도 매실 비슷하고.{어머니 저기 매실처럼 생긴 것도
매실과 비슷하고.}

=1 @ 썩건또 매실 비슷:한 또 그렇.{신 것도 매실 비슷한 또 그런.}

그렇기 이심니더.{그런 것이 있습니다.}

=1 @ 그 멈니까 그.{그 뭘니까 그.}

그 그그느.{그 그것은.}

=1 @ 고 그 그 엔나레 마~이 이쨌는데 그게 멈니까 그.{그 그 그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그게 뭘니까 그.}

=1 # 매시리 제:일 안 심니.{매실을 제일 시잖습니까까.}

@ 살구가능거.{살구라고 하는 것.}

=1 # 예, 살구.{예, 살구.}

=1 @ 그기이 매실** 좀 달맛찌예?{그것이 매실과 좀 닮았지요?}

예.{예.}

=1 # 달만는데 그그는 야기 그러케 안 조슴니더.{달았는데 그것은 약이 그렇게 안 좋습니
다.}

=1 # 예에 마슨 이서도.{예, 맛은 있어도.}

=1 # 그그느 야기 그러케 안 조심니더, 매시리 조심니더.{그것은 약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매실이 좋습니다.}

=1 옹기그릇에 대한 이야기

=1 # 쿵을 단말도 장을 당고.{쿵을 닷말도 장을 담고.}

=1 # 단말 장을 달 다브마.{닷말 장을 담 담으면.}

=1 # 무른 덴말로 분나 하마.{물은 몇 말을 붓느냐 하면.}

=1 # 쿵 한마예 물 두말씩 부:마.{쿵 한 말에 물 두 말씩 부으면.}

=1 # 쿵 단마리 무리 열말 아임니까.{쿵 닷말이 물이 열 말 아십니까.}

=1 @ 예.{예.}

예, 그래가 장을 다마서.{예, 그렇게 장을 담아서.}

=1 # 그 장을 다먹꼬.{그 장을 다 먹고.}

=1 # 모다 일꾼 대:고.{모두 일꾼 대고.}

=1 # 일꾼도 마~이 디리고.{일꾼도 많이 들고.}

=1 # 그래 애:들 모두 저거 키울찌게 그래 마.{그래 애들 모두 자기들 키울 적에 그래 마.}

=1 # 마~이 드리습니더, 그:도.{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도.}

=1 # 큰 도가지는 그래도 당고.{큰 도가지는 그렇게도 담고.}

=1 # 서말도 당, 콩 서말도 당고.{세 말도 담, 콩 세 말도 담고.}

=1 # 또 두말 담::데도 이꼬.{또 두 말 담는 데도 있고.}

=1 # 그래:매 지끄른 언자 말가곤 담는데 고걸 고오다 다마 묵쌌:니더.{???? 지금은 인제 말
가웃 담는데 그것 거기에다 담아 먹습니다.}

=1 # 언자 고게 당고.{인제 거기에 담고.}

=1 # 도가지도 말키 거친다꼬.{도가지도 모두 걸린다고.}

=1 # 머 지: 파라뿌고.{뭐 마구(?) 팔아 버리고.}

=1 # 다부새:뿌고 다똥때도 업꼬 그러습니더.{다 없애 버리고 놓아 둘 데도 없고 그렇습니
다.}

=1 @ 도갈때.{???}

=1 @ 도가지 그래 도가지 도가지는 배가 부릅니까?{도가지 그래 도가지 도가지는 배가 부
릅니까?}

예.{예.}

=1 # 도가지는 미치 평평하고.{도가지는 밑이 평평하고.}

=1 # 이리 중가~이 부르고 우에는 솔고, 예.{이렇게 중간이 부르고 위에는 좁고.}

=1 # 그렇기: 인자 도가지고.{그런 것이 인제 도가지고.}

=1 # 큰:: 떠꾸이 인자 이만:치 너른 떠꾸으로 우: 덕꼬.{큰 뚜껑이 인제 이만큼 넓은 뚜껑으
로 위 덮고.}

=1 # 그래 그래 생기쌌니더, 도가지는.{그래 그래 생겼습니다, 도가지는.}

=1 @ 도가지 키는 얼마나 땀니까?{도가지 키는 얼마나 됩니까?}

=1 # 키는 언자 머 머 물로 여남:말씩 더 분는 그렇거로 키가 머 장고리 키만하지예.{키는
인제 뭐 뭐 물을 여남은 말씩 더 붓는 그런 것으로 키가 뭐 장골 키만하지요.}

=1 # 키가 큼니더.{키가 큼니다.}

=1 # 키가 쿠고.{키가 크고.}

=1 # 또 굳뽀다 자근거는 또 물 연말도 부꼬.{또 그것보다 작은 것은 또 물 엇말도 붓고.}

=1 # 그래 또 머 너말도 부꼬 그래 모다 장을 당고.{그래 도 뭐 네 말도 붓고 모두 장을 담
고.}

=1 @ 연말도 부꼬 너말도 분는거또 도가지라 캐습니꺼? {엇말도 붓고 네 말도 붓는 것도
도가지라고 했습니까?}

예.{예.}

=1 @ 큰:: 도가지 **** 자근 도가지 **.{큰 도가지 **** 작은 도가지 *.}

예. 지끔:예.{지금요.}

=1 # 이 지베 양가보시서 그러치.{이 집에 안 가보셔서 그렇지.}

=1 # 그어 가보시마 머 웅::가께 다 이썸니다.{거기에 가 보시면 뭐 온갖 것 다 있습니다.}

=1 # 웅:각 도가지도 머 머 웅:갸 도가지 다 이썸니다. 예나레 사당거.{온갖 도가지도 뭐 뭐 온갖 도가지 다 있습니다. 옛날에 살던 것.}

=1 # 만석꾼 살리미 마 자부소로::기 머 채리노코 이썸니다.{만석꾼 살림이 마 마 ????? 뭐 차려놓고 있습니다.}

=1 # 구경하라꼬.{구경하라고.}

=1 @ 그개 도가지 다 그: 보시고 어머~이 그 이거는 이르미 머:고 이거는 머:고 머고 다 기억하시게썸니까, 도가지 보시모.{거기 있는 도가지 다 그 보시고 어머니 그 이것은 이름이 뭐고 이것은 뭐고 뭐고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도가지 보시면.}

=1 # 어 그: 언자 큰도가지 자근도가지 모도 그러치예.{어 그 인제 큰 도가지 작은 도가지 모두 그렇지요.}

=1 # 두가지가 자근도가지고 큰도가지고 그러코.{두 가지가 작은 도가지고 큰 도가지고 그렇고.}

=1 # 언자 무를 저다가 물 버어가:꼬 이래 담 녀 다마 몽는 그거는 늘비기고.{인제 물을 저다가 물 부어 가지고 이렇게 담 녀 담아 먹는 그것은 늘비기고.}

=1 @ 아, 예.{아, 예.}

늘 늘비기.{늘 늘비기.}

=1 @ 물담능거는 늘비기예.{물 담는 것은 늘비기요.}

예.{예.}

=1 # 예, 예나레는 무를 저다무꼬 여다무꼬 이래썸니다.{예, 옛날에는 물을 저다 먹고 여다 먹고 이랬습니다.}

=1 # 그런 마리, 그거는 늘비기는 이만치 너르고.{그래 말이야, 그것은 늘비기는 이만치 너르고.}

=1 # 너러기 생기고 우에다가 떠꾸은 예나레는 이자로 가지고 떠꾸을 맨드러 가지고.{너르게 생기고 위에다가 뚜껑은 옛날에는 판자를 가지고 뚜껑을 만들어 가지고.}

=1 # 그래 언자.{그래 인제.}

@ 머로 가지고예?{뭇을 가지고요?}

=1 # 이다, 이런 이다로 가지고.{판자, 이런 판자를 가지고.}

@ 아, 이다로 가지고:, 예.{판자를 가지고, 예.}

=1 # 그래 떠꾸을 인자 더꾸노코.{그렇게 뚜껑을 인제 덮어 놓고.}

=1 @ 그거는 언자 그:.{그것은 인제 그.}

=1 @ 옹구로 텐 떡 떡 뚜껑은 뚜껑은 **** 나무로 가:.{옹기로 된 뚜 뚜 뚜껑은 뚜껑은 **** 나무를 가지고.}

예, 떠꾸은 떠꾸은 나무로 가: 덕꼬.{예, 뚜껑은 뚜껑은 나무로 갖고 덮고.}

=1 @ 그 노피도 얼마 안테젠네, 그:는.{그 높이도 얼마 안 되겠네, 그것은.}

=1 # 노푸기도 노푸지예, 그: 부자찌베는.{높기도 높지요, 그 부잣집에는.}

=1 @ 노푸고도 너름니까? {높고도 너름니까?}

예.{예.}

=1 # 노푸고도 너르고 또 자궁거또 이꼬.{높고도 너르고 또 작은 것도 있고.}

=1 # 이 부자찌베 가모 웅:가꺼 다 이심니더.{이 부잣집에 가면 온갖 것 다 있습니다.}

=1 @ 음:, 예:.{음, 예.}

그렇거 다 이심니더.{그런 것 다 있습니다.}

=1 @ 예:, 늘비기도 이꼬.{예, 늘비기도 있고.}

=1 # 엔나레 이래 물 자사서 무군 품포도 이꼬 머.{옛날에 이렇게 물 자아서 먹은 펴프도 있고 뭐.}

=1 # 다 이심니더.{다 있습니다.}

=1 @ 그라모 지금 어무~이 그지예, 도가지 말씀해 주시꼬.{그러면 지금 어머니 그쵸, 도가지 말씀해 주셨고.}

=1 @ 늘비기 말씀해 주셔꼬.{늘비기 말씀해 주셨고.}

=1 @ 그라모 무를 이고 오가지고 분는거.{그러면 물을 이고 와 가지고 붓는 것.}

그거 예.{그것 예.}

=1 # 그거는 부리 버지기.{그것은 버리 버지기.}

=1 @ 버지기로 물: 이고 읊니까? {버지기로 물을 이고 읊니까?}

예.{예.}

=1 # 버지기.{버지기.}

@ 아, 예.{아, 예.}

=1 @ 예:, 말씀하시소:.{예, 말씀하십시오.}

=1 # 또 찢쫂항거는 도~오라 커기도 해습니더.{또 길쭉한 것은 동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1 @ 아, 그 버지기는 그람 우째 생기습니까?{아, 버지기는 그러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1 # 예, 버지기는 평퍼하~이 이래.{예, 버지기는 평평하니 이렇게.}

=1 # 이 이래 꼭따리 달리고 이래 인능기 버지기고.{이 이래 꼭지 달리고 이렇게 있는 것이 버지기고.}

=1 # 도~오는 이리 지: 찢빠타~이 찢쫂하~이 생깁기 토~오고 그러습니더.{동이는 이렇게 길 뽕죽하게 길쭉하게 생긴 것이 동이고 그렇습니다.}

=1 @ 예::.{예.}

구래 언자이.{그래 인제.}

=1 @ * 도~오나 버지기를 가지고 무를 이가지고 늘비기에 부습니까?{동이나 버지기를 가지고 물을 여 가지고 늘비기에 붓습니까?}

예.{예.}

=1 # 엔나레는 그래 여다 무우습니더.{옛날에는 그렇게 여다 먹었습니다.}

=1 # 구울코, 부자찌베에는 언자 잉 아래꼰 아래싸람드리 모더 여다부코.{그렇고, 부잣집에는 인제 아랫것 아래사람들이 모두 여다 붓고.}

=1 # 이 이 이 중간네 여게 전:치 이전 저집 종드리 사라습니다.{이 이 이 중간에 여기에 전
부 이전 저 집 종들이 살았습니다.}

=1 @ 음, 예:음, 예.}

지금 그런 사아미 양반질할라꼬 다 나가심:더.{지금 그런 사람(들)이 양반질하려고 다 나
갔습니다.}

=1 # 곧: 그러때는 그 사람들로 이 도 동네 일가드를 대우로 안해조어서예.{그 그럴 때는 그
사람들로 이 동 동네 일가들로 대우를 안해 주었어요.}

=1 # 저 점:부 니가 머 이래 홀대하고.{저 전부 네가 뭐 이렇게 홀대하고.}

=1 # 이래잉께네 말:키 양반질할라꼬 다 나가고 엄습니더, 지금.{이러하니까 모두 양반질하
려고 다 나가고 없습니더, 지금.}

=1 # 하나때 엄습니더.{하나도 없습니더.}

=1 # 이 양반 들판 나잉께 다 나가뿌예.{이 양반 몰락(?)하니까 다 나가 버려요.}

=1 @ 그라모 그: 늘비기 버지기 도~오: 그래 아까.{그러면 그 늘비기 버지기 동이 그렇게
아까.}

=1 # 그: 언자, 또: 다, 예.{그 인제, 동(이) 다, 예.}

@ 도 도 도 도가지:.{도 도 도 도가지.}

=1 # 단지도.{단지도.}

=1 @ 단지는 우뚜습니꺼?{단지는 어떻게 습니꺼?}

=1 # 단지도 언자 어오 큰단지 이꼬 자근단지 이꼬.{단지도 인제 어 큰 단지 있고 작은 단
지 있고.}

=1 # 요오, 고거또 저 웅기단지 고렁기 여러 치~임니더.{요, 그것도 저 웅기 단지 그런 것
이 여러 층입니다.}

=1 @ 예, 단지는 우째 생기습니꺼?{예, 단지는 어떻게 생겼습니꺼?}

=1 # 단지는 언자.{단지는 인제.}

=1 @ 우제가 솔쪽합니 널쩍합니?{위가 좁습니[X까X] 넓적합니[X까X]?}

=1 # 예, 우제가 솔쪽하고 미튼 좀 부르고.{예, 위가 좁고 밑은 좀 부르고.}

=1 # 고래 이:.{그래 이.}

=1 # 우에 떠꾸이 딱 더피고.{위에 뚜껑이 딱 덮이고.}

=1 # 고렁기 단지고.{그런 것이 단지고.}

=1 @ 단지는 키가 얼마만합니꺼?{단지는 키가 얼마만합니꺼?}

=1 # 예, 머 쿵:거또 이꼬 또 그거또 또 중강거또 이꼬 또 쪼끄매는 머.{예, 뭐 큰 것도 있고
또 그것도 중간 것도 있고 또 조그마한 뭐.}

=1 # 갱:판지라커능거는 쪼끄망:코.{갱단지라고 하는 것은 조그망고.}

=1 @ 그라모 단지가 크몬예.{그러면 단지가 크면요.}

=1 # 예, 단지도 여:러질 아임니꺼.{예, 단지도 여러 종류 아닙니까.}

=1 @ 여러지린데 단지 중에서 제일 큰 단지가 도가지 중에서 제일 자근 도가지하고 **하

머느.{여러 종류인데 단지 중에서 제일 큰 단지가 도가지 중에서 제일 작은 도가지하고 [X비교X]하면은.}

=1 @ 어떻게 더 큼니까?(어떤 것이 더 큼니까?)

그리 비스름합니다.{그렇게 비슷합니다.}

=1 @ 그러면 도가지는 제:일 자근 도가지고.{그러면 도가지는 제일 작은 도가지고.}

=1 # 예.{예.}

@ 단지는 제일 큰단지는 거이 비스름하다 말입니까?(단지는 제일 큰 단지하고 거의 비슷하다 말입니까?)

=1 @ 그라모 도가지하고 단지는 단지에도 도가지는 요: 꼭다리가 이습니까 업습니까, 손재비가.{그러면 도가지하고 단지는 단지에도 여기 꼭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잡이가.}

=1 # 도가지는 꼭다리가 어꼬.{도가지는 꼭지가 없고.}

=1 @ 그라모 단지에는예?(그러면 단지에는요?)

예, 단지에는 꼭다리 이습니다.{예, 단지에는 꼭지 있습니다.}

@ 이찌예?(있지요?)

=1 @ 그라모, 예.{그러면, 예.}

또 추무리라꼬 이습니다.{또 추마리라고 있습니다.}

=1 @ 예 또 말씀해 주이소. 자우지 온: 생각나시는대로 얘기{X해 주이소X}.{예 또 말씀해 주십시오. 좌우지간 오늘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X해 주십시오X}.}

예.{예.}

=1 # 예, 추무리는 둥구름:하~이 이래 둥구름:한데다가.{예, 추마리는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둥그스름한데다가.}

=1 # 미튼 평평하고 우에는 솔고.{밑은 평평하고 위에는 좁고.}

=1 # 고거또 또 떠꾸이 더피:고.{그것도 또 뚜껑이 덮이고.}

=1 # 추무리라꼬.{추마리라고.}

=1 @ 추무리는 머하능김니까?(추마리는 뭐하는 것입니까?)

=1 # 구곤또 머 웅:가꺼 당고 살리메 머 그거또 머 씨능거 아임니까.{그것도 뭐 온갖 것 담고 살림에 뭐 쓰는 것 아닙니까.}

=1 @ 추무리는 어데 여 여:나코 보관하능김니>{추마리는 어디 넣 넣어 놓고 보관하는 것입니[X까X]?}

=1 @ 아이모 이동 그 웅기는데 쓰능김**?(아니면 이동 그 옮기는 데 쓰는 것입[X니까X]?)

그 머 저절.{그 뭐 저저.}

=1 # 장 장또까~이라꼬 장또까~이라꼬 이래.{장 장독간이라고 장독간이라고 이렇게.}

=1 # 머 난는데 그게 웅:가꺼 그런 단지르 모다 이래 기물로 나아나습니다.{뭐 놓는데 거기 에 온갖 것 그런 그런 단지를 모두 이렇게 기물로 놓아 놓습니다.}

=1 @ 그러니까: 추무리는 그아네 머 머 다마가꼬 일단 간장을 당가.{그러니까 추마리는 그 안에 뭐 뭐 담아 갖고 일단 간장을 담귀.}

예 예.{예 예.}

=1 # 간장도 당:고 머 웅:가꺼 그래 머 다마무꼬.{간장도 담고 뭐 온갖 것 그래 뭐 담아 먹고.}

=1 @ 다마가꼬 그래 고 아네 집아네 언자 그 보관해 논는김니꺼?{답아 갖고 그래 그 안에 집안에 인제 그 보관해 놓는 것입니까?}

예.{예.}

=1 @ 아니메는 어데 질머지고 탕기는?{아니면은 어디 쭤어지고 다니는 [X것입니까X]?}

=1 # 안 질머집니다.{안 쭤어집니다.}

=1 # 안 질머지고 그: 보관해나코.{안 쭤어지고 거기에 보관해 놓고.}

=1 # 엔나레는예 모도 농부드리 저 추무리 그그리 가지고.{옛날에는요 모두 농부들이 저 추마리 그것을 가지고.}

=1 # 구디기물도 퍼서 저 전다베 가따주고.{똥물도 퍼서 전 전답에 갖다 주고.}

=1 # 지게지고.{지게에 지고.}

=1 # 지고.{지고.}

@ 지고 그럼 그거는 찌고와 웅기야 텔꺼 아임니꺼?{지고 그럼 그것은 지고 와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1 @ *지고. {*지고.}

예.{예.}

=1 # 지고 가서 그래 가따가 그래 거리가: 모도 곡시글 하고 그래십니다.{지고 가서 그래 갖다가 그래 기름지게 해서 모두 곡식을 (생산)하고 그랬습니다.}

=1 # 비료도 업꼬 이래노~이.{비료도 없고 이러니까.}

=1 @ 그기: 똥추무리니꺼?{그것이 똥추마리입니까?}

=1 # 예, 그기: 똥추무리 아{예, 그것이 똥추마리 아[X임니꺼X].}

=1 @ 그라모 간장추무리가 이어썌니꺼?{그러면 간장추마리가 있었습니까?}

=1 # 예, 간장추무리 이꼬.{예, 간장추마리 있고.}

=1 @ 술추무리는예?{술추마리는요?}

=1 # 술추무리도 이꼬.{술추마리도 있고.}

=1 # 머 술 다르마 술추무리고.{뭐 술 담으면 술추마리고.}

=1 # 간장 다르마 간장추무리고 앙그리습니꺼.{간장 담으면 간장추마리고 안 그렇습니까.}

=1 @ 구디기 그: 퍼모 똥추무리고.{구덩이 그것 퍼면 똥추마리고.}

=1 @ 예:, 그기 추무리고 그지예?{예, 그것이 추마리고 그쵸?}

=1 @ 그라모 또 또 머가 이서습니꺼?{그러면 또 또 뭐가 있었습니까?}

=1 @ 그 사구는 머니까?{그 사구는 뭘니까?}

=1 # 사구는.{사구는.}

@ 예.{예.}

=1 # 사 사구는 작십니다.{사 사구는 작습니다.}

=1 # 버지기 다아메 사구 저:게 사구라 컴니더.{버지기 다음에 사구 저기에 사구라고 합니다.}

=1 # 버지기 다아메 꼭따리사구라컴니더, 그거느.{버지기 다음에 꼭따리사구라고 합니다, 그것은.}

=1 @ 꼭따리사구는 꼭따리 이서 그러습니까? {꼭따리사구는 꼭지(꼭따리) 있어 그러습니까?}

예.{예.}

=1 # 꼭따리가 이심니더.{꼭지가 있습니다.}

=1 @ 그 꼭따리 사구는 우게가 너리고.{그 꼭지 사구는 위애가 너르고.}

=1 # 버지기 몬냥으로 생긴는데 작찌예.{버지기 모양으로 생겼는데 작지요.}

=1 @ 음:, 예:.{음, 예.}

=1 @ 그러면 아까 버지기는: 물 이고 온:데 씨꼬.{그러면 아까 버지기는 물 이고 오는데 썼고.}

예.{예.}

=1 @ 그라모 사구는 어데: 씹니까?(그러면 사구는 어디에 씹니까?)

=1 # 사구는 엔나레 보살로 씹거심니더.{사구로는 옛날에 보리쌀을 썼었습니다.}

=1 @ 아::, 예:.{아, 예.}

=1 # 보살로가 퍼픽 이래 사구 대고 씨꺼심니더.{보리쌀을 펍픽 사구 대고 썼었습니다.}

@ 요래가: 썩능거.{이렇게 해서 썩는 것.}

=1 # 버지기는 더 크고.{버지기는 더 크고.}

=1 @ 그럼, 지금꺼지예 말씀하싱거 제가 한 참참 *** 빠징거 먼지 **.{그럼, 지금까지는요 말씀하신 것 제가 한 참참 *** 빠진 것 먼지 **.}

=1 @ 도가지 이꼬예.{도가지 있고요.}

예.{예.}

=1 @ 늘비기 이꼬.{늘비기 있고.}

=1 @ 버지기 이꼬.{버지기 있고.}

=1 # 단 단지 이꼬.{단 단지 있고.}

=1 @ 단지 이꼬.{단지 있고.}

=1 @ 추무리 이꼬.{추마리 있고.}

=1 @ 사구 이꼬, 또 또 어평기 이슴.{사구 있고, 또 또 어떤 것이 있습[X니까X]?}

=1 # 툇파리 이꼬.{툇배기 있고.}

@ 예?{예?}

=1 # 툇파리라꼬 또 요고맨:항거또.{툇배기라고 또 요것만한 것도.}

@ 툇빠리, 예.{툇배기, 예.}

=1 @ 예.{예.}

엔나레 장도 찌지 묵꼬.{옛날에 장도 지저 먹고.}

=1 # 요런 툇빠리다가.{이런 툇배기에다가.}

=1 # 예, 고령기 이십니더.{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1 @ 예, 요는 장찌지 뭉능거예.{예, 이것은 장지저 먹는 것요.}

=1 # 또른 요 요 요거만:한 또 웅기단지 그렇거또 또 쪼끄마난 갱판지라꼬 또 그렇거또 이
꼬.{또는 이 이 이 이것만한 또 웅기단지 그런 것도 또 조그마한 갱단지라고 또 그런
것도 있고.}

=1 @ 머슨 단지예?{무슨 단지요?}

=1 # 갱판지라캅니다, 고령거는.{갱단지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1 @ 갱판찌는 어테 씬니꺼?{갱단지는 어디에 씬니까?}

=1 # 그렇거는 또 요레 작끼 씬는데.{그런 것은 또 이렇게 작게 씬는데.}

=1 # 꼬치장도 당고.{고추장도 담고.}

=1 # 머: 그레 쪼끄마:석 씬는데 고런테 씬능기고.{뭘 그레 조그마하게 씬는 데 그런 데 씬
는 것이고.}

=1 # 음, 살림사리 머 한저~이 이십니꺼.{음, 살림살이 뭘 한정이 있습니까.}

=1 @ 또 갱판찌 이꼬 또 어떻게 이서습니까?{또 갱단지 있고 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1 # 그 머 단지 종 종류는 머 그 그렇김니더.{그 뭘 단지 종 종류는 뭘 그그런 것입니다.}

=1 @ 머 수티~이라든지 중두리라든지 이렇거는 업서습니꺼?{뭘 수팅이라든지 중두리라든
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예?}

=1 @ 수티~이 중두리 산는거는.{수팅이 중두리라고 하는 것은.}

=1 # 수티~이 중두리.{수팅이 중두리.}

=1 # 수티~이러 머:러 수티~이라카머 하지마는.{수팅이를 뭘 수팅이라고 하는가 하면.}

=1 # 그: 수티~이라커능거는 저:게 머 물도 저버코.{그 수팅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뭘 물도
저 붓고.}

=1 # 물도 여다부코 저바다 저다부코.{물도 여다 붓고 저다 붓고.}

=1 # 그레 마 늘비기도 씬고.{그렇게 마 늘비기도 씬고.}

=1 # 수티~이도 씬고 그레십니더.{수팅이도 스고 그랬습니더.}

=1 @ 수티~이도 그라모 아까. {수팅이도 그러면 아까.}

예, 내나 그거또 단짐니더.{예, 아는 바와 같이 그것도 단지입니다.}

=1 @ 수티~이도 단지 종류니까?{수팅이도 단지 종류입니까?}

예.{예.}

=1 @ 단지 종류모 그라모 수티~이는 그 저 손자비가 이습니까?{단지 종류면 그러면 수팅
이는 그 저 손잡이가 있습니까?}

=1 @ 수티~이.{수팅이.}

수티~이가 손자비 인는거또 이꼬 엄는거또 이꼬 그레십니더, 도가지맨치로.{수팅이가 손
잡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더, 도가지처럼.}

=1 @ 도가지는 잔 단 그 손.{도가지는 잔 단 그 손.}

=1 # 도가지 수티~이 저 그거 수티~이는 꼭파리 엄습니다.{도가지 수팅이 저 그거 수팅이
는 꼭지 없습니다.}

=1 @ 수티~이도 엄찌예?{수팅이도 없지요?}

예.{예.}

@ 예.{예.}

=1 @ 그라모 어무~이 그지예, 음: 도가지하고 수티~이하고가 그라모 우째 우째 우째 다름
니까?{그러면 어머니 그쵸, 음 도가지하고 수팅이하고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다릅니
까?}

=1 # 그 수티 수티~이라커능거는 단지 모양으로 생기꼬.{그 수팅 수팅이라거 하는 것은 단
지 모양으로 생겼고.}

=1 # 늘비기는 버지기 모양으로 생긴닝기 크고.{늘비기는 버지기 모양으로 생긴 것이 크고.}

=1 # 언자 엔나레 떡시리가 이꼬.{인제 옛날에 떡시루가 있고.}

=1 # 떡시리가 이 부자찻커튼데는 자궁거 이꼬 큼거 인는데.{떡시루가 이 부자집 같은 데는
작은 것 있고 큰 것 있는데.}

=1 # 떡시리는 우예 생긴나 하모.{떡시루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1 # 미치 두러병:하~이 달거치 이래 두러병:하~이 미치 빠진데다가.{밀이 두렷하게 달 같
이 이래 두렷하게 밀이 빠진 데다가.}

=1 # 이래 니군데 구녕 구멍이 이십니다.{이렇게 네 군데 구멍 구멍이 있습니다.}

=1 # 그 구멍에 언자 지미 올라가까 떠기 익십니다.{그 구멍에 인제 김이 올라가서 떡이 익
습니다.}

=1 # 그 큰 떡시리에.{그 큰 떡시루에.}

=1 # 그: 이래 지미 올라가까꼬.{그 이래 김이 올라가서.}

=1 # 그래 언자 그 떡 떠글 그어서 이카십니다, 엔나레는.{그래 인제 그 떡 떡을 거기에서
익혔습니다, 옛날에는.}

=1 # 자근 떡시리도 이꼬 큰 떡시리도 이꼬.{작은 떡시루도 있고 큰 떡시루도 있고.}

=1 @ 예:{예.}

그 엔나레 모다 그렇거로 가지고 안 사라심니꺼.{그 옛날에 모두 그런 거로 가지고 안
살았습니까.}

=1 @ 그라문예, 엔나레 콩지르믄 어데서 나아무우습니꺼?{그러면요, 옛날에 콩나물은 어디
서 놓아 먹었습니까?}

예?{예?}

@ 콩지름.{콩나물.}

=1 # 콩지름?{콩나물?}

@ 예.{예.}

=1 # 콩지름 지라:서 뭉능거?{콩나물 길러서 먹는 것?}

=1 @ 고오토.{그것도.}

그거또 도~오가 이십니다.{그것도 동이가 있습니다.}

=1 # 예:, 콩지름또~오가 따리 이십니다.{예, 콩나물동이가 따로 있습니다.}

=1 @ 아:, 그언 콩지름또~오라 캄니까?{아, 그건 콩나물동이라고 합니까?}

예.{예.}

@ 아:{아.}

=1 # 콩지름또~오가 자궁거 이꼬 큼거 이꼬.{콩나물동이가 작은 것 있고 큰 것 있고.}

=1 # 엔나레는 콩나물로 지사째마정 따리 어른드리 지라라 컵띠더.{옛날에는 콩나물을 제사 때마다 따로 어른들이 길러라고 합디다.}

=1 # 한 도~오 콩지름 가: 두분 안 지낸다고.{한 동이 콩나물로 두 번 안 지낸다고.}

=1 # 하 엔나레 그래 사라서예.{하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1 # 이래 올쩌녀게 여어 팍 부우무꼬 쪼깨:는 도~오다가 나아가꼬.{이렇게 올저녁에 여기에 팍 부어 먹고 조그마한 동이에다가 놓아 갖고.}

=1 # 올빠메 요래 팍: 버어무꼬.{올밤에 이렇게 팍 부어 먹고.}

=1 # 우리드른 또 한사날 이스모 또 지산데.{우리들은 또 한사날 있으면 제산데.}

=1 # 고때 또 잡술 콩지르믈 또.{그때 또 잡술 콩나물을 또.}

=1 # 이 콩지름 더러 묵꼬 또 저 콩지르믈 지루고 이래습니다.{이 콩나물 채 덜 먹고 또 저 콩나물을 기르고 이랬습니다.}

=1 # 그렇게 콩지름또~오가 사:시로 안자가이찌예.{그러니까 콩나물동이가 사시로 앉아 있지요.}

=1 # 그 그래 정성으로 지라:가지고 그래 지사 씨고.{그 그래 정성으로 길러 가지고 제사 쓰고.}

=1 # 그래 콩지름또~오도 여러가집니다.{그래 콩나물동이도 여러 가지입니다.}

=1 @ 예:, 콩지름또~오도 이꼬.{예, 콩나물동이도 있고.}

=1 # 콩지름또~오가 여러개로 노코.{콩나물동이가 여러 개를 놓고.}

=1 # 지사째마장 새로 시: 콩지르믈 지라:고.{제사적마다 새로 시 콩나물을 기르고.}

=1 # 술:도 한단지 술 두분 씨지 마라 캐서.{술도 한 단지 술 두 번 쓰지 마라고 해서.}

=1 # 또 또 새단지 술 떠노코.{또 또 새 단지 술 떠 놓고.}

=1 # 또 해서 새단지 술 떠노코 그래 안 씨십니까.{또 해서 새 단지 술 떠놓고 그렇게 안 썼습니까.}

=1 @ 혹시 여개 드 드무 드무라 카능거 업서습니까?{혹시 여기에 드 드무 드무라고 하는 것 없었습니까?}

=1 # 물드무: 물 저분: 그기: 드무 아입니까?{물드무 물 ** 그것이 드무 아입니까?}

=1 # 아까 거: 씨이십니다.{아까 그것 쓰였습니다.}

=1 @ 그거는 늘비기고예.{그것은 늘비기고요.}

=1 # 그 늘비기가 드무미:더.{그 늘비기가 드무입니다.}

=1 @ 늘비기가 바로 드뭉니껴?{늘비기가 바로 드무입니까?}

예, 늘비기가 물늘비기고 물드무고 그러습니더.{예, 늘비기가 물늘비기고 물드무고 그러 습니다.}

=1 @ 아:.{아.}

기 이르미 두가집니더.{그것이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1 @ 이에 가통김니까?{이것이 같은 것입니까?}

예.{예.}

=1 # 가튼 이르미**.{같은 이름[X입니다X].}

=1 @ 늘비기라 카기도카고 드무라 카기도카고.{늘비기라고 하기도 하고 드무라고 하기도 하고.}

예.{예.}

=1 # 그 늘비기는 주루 떠깁이 주로 나무 떠깁을 덕꼬.{그 늘비기는 주로 뚜껑이 주로 나무 뚜껑을 덮고.}

=1 @ 또 머 머 웅구가 또 머 업서습니까?{또 뭐 뭐 웅기가 또 뭐 없었습니까?}

=1 @ 웅구그른.{웅기그릇.}

=1 # 머 웅기그릉: 그렇김니더.{뭐 웅기그릇은 그런 겁니다.}

=1 # 그 중늬니더.{그 중롭니다.}

=1 @ 아 참 사구라 아 아.{아 참 사구라 아 아.}

=1 # 사구가.{사구가.}

@ 아까 그 보:쌀 썩능거예.{아까 그 보리쌀 썩는 것이요.}

=1 # 사구가 보쌀 썩능그기: 사굽니더.{사구가 보리쌀 썩는 그것이 사굽니다.}

=1 # 꼭따리사구 그 아까 씨이십니껴, 버지기 다아메.{꼭따리사구 그 아까 쓰였습니까, 버지 기 다음에.}

=1 # 버지기 다:메 그게 사굽니더.{버지기 다음에 그것이 사굽니다.}

=1 # 보쌀 썩능기: 사굽니더, 보쌀사구.{웃음}{보리쌀 썩는 것이 사굽니다, 보리쌀사구.}

=1 @ 혹씨 사구 중에서 도랑사구라카능기 이서습?{혹시 사구 중에서 도랑사구라고 하는 것 이 있었습[X니까X]?}

=1 # 도랑사구도 이찌예.{도랑사구도 있지요.}

=1 @ 도랑사구는 뭇니까?{도랑사구는 뭇니까?}

=1 # 도랑사구는 또 도러방하~이 꼭따리 업시 그래 도랑사구지, ** 도러방하~이.{도랑사구 는 또 도렷하게 꼭지없이 그래 도랑사구지, ** 도렷하게.}

=1 # 자궁기: 도랑사구고.{작은 것이 도랑사구고.}

=1 @ 작:꼬:.{작고.}

예, 그 꼭따리사구카마 자궁기 도랑사구고.{예, 꼭따리사구보다 작은 것이 도랑사구고.}

=1 @ 요 요 요:또 소 꼭따리가 손자비 업꼬.{이 이 이것도 소 꼭지가 손잡이가 없고.}

=1 # 요 소자비 이찌예.{이 손잡이 있지요.}

=1 @ 손자비 이습니꺼?{손잡이 있습니까?}

예.{예.}

=1 # 또 이꼬.{또 있고.}

=1 # 고 또 툅 툅빠리 툅빠리 이꼬.{그 또 툅 툅배기 있고.}

=1 @ 툅빠리가 멈니꺼?{툅배기가 뭍니까?}

툅빠리 여 여 여 언자 또 쪼끄매:는.{툅배기 여 여 여 인제 또 조그마한.}

=1 # 툅빠리, 아까 그: 쓰시, 쓰이습니더.{툅배기, 아가 거기에 쓰시, 쓰엿습니더.}

=1 @ 툅빠리는 씨꼬예.{툅배기는 췌고요.}

=1 @ 도랑사구 함분 더.{도랑사구 한 번 더.}

도랑사구는 머:.{도랑사구는 뭘.}

=1 # 엔나레 죽또 퍼묵꼬.{옛날에 죽도 퍼 먹고.}

=1 # 도랑사구 근머 웅가꺼 씨고.{도랑사구 그것 뭘 온갖 것 쓰고.}

=1 # 가:댕기머 씨고.{가지고 다니며 쓰고.}

=1 # 바치뿌모 깨:지고.{받혀 버리면 깨어지고.}

=1 @ 음:, 도랑사구.{음, 도랑사구.}

=1 @ 그기: 도랑사구다 그지예.{그것이 도랑사구 그쵸.}

=1 # 엔나레는 모더 그렇걸 가: 살리믈 안 사라심니꺼.{옛날에는 모두 그런 것을 가지고 살림을 안 살았습니까.}

=1 # 지금: 웅:가끼 조웅기 나와사:서 그러치.{지금은 온갖 것이 좋은 것이 나와 쌓아서 그렇지.}

=1 # 엔나레는 그렇거 가: 살리믈 사라심니더.{옛날에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살림을 살았습니더.}

=1 @ 어무~이 그: 두리미가 멈니꺼?{어머니 그 두루미가 뭍니까?}

=1 # 예?{예?}

@ 두리미.{두루미.}

=1 # 두리미?{두루미?}

@ 예.{예.}

=1 # 두리미는 두리미는 또.{두루미는 두루미는 또.}

=1 # 요 오구당::하고.{요 오굿하고.}

=1 # 미튼 팡팡하고.{밑은 팡팡하고.}

=1 # 조디~이가 요레 솔쪽함니더.{주둥이가 이렇게 좁습니다.}

=1 # 조디~이 요레 솔쪽한데다가 우에 여:.{주둥이 이렇게 좁은 데다가 위에 여기에.}

=1 # 또 구비 이십니더.{또 굽이 있습니다.}

=1 # 나발맨치로.{나팔처럼.}

=1 # 나발맨치로 요레 요 우에다가 구비 인는데.{나팔처럼 이렇게 이 위에다가 굽이 있는 데.}

=1 # 고파아다가 언자 수를 여어가저고.{그기에다가 인제 술을 넣어 가지고.}

=1 # 여: 조디~이 땅 막.{여기 주둥이 딱 막고.}

=1 # 그럼에 그래 씨는 그기: 두리밍니다.{그렇게 그렇게 쓰는 그것이 두루밍니다.}

=1 # 이 엔나레는 상두리미 이래 큰상 시르.{이 옛날에는 상두루미 이렇게 큰 상 ??.}

=1 # 그: 두러미르 술로 보내야 부자쩍거튼데.{그 두루미로 술을 보내야 부잣집 같은데.}

=1 # 요새:는 병에다가 안 보냅니껴.{요새는 병에다가 안 보냅니까.}

=1 # 비~에 보내는거는 안 아라주고.{병에 보내는 것은 안 알아주고.}

=1 # 두레미르 하나씩 보내습니더.{두루미를 하나씩 보냈습니다.}

=1 @ 두루미 아네는 그라메는 머 수리 드러가능김니껴?{두루미 안에는 그러면은 뭐 수리 들어가는 것입니까?}

(웃음)예.{예.}

=1 # 그: 언자 조은 술로 떠가지고 그 두리미다: 한 두리미씩 그래 보내마.{거기에 인제 좋은 술을 떠가지고 그 두루미에다 한 두루미씩 그렇게 보내면.}

=1 # 그 부자찌븐 그래 언자 상수로 보내:고.{부잣집은 그렇게 인제 상술을 보내고.}

=1 # 비~이 오는 술 그거는 마 누네 비이다 아나고 그래십니더.{병에 오는 술 그것은 마 눈에 보이다 안하고 그랬습니더.}

=1 # 언자 또 그 상수에 보내는거는 또 초행에.{인제 또 그 상술에 보내는 것은.}

=1 # 채당새가라꼬.{채당새기라고.}

=1 # 채당새기가 이십니더.{채당새기가 있습니다.}

=1 # 그: 수양버들로 맨드른 채당새기가.{그 수양버들로 만든 채당새기가.}

=1 # 채당새기로 사가지고 그:다가 언자.{채당새기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인제.}

=1 # 연뉴과 당고.{옛 유과 담고.}

=1 # 이래 언자 이 지베 저 지베 채당새기 그기:{이래 인제 이 집에 저 집에 채당새기 그것 이.}

=1 # 이너무 엔나레는 하이구 일도 만.{이놈의 옛날에는 하이구 일도 많[x지x].}

=1 # 한해 머리로 언지마.{한해 머리를 얹으면.}

=1 # 우리가 이월따래 이월 초열:날 머리로 언진는데.{우리가이월달에 이월 초열홀날 머리를 얹었는데.}

=1 # 도라오는 시 시비렐 이십일일랄 시지블 오는데.{돌아오는 십 십일월 이십일일날 시집을 오는데.}

=1 # 일러~이 다 안 데:습니껴.{일년이 다 안 됐습니까.}

=1 # 그래 한해씩 무카야 시지블 가십니더, 엔나레는.{그래 한해씩 묵혀야 시집을 갔습니더, 옛날에는.}

=1 # 그래 언자 시지블 그래 웅:께네.{그래 인제 시집을 그렇게 오니까.}

=1 # 이 이놈 저:게 사말따래 춘부글 합니더, 또.{이 이놈 저기 삼월달에 춘복을 합니더, 또.}

=1 # 상애다가 이 크 이 혼수 비로 여어줍니다.{상애다가 이 크 이 혼수 베를 넣어줍니다.}

=1 # 비르 여어주마 그 비로 가지고 마:키 어른들 오슬 지이서, 시대기.{베를 넣어주면 그 베를 가지고 모두 어른들 옷을 지어서, 시대이.}

=1 # 오슬 지이가지고 밍미:~이 오슬 지이서 언자 봄 춘보글 보냅니다.{옷을 지어 가지고 먼헝이 옷을 지어서 인제 봄 춘복을 보냅니다.}

=1 # 봄 춘보글 보내마 삼털따레 사털 삼진나리나.{봄 춘복을 보내면 삼월달에 삼월 삼짱날 이나.}

=1 # 조은날 바:서 춘보글 보내마.{좋은 말 봐서 춘복을 보내면.}

=1 # 초행에 채당새기 보내찌예.{초행에 채당새기 보냈지요.}

=1 # 채당새기 그기: 또 치 저:기 친정갈째 찰친정갈째 따라갑니다, 또.{채당새기 그것이 또 친 저기 친정갈 때 따라갑니다, 또.}

=1 # 따라가마 그제 언자 또 이 시대게서 또 머.{따라가면 거기에 인제 또 이 시택에서 또 뭐.}

=1 # 웅:가 머 떠글 하거나 머 유물가리해서 채당새기 그: 여어가지고.{온갖 뭐 떡을 하거나 뭐 ???해서 채당새기 거기에 넣어 가지고.}

=1 # 그리 언자 또 두루미 초행에 가편 두루미 그따아다 또 수를 떠가지고.{그래 인제 또 두루미 초행에 갔던 두루미 거기에다가 또 술을 떠 가지고.}

=1 # 또 친정갈때는 근해~입니다.{또 친정갈 때는 근행입니다.}

=1 # 근행이라킴니다.{근행이라고 합니다.}

=1 # 그래 언자 서 건처늘 석달 건천도 보내고.{그래 인제 석 건천을 석 달 건천도 보내고.}

=1 # 일년 건천도 보내고 이랬는데.{일년 건천도 보내고 이랬는데.}

=1 # 건처늘 보내마 그기 또 해:서 그래 또 하이늘 지우고.{건천을 보내면 거기에 또 해서 그래 또 하인을 지우고.}

=1 # 그래 건처늘 가십니다.{그렇게 건천을 갔습니다.}

=1 # 그래 언자 그래 봄 춘보글 ** 해보낸:데 그제.{그래 언자 그렇게 봄 춘복을 ** 해 보 내었는데 거기에.}

=1 # 하: 웅가 모도 머 예물 당고.{하 온갖 예물 모두 뭐 담고.}

=1 # 술떠고 이래 가꼬 언자 또 하이늘 지야가:꼬 또 시대글 보내십니다.{술 떠고 이래 가지고 인제 또 하인을 지어 가지고 또 시택으로 보냈습니다.}

=1 # 이 일도 만치.{이 일도 많지.}

=1 # 그래 보내마 그 춘복 바꼬 그 실량이 옴나:더.{그렇게 보내면 그 춘복 받고 실량이 옴니다.}

=1 # 신행저네.[신행 전에.}

=1 # (웃음) 그래. (웃음){그래.}

=1 # 그 춘보게 그제 언자 춘보글 언자 모도 다 해 보낸:데.{그 춘복에 거기에 인제 춘복을 인제 모두 다 해 보냈는데.}

=1 # 실랑 일시별 다 안 보냈니까, 그제.{신랑 일시별 다 안 해 보냈니까.}

=1 # 이래 해보내마.{이렇게 해 보내면.}

=1 # 모수로 써서 또 모수두루막또 하고.{모시로 써서 또 모시두루막도 하고.}

=1 # 모수두루막또 하고 이래 해보내노:마 그 오슬 익꼬 실랑이 옵니다.{모시두루막도 하고 이렇게 해 보내 놓으면 그 옷을 입고 신랑이 옵니다.}

=1 # (웃음) 춘보게 오슬 입꼬 (웃음).{춘복에 옷을 입고.}

=1 @ 예.{예.}

머: 어른도 언자 대행을 서고.{뭐 어른도 인제 ??을 서고.}

=1 # 이고 미느리 갈찌마저 배행을 서고.{?? 며느리 갈 적마다 ??을 서고.}

=1 # 그래 언자 보내노:마.{그래 인제 보내 놓으면.}

=1 # 또 이지베서 날로 바다가와야 또 시지블 옵니다.{또 이 집에서 날을 받아 가지고 와야 또 시집을 옵니다.}

=1 # 오고집따고 오능거또 아이고.{오고 싶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1 # (웃음) 아이고 일도 만치.{아이고 일도 많지.}

=1 # 그래 그래 가:꼬 또 이 지베서 날로 바더다 보내야 머 그래 또 그날 옵니다.{그래 그래 가지고 또 이 집에서 날을 받아다 보내야 뭐 그래 또 그날 옵니다.}

=1 # 하이고 그: 사:습니다, 엔나레는.{아이구 그렇게 해 땀났습니다.}

=1 # 안주꺼정 나랑 시집온 단지가 하나 이십니다.{아직까지 나랑 시집온 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1 # 두리미는 깨:저꼬.{두루미는 깨어졌고.}

=1 # 단지야 너랑 나랑 가치 살래, 내가 이카는마는.{단지야 너랑 나랑 같이 살래, 내가 이렇게 말하건만은.}

=1 @ 그 단지를 머슨 단지라 캅니까?(그 단지를 무슨 단지라고 합니까?)

=1 # 갱단지라꼬.{갱단지라고.}

=1 # 그따아다 예, 갱단지라 캅니다. 쪼그마난 갱단지다가.{거기에다가 예, 갱단지라고 합니다. 조그마한 갱단지에다가.}

=1 # 그그이 우째 단지가 완노 호마.{그것이 어떻게 단지가 왔나 하면.}

=1 # 시지블 올때 어른들 반찬을 다 장마내가: 옵니다.{시집을 올 때 어른들 반찬을 다 장만해 가지고 옵니다.}

=1 # 그따:다가 머: 칼치르 찌진다 물꼬기르 찌진다.{거기에다가 뭐 갈치를 지진다 물고기를 지진다.}

=1 # 바::라 가즌반찬 장마내가: 시지블 보냈니다.{?? 갖은 반찬 장만해 가지고 시집을 보냅니다.}

=1 # 그래 보내마 그 반찬을 가지고 소고기 사서 언자 국꺼리도 보내고.{그렇게 보내면 그 반찬을 가지고 쇠고기 사서 국꺼리도 보내고.}

=1 # 사밀마네 각시가 가:나와서 아침을 합니다.{삼일 만에 각시가 가지고 나와서 아침을 합

니다.}

=1 # 그래 아침을 하모 대소가 사람 다 오라꼬.{그렇게 아침을 하면 대소가 사람 다 오라고.}

=1 # 아침을 해 가:꼬 모도 그 반찬하고 그래 언자 갈라 묵심니더.{아침을 해 가지고 모두 그 반찬하고 그렇게 인제 나눠 먹습니다.}

=1 # 그** 인나레는 그래 시지비 이리 마내습니더.{그** 옛날에는 그렇게 시집이 일이 많았습니다.}



제2편 어휘

2.1. 농경

2.1.1. 경작

20101	벼	20101	나락'모개'비
20102	이삭	20102	이사'기라
20103	볍씨	20103	중자'지
20104	못자리	20104	모구'지, 모우'지, 모오:'지
20105	모판	20105	모'판
20106	쟁기	20106	쟁'기
20107	보습	20107	보:습', 보:습'
20108	벧	20108	비'리
20108-0-1	-이	20108-1	비'리가
20109	극쟁이	20109	홀치'~이
20110	씨레	20110	물'쓰'으리, 쓰으'리
20111	번지	20111	*
20112	모내기	20112	모심'기
20113	흙덩어리	20113	흑명거'리(+신), 흑떠'~이(+구)
20114	고무래	20114	당:그래'
20114-1	고무래(곡식용도)	20114-1	당그래'
20114-2	고무래(채 용도)	20114-2	채땅그'래
20114-3	고무래(흙 용도)	20114-3	*
20114-4	고무래(미는 데 사용)	20114-4	*
20114-5	고무래(당기는 데 사용)	20114-5	*
20115	쇠스랑	20115	소스래'~이
20116	곡괭이	20116	목'깨'~이
20117	괭이	20117	깨'~이'
20118	삽	20118	수굴'파
20119	호미	20119	호매'~이(+구), 호'미(+신)
20120	농기구	20120	농기구', 농사연장'

20121	김	20121	지'심
20122	김매다	20122	지'심맨다
20123	애벌 매다	20123	아시'논맨'다', 아시반'맨'다'
20123-1	두벌 매다	20123-1	두불'론맨'다', 두불반'맨'다'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20123-2	시불'론맨'다'
20124	논두둑	20124	논뚜'기라
20125	밭둑	20125	밭뚝'
20126	밭두둑	20126	두'더기라 두'둑
20127	밭고랑	20127	고리라', 바'꼴, 박'꼴
20128	밭이랑	20128	반니'랑(+할머니), 반이'랑(+할머니), 이랑'(+할아버지)
20128-1	(밭이랑을) <u>타다/갈다/째다/파다</u>	20128-1	골: 진는'다', 골:탄'다'
20128-2	이랑밧기	20128-2	보린'꼴밭끼'
20129	보리	20129	보리'
20129-1	가을보리	20129-1	가을보리'
20129-2	봄보리	20129-2	봄보리', 봄뿌리'
20130	보리쌀	20130	보리'쌀(+신), 보살'(+구)
20131	가을갈이	20131	가을가'리
20132	감부기	20132	감배'기
20133	두엄	20133	똥:'
20134	거름	20134	그르'미라, 그름'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20201	추수한'다
20202	벧단	20202	나락'판
20202-1	벧단(한 줌정도)	20202-1	*
20202-2	벧단(타작할 정도)	20202-2	깁'판'
20202-3	벧단(한 아름정도)	20202-3	문'판
20203	가리(積)	20203	발가'리'(+벼에 대해서만)
20204	가리다(積)	20204	가'린다
20205	벧가리	20205	발가'리'
20206	날가리	20206	*
20207	타작	20207	타작'
20208	벼훑이	20208	훑'깨

20208-1 그네
 20209 개상
 20209-1 자리개
 20209-2 자리개질
 20210 도리깨
 20210-1 도리깨장부
 20210-2 도리깨열
 20210-3 도리깨꼭지
 20211 벗짚
 20211-0-1 -을
 20211-0-2 -에
 20212 새빼기
 20213 쪽정이
 20214 티
 20215 까끄라기
 20216 풍구
 20217 원두막

 20218 허수아비
 20219 흥년
 20220 머슴

 20221 낚
 20221-0-1 -을
 20221-1 (낚을) 사다/얼다/부리다
 20222 품앗이
 20223 품삯
 20223-0-1 -으로

20208-1 씨'홀'깨(+할머니), 홀'깨
 20209 *
 20209-1 *
 20209-2 광산'타작
 20210 도리'깨
 20210-1 도리깨찌'기고, 도리깨찍'
 20210-2 도리깨열:'
 20210-3 꼭두마'리
 20211 지'파'지 집
 20211-0-1 지'폴' 가'저온나
 20211-0-2 지'페 부'를' 낸':파
 20212 짐나래'미
 20213 쪽띠'기
 20214 티'
 20215 까끄래'기
 20216 풍노'
 20217 원두막'(+할아버지), 인:두마'기라
 (+할머니)
 20218 허'새'비
 20219 송녀'~이라 송년'
 20220 고'공'사'리(+할머니), 담지기'(+
 할아버지), 므슴'
 20221 낚'
 20221-0-1 노'블' 대':야 하지
 20221-1 노'블' 덴':다
 20222 푸마'시
 20223 짹'돈, 품'짹'
 20223-0-1 짹'도늘, 품'짜'기

2.1.3. 방아 찧기

20301 방아
 20302 디딜방아
 20303 방앗공이

20301 방아'
 20302 디'들방아(+할머니), 디'딜방아(+할
 아버지)
 20303 바~아'꼬, 방아'꼬

20304	방아확	20304	호박'
20305	물레방아	20305	물레방'아(+신), 물바'~아(+구), 물방아'(+구)
20306	연자방아	20306	돌빠'~아
20307	절구	20307	도구'통
20308	절구통	20308	도구'통(+할머니), 도구'통, 절구'통(+할아버지)
20309	절굿공이	20309	고'(+일자로 생긴 것), 미'(+ㄱ자로 생긴 것)
20310	절구질	20310	방아쟁'는'다
20311	겨	20311	딩'기
20312	보릿겨	20312	보리땡'기
20313	왕겨	20313	나락땡'기, 왕'게
20314	등겨	20314	당갈땡'기(+구, 한번에 부숴지는 것)
20315	검불	20315	찌끄레'기, 찌끄리'기
20316	껍질	20316	껍'질

2.1.4. 곡물

20401	곡식	20401	곡'식
20402	찰쌀	20402	찰살'
20403	맷쌀	20403	맷'살, 맷'쌀
20404	쌀보리	20404	쌀보'리
20405	조	20405	조'비, 지'비
20406	차조	20406	차조', 찰조'
20407	메조	20407	메조', 메조비'
20408	좁쌀	20408	조'비살, 조'비쌀, 좁'살, 좁'쌀
20409	작다	20409	작따'
20410	조이삭	20410	조'비이삭'
20411	수수	20411	수시'
20411-1	붉은색 수수	20411-1	*
20411-2	장목수수	20411-2	서울'쭈'시'
20411-3	찰수수	20411-3	차쭈시'; 찰쭈시'
20411-4	메수수	20411-4	메쭈시', 메쭈시'

20412 수수깥
 20413 옥수수
 20413-1 찰옥수수
 20413-2 메옥수수
 20414 귀리
 20415 메밀
 20416 콩
 20417 콩깍지
 20418 메주
 20419 매달다
 20420 띄우다
 20421 곰팡이
 20422 강낭콩
 20423 콩기름
 20424 깨
 20424-1 참깨
 20424-2 들깨
 20425 고소하다

20412 쭈시깨'미
 20413 강내'~이, 깡내'~이
 20413-1 찰강내'~이
 20413-2 메강내'~이
 20414 기보리'
 20415 미물'
 20416 콩
 20417 콩깍'지
 20418 메'주(+신), 미이'지(+구)
 20419 단'다', 매단'다
 20420 띄'안다
 20421 곰팡'이', 곰패'~이'
 20422 두불콩', 봄'콩', 봉콩'
 20423 콩기'름, 콩지'름
 20424 깨'
 20424-1 참'깨', 창'깨'
 20424-2 들'깨
 20425 꼬시'다

2.1.5. 채소

20501 채소
 20502 나물
 20502-1 나물(밭, 재료)
 20502-2 나물(밭, 반찬)
 20502-3 나물(들, 재료)
 20502-4 나물(들, 반찬)
 20502-5 나물(산, 재료)
 20502-6 나물(산, 반찬)
 20503 푸성귀
 20504 다듬다
 20505 반찬
 20506 무
 20507 썰다

20501 소'채, 채소'
 20502 나물'
 20502-1 채소'
 20502-2 *
 20502-3 나물'
 20502-4 *
 20502-5 산나물'
 20502-6 *
 20503 나물'
 20504 따드'머
 20505 반'찬
 20506 무시'
 20507 채싸'린'다

20508	무청	20508	무우이'피'지 무입'(+할아버지), 무우청'(+할머니)
20509	시래기	20509	씨래'기
20510	무말랭이	20510	무시오'가리
20511	장다리무	20511	무시짱다'리
20512	배추	20512	배차'(+구), 배추'(+신)
20513	고깁이	20513	배차알'
20514	오이	20514	무'리'(+구), 오이'(+신)
20515	오이지	20515	장아'찌'
20516	오이소박이	20516	쭈쭈'지, 오이쭈'쭈쭈
20517	가지(茄子)	20517	까지'
20518	호박	20518	호박'
20519	고구마	20519	고오매'
20520	감자	20520	감자'
20520-1	잘다	20520-1	잘'다
20521	우엉	20521	우붕'
20522	파	20522	파
20523	고추	20523	꼬치'
20524	시금치	20524	씨'금치
20525	미나리	20525	미나'리
20526	부추	20526	정구'치
20527	상추	20527	부상'추, 상'추
20528	마늘	20528	마'~알(+구), 마'늘(+신)
20529	생강	20529	생강'
20530	냉이	20530	나새'~이
20531	달래	20531	달래'~이
20532	도라지	20532	도래'
20533	더덕	20533	더'덕

2.2. 음식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20601	쌀'밥'
-------	----	-------	------

20602 찬밥
 20602-1 더운밥
 20603 조밥
 20604 누룽지
 20605 눌은밥
 20606 송늬
 20607 뜨물
 20608 김(蒸氣)
 20609 갱죽(羹粥)
 20610 싱겁다
 20611 국수
 20612 칼국수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20613 건더기
 20613-1 국물
 20614 고명
 20615 꾸미
 20616 미역
 20617 김(海苔)
 20618 수제비
 20619 끼니
 20620 미음
 20620-1 (미음을) 끓이다/쭈다/삶다
 20621 엿기름
 20622 식혜(食醪)
 20623 식혜(食醪)

 20624 달다(甘)
 20625 가루
 20625-0-1 -에
 20625-0-2 -을
 20625-0-3 -도
 20626 밀가루
 20627 밀기울
 20628 미숫가루

20602 씨금'밥
 20602-1 뜨신'밥
 20603 조'비밥, 지'비밥
 20604 마른누룬'밥
 20605 누룬'밥
 20606 송'냥
 20607 뜨물'
 20608 짐
 20609 갱주기'라', 씨락'갱죽'
 20610 싱그'바서
 20611 국씨'
 20612 칼국시'
 20612-1 국'시
 20613 건디'~이
 20613-1 궁'물
 20614 고'멥', 고'명'
 20615 끼미'
 20616 미'역
 20617 짐
 20618 수지'비(+신), 장꾸'(+구)
 20619 끼'니
 20620 미염'
 20620-1 끼'런다
 20621 질금'
 20622 단술'
 20623 시'끼'(+구, 할머니),
 시'키'(+구, 할아버지), 식'캐'(+신)
 20624 달'다
 20625 가루', 가리'(+구), 갈'리(+구)
 20625-0-1 가리'에
 20625-0-2 갈'리
 20625-0-3 밀갈'리도
 20626 밀갈'리
 20627 밀기'울, 밀찌'불
 20628 미'수까리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20701	지렁'장
20702	된장	20702	텐장', 딘장'
20703	고춧가루	20703	꼬치갈'리
20704	고추장	20704	꼬오'장, 꼬치'장
20705	소금	20705	소곰'(+할아버지), 소곰'(+할머니)
20706	김치	20706	짐'치
20707	김장	20707	짐장'
20708	깍두기	20708	무시짐'치(+신), 무시짐'치(+구)
20709	나박김치	20709	물'짐'치(+신), 물'짐'치(+구)
20710	담그다	20710	담'는'다
20710-0-1	-고	20710-0-1	당'꼬' 일따
20710-0-2	-어라	20710-0-2	다'마'라
20711	양념	20711	양'념'
20712	버무리다	20712	버무'른다
20713	버섯	20713	버'섯
20713-0-1	-이	20713-0-1	버'서시
20714	콩나물(재료)	20714	콩지'름
20714-1	콩나물(반찬)	20714-1	콩나물'
20714-2	숙주(나물)	20714-2	녹띠질금', 질금'
20715	두부	20715	조피'
20716	비지	20716	비'지
20716-1	비지떡	20716-1	비'지띠'기'지
20717	달걀	20717	달갈'
20718	가래떡	20718	가'래떡
20719	시루떡	20719	시리'떡
20720	송편	20720	송'편(+신), 싱'편 싱'피~이(+구)
20721	빻다	20721	맨든'다, 비'진다
20722	흰떡	20722	절'펜', 절'편'
20723	고물	20723	고'물
20724	팔죽	20724	판죽'
20725	새알심	20725	새알'
20726	백설기	20726	백'짬
20727	튀밥	20727	박'산

20728 술
20729 막걸리
20730 소주
20731 부침개

20728 수'리지
20729 막걸'리, 탁'주':
20730 소'주
20731 찌짐'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20802 가마솥
20802-0-1 -을
20802-0-2 -에
20803 아궁이
20803-0-1 -이
20804 그을음
20805 불쏘시개
20806 연기
20806-1 내(煙氣)
20807 그을리다
20808 부지깥이

20809 부삽
20810 냄다
20811 냄비
20812 그릇
20812-0-1 -을
20813 뚜껑
20814 주발 뚜껑
20815 사발 뚜껑
20816 술뚜껑
20817 밥주걱
20818 숟가락
20819 젓가락
20820 종지
20821 보시기
20822 뚝배기

20801 부뚜마'기라
20802 가매소'치라
20802-0-1 가매소'를 썰는'다
20802-0-2 가매소'테
20803 부석'
20803-0-1 부서'기
20804 끄시'름'
20805 부살'개
20806 영'기
20806-1 내'다
20807 끄실린':다
20808 부시깨'~이(+할아버지),
부저깨'~이(+할머니)
20809 불가'래
20810 냄'따
20811 냄비'
20812 그'릇
20812-0-1 그'르글
20813 따까'리, 때까'리
20814 띠비'~이
20815 뜨꺼'리
20816 소드배'~이
20817 주기'
20818 수까'락
20819 저까'치
20820 종'지
20821 보'시
20822 딴장:뚝'빼'기, 뚝뽕'이

20823	접시	20823	접'시
20824	조리	20824	조리'
20825	이남박	20825	닐배'기, 늘배'기
20826	바가지	20826	박재'기
20827	행주	20827	행'주
20828	행구다	20828	행'군다(+신), 형'군다(+구)
20829	설거지	20829	슬그'지
20830	개숫물	20830	꾸중'물
20831	찌꺼기	20831	꾸'중'물찌꺼리'기, 찌꺼리'~이
20832	화로	20832	하리'
20833	화롯불	20833	하리뿔'
20834	부엌가락	20834	불찌가'치
20834-0-1	-이	20834-0-1	불찌가'치가
20834-1	불순가락	20834-1	불'순'
20835	다리쇠	20835	삼'발
20836	석쇠	20836	적'시
20837	도시락	20837	도시래'기
20838	바구니	20838	다래'끼
20839	뒤주	20839	두지'
20840	찬합	20840	차:납', 20840 찬합'
20841	강판	20841	강'판
20842	개다리소반	20842	개다리파'~이라

2.3. 가옥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20901	안'빠'~아
20902	벽	20902	비룽방', 비룽뺑', 빅'
20903	다락	20903	다락', 다락뺑'
20904	벽장	20904	뽕'짱'
20905	감추다	20905	감추'운다, 숭카'안다, 숭케'엔다

20906	흙	20906	호미', 흙찌'비'
20907	돌찌귀	20907	돌쭈'
20907-1	암쭈	20907-1	암'똥'쭈
20907-2	수쭈	20907-2	쭈'똥'쭈
20908	미단이	20908	미다'지'
20909	여단이	20909	*(+대상물 있으나 용어 없음)
20910	덧문	20910	*
20911	열다	20911	연다'
20912	문고리	20912	문꼬'리, 문꼬'리
20913	자물쇠	20913	자물'통
20914	간히다	20914	가치'일따, 가친'따
20915	열쇠	20915	썰'때', 열시', 열씨'라캐서 열시'
20916	잠그다	20916	장군'다
20917	구멍	20917	구멍'
20917-1	취구멍	20917-1	지구멍', 지구멍'
20918	찢다	20918	쨌'다'
20919	구들	20919	구들짱', 구들 논는'다
20920	흙받기	20920	흑'손
20921	흙손	20921	*(+기억 못 함)
20922	흙칼	20922	흑'칼(+쇠로 된 것)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20922-1	나무'손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20922-2	호'카리고
20923	바르다	20923	바른'다
20924	장판	20924	장'판
20925	종이	20925	종'이(+신), 조'~오(+구)
20926	도배	20926	도배'
20927	구석	20927	구서'기라캐서 구석'
20928	굽도리	20928	띠'지, 굽'또'리
20929	깨끗하다	20929	깨끗하'다
20930	문지방	20930	문썰방'
20930-0-1	-에	20930-0-1	문썰바'~아
20931	틈	20931	문: 틈', 틈'새':
20932	가장자리	20932	가
20933	가운데	20933	복'판'
20934	시렁	20934	실'경
20935	살강	20935	살강'

20936 선반
 20937 서랍
 20938 경대
 20939 거울
 20940 걸다
 20941 호롱

20936 선'반
 20937 빼다지'
 20938 경대', 경대'
 20939 멩경'
 20940 건':다'
 20941 호롱'

2.3.2. 건물

21001 지붕
 21001-0-1 -에
 21002 기와
 21003 기와집
 21004 수키와
 21005 암키와
 21006 대들보
 21007 서까래

 21008 추녀
 21009 처마
 21010 오두막

 21011 초가집
 21012 이엉
 21012-0-1 -에서
 21013 용마름

 21014 기스락
 21015 낙숫물
 21015-1 기스락물
 21016 사닥다리
 21017 용마루
 21018 토방
 21019 뗏돌
 21020 마루

21001 지붕'
 21001-0-1 지붕'에
 21002 개와'
 21003 개와쩍', 기와쩍'
 21004 골기와'
 21005 함'지기와
 21006 보짱', 대들보'
 21007 연'목:(+다듬을 재료),
 씨'까'래(+다듬은 결과물)
 21008 추'니
 21009 처'마
 21010 오더막'쩍, 오더막', 오더매'이라,
 막'찌'비라
 21011 초'가'쩍
 21012 마람'
 21012-0-1 마라'매'서
 21013 용니'~이(+할머니),
 용바람'(+할아버지)
 21014 씨끌'
 21015 비새'물
 21015-1 비센'무리지
 21016 새다'리'
 21017 당마'리'(+?조)
 21018 *(+대상물 없음)
 21019 지'방'뜰
 21020 청, 마리'

21020-0-1 -에
 21021 툃마루
 21022 기둥
 21023 주춧돌
 21023-0-1 -을
 21024 굴뚝

21020-0-1 창'에, 마리'에
 21021 히민'(+?조)
 21022 지둥'
 21023 주'치'똥
 21023-0-1 주'치'똥로
 21024 꿀뚝'

2.3.3. 마당

21101 뜰
 21102 마당
 21103 넓다
 21103-0-1 -어서
 21104 넓히다
 21105 곳간
 21106 외양간
 21107 마구간
 21108 광
 21109 헛간
 21110 쓰레기
 21111 장독대
 21112 장독 뚜껑
 21113 변소
 21113-1 똥장군
 21114 율타리

21101 프리'라'
 21102 마당'
 21103 너리'다, 널'따
 21103-0-1 널'러서
 21104 널'피야
 21105 두지'
 21106 마구', 소마구', 오양'간'
 21107 마구'
 21108 도장'
 21109 터칸', 허칸'
 21110 쓰레'기
 21111 장또'칸'
 21112 독띠'깨, 독띠까'리
 21113 디칸'
 21113-1 똥장군', 장군'
 21114 우'리'라커기도 하고

21115 담
 21115-0-1 -에
 21115-0-2 -도
 21116 사립문
 21117 뒤꼍
 21117-0-1 -에
 21118 바깥
 21118-0-1 -에

율따'리라커기도 하고
 21115 담'
 21115 담부'랑', 담장'
 21115-0-1 담부랑'에
 21115-0-2 담'도'
 21116 삼작'기라 삼작'
 21117 디땅'
 21117-0-1 디따'네서
 21118-0-1 바'께(+할아버지),
 바꺼'테(+할머니)

21119 모퉁이
21120 모서리

21119 모티'~이
21120 모서'리(+할아버지), 모시'리(+할머니)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21202 윗마을
21203 이웃
21203-0-1 -이
21203-0-2 -에
21204 마을가다
21205 우물
21206 두레박
21207 샘(泉)
21208 가(邊)
21208-0-1 -을
21208-0-2 -에
21209 물지게
21210 가게
21211 싸다
21212 비싸다
21213 흥정
21214 중매인(거간꾼)
21215 잔돈
21216 예누리
21217 거스름돈
21218 거스르다
21219 꾸다(借)

21219-0-1 -어야
21220 구두쇠
21221 말기다
21222 나머지
21223 덤
21224 몫

21201 동네', 마을'
21202 우'땀
21203 이'웃
21203-0-1 이'우시
21203-0-2 이'우세
21204 마실간'다
21205 새미'
21206 뚜루'박
21207 새미', 웅달'샘
21208 가아새'
21208-0-1 바'까, 박'까
21208-0-2 박'까'에
21209 물찌'게
21210 가게'(+신), 점빵'(+구)
21211 싸'다', 헐'타'
21212 비'싸다
21213 흥정'
21214 중개인'
21215 잔'돈
21216 *
21217 나'문도~이라, 나'문돈
21218 *
21219 꾸'다', 빌'린다(+웃어른에게),
채'앤다(+친한 사이에), 채'다
21219-0-1 빌'리야, 채'ैया
21220 구두'세
21221 매'꼴따
21222 나머'지, 남능거'
21223 우수'
21224 목'치

21224-0-1 -을
 21225 빛
 21225-0-1 -을
 21225-0-2 -에
 21226 이자(利子)
 21227 심부름
 21228 두름
 21228-1 축
 21228-2 꽤
 21228-3 접
 21228-4 씹
 21228-5 두름
 21228-6 단/뭇(작은 묶음)
 21228-7 단/뭇(서너 개 묶음)
 21228-8 툇
 21228-9 모숨
 21229 켄레
 21230 마지기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21231 꾸러미
 21232 그루
 21233 포기
 21234 저울
 21235 자루(包袋)
 21235-0-1 -을
 21235-0-2 -에
 21236 하나
 21236-1 한-개
 21236-2 한-되
 21236-3 한-말
 21237 둘
 21237-1 두-개
 21237-2 두-되
 21237-3 두-말
 21238 셋

21224-0-1 목'치를
 21225 빈
 21225-0-1 비'들
 21225-0-2 비'데
 21226 이자'
 21227 심바'람'
 21228 두루'미
 21228-1 한' 축
 21228-2 한' 띠
 21228-3 한 접'
 21228-4 한' 씹
 21228-5 향' 간, 향' 가'슬(+꼭용형)
 21228-6 한 다'불
 21228-7 단'
 21228-8 기만단'(김 한 단)
 21228-9 모'심, 주묵'
 21229 켄'레
 21230 마'지'기
 21230-1 바'튼 백'페'~이 한' 마지기고
 노'는' 이백페'~이 한' 마지기고
 21231 줄
 21232 그루', 피'기'라
 21233 포'기, 피'기
 21234 저'울, 들쨍'울
 21235 잘'리
 21235-0-1 잘'리 가: 오너'라
 21235-0-2 잘'리:
 21236 하나':
 21236-1 향'개
 21236-2 한'디
 21236-3 함'말
 21237 두울'
 21237-1 두개'
 21237-2 두디'
 21237-3 두말'
 21238 셋

21238-1 세-개
 21238-2 세-되
 21238-3 세-말
 21239 넷
 21239-1 네-개
 21239-2 네-되
 21239-3 네-말
 21240 다섯
 21240-1 다섯-개
 21240-2 다섯-되
 21240-3 다섯-말
 21241 여섯
 21241-1 여섯-개
 21241-2 여섯-되
 21241-3 여섯-말
 21242 일곱
 21242-1 일곱-개
 21242-2 일곱-되
 21242-3 일곱-말
 21243 여덟
 21243-1 여덟-개
 21243-2 여덟-되
 21243-3 여덟-말
 21244 아홉
 21244-1 아홉-개
 21244-2 아홉-되
 21244-3 아홉-말
 21245 열
 21245-1 열-개
 21245-2 열-되
 21245-3 열-말
 21246 스물
 21246-1 스무-개
 21246-2 스무-되
 21246-3 스무-말
 21247 서른

21238-1 시개'
 21238-2 서디', 시디'
 21238-3 서말'
 21239 넌
 21239-1 니개'
 21239-2 너디'
 21239-3 너말'
 21240 다'서, 다'서, 다'선
 21240-1 다'서개
 21240-2 단'띠
 21240-3 단'말
 21241 여'선
 21241-1 여'석개
 21241-2 연'띠
 21241-3 연'말
 21242 일'고
 21242-1 일'구개
 21242-2 일'곱띠, 일'곱띠
 21242-3 일'곱말
 21243 여'덜
 21243-1 여'덜개
 21243-2 여'덜띠
 21243-3 여'덜말
 21244 아'호
 21244-1 아'호개
 21244-2 아'홉띠
 21244-3 아'호말
 21245 열
 21245-1 열'깨'
 21245-2 열'띠'
 21245-3 열'말'
 21246 수'물'
 21246-1 수'무'개
 21246-2 수'무'디
 21246-3 수'무'말
 21247 서'른

21247-1 서른-개
 21247-2 서른-되
 21247-3 서른-말
 21248 마흔
 21248-1 마흔-개
 21248-2 마흔-되
 21248-3 마흔-말
 21249 쉰
 21249-1 쉰-개
 21249-2 쉰-되
 21249-3 쉰-말
 21250 예순
 21250-1 예순-개
 21250-2 예순-되
 21250-3 예순-말
 21251 일흔
 21251-1 일흔-개
 21251-2 일흔-되
 21251-3 일흔-말
 21252 여든
 21252-1 여든-개
 21252-2 여든-되
 21252-3 여든-말
 21253 아흔
 21253-1 아흔-개
 21253-2 아흔-되
 21253-3 아흔-말
 21254 백
 21254-1 백-개
 21254-2 백-되
 21254-3 백-말
 21255 이백
 21256 한둘
 21256-1 한두-개
 21256-2 한두-되
 21256-3 한두-말

21247-1 서'룽개
 21247-2 서'룬디
 21247-3 서'룬말
 21248 마'은, 마'흔
 21248-1 마'응개
 21248-2 마'은디, 마'흔디
 21248-3 마'은말
 21249 쉰
 21249-1 싱개', 오'식'개
 21249-2 오십띠'
 21249-3 오십말'
 21250 육'십'
 21250-1 육'십'개
 21250-2 육'십'띠
 21250-3 육'십'말
 21251 칠'십'
 21251-1 칠'십'개
 21251-2 칠'십'띠
 21251-3 칠'십'말
 21252 팔'십'
 21252-1 팔'식'개
 21252-2 팔'십'띠
 21252-3 팔'십'말
 21253 구'십'
 21253-1 구'식'개, 구'십'개
 21253-2 구'십'띠
 21253-3 구'십'말
 21254 백
 21254-1 백'개'
 21254-2 백'띠'
 21254-3 백'말'
 21255 이백'
 21256 한'둘:'
 21256-1 한'두개
 21256-2 한'두디
 21256-3 한'두말

21257	두셋	21257	두센'
21257-1	두세-개	21257-1	*
21257-2	두세-되	21257-2	*
21257-3	두세-말	21257-3	*
21258	두서넛	21258	두서'넛'
21258-1	두서너-개	21258-1	두서너'개
21258-2	두서너-되	21258-2	두서너'디
21258-3	두서너-말	21258-3	두서너'말
21259	서넛	21259	서너너덜'
21259-1	서너-개	21259-1	서너너덜'깨
21259-2	서너-되	21259-2	서너너덜'띠
21259-3	서너-말	21259-3	서너너덜'말
21260	네댓	21260	서너너덜'
21260-1	네댓-개	21260-1	서너너덜'깨
21260-2	네댓-되	21260-2	서너너덜'띠
21260-3	네댓-말	21260-3	서너너덜'말
21261	대여섯	21261	대여섯'
21261-1	대여섯-개	21261-1	대여'섯깨
21261-2	대여섯-되	21261-2	대여'띠
21261-3	대여섯-말	21261-3	대여'말
21262	예닐곱	21262	여'서일'곱(+?조)
21262-1	예닐곱-개	21262-1	육'칠'개
21262-2	예닐곱-되	21262-2	여'선일'곱띠
21262-3	예닐곱-말	21262-3	여서일'곱'말
21263	일여덟	21263	칠'팔'
21263-1	일여덟-개	21263-1	칠'팔'개
21263-2	일여덟-되	21263-2	일'곱여'덜띠, 칠'팔'디
21263-3	일여덟-말	21263-3	칠'팔'말
21264	여덟아홉	21264	팔'구'
21264-1	여덟아홉-개	21264-1	팔'구'개
21264-2	여덟아홉-되	21264-2	여'덜아'홉띠
21264-3	여덟아홉-말	21264-3	팔'구'말
21265	여남은	21265	여나'음, 여남':
21265-1	여남은-개	21265-1	여나'무개
21265-2	여남은-되	21265-2	여나'무띠
21265-3	여남은-말	21265-3	여남':말

2.4 의복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21301	치매'
21302	길이	21302	지'리
21303	저고리	21303	조고'리
21304	색동저고리	21304	색'똥'조'고'리
21305	두령이	21305	*(+대상물 없음)
21306	무늬	21306	문채'
21307	고쟁이	21307	꼬장주'~우
21308	바지	21308	바'지, 중우'
21309	두루마기	21309	두루마'기, 둘:매'기
21310	의복	21310	오'시'라 카지 온, 이'복
21311	구겨지다	21311	꼬개':질따, 꾸개':질따
21312	옷고름	21312	고'름
21313	단추	21313	단추'
21314	동정	21314	동'진
21315	겉	21315	바깥'
21315-0-1	-에	21315-0-1	바꺼'테
21315-0-2	-을	21315-0-2	바까'틀
21316	홀옷	21316	호'돈
21317	겹옷	21317	저'븐'
21318	잠방이	21318	땅쭈'~우'
21319	누더기	21319	누더'기', 두디'기
21320	거지	21320	거리'지, 걸배'~이
21321	구걸	21321	동냥'(+거지가 하는 것), 구걸+못사는사람이 잘사는사람에게 하는 것
21322	조끼	21322	쫓끼'
21323	내의	21323	내복', 쏘'곤
21324	껴입다	21324	껴':입는'다
21325	소매	21325	소'매'
21326	주머니	21326	개쭈'치
21327	호주머니	21327	주무'~이, 호주무'~이

21328 허리띠
 21329 땡기
 21330 도포
 21331 샷갓
 21331-0-1 -에
 21332 고깔
 21333 사모
 21334 유건
 21335 대님
 21336 감발
 21337 짚신
 21338 미투리
 21338-1 (짚신을) 삼다/만들다/트다/결다
 21339 나막신
 21340 설피

21328 혈:뀐', 혈:끈'
 21329 땡'기
 21330 도포'
 21331 삭'까, 삭'깁
 21331-0-1 삭'까세
 21332 꼬'깔
 21333 사모'
 21334 유건'
 21335 감때'~이, 다'임
 21336 감발'
 21337 짚신'
 21338 미터'리'
 21338-1 삼는'다'
 21339 나막'신
 21340 설'피(+&)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21401-1 명주실
 21402 목화
 21402-1 목화다래
 21403 무명
 21403-1 무명실
 21404 씨아
 21405 자세
 21406 물레
 21407 베
 21408 길쌈
 21409 꼴무
 21410 반질고리
 21411 가위
 21411-0-1 -을
 21411-0-2 -에
 21412 마르다(裁)

21401 밍지'비
 21401-1 밍지'실
 21402 미영'
 21402-1 다'래'
 21403 미영'비, 미영'비'
 21403-1 미'영'실, 미영'실'
 21404 켜':기, 켜'애'기
 21405 얼'레, 자세'
 21406 물레', 물리'
 21407 베, 비, 비'가' 지다'
 21408 질'쌈'
 21409 꼴'미'
 21410 발땅새'기
 21411 가시'개
 21411-0-1 가시'개 가: 오너'라
 21411-0-2 가시'개에
 21412 끈는'다, 짜른'다

21412-0-1 -고
 21412-0-2 -어라
 21413 형걸
 21413-0-1 -을
 21413-0-2 -에
 21414 바늘
 21415 꿰다
 21415-0-1 -고
 21415-0-2 -어라
 21416 바느질
 21417 재봉틀
 21418 끈
 21419 노끈
 21420 참바
 21421 매듭
 21421-1 (매듭을) 맷다/짓다/엮다/묶다
 21422 보자기
 21423 이불
 21424 솜
 21425 포근하다
 21426 홉이불
 21427 겹이불
 21427-1 솜이불
 21428 누비이불
 21429 베개
 21430 베갯잇
 21430-0-1 -에
 21431 목침
 21432 퇴침
 21433 망석
 21434 담요
 21435 빨래하다
 21436 빨랫방망이
 21437 빨래터
 21438 빨랫줄
 21439 다리미

21412-0-1 꿰'코인따, 짜르'고인따
 21412-0-2 꼬'너라, 찰'라라
 21413 형걸'
 21413-0-1 형거'블'
 21413-0-2 형거'베'
 21414 바'~알, 바'늘
 21415 낀다'
 21415-0-1 끼고'
 21415-0-2 끼'이'라
 21416 바'~아질, 바느'질
 21417 자'방'틀, 재봉'틀, 틀'
 21418 끈
 21419 노'끈
 21420 바'줄
 21421 고, 매듭'
 21421-1 맨는'다
 21422 바뿌'지, 보재'기
 21423 이'불
 21424 쏘'캐'(+구), 솜:(+신)
 21425 포근하'다
 21426 혼니'불
 21427 점'니'불
 21427-1 한'니'불
 21428 니비', 니비이'불
 21429 비'개'
 21430 비개호창', 호창'
 21430-0-1 호창'에
 21431 몽'치'미
 21432 디치'미'
 21433 자부동':
 21434 담뇨'
 21435 서답썩는'다
 21436 물빵매'~이
 21437 빨래'터
 21438 빨래'줄
 21439 다리'비

21439-1 다림질
 21440 인두
 21441 다듬잇방망이
 21442 다듬잇돌
 21443 다듬이질

21439-1 다림'질
 21440 윤'디'
 21441 따듬방매'~이
 21442 따듬'뜯
 21443 따듬'찢

2.5. 민속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21502 설
 21503 설달 그믐날
 21504 묵은세배
 21505 올해
 21505-0-1 -는
 21505-1 작년
 21505-2 재작년
 21505-3 내년
 21505-4 후년

21505-5 내후년
 21506 작은설
 21507 웃
 21507-0-1 -을
 21507-0-2 -에
 21507-1 웃놀이
 21508 웃가락
 21508-1 도
 21508-2 개
 21508-3 걸
 21508-4 웃
 21508-5 모
 21509 단동

21501 설라'리'라
 21502 설
 21503 설딸그'뭉'
 21504 *
 21505 금년', 올'개, 올'래, 올'해
 21505-0-1 *
 21505-1 저지난해'
 21505-2 장년'
 21505-3 내년', 멍년'
 21505-4 무멍년', 우멍년',
 후내년'(+할머니), 후멍년'(+할아버지)
 21505-5 *
 21506 자근'설, 자근설'
 21507 윤'
 21507-0-1 유'틀
 21507-0-2 유'테
 21507-1 윤노'리
 21508 유까'치
 21508-1 또
 21508-2 개:
 21508-3 글
 21508-4 유치'고'
 21508-5 모, 모라'
 21509 단동', 한동'

21509-1 외동무니
 21509-2 두동무니
 21509-3 석동무니
 21509-4 녁동무니
 21509-5 막둥
 21509-6 단동무니
 21510 보름
 21510-1 삭망
 21511 추석
 21512 망월
 21513 귀불놀이
 21514 자치기
 21514-1 작은막대
 21514-2 긴막대
 21515 수수께끼

21516 호미씻이
 21517 팽과리
 21518 장구
 21519 겹두리
 21520 무당
 21520-1 박수
 21521 고수레
 21521-1 고수레!
 21522 점쟁이
 21523 상여(喪輿)
 21524 굴건
 21525 제사
 21526 제기
 21527 귀신
 21528 도깨비

21509-1 한동안'다
 21509-2 꾸'불따, 두동안'다', 함'철'따
 21509-3 석똥간'다'
 21509-4 녁똥간'다', 막똥간'다'
 21509-5 막똥'이다
 21509-6 단지불'때'기도 업서'
 21510 보'럼
 21510-1 상'망'
 21511 추'서, 추'석, 한'가'위, 한'가'이
 21512 달'쩍'노리
 21513 지'불'노리
 21514 자'치'기
 21514-1 자근막때'기
 21514-2 막때'기
 21515 씨끼노름'(+할아버지),
 씨끼자'리(+할머니)
 21516 *
 21517 메구'
 21518 장'구, 장'기
 21519 새':차미라, 중'참
 21520 무당'
 21520-1 북'째'~이
 21521 고'시레
 21521-1 고'시레!
 21522 점빠'치
 21523 새~이'
 21524 굴'간'
 21525 제사', 지사'
 21526 제기'(+할아버지), 지기'(+할머니)
 21527 구신'
 21528 토'깨'비

2.5.2. 농경용품

21601 고빼

21601 이까'리

21602	굴레	21602	굴'레
21603	멍에	21603	몽'에
21604	길마	21604	질매'
21605	부리망	21605	찌그'리
21606	구유	21606	구'시
21607	작두	21607	발'작'뚜, 짹'두, 손'작'두
21608	꼴	21608	꼴
21609	여물	21609	여물'
21610	쇠죽	21610	소'죽
21611	쇠죽바가지	21611	감빠가'치
21612	수레	21612	구루'마
21613	끌다	21613	끄'꾸' 간다, 끈'다, 끄실'고 간다(+억지로)
21613-0-1	-고	21613-0-1	끄'꼬
21614	바퀴	21614	발'통'
21615	새끼(繩)	21615	새'끼'
21615-1	새끼(짐승의)	21615-1	새'끼
21616	망태기	21616	망'태
21617	먹등구미	21617	등구마'리
21618	거적	21618	끄지'기
21619	가마니	21619	가'마~이
21619-1	가마니틀	21619-1	가'마~이틀'
21620	돛자리	21620	도짜'리(+신), 멩석짜'리(+구)
21621	자리틀	21621	도짜'리틀
21621-1	(자리틀) <u>짜다/치다/만들다/결다</u>	21621-1	친'다'
21622	왕골	21622	골:
21623	삼태기	21623	소고'리
21623-1	짚 삼태기	21623-1	집'소'고리
21623-2	싸리 삼태기	21623-2	채소고'리
21624	명석	21624	덕씩'(+네모난 것), 방석'(+둥근 것)
21625	어래미	21625	얼기'미
21625-1	고운체	21625-1	접'치'~이
21625-2	굵은체	21625-2	호'치
21626	대장장이	21626	핀수'
21627	대장간	21627	불미깁'
21628	풀무	21628	풍노'

21629 모루
 21630 모루채
 21631 갈퀴
 21632 집게
 21633 장도리
 21633-1 노루발
 21634 톱
 21634-0-1 -에
 21635 도끼
 21636 자루(柄)
 21636-0-1 -을
 21636-0-2 -에
 21637 갈고리
 21638 썰기

 21639 송곳
 21639-0-1 -에

 21640 뽕죽하다
 21641 솥돌
 21641-0-1 -에
 21642 맷돌
 21642-1 수쇠
 21642-1 암쇠
 21643 지게
 21644 밭채
 21645 지게 작대기
 21646 막대기
 21647 몽둥이

21629 망'치'판(+?조)
 21630 망'치
 21631 까꾸'리
 21632 찌'께, 찌'개
 21633 망치장도리', 장도리'
 21633-1 장도리'
 21634 톱
 21634-0-1 토'배
 21635 도끼'(+신), 도치'(+구)
 21636 잘'리
 21636-0-1 잘'리를
 21636-0-2 잘'리에
 21637 까꾸래'~이
 21638 보'죽(+형겉, 가죽), 썰에'미(+나무),
 썰에'미(+나무)
 21639 송곳'
 21639-0-1 송고'세'(+할아버지),
 송구'세'(+할머니)
 21640 썰뽕하'다
 21641 솥돌'
 21641-0-1 솥또'레
 21642 맷'돌'
 21642-1 중'시
 21642-2 *
 21643 지'게
 21644 바자'리', 바지'게'
 21645 작때'기, 지게작때'기
 21646 막때'기
 21647 몽디'~이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21702 광주리
 21703 소쿠리

21701 빗짚'리
 21702 광지'리
 21703 소구'리(+할아버지), 소쿠'리(+할머니)

21704	합지	21704	합'지
21705	풀비	21705	풀'뻐
21705-1	귀알	21705-1	*
21706	독	21706	독
21706-0-1	-에	21706-0-1	도'게
21707	물독	21707	드무'(+큰 것), 물또가'지(+작은 것)
21708	항아리	21708	*
21709	단지	21709	단'지'
21710	물동이	21710	물또'~오
21711	짜리	21711	따배'~이
21712	옹기	21712	옹기'
21713	표주박	21713	종그래'~이
21714	키(箕)	21714	치'~이'
21715	떡살	21715	떡'손
21716	다식판	21716	구'절'판(+할머니)
21717	시루	21717	시리'
21717-0-1	-을	21717-0-1	시리'르
21717-0-2	-에	21717-0-2	시리'에
21718	시룻밀	21718	박수'건, 박수'군
21718-0-1	-에	21718-0-1	박수'구네
21719	시룻번	21719	시리분'(+할머니)
21720	부싯돌	21720	부시'똥
21720-0-1	-을	21720-0-1	부시'똥로
21721	부시	21721	부'시'
21722	부싯것	21722	불'씨'(+할머니)
21723	담배	21723	담배'
21724	담뱃대	21724	담배'때, 대
21725	담배설대	21725	설'때
21726	담배통	21726	담배꼭따'리
21727	물부리	21727	물'찌
21728	담배쌈지	21728	담배쌈'지, 부세'미
21729	부채	21729	부'치
21730	토시	21730	토시'
21731	벼루	21731	비'리
21732	가락지	21732	까락'찌
21733	비녀	21733	비네'

21734 참빳
 21734-0-1 -을
 21734-0-2 -에
 21735 얼레빳
 21736 세숫대야
 21737 비누
 21738 도투마리
 21739 활대
 21740 잉앗대
 21741 부터
 21742 도롱이

21734 챔'빳
 21734-0-1 챔'비슬
 21734-0-2 챔'비세
 21735 얼기'빳
 21736 시시때'애
 21737 비'누, 사:분'
 21738 도투마'리
 21739 절구'쥬
 21740 잉애'때
 21741 부터'
 21742 우장'

2.6. 인체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21802 이마빼기
 21803 눈자위
 21804 검은자위
 21805 흰자위
 21806 눈꺼풀
 21807 거적눈
 21808 눈썹
 21808-0-1 -이
 21809 속눈썹
 21809-0-1 -이
 21810 눈두덩
 21811 안경
 21812 안경집
 21813 돋보기
 21814 주름살
 21814-0-1 -이
 21815 앳되다

21801 이'망
 21802 이망빼'기, 이망빼'이
 21803 눈시'불
 21804 꺼문'창
 21805 힌'창'
 21806 눈꺼'풀
 21807 *
 21808 눈썹'
 21808-0-1 눈썹'비
 21809 뽕'눈썹, 잠'눈'썹
 21809-0-1 잠'눈'썹비
 21810 눈두'더비지, 눈뚜'비라
 21811 앵경'
 21812 앵경집'
 21813 돋빠'기
 21814 주'름
 21814-0-1 주'러미
 21815 예'리 보인다

21816	수염	21816	씨임'
21817	구레나룻	21817	구'리씨임
21817-0-1	-을	21817-0-1	구리씨이'물
21818	코	21818	코
21818-0-1	-이	21818-0-1	코'가'
21819	콧수염	21819	코씨'임'
21820	코딱지	21820	코때가'리
21821	콧구멍	21821	코꾸녕', 코꾸정', 코꾸중'
21821-0-1	-을	21821-0-1	코꾸영'을(+할머니), 코꾸멍'을(+할아버지)
21821-0-2	-에	21821-0-2	코꾸녕'에서
21822	콧물	21822	콘'물'
21823	입술	21823	입수구'리
21823-0-1	-에	21823-0-1	위수구'리에, 입수구'리에
21824	다물다	21824	다무'럴따
21825	어금니	21825	어'금니
21826	덧니	21826	덤니'
21827	휘파람	21827	히'빠'람
21828	침	21828	춤'
21829	삼키다	21829	상'킨다, 생'킨다
21830	가래(痰)	21830	가'래'
21831	빨다	21831	반는'다
21832	혀	21832	씨', 히'
21833	혓바늘	21833	히빠'~알, 히빠'늘
21834	꿇불	21834	기'뻘'
21835	귀고리	21835	기거'리
21835-1	귀걸이	21835-1	기마'개
21836	귀지	21836	기'창'
21837	귀이개	21837	기호배'기
21838	소리	21838	소'리
21839	엮듣다	21839	얏뜯'는'다
21840	귀청	21840	기'창'
21841	귀밑	21841	기'밑'
21841-0-1	-을	21841-0-1	기'미'틀
21842	관자놀이	21842	*
21843	기미	21843	기'미, 지'미

21844 주근깨
 21845 턱
 21846 턱수염
 21847 뺨
 21847-1 볼
 21848 가름하다
 21849 보조개
 21850 머리카락
 21851 비듬
 21852 기계충
 21853 정수리
 21854 대머리
 21855 고수머리
 21856 가르마
 21856-1 가르마 타다/가르다/하다
 21857 가마
 21857-1 가마(鼎)
 21857-2 가마(轎)
 21857-3 가마(질그릇)
 21857-4 가마(가마니)
 21858 뒤통수
 21859 뒷덜미
 21860 목
 21861 멍살

21844 주'궁깨
 21845 턱
 21846 턱'씨'엄
 21847 볼'때'기, 뺨'미'라
 21847-1 *
 21848 개름하'다
 21849 보조'개'
 21850 멀꺼디'~이
 21851 찌기'미
 21852 기계'뚝'
 21853 장'고'리
 21854 대머'리
 21855 꼬시랑머'리
 21856 가래'미
 21856-1 탄'다'
 21857 가'매
 21857-1 가매'
 21857-2 가:매'
 21857-3 가'매
 21857-4 가'마~이
 21858 뒤혥때'기
 21859 목털'미
 21860 메가'지(+비칭), 목
 21861 맥'쌀

2.6.2. 상체

21901 어깨
 21902 밑치다
 21903 겨드랑
 21904 등
 21905 가슴
 21906 걸리다
 21907 갈비뼈
 21908 허파

21901 어'깨
 21902 밑친'다'
 21903 제트'랑'
 21904 등터'리
 21905 가'슴
 21906 걸린':다, 걸린':다
 21907 갈'비뼈, 갈'비뼈
 21908 폐, 허폐'

21909	쓸개	21909	썰'개'
21910	콩팔	21910	콩'팔
21910-0-1	-에	21910-0-1	콩'파테
21910-0-2	-을	21910-0-2	콩'파틀
21911	팔	21911	팔
21912	팔꿈치	21912	팔'꿈치
21913	팔짱끼다	21913	각'째찼다
21914	손툇	21914	손툇', 손투'비
21915	오른손	21915	오'른'손
21916	왼손	21916	왼'손, 인'손
21917	다르다	21917	다르'다
21917-0-1	-아서	21917-0-1	달'라서
21917-1	틀리다	21917-1	틀'렐따, 틀레'엔따
21918	왼손잡이	21918	엔작째'비(+할머니), 인작째'비(+할아버지)
21919	엄지손가락	21919	엄지송까'락
21920	집게손가락	21920	두채송까'락
21921	가운뎃손가락	21921	복판송까'락
21922	약손가락	21922	니채송까'락
21923	새끼손가락	21923	앵기송까'락
21924	생인손	21924	생송가'락, 싱송까'락
21925	사마귀	21925	사마'구'
21926	손아귀	21926	소나구'지
21927	손목	21927	소목'(+할머니), 손목'(+할아버지), 팔목'
21928	뺨	21928	뺨'
21929	허리	21929	허'리
21930	지팡이	21930	작때'기(+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 작찌'(+작때'기'보다는 나은 것), 지패'~이(+제작된 것), 작때'기(+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
21931	옆구리	21931	미꾸'리, 여꾸'리(+할머니), 엽꾸'리(+할아버지)
21932	간지럽다	21932	간지랍'따
21933	간지럼	21933	강그람', 강그래'미, 간지람'(+할머니), 간지러'미라(+할아버지)

21934 잔허리
21935 근육
21936 배꼽
21937 목물

21934 연치허'리(+할머니)
21935 근'늑', 근뉴'기'라, 근늑'
21936 배꾸'정', 배꾸'중'
21937 등'물

2.6.3. 하체

22001 복사뼈
22002 발가락
22003 발바닥
22004 발톱
22005 냄새

22001 복숭'씨, 복숭'씨
22002 발까'락, 발갈'락, 발까'라기
22003 발빠'닥
22004 발톱'
22005 내'앰'새(+할아버지),
내'앰'시(+할머니)

22006 고린내
22007 굳은살
22008 정강이
22009 종아리
22010 장판지
22011 회초리
22012 무릎

22006 발똥꾸룽'내
22007 꾸둥'살
22008 장'개~이
22009 장따'리', 종아'리(+매로 때리는 곳)
22010 장판'지'
22011 헤차'리'

22012-0-1 -을

22012-0-1 물'파글

22012-0-2 -에

22012-0-2 물'파게

22013 오금

22013 오'곰, 장시'미'

22014 엉덩이

22014 엉'치'

22015 궁둥이

22015 궁디'~이'

22016 불기

22016 궁디'~이', 불'기'

22017 멍

22017 멍'든'다

22018 멍울

22018 망아'리

22019 가랑이

22019 가래'~이'(+욕설), 사타'리새':

22020 사이

22020 새':

22021 살

22021 사'치'라(+여자 아이에게), 사타'리

22021-0-1 -이

22021-0-1 사'치'

22021-0-2 -을

22021-0-2 사'틀'

22022 사타구니

22022 가래'~이'(+비칭),
사타구'니(+낮춤말 아님)

22023	가래툫	22023	가래토'시
22023-0-1	-을	22023-0-1	가래토'시를
22024	허벅다리	22024	허'북'찌, 허'북'다리(+구별 없음)
22025	넙적다리	22025	허'북'찌, 허'북'다리(+구별 없음)
22026	가부좌(跏趺坐)	22026	양반다'리'
22026-1	가부좌(跏趺坐) <u>치다/앉다/트다/꼬다/하다</u>	22026-1	안는'다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22101	감기', 개질때가'리, 고'뿌'리라
22102	기침	22102	기'침(+신), 지'침(+구)
22103	채채기	22103	지치'기
22104	사레	22104	새알'
22104-1	(사레) <u>들리다/만나다/걸리다</u>	22104-1	드'런'따
22105	딸꾹질	22105	칼딱'질, 딸꾹'쩔
22106	트림	22106	터'럼'
22107	곰보	22107	곰보'(+할아버지), 꿈보'(+할머니), 꿈'보'(+할머니)
22108	천연두	22108	소'임
22109	여드름	22109	이'드럼
22110	학질	22110	도덩'넙, 푸'심'
22110-1	하루거리	22110-1	도덩'넙
22110-2	이틀거리	22110-2	도덩'넙
22110-3	매일 앓는 학질	22110-3	푸'심'
22111	홍역	22111	과'게, 홍진'
22112	볼거리	22112	볼'치'기
22113	땀띠	22113	땀'띠(+할아버지), 땀때'기(+할머니)
22114	두드러기	22114	두드러'기(+구), 두드레'기(+구), 알레르'기(+신)
22115	버짐	22115	버'짐
22115-1	마른버짐	22115-1	마른버'짐
22115-2	진버짐	22115-2	소버'짐
22115-3	도장 버짐	22115-3	소버'짐
22116	문둥이	22116	문디'~이
22116-1	문둥병	22116-1	문디'~이병, 문디'~이빙, 풍'뽕

22117	부스럼	22117	부시'럼'
22117-1	종기	22117-1	종기'
22118	고름	22118	고'럼'
22119	곰기다	22119	갱'긴다
22120	난쟁이	22120	난쟁'~이
22121	사팔뜨기	22121	사티'~이'
22122	언청이	22122	얼치'~이, 께보'
22123	소경	22123	봉사'
22123-1	달달봉사	22123-1	당'달봉사
22124	애꾸	22124	사티'~이'
22125	눈곱	22125	눔꼬바'리(+할머니), 눔끼'비'+할아버지)
22126	다래끼	22126	다래'끼, 다리'께, 다리'끼
22126-1	다래끼(눈 위쪽)	22126-1	*
22126-2	다래끼(눈 아래쪽)	22126-2	*
22127	절름발이	22127	절룩'빠리
22128	곰사등이	22128	곰새'
22129	귀머거리	22129	기먹째'~이, 마기', 먹'통'
22130	말더듬이	22130	더'드미, 말더'더'미
22131	병어리	22131	버'부리, 버부레'~이
22132	잠꾸러기	22132	잠'추'~이
22133	줄리다	22133	줄린'다
22134	하품	22134	하'품
22135	줄음	22135	자'미' 쏘'다진다, 자버럼' 온다, 자부러'미 온다
22135-0-1	-을	22135-0-1	자부러'물
22135-0-2	-에	22135-0-2	자부러'메
22136	잠꼬대	22136	장'꼬'대

2.7. 육아

22201	입덧	22201	입'떨'
22201-0-1	-을	22201-0-1	입'떠'슬
22202	갓난아이	22202	가닐라'아

22203 어린아이
 22204 경기(驚氣)하다
 22205 눅히다
 22206 계집아이
 22207 예쁘다
 22208 사내아이
 22209 아우
 22209-1 아우보다
 22209-2 아우 타다
 22210 야위다
 22211 쌍둥이
 22212 오줌
 22213 똥
 22214 기저귀
 22215 뉘다(排便)
 22216 방귀
 22216-1 꺾다
 22217 구린내
 22218 구리다
 22219 포대기
 22220 기지개
 22220-1 기지개를 켜다/하다/쓰다/펴다
 22221 거짓말
 22222 남부끄럽다
 22223 겁쟁이
 22224 불쌍하다
 22225 죄암죄암
 22226 곤지곤지
 22227 따로따로

 22228 도리도리
 22229 짹짹
 22230 부라부라
 22231 걸음마
 22232 아장아장

22203 얼라'아
 22204 쟁'끼한다
 22205 니'핀다
 22206 따'라'아
 22207 이뿌'다'
 22208 머스마'아
 22209 동생', 아우', 지칭과 호칭 같음
 22209-1 아시본'다
 22209-2 아시'탄다
 22210 애'빌따
 22211 쌍디'~이
 22212 오주'물
 22213 똥
 22214 걸'레, 기주'계
 22215 니'아 주야
 22216 방구'
 22216-1 낀다'
 22217 꾸렁'내
 22218 꾸웅'내난다, 숭'아카다
 22219 두디'기
 22220 지지개'
 22220-1 썬'다
 22221 거짓말'
 22222 녀'부'그럽따, 녀사시'럽따
 22223 겁쟁'~이
 22224 불'쌍'타
 22225 쪼막'쪼막'
 22226 진'진'진'진'
 22227 따'로'섰'따'따'로'섰'따'
 (+섰을 때), 섰'다섰'다섰'다(+섰 때)
 22228 도래'도래'도래'도래'
 22229 짹'짹'짹'
 22230 불메'불메', 불미'불미'
 22231 거름'바
 22232 아장'아장'(+잘 걸을 때),
 쪼작'쪼작'(+한발씩)

22233 넘어지다
 22234 곤두박질
 22235 안기다
 22236 바람개비
 22237 호드기

 22238 숨바꼭질
 22239 소꿉놀이

 22240 사금파리

 22241 연
 22241-1 방패연
 22241-2 가오리연
 22242 걸리다
 22243 고누
 22244 땅뽐기
 22245 팽이
 22246 딱지치기
 22247 구슬
 22248 그네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22249 밑싹개
 22250 굴렁쇠

 22251 굴리다
 22251-0-1 -고
 22251-0-2 -어야
 22252 자전거
 22253 목말
 22254 말타기

 22255 달음박질
 22256 썰매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치다/타다
 22256-2 송곳

22233 너'머절따, 어'퍼절따
 22234 곤두박'질
 22235 앙깁'다, 앵깁'다
 22236 빨랑개'미
 22237 히떠'~이(+할아버지),
 히떠'기(+할머니)
 22238 숨바꼭'질
 22239 뽐주'깨(+할머니),
 뽐주까'리(+할아버지)
 22240 사금파'리(+할머니),
 사암파'리(+할아버지)
 22241 연
 22241-1 방패연'
 22241-2 가'부리연, 조리연'
 22242 걸리'일따, 걸릴':따
 22243 끈
 22244 땅'따'묵끼
 22245 팽'비~이
 22246 떼'기'치기
 22247 구'실
 22248 군데'
 22248-1 뽐'다
 22249 발'판'
 22250 도랑'테'(+할머니),
 동트'레'(+할아버지)
 22251 굴'리고, 돌'린다
 22251-0-1 굴'리고, 돌'리고
 22251-0-2 굴'리야
 22252 자'안'차
 22253 몽'말'
 22254 말'타기(+할머니),
 말노'리(+할아버지)
 22255 모듬박'질
 22256 스께'트
 22256-1 탄'다'
 22256-2 스께'트창

22257 엄살
 22257-1 (엄살) 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
 22258 부아

22257 엄'살
 22257-1 부'린'다
 22258 부'애'

2.8. 친족

22301 아버지
 22301-1 아버지(호칭)
 22302 어머니
 22302-1 어머니(호칭)
 22303 할아버지
 22303-1 할아버지(호칭)
 22304 할머니
 22304-1 할머니(호칭)
 22305 남편
 22305-1 남편(호칭)

22306 아내
 22306-1 아내(호칭)

22307 형
 22307-1 형(호칭)
 22308 아우
 22308-1 아우(호칭)
 22309 누나
 22309-1 누나(호칭)

22310 누이
 22310-1 누이(호칭)

22311 자식
 22312 맡아들

22301 아부'지
 22301-1 아부'지
 22302 어'무'~이
 22302-1 어'무'~이
 22303 하'라'부지
 22303-1 하'라'부지
 22304 할'무'~이
 22304-1 할'무'~이
 22305 남'펜
 22305-1 보'소'(+젊을 때),
 여'보'(+나이가 들어서)
 22306 집사'람(+젊을 때),
 할마'~이(+나이가 들어서)
 22306-1 애들 이름을 부름(+젊어서),
 여'보'(+나이가 들어서)
 22307 형'이다, 헤'~이다(+높이지 않을 때),
 행'님(+일반적)
 22307-1 행'니미네
 22308 동생', 아우'
 22308-1 동생', 이름을 부름
 22309 누'나(+클 때), 누'님(+나이가 들어서)
 22309-1 누'나(+클 때), 누'님(+나이가
 들어서), 누우'야(+클 때)
 22310 여'동'생
 22310-1 남편의 성에다 실을 붙여서
 부름, 이름을 부름
 22311 자'석', 자'식'
 22312 마'지, 장남'

22313	막내	22313	막내'~이
22314	오라버니	22314	뱅'남', 오'빠'
22314-1	오라버니(호칭)	22314-1	오'빠', 오라버'니
22315	오빠	22315	오'빠'
22315-1	오빠(호칭)	22315-1	오'빠'
22316	언니	22316	언'니(+나이에 관계 없이), 히'~이다(+나이가 들어서)
22316-1	언니(호칭)	22316-1	어'니(+나이가 어릴 때), 행'님(+나이가 들어서)
22317	아버	22317	소생'(+아버지의 지칭), 아'들(+어머니가 가리킬 때)
22317-1	아버(호칭)	22317-1	애'비야(+어머니가 부를 때), 이름을 부름(+아버지의 호칭)
22318	어미	22318	자'부
22318-1	어미(호칭)	22318-1	아'가'(+시아버지의 호칭), 야아'야'(+시아머니의 호칭)
22319	손자	22319	손'자
22320	손녀	22320	솔'려
22321	사위	22321	사'우, 사'위
22321-1	사위(호칭)	22321-1	성에 서방을 붙여서 부른다, 장인어른은 이름을 부른다
22322	외손자	22322	이손'자'
22323	외손녀	22323	이솔'려'
22324	꾸짖다	22324	꾸'진다, 나무랜'다(+꾸중)
22324-0-1	-고	22324-0-1	꾸'지고
22324-1	나무라다	22324-1	타이른'다, 푸러 이린'다
22325	총각	22325	총각'
22326	처녀	22326	처~이'(+소), 처자'(+구), 천녀'(+신)
22327	혼인	22327	혼인'
22327-1	혼인식	22327-1	홀'례
22328	혼인 잔치	22328	호넨'잔치
22329	장가가다	22329	장개'간'다
22329-1	시집가다	22329-1	시'집'깎다
22330	혼숫감	22330	혼수'
22331	함	22331	호'남, 혼'함
22332	겹사돈	22332	접'사'돈

22333	새색시	22333	새'대'기, 새'택'
22333-1	새색시(호칭)	22333-1	새'대'기
22334	시아버지	22334	씨'분'님
22334-1	시아버지(호칭)	22334-1	아'분님
22335	시어머니	22335	씨'모'님
22335-1	시어머니(호칭)	22335-1	어'머'님
22336	비위	22336	비우'
22337	아주머니	22337	아지바'님
22337-1	아주머니(호칭)	22337-1	아주머'님(+할머니), 아지바'님(+할아버지)
22338	서방님	22338	아지뻘'
22338-1	서방님(호칭)	22338-1	아지뻘:'
22339	도련님	22339	씨'동'생
22339-1	도련님(호칭)	22339-1	디'람:
22340	형님	22340	동'시
22340-1	형님(호칭)	22340-1	행'님, 형'님
22341	시누이	22341	시'매'
22341-1	시누이(호칭)	22341-1	남편의 성에 서방때'기
22341-2	아가씨	22341-2	애'기'
22341-3	아가씨(호칭)	22341-3	아'가':
22342	올케	22342	올'끼'
22342-1	올케(호칭)	22342-1	올'끼'야
22343	매형	22343	매혜'~이라, 매형', 자영'
22343-1	매형(호칭)	22343-1	자영'
22344	매제	22344	기매'
22344-1	매제(호칭)	22344-1	성+서방
22345	큰아버지	22345	백'부'
22345-1	큰아버지(호칭)	22345-1	크'나'버지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	22345-2	중부'(+지칭), 크'나'버지, 크'나'부지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	22345-3	중부'(+지칭), 크'나'버지
22346	큰어머니	22346	뱅'모'
22346-1	큰어머니(호칭)	22346-1	크'너'매
22346-2	(아버지의 둘째 형의 아내)	22346-2	크'너'매
22346-3	(아버지의 셋째 형의 아내)	22346-3	크'너'매
22347	큰집	22347	큰'집'

22348 작은아버지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22349 작은어머니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22350 삼촌
 22350-1 삼촌(호칭)
 22351 아저씨
 22351-1 아저씨(호칭)
 22352 아주머니
 22352-1 아주머니(호칭)
 22353 조카
 22354 조카딸
 22355 고모
 22355-1 고모(호칭)
 22356 고모부
 22356-1 고모부(호칭)
 22357 고종
 22358 이모
 22358-1 이모(호칭)
 22359 이모부
 22359-1 이모부(호칭)
 22360 이종
 22361 외삼촌
 22361-1 외삼촌(호칭)
 22362 외숙모
 22362-1 외숙모(호칭)
 22363 외종
 22364 외할아버지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22365 외할머니

22348 숙'부', 자나버'지
 22348-1 자나버'지, 자나부'지
 22349 숭'모'
 22349-1 자알'매:
 22350 삼'촌
 22350-1 삼'촌
 22351 당숙', 오촌'
 22351-1 아'재
 22352 종고'모'
 22352-1 고'모, 고'무
 22353 조'카'
 22354 질'려'
 22355 고'무
 22355-1 고'무
 22356 고'모부
 22356-1 고'마:재(+어릴 때), 고'모부
 22357 고'종
 22358 이'모(+할아버지), 이'무(+할머니)
 22358-1 이'모님
 22359 이'모부
 22359-1 이'마:재(+어릴 때), 이'모부
 22360 이'종
 22361 이삼'촌'
 22361-1 이삼'춘'(+나이가 들어서),
 이아'재(+어릴 때)
 22362 이숭'모'(+할아버지),
 이숭'무'(+할머니)
 22362-1 이숭'무'(+나이가 들어서),
 이아'지'매(+어릴 때)
 22363 이사춘'
 22364 이조'부'
 22364-1 이조'부'(+나이가 들어서),
 이조'분'님(+나이가 들어서),
 이할'배'(+어릴 때)
 22365 이할'매'(+어릴 때),
 이할무'~이(+나이가 들어서)

22365-1 외할머니(호칭)
 22366 장인
 22366-1 장인(호칭)
 22367 장모
 22367-1 장모(호칭)
 22368 처남
 22368-1 처남(호칭)
 22369 처남댁
 22369-1 처남댁(호칭)
 22370 할아버지
 22371 할머니
 22372 계모
 22372-1 계부
 22373 아버지
 22373-1 아버지(호칭)
 22374 아주머니
 22374-1 아주머니(호칭)
 22375 사나이
 22376 영감
 22376-1 할망구
 22377 나이
 22377-0-1 -를
 22378 환갑
 22378-1 환갑 잔치
 22379 사투리

22365-1 할'매'
 22366 장이ներ', 재~인'
 22366-1 장이ներ'
 22367 장모'
 22367-1 빙몬'님'
 22368 처남'
 22368-1 처남'
 22369 처수'
 22369-1 처수'씨
 22370 호부래'비
 22371 가보'
 22372 서모'
 22372-1 이부대'비
 22373 아'재(+잘 지낼 때)
 22373-1 택호+아재
 22374 아'지매
 22374-1 택호+아지매
 22375 사나'이
 22376 영감':
 22376-1 할망'구
 22377 나', 나'이'
 22377-0-1 나'로', 나'이'를
 22378 향:갑', 히'갑
 22378-1 향갑짬'치'
 22379 사투'리'

2.9. 동물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22402 민물고기
 22403 피라미
 22404 지느러미

22401 물'꼬'기
 22402 민'물고기
 22403 먹'끼'
 22404 지느르'미

22405	아가미	22405	아가'미
22406	창자	22406	창'사', 창'자'
22407	송사리	22407	피'리
22408	헤엄	22408	헤엄'(+할머니), 히엄'(+할아버지)
22409	메기	22409	미이'기
22410	자라	22410	자래'
22411	거북	22411	거'부기
22412	미꾸라지	22412	미꾸래'~이
22413	개구리	22413	깨구'리
22414	올챙이	22414	올챙'~이
22415	두꺼비	22415	뚜끼'비
22416	거머리	22416	거무'리'
22417	다슬기	22417	소래고디'~이
22418	우렁이	22418	고디'~이(+할아버지), 농'꼬'디~이(+할머니)
22419	고등	22419	고디'~이, 꼬디'~이
22420	달팽이	22420	할미꼬디'~이
22421	새우	22421	쌔배'~이, 쌔애'비
22421-1	새우(민물 대)	22421-1	구별없음
22421-2	새우(민물 소)	22421-2	구별없음
22421-3	새우(바다 대)	22421-3	구별없음
22422-4	새우(바다 소)	22421-4	구별없음
22422	새우젓	22422	새'우저시라(+할아버지), 새배'~이저'지'다
22422-0-1	-이	22422-0-1	새'우저시(+할아버지), 새배'~이저'시'(+할머니)
22423	가재	22423	까재', 상'까재(+할머니)
22424	갈치	22424	칼'치'
22425	고등어	22425	고동'어, 고등'어
22426	가오리	22426	가'부리
22427	가자미	22427	납새'미(+할머니), 녂'치(+할아버지)
22428	멸치	22428	미리'치(+할머니), 미일'치(+할아버지)
22429	명태	22429	멩'태, 밍'태
22429-1	동태	22429-1	동태'
22429-2	황태	22429-2	부'거', 황'태(+할머니), 황태'(+할아버지)

22429-3 노가리
 22429-4 북어
 22429-5 생태
 22430 조기
 22431 도미
 22432 뱀장어
 22433 낚시
 22434 미끼
 22435 낚싯대
 22436 얼레
 22437 조개
 22438 소라

22429-3 멧태 새'끼 말라'양거
 22429-4 강태'
 22429-5 물'멧'태, 생멧'태
 22430 조'구, 조'기
 22431 도움'
 22432 배암재'~이
 22433 낙'수'
 22434 낙수'밥
 22435 낙'순'때(+할머니), 낙순'때(+할아버지)
 22436 물레', 얼'레, 자새'
 22437 밤조'개', 밤조'리'
 22438 소라'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22502 날벌레
 22503 파리
 22503-1 쉬파리
 22504 쉬슬다
 22505 가시
 22506 진딧물
 22506-1 (진딧물이) 끼다/얹다/생기다
 22507 잠자리
 22508 망아깨비
 22508-1 암컷
 22508-2 수컷
 22509 메뚜기
 22510 여치
 22511 사마귀
 22512 벌
 22512-1 (벌을) 치다/기르다/키우다
 22513 땅벌
 22514 나비
 22515 하루살이

22501 벌개'~이
 22502 날벌개'~이
 22503 파래'~이
 22503-1 똥파래'~이
 22504 시씨리'나'알따
 22505 기더'리'
 22506 비리'
 22506-1 비리 찌인'다
 22507 잠자'리(+작은 것), 철기'(+큰 것)
 22508 상그래'비
 22508-1 상그래'비
 22508-2 때때구'리
 22509 메띠'기
 22510 연치'
 22511 연까'시(+할아버지), 영까'시(+할머니)
 22512 버리'
 22512-1 미'긴다, 친'다'
 22513 땡땡'리'
 22514 나'비
 22515 하러사'리

22516	풍뎡이	22516	핑'비~이
22517	모기	22517	모개'~이
22518	장구벌레	22518	갈'가'새~이
22519	매미	22519	매'미(+큰 것), 매리'~이(+큰 것),
	씨라리'~이(+작은 것)		
22520	개똥벌레	22520	까래'~이, 반디'
22521	반딧불	22521	까래'~이불
22522	거미	22522	거'무, 거'미
22523	굼벵이	22523	굼비'~이
22524	구더기	22524	기더'리'
22525	노래기	22525	꼬동각'씨, 문다:벌개'~이, 문다~이벌개'~이
22526	그리마	22526	심바'리'
22527	지네	22527	지'니
22528	개미	22528	개애'미
22529	바구미	22529	바구'미'(+할아버지), 바그'리'(+할머니)
22530	진드기	22530	가분나'리
22531	벼룩	22531	비'룩
22532	이	22532	이'
22532-1	서캐	22532-1	실개'~이, 썰개'~이, 썰가'리
22532-2	빈대	22532-2	빈대'
22533	송충이	22533	송치'~이
22534	귀뚜라미	22534	끼뜨래'미
22535	누에	22535	니'비
22536	고치	22536	뿌'꼬'치, 뽕'꼬'치
22537	번데기	22537	뽕테'기, 뽕디'기
22538	지렁이	22538	꺼시'~이', 지렁'이'
22539	회충(蛔蟲)	22539	꺼시'~이'
22540	소금쟁이	22540	물'배'룩, 물비'룩
22541	방개	22541	까재', 까지', 똥'까'재(+검은 것), 창'까'재(+붉은 것)

2.9.3. 가축

22601	가축	22601	가'축
-------	----	-------	-----

22602	암소	22602	암'소'
22603	송아지	22603	생'치(+할아버지), 송아'치(+할머니)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22604	워'어'이 워'어'이
22605	황소	22605	쑥'쏘', 향'소'
22606	길들이다	22606	질'디'린다
22606-1	소 모는 소리(앞으로 가라)	22606-1	이라'
22606-2	소 모는 소리(그 자리에 서라)	22606-2	워어'
22606-3	소 모는 소리(오른쪽으로 돌라)	22606-3	어떠'이'
22606-4	소 모는 소리(왼쪽으로 돌라)	22606-4	자:라'
22606-5	소 모는 소리(뒤로 물러나라)	22606-5	물러', 물로'
22607	쇠고기	22607	소고'기'
22608	고기(肉)	22608	고'기
22609	돌치	22609	불'기
22610	꼬리	22610	꼬래'~이
22611	망아지	22611	망아'지
22612	당나귀	22612	당나'구, 당나'기
22613	갈기	22613	목털'
22614	돼지	22614	대'애'지(+다), 도야'지(+소)
22614-1	멧돼지	22614-1	멧돼'에'지, 산돼'에'지
22615	주둥이	22615	주디'~이
22616	돼지 머리	22616	대지대가'리
22617	돼지우리	22617	대지우'리, 우'리
22617-1	오래오래	22617-1	똥'똥'똥'
22618	개(犬)	22618	개
22618-1	수캐	22618-1	쑥'개', 쑥'깨'
22618-2	암캐	22618-2	암'깨', 양'깨'
22619	강아지	22619	강새'~이
22620	염소	22620	염새'~이
22621	고양이	22621	개~이'
22621-1	수고양이	22621-1	쑥'개'~이
22621-2	암고양이	22621-2	암'깨'~이
22622	토끼	22622	토까'~이
22623	거위(鵞)	22623	고'~이'
22624	암탉	22624	암'딱'(+다), 암'딸'(+소)
22625	병아리	22625	뽕'가'리(+할머니), 뽕가'리(+할아버지), 뽕개'~이(+할아버지)

22626 모으다
 22627 수탉
 22627-0-1 -이
 22628 벉슬(鷄冠)
 22629 부리
 22630 모이
 22630-0-1 -을
 22630-1 모이다
 22631 닭털
 22632 닭똥
 22633 어리
 22634 닭장
 22635 둥우리
 22636 날개
 22637 깃
 22637-0-1 -을

22626 모다'안다
 22627 장딱', 장팔'
 22627-0-1 장따'키
 22628 비'슬(+할머니), 비'실(+할아버지)
 22629 닭주디'~이
 22630 모'시
 22630-0-1 모'시를
 22630-1 모인'다
 22631 닭트리'기
 22632 닭똥', 달구똥', 달똥'
 22633 빼가'리통, 빼개'~이통
 22634 달구'통
 22635 닭 알'통', 알'통'
 22636 날'개'
 22637 기'시'라고도, 닭트리'기,
 달구트리'기
 22637-0-1 닭기'슬', 닭트리'기를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22702 살쾡이
 22703 여우
 22704 원숭이
 22705 사슴
 22706 노루
 22706-0-1 -이
 22706-0-2 -를
 22707 고슴도치
 22708 두더지
 22709 족제비
 22710 뱀
 22711 도마뱀
 22712 구렁이

22701 호래'~이'
 22702 썰'깨~이
 22703 야시'
 22704 원시'~이'
 22705 사'슴, 사'슴
 22706 노리'
 22706-0-1 노리'가
 22706-0-2 노리'를
 22707 고슴도'치
 22708 디'지기
 22709 쪽찌'비, 쪽찌'비
 22710 구리'(+큰 것), 뱀'암'(+작은 것)
 22711 도'~오배미(+할머니),
 도'마뱀(+할아버지)
 22712 누굴미'기, 능'구리, 진대'(+누른 색)

22713	살모사	22713	살모'사
22714	생쥐	22714	새앙'지'
22715	박쥐	22715	박찌'
22716	거꾸로	22716	꺼'꿀로
22717	다람쥐	22717	다람'지
22718	새(鳥)	22718	날짚'승', 새
22719	꿩지	22719	꿩'지, 새꼬래'~이
22720	솔개	22720	소리'개
22721	독수리	22721	독수'리
22722	제비(燕)	22722	연자'(+배가 붉은 제비), 재:비'
22723	두루미	22723	두리'미
22724	소쩍새	22724	소작'새(+할아버지), 소쪽'새(+할머니)
22725	꿩	22725	꿩
22726	장끼	22726	쟁'끼
22727	까투리	22727	까토'리
22727-1	꺼병이	22727-1	꿩새'끼
22728	종달새	22728	노고자'리(+다), 종달'새(+소)
22729	빠꾸기	22729	빠꼭'새(+할아버지), 풀'꼭새(+할머니)
22730	기러기	22730	기'러'기
22731	뜸부기	22731	뜸부'기, 뜸북'새
22732	올빼미	22732	오'빼미, 올'빼미
22733	까치	22733	칸채'~이', 칸치'
22734	딱따구리	22734	딱따구'리, 때때구'리
22735	털	22735	털',
22735-0-1	-을	22735-0-1	털'로'
22736	올가미	22736	골개'~이

2.10. 식물

2.10.1. 꽃과 풀

22801	진달래꽃	22801	창'꼴'
-------	------	-------	------

22802	철쭉꽃	22802	개꼬'치'라
22803	민들레	22803	민들'레'(+신), 소똥구부'리~이(+구)
22804	맨드라미	22804	달구비'슬쫂, 비'슬쫂
22805	봉선화	22805	봉송'아'
22806	짜리	22806	개땡까'알(+작고 검은 것, 집 없음), 땡까'알, 참땡까'알
22807	해바라기	22807	해'바'라기(+할머니), 해바라'기(+할아버지)
22808	꽃봉오리	22808	꼬뽕오'리
22809	시들다	22809	씨드'러진다
22810	질경이	22810	빼뿌재'~이
22810-1	질경이(식물이름)	22810-1	구별 없음
22810-2	질경이(식용이름)	22810-2	구별 없음
22811	빨기	22811	피'끼'
22812	비름	22812	참비'름'
22813	쇠비름	22813	소비'름'
22814	썸바귀	22814	썸'내'~이
22815	고들빼기	22815	꼬들빼'기, 썸'내'~이
22815-1	고들빼기(식물이름)	22815-1	구별 없음
22815-2	고들빼기(식용이름)	22815-2	구별 없음
22816	고사리	22816	고사'리, 꼬사'리
22817	고비	22817	개꼬'사리(+고비와는 다른 종류)
22818	도깨비바늘	22818	도동'넙까'시
22819	도꼬마리	22819	도'꾸마리(+할머니), 도꾸마'리(+할아버지)
22820	억새	22820	썸'때
22821	갈대	22821	갈때'
22822	이끼	22822	이'끼
22823	아주까리	22823	아주까'리
22824	담쟁이	22824	담쟁'이'
22825	수세미	22825	쭈세'미
22826	덩굴	22826	넙'쿨
22827	덤불	22827	덤불'
22827-1	가시덤불	22827-1	까시덤불'
22828	잔디	22828	짚디'

2.10.2. 나무

22901	소나무	22901	솔라'무'
22902	솔방울	22902	소빠'~알
22903	관솔	22903	간솔'
22904	솔가리	22904	깎'비
22905	그러모으다	22905	끔는'다'
22906	뽕나무	22906	뽕나'무'
22907	오디	22907	오덜'깨(+할아버지), 오둘'깨(+할머니)
22908	도토리	22908	꿀'밤
22909	떡갈나무	22909	꿀밤나'무', 떡'꿀'밤나무
22910	상수리	22910	꿀'밤
22911	옷	22911	온
22911-0-1	-으로	22911-0-1	오'틀
22912	버드나무	22912	수'양'버들
22913	느티나무	22913	기'목나무
22914	그림자	22914	그룻'지
22914-1	그늘	22914-1	그느'레
22915	숲	22915	수'피'
22915-0-1	-을	22915-0-1	수'플'
22915-0-2	-에	22915-0-2	수'폐
22916	시원하다	22916	서연하'다
22917	절레	22917	절레'
22918	칠	22918	치'기'다(+할아버지), 칠개'~이(+할머니)
22918-0-1	-에	22918-0-1	칠개'~이에, 치'게(+할아버지)
22919	가지(枝)	22919	가재'~이
22920	끝	22920	끈티'~이
22920-0-1	-이	22920-0-1	끈티'~이가
22920-0-2	-에	22920-0-2	끄티'~이에, 끄'테 , 끈티'~이: 안'잔따, 낭낭끈티'~ 이라(+새 등이 앉으면 흔들거리는 가느다란 나무의 끝)
22920-0-3	-을	22920-0-3	끈티'~이를
22921	삭정이	22921	삭'다리
22921-1	삭정이를 따다/꺾다/하다	22921-1	꿈년'다

22922 나무
 22922-0-1 -을
 22922-0-2 -에
 22923 나무하다
 22924 그루터기
 22924-1 그루터기(베어내고 남은 부분)
 22925 등걸
 22926 장작
 22927 패다
 22928 부스러기
 22929 숯
 22929-0-1 -이
 22929-0-2 -을
 22929-0-3 -에
 22930 불잉걸
 22931 짝
 22932 잎
 22932-0-1 -을
 22932-1 잎사귀
 22933 가랑잎
 22934 뿌리

22922 나무'
 22922-0-1 나무'를, 낭'글
 22922-0-2 나무'에, 낭'게
 22923 나무해 가': 온'나
 22924 둥구'리
 22924-1 끌티'기
 22925 등'치
 22926 장'작
 22927 따깰'다, 쪼깰'다, 팬'다'
 22928 나무뿌시리'기, 뿌시리'기, 피'죽
 22929 숯
 22929-0-1 수'치
 22929-0-2 수'틀
 22929-0-3 수'테
 22930 숯'뿔
 22931 싸'기라
 22932 이파'리
 22932-0-1 이'플', 이파'리를
 22932-1 입사'구
 22933 갈방입사'구
 22934 뿌리'~이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23002 돌배
 23003 복숭아
 23004 꽃감
 23005 홍시
 23006 고욤
 23007 살구
 23008 앵두
 23009 자두
 23010 오얏
 23010-0-1 -을

23001 능겅'
 23002 돌'배'
 23003 복숭'
 23004 꼬'깸'
 23005 홍'시
 23006 기'얌'
 23007 살구'
 23008 앵두'
 23009 자두'
 23010 풍개', 외'얀니(+한자 훈으로만 사용)
 23010-0-1 풍개'를 자둔'줄 아'랄따

23011 석류
 23012 모과
 23013 과일
 23014 꼭지
 23015 밤
 23015-1 밤송이
 23015-2 풋밤
 23015-3 알밤
 23015-4 쌍둥밤
 23016 보늬
 23017 호두
 23018 가래(楸子)
 23019 개암
 23020 머루
 23021 다래
 23022 청미래덩굴
 23023 으름
 23024 참외
 23025 딸기
 23025-1 딸기(밭, 재배)
 23025-2 딸기(밭, 야생)
 23025-3 딸기(들, 재배)
 23025-4 딸기(들, 야생)
 23025-5 딸기(산, 재배)
 23025-6 딸기(산, 야생)
 23026 뱀딸기
 23027 마름(菱)

23011 성'노'(+할머니), 성'뉴'(+할아버지)
 23012 모개'
 23013 과실', 과일'
 23014 꼭'찌
 23015 밤
 23015-1 밤시'~이
 23015-2 푸'뽕'
 23015-3 알'밤'
 23015-4 쪽'밤, 쌍디'~이밤
 23016 버니':
 23017 추'자
 23018 *
 23019 깨목'
 23020 머리'
 23021 다'래'
 23022 망개'
 23023 어'름
 23024 이:
 23025 딸기'
 23025-1 딸기'
 23025-2 배'암'딸
 23025-3 *
 23025-4 배'암'딸
 23025-5 *
 23025-6 나무'딸, 산'딸
 23026 배'암'따리고
 23027 말'밤

2.11. 자연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23101 꼭때'~이, 상꼭때'기,
 꼭때'기(+할머니),

		산꼭대'기(+할아버지), 산뽕오'리(+할머니)
23102	기슭	23102 상기슬'기라
23102-0-1	-에	23102-0-1 상기슬'기에
23103	꼴짜기	23103 꼴짜'기
23104	메아리	23104 미아'리
23105	고함	23105 과'암지른다
23105-1	(고함) <u>치다/지르다/하다</u>	23105-1 지른'다, 과':물 지른'다(+할머니), 과':물 친'다'(+할아버지)
23106	묘	23106 미, 산'소
23107	뿔자리	23107 미터'
23107-1	광중	23107-1 구'단', 구'시'라
23108	구덩이	23108 구디'기
23109	비탈	23109 빼'알, 빼'탈, 까폴막'(+경사가 심한 곳), 비'탈
23110	가파르다	23110 고'고'파다(+할머니), 까파르'다(+할아버지)
23111	언덕	23111 어덕'
23112	낭떠러지	23112 낭떠러'지
23113	들(野)	23113 들:
23113-0-1	-에	23113-0-1 드레'
23114	벌	23114 *(+벌'은 물인 고인 자리라는 뜻)
23115	갈림길	23115 갈린'다, 상그랑'꼴
23116	헤어지다	23116 헤'어진다
23117	바위	23117 바'우, 방'구
23117-0-1	-을	23117-0-1 방'구를
23117-0-2	-에	23117-0-2 바'우에
23118	돌(石)	23118 돌, 돌미'~이, 돌빼'~이, 멍'돌'(+자갈보다 큰 것)
23118-0-1	-을	23118-0-1 도를'
23118-0-2	-에	23118-0-2 도레'
23119	자갈	23119 자갈'
23120	모래	23120 모'래, 몰'개
23120-0-1	-를	23120-0-1 모'래를, 몰'개
23121	진흙	23121 진흙'(+할머니), 진흙'(+할아버지)
23121-1	찰흙	23121-1 찌:득'(+할머니), 찌든'(+할아버지)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23201	무'를', 물
23202	거품	23202	거'품
23203	깨운하다	23203	깨운하'다
23204	도랑	23204	도랑'
23204-1	봇도랑	23204-1	보또랑'
23205	독	23205	독', 둘', 두'기라, 독:
23206	잠기다	23206	장기'인다, 쟁기'인다
23207	개울	23207	깨독'
23208	내(川)	23208	내
23209	미역 감다	23209	모'욕'한다, 목'잠'는다
23210	발가숭이	23210	빨가디'~이
23211	목욕하다	23211	목'칸'한다, 몸'쌩'는다, 모'욕'한다, 목'잠'는다
23212	수채	23212	수'채'
23213	개골창	23213	돌창'
23214	시궁창	23214	구깨구디'기
23215	웅덩이	23215	웅'동
23216	수렁	23216	시비구디'~이, 시비구디'기
23217	늪	23217	누'피'라
23217-0-1	-에	23217-0-1	누'페
23218	배(船)	23218	배:
23219	나루터	23219	나루'까(+할머니), 나루'터(+할아버지)
23220	돛	23220	도'치라
23220-0-1	-에	23220-0-1	도'테
23221	돛대	23221	도'때
3222	돛배	23222	도'판배
23223	돛 줄	23223	도'줄
23224	돛 줄	23224	갈구'리줄
23225	거루	23225	배
23226	상앗대	23226	간때'~이
23227	개(필)	23227	개'빨'
23228	물	23228	무'테
23228-0-1	-으로	23228-0-1	무'테로
23229	밀물	23229	밀'물

23230 썰물
23231 가라앉다
23232 그물
23233 해녀

23230 썰'물
23231 까'라'안는'다
23232 그'물'
23233 해녀'

2.11.3. 시후

23301 새벽
23302 새벽밥

23303 아침

23304 아침밥

23305 점심
23306 저녁
23307 설빏하다
23308 노을
23308-0-1 -을

23309 불그레하다
23310 해거름
23311 땅거미
23312 봄
23313 여름
23314 더위
23315 추위
23316 가을
23316-0-1 -에
23317 겨울
23317-0-1 -에
23318 얼음
23319 오늘
23320 내일

23301 새벽'
23302 새벽'빳, 새 벵'빳(+할아버지),
새 벵'빳(+할머니)
23303 아침', 아적'(+할머니, 구),
아직'(+할아버지, 구),
아침'(+할머니, 신)
23304 아침'밥, 아적'빠비라(+할머니),
아직'빳(+할아버지)
23305 저섬', 점심', 점심'
23306 저녁', 지역'때'
23307 *
23308 북'새(+할아버지), 옥'새(+할머니)
23308-0-1 북'새를(+할아버지),
옥'새를(+할머니)
23309 빨그리하'다
23310 저녁나'질, 저녁따'비다, 해거'름'
23311 땅'꿈'
23312 봄
23313 여'름
23314 더'부(+할아버지), 더'비(+할머니)
23315 추'부'(+할아버지), 추'비'(+할머니)
23316 가실, 가을'
23316-0-1 가으'레
23317 거'울(+할아버지), 게'울(+할머니)
23317-0-1 게'우레
23318 어'름
23319 오'~을, 오'날, 오'늘
23320 내'일

23321	모레	23321	모'레'
23322	글피	23322	내'모레
23323	그글피	23323	고'모레
23324	어제	23324	어'제, 어'지
23325	그저께	23325	아:레', 그저께', 아래'
23326	그그저께	23326	저아'레'
23327	훗날	23327	후제'(+할아버지), 훈날'(+할머니)
23328	하룻날	23328	초하로'(+할머니), 초하루'(+할아버지)
23329	이튿날	23329	초이'틀
23330	사흘날	23330	초사'알
23331	나흘날	23331	초나'알
23332	닷셋날	23332	초다'쌔
23333	엿셋날	23333	초여'세(+할아버지), 초여'쌔(+할머니)
23334	이렛날	23334	초이'리
23335	여드렛날	23335	초여드'레
23336	아흐렛날	23336	초아'아레, 초아'으레, 초아'호레(+신경써서)
23337	열흘날	23337	초여'얼
23338	하루	23338	하로'
23339	이틀	23339	이'틀
23340	사흘	23340	사'을, 사'알
23341	나흘	23341	나'알
23342	닷새	23342	다'새
23343	엿새	23343	여'세
23344	이레	23344	이'리
23345	여드레	23345	여'드레
23346	아흐레	23346	아'호레
23347	열흘	23347	여'를, 여'을
23348	한나절	23348	반나'절', 한나'절
23348-1	반나절	23348-1	중'참때, 참때'
23349	그믐	23349	그'믐'
23349-1	그믐께	23349-1	그'믐'끼
23350	지금	23350	지'금'(+할머니), 지'꿈'(+할아버지)
23351	아직	23351	안'주
23352	이제	23352	인자'
23353	이미	23353	이'미

23354 요즈음
23355 금방

23354 오새';, 요새':
23355 금'방, 망'무'얼따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23401-0-1 -이
23401-0-2 -을
23402 따스하다
23403 아지랑이
23404 응달

23405 양달
23406 비(雨)
23407 가랑비
23408 이슬비
23409 안개
23410 눈개
23411 무지개
23412 소나기
23413 갑자기

23414 홍수
23415 번개
23416 천둥
23417 벼락
23418 무섭다
23419 함박눈
23420 싸락눈
23421 말자국
23422 진눈깨비
23423 우박
23424 고드름

23401 비'테
23401-0-1 비'치
23401-0-2 비'틀
23402 따뜻하'다
23403 아지랭'이
23404 음'달(+할아버지), 음달'(+할머니),
음'달'(+할머니), 음'달(+할아버지),
음'지(+할아버지)
23405 양'지, 양달'(+할아버지)
23406 비, 비'가'
23407 가랑'비(+가랑비와 이슬비의 구별 없음)
23408 가랑'비, 이슬'비
23409 안개'
23410 *
23411 무'지'개
23412 소내'기
23413 가악중'에', 각쫑'에'(+할아버지),
갑짜'기(+할머니),
과악쫑'에'(+할아버지)
23414 홍'수
23415 병'개'
23416 노승'
23417 베'락', 비'락'
23418 무서'얼따(+무서웠다), 무섭'따
23419 함방'눈
23420 싸랑'눈
23421 발짜국'(+할머니), 발짜욱'(+할아버지)
23422 진눈깨'비
23423 우박'
23424 고'두'름, 고'드'름

23425 햇무리
23426 달무리
23427 둥글다
23428 은하수
23429 금성

23430 가뭄
23431 마르다
23431-0-1 -어서

23432 위
23433 아래
23434 왼쪽
23435 오른쪽
23436 곁

23436-0-1 -에

23437 회오리바람
23438 북풍
23439 남풍
23440 동풍
23441 서풍

23425 해'문'

23426 달'문'

23427 둥'굴다, 둥'글다

23428 은나'수

23429 새빨', 시빨', 새빨',
새베'리'(+할머니),
새비'리'지(+할머니),
새빨'(+할아버지), 새빨'(+할아버지)

23430 가'뭄'

23431 마른'다

23431-0-1 말'라서

23432 우'우, 우':, 위

23433 미'테, 아'래

23434 왼'쪽, 왼'쪽, 왼':쪽

23435 오'른'쪽

23436 저'트로

23436-0-1 저'테

23437 호드레'기

23438 북'풍'

23439 마'풍'

23440 동'풍'

23441 서'풍'

참고어휘

=2 곶배'

=2 껌등'개

=2 미강'(+신, 현미 상태에서 나오는 것)

=2 미영때까'리반덴'다'(+특히 목화밭에)

=2 싹꾼'

=2 위'통'쟁기

=2 품'파'리

=2 풍노'(+부엌에서 사용하는 것)

=2 개상판'

=2 도래상'

=2 도래파'~이라

=2 두리판'

- =2 밥국시'~이요
- =2 사모판'
- =2 수저(+순가락과 젓가락을 합해서)
- =2 담'쩍'
- =2 골땀'(+골에 있는 마을)
- =2 똥추마'리(+사기로 만든 똥장군)
- =2 박각판'(+경사진 가 부분)
- =2 해~이'(안쪽이 없는 도포)
- =2 손'도'장이네 손'또'장(+작은 것)
- =2 고'깁'(+큰 것)
- =2 아래'땀(+아랫마을)
- =2 곱방'대(+작은 것)
- =2 말꼐'(+웃놀이 말의 방언형)
- =2 누'룽나무(+느티나무와 비슷한 작은 것, 약으로 사용)
- =2 쏘쏘'리'꿀'밤(+작은 것)
- =2 서'갈풍(+서남풍)
- =2 달강녕'쿨(+보라색꽃 없고 가는 줄기식물, 할아버지의 칠개'~이)
- =2 새바':적'(=새벽아침, 새벽아침밥)(+할아버지)
- =2 새비아적'(=새벽아침, 새벽아침밥)(+할머니)



제3편 음 운

3.1. 음운 체계

3.1.1. 단모음

31001-0-1 테(輪)-이/가

31001-0-2 테(輪)-보다

31001-0-1 티'가

31001-0-2 티카'마

31002-0-1 태(胎)-이/가

31002-0-2 태(胎)-보다

31002-0-1 태'가

31002-0-2 태카'마

31003-0-1 떼(群)-이/가

31003-0-2 떼(群)-보다

31003-0-1 띠'가'

31003-0-2 띠'카'마

31004-0-1 때(時)-이/가

31004-0-2 때(時)-보다

31004-0-1 때'가'

31004-0-2 때'카'마

31005-0-1 틀(機)-이/가

31005-0-2 틀(機)-보다

31005-0-1 터'리'

31005-0-2 털'카'마

31006-0-1 털(毛)-이/가

31006-0-2 털(毛)-보다

31006-0-1 터'리

31006-0-2 털카'마

31007-0-1 글(文)-이/가

31007-0-2 글(文)-보다

31007-0-1 거'리'

31007-0-2 글'카'마

31008-0-1 길(옷)-이/가

31008-0-2 길(옷)-보다

31008-0-1 거:리'

31008-0-2 길:카'마'

31009-0-1 기(旗)-이/가

31009-0-2 기(旗)-보다

31009-0-1 기'가

31009-0-2 기카'마

31010-0-1	귀(耳)-이/가	31010-0-1	기'가'
31010-0-2	귀(耳)-보다	31010-0-2	기'카'마
31011-0-1	시(生時)-이/가	31011-0-1	시'가'
31011-0-2	시(生時)-보다	31011-0-2	시'카'마
31012-0-1	취(蠅卵)-이/가	31012-0-1	시'가'
31012-0-2	취(蠅卵)-보다	31012-0-2	시'카'마
31013-0-1	쇠(鐵)-이/가	31013-0-1	썰'가'
31013-0-2	쇠(鐵)-보다	31013-0-2	썰'카'마
31014-0-1	외:국(外國)-이/가	31014-0-1	왜'구'기'
31014-0-2	외:국(外國)-보다	31014-0-2	왜'국'카'마
31015-0-1	왜'국(倭國)-이/가	31015-0-1	왜'구'기'
31015-0-2	왜'국(倭國)-보다	31015-0-2	왜'국'카'마
31016-0-1	쉬:다(休)-이/가		
31016-0-2	쉬:다(休)-보다		
31017-0-1	쇠:다(철을~)-이/가		
31017-0-2	쇠:다(철을~)-보다		
31018-0-1	배(布)-이/가	31018-0-1	비'가'
31018-0-2	배(布)-보다	31018-0-2	비'카'마
31019-0-1	배(船)-이/가	31019-0-1	배'가'
31019-0-2	배(船)-보다	31019-0-2	배'카'마
31020-0-1	배(腹)-이/가	31020-0-1	배'가'
31020-0-2	배(腹)-보다	31020-0-2	배'카'마
31021-0-1	(떡)매-이/가	31021-0-1	매'가'
31021-0-2	(떡)매-보다	31021-0-2	매'카'마

31022-0-1 매(鞭)-이/가

31022-0-2 매(鞭)-보다

31022-0-1 매'가'

31022-0-2 매'카'마

31023-0-1 메:다(擔)-이/가

31023-0-2 메:다(擔)-보다

31024-0-1 매:다(繫)-이/가

31024-0-2 매:다(繫)-보다

31025-0-1 떼:다(分離)-이/가

31025-0-2 떼:다(分離)-보다

31026-0-1 때:다(炊)-이/가

31026-0-2 때:다(炊)-보다

31027-0-1 베:다(切斷)-이/가

31027-0-2 베:다(切斷)-보다

31028-0-1 배:다(孕胎)-이/가

31028-0-2 배:다(孕胎)-보다

31029-0-1 세:다(算)-이/가

31029-0-2 세:다(算)-보다

31030-0-1 새:다(漏泄)-이/가

31030-0-2 새:다(漏泄)-보다

31031-0-1 뒤(後)-이/가

31031-0-2 뒤(後)-보다

31031-0-1 디가'

31032-0-1 되(升)-이/가

31032-0-2 되(升)-보다

31032-0-1 디'가'

31033-0-1 게:(蟹)-이/가

31033-0-2 게:(蟹)-보다

31033-0-1 끼가'

31034-0-1 개:(犬)-이/가
31034-0-2 개:(犬)-보다

31034-0-1 개가'

3.1.2. 이중모음

31035-0-1 여럿(多)-이/가
31035-0-2 여럿(多)-보다
31035-0-3 여럿(多)-을/를

31035-0-1 여'러시
31035-0-2 여'러시카'마
31035-0-3 여'러시를

31036-0-1 물결(波)-이/가
31036-0-2 물결(波)-보다
31036-0-3 물결(波)-을/를

31036-0-1 울렁'기
31036-0-2 울렁'기카'마
31036-0-3 울렁'기를

31037-0-1 예:의(禮儀)-이/가
31037-0-2 예:의(禮儀)-보다
31037-0-3 예:의(禮儀)-을/를

31037-0-1 예이'가
31037-0-2 예'이카마
31037-0-3 예이'를

31038-0-1 계:획(計劃)-이/가
31038-0-2 계:획(計劃)-보다
31038-0-3 계:획(計劃)-을/를

31038-0-1 계헤'기'
31038-0-2 계헝카'마
31038-0-3 계헤'글'

31039-0-1 규칙(規則)-이/가
31039-0-2 규칙(規則)-보다
31039-0-3 규칙(規則)-을/를

31039-0-1 구'치기
31039-0-2 규'칙카'마
31039-0-3 규'치글

31040-0-1 휴일(休日)-이/가
31040-0-2 휴일(休日)-보다
31040-0-3 휴일(休日)-을/를

31040-0-1 휴'이리
31040-0-2 후'일카'마
31040-0-3 휴'일을

31041-0-1 교통(交通)-이/가
31041-0-2 교통(交通)-보다
31041-0-3 교통(交通)-을/를

31041-0-1 교'통이
31041-0-2 교'통카마
31041-0-3 교'통을

31042-0-1 효:자(孝子)-이/가
31042-0-2 효:자(孝子)-보다
31042-0-3 효:자(孝子)-을/를

31042-0-1 효자'가
31042-0-2 효자카'마
31042-0-3 효자'를'

31043-0-1	웬 일(何事)-이/가	*	
31043-0-2	웬 일(何事)-보	*	
31043-0-3	웬 일(何事)-을/를	*	
31044-0-1	퀘:(짹)(櫃)-이/가		31044-0-1 기가'
31044-0-2	퀘:(짹)(櫃)-보다		31044-0-2 기카'마'
31044-0-3	퀘:(짹)(櫃)-을/를		31044-0-3 기를'
31045-0-1	왜 란(倭亂)-이/가		31045-0-1 왜'나니
31045-0-2	왜 란(倭亂)-보다		31045-0-2 왜'난카'마
31045-0-3	왜 란(倭亂)-을/를		31045-0-3 애'라늘
31046-0-1	헛대(鷄架)-이/가		31046-0-1 헛'때'가
31046-0-2	헛대(鷄架)-보다		31046-0-2 해'때'카'마
31046-0-3	헛대(鷄架)-을/를		31046-0-3 해'때'를
31047-0-1	원 망(怨望)-이/가		31047-0-1 원 망'이'
31047-0-2	원 망(怨望)-보다		31047-0-2 원 망카'마
31047-0-3	원 망(怨望)-을/를		31047-0-3 원 망'을'
31048-0-1	권:투(拳鬪)-이/가		31048-0-1 건 투'가'
31048-0-2	권:투(拳鬪)-보다		31048-0-2 건 투'카'마
31048-0-3	권:투(拳鬪)-을/를		31048-0-3 건 투'를'
31049-0-1	의 논(議論)-이/가		31049-0-1 으 누'니'
31049-0-2	의 논(議論)-보다		31049-0-2 이 논카'마
31049-0-3	의 논(議論)-을/를		31049-0-3 으 노'늘'
31050-0-1	무늬(紋)-이/가		31050-0-1 문 채'가
31050-0-2	무늬(紋)-보다		31050-0-2 문 채카'마
31050-0-3	무늬(紋)-을/를		31050-0-3 문 채'를
31051-0-1	왕(王)-이/가		31051-0-1 왕'이
31051-0-2	왕(王)-보다		31051-0-2 왕카'마
31051-0-3	왕(王)-을/를		31051-0-3 왕'을

31052-0-1 과자(菓子)-이/가
 31052-0-2 과자(菓子)-보다
 31052-0-3 과자(菓子)-을/를

31052-0-1 과'자가
 31052-0-2 과'자카'마
 31052-0-3 과'자를

3.1.3. 장모음 · 성조

31053-0-1 일(一)-이/가
 31053-0-2 일(一)-보다

31053-0-1 이'리'
 31053-0-2 일'카'마

31054-0-1 일:(事)-이/가
 31054-0-2 일:(事)-보다

31054-0-1 이리'
 31054-0-2 일카'마'

31055-0-1 매(鞭)-이/가
 31055-0-2 매(鞭)-보다

31055-0-1 매'가'
 31055-0-2 매'카마

31056-0-1 매:(驚)-이/가
 31056-0-2 매:(驚)-보다

31056-0-1 매가'
 31056-0-2 매카'마'

31057-0-1 밤(夜)-이/가
 31057-0-2 밤(夜)-보다

31057-0-1 바'미'
 31057-0-2 밤'카'마

31058-0-1 밤:(栗)-이/가
 31058-0-2 밤:(栗)-보다

31058-0-1 바미'
 31058-0-2 방카'마'

31059-0-1 눈(眼)-이/가
 31059-0-2 눈(眼)-보다

31059-0-1 누'니'
 31059-0-2 눈'카'마

31060-0-1 눈:(雪)-이/가
 31060-0-2 눈:(雪)-보다

31060-0-1 누니'
 31060-0-2 눈카'마'

31061-0-1 말(馬)-이/가
 31061-0-2 말(馬)-보다

31061-0-1 마'리
 31061-0-2 말카'마

31062-0-1 말(斗)-이/가
 31062-0-2 말(斗)-보다

31062-0-1 마'리'
 31062-0-2 말'카'마

31063-0-1 말:(言)-이/가
31063-0-2 말:(言)-보다

31063-0-1 마리'
31063-0-2 말카'마'

31064-0-1 손(客)-이/가
31064-0-2 손(客)-보다

31064-0-1 소'니
31064-0-2 송카'마

31065-0-1 손(手)-이/가
31065-0-2 손(手)-보다

31065-0-1 소'니'
31065-0-2 송'카'마

31066-0-1 손:(孫)-이/가
31066-0-2 손:(孫)-보다

31066-0-1 소니'
31066-0-2 손카'마'(+할아버지),
송카'마'(+할머니)

31067-0-1 배(梨)-이/가
31067-0-2 배(梨)-보다

31067-0-1 배'가
31067-0-2 배카'마

31068-0-1 배:(倍)-이/가
31068-0-2 배:(倍)-보다

31068-0-1 배가'
31068-0-2 배카'마'

31069-0-1 벌(罰)-이/가
31069-0-2 벌(罰)-보다

31069-0-1 버'리'
31069-0-2 벌'카'마

31070-0-1 벌:(蜂)-이/가
31070-0-2 벌:(蜂)-보다

31070-0-1 버리'
31070-0-2 벌카'마'

31071-0-1 솔(松)-이/가
31071-0-2 솔(松)-보다

31071-0-1 소'리'
31071-0-2 솔'카'마

31072-0-1 솔:(刷)-이/가
31072-0-2 솔:(刷)-보다

31072-0-1 소리'
31072-0-2 솔카'마'

31073-0-1 줄(鉉)-이/가
31073-0-2 줄(鉉)-보다

31073-0-1 주'리'
31073-0-2 줄'카'마

31074-0-1 줄:(연장)-이/가
31074-0-2 줄:(연장)-보다

31074-0-1 주리'
31074-0-2 줄카'마'

31075-0-1 돌:(石)-이/가
31075-0-2 돌:(石)-보다

31075-0-1 도리'
31075-0-2 돌카'마'

31076-0-1 담(牆)-이/가
31076-0-2 담(牆)-보다

31076-0-1 다'미'
31076-0-2 당'카'마

31077-0-1 담:(膽)-이/가
31077-0-2 담:(膽)-보다

31077-0-1 다미'
31077-0-2 당카'마'

31078-0-1 들:(野)-이/가
31078-0-2 들:(野)-보다

31078-0-1 드리'
31078-0-2 들카'마'

31079-0-1 달-(懸)-고
31079-0-1 달-(懸)-더라

31079-0-1 달'고'
31079-0-2 달'더'라

31080-0-1 달-(甘)-고
31080-0-1 달-(甘)-더라

31080-0-1 달'고
31080-0-2 달더'라

31081-0-1 달:-(熱)-고
31081-0-1 달:-(熱)-더라

31081-0-1 달고'
31081-0-2 달더'라'

31082-0-1 갈-(換)-고
31082-0-1 갈-(換)-더라

31082-0-1 갈'고
31082-0-2 갈더'라

31083-0-1 갈-(磨)-고
31083-0-1 갈-(磨)-더라

31083-0-1 갈'고'
31083-0-2 갈'더'라

31084-0-1 갈:-(耕)-고
31084-0-1 갈:-(耕)-더라

31084-0-1 갈고', 갈고 일'따
31084-0-2 갈더'라'

31085-0-1 걷-(收)-고
31085-0-1 걷-(收)-더라

31085-0-1 걱'꼬
31085-0-2 걷떼'라

31086-0-1 걷:-(步)-고
31086-0-1 걷:-(步)-더라

31086-0-1 걱'꼬'
31086-0-2 걷떼'라'

31087-0-1 적-(書)-고
31087-0-1 적-(書)-더라

31087-0-1 적'꼬
31087-0-2 적떼'라

31088-0-1 적:-(小)-고
31088-0-1 적:-(小)-더라

31088-0-1 적꼬'
31088-0-2 적떠'라'

3.2. 음운 과정

2.1. 활용

32001-0-1 막-(防)[ㅈ]-지
32001-0-2 막-(防)[ㅈ]-고
32001-0-3 막-(防)[ㅈ]-더라
32001-0-4 막-(防)[ㅈ]-으니까
32001-0-5 막-(防)[ㅈ]-아/어(왔/었다)

32001-0-1 막'찌
32001-0-2 막'꼬
32001-0-3 막떠'라
32001-0-4 마'궁계네
32001-0-5 마'갑따

32002-0-1	흐르-(流)[-]-지
32002-0-2	흐르-(流)[-]-고
32002-0-3	흐르-(流)[-]-더라
32002-0-4	흐르-(流)[-]-으니까
32002-0-5	흐르-(流)[-]-아/어(왔/었다)

32002-0-1 허르'지
32002-0-2 허르'고
32002-0-3 허르더'라
32002-0-4 허릉'께
32002-0-5 헐'런파

32003-0-1 오-(來)[₁]-지

32003-0-2 오-(來)[₁]-고

32003-0-3 오-(來)[₁]-더라

32003-0-4 오-(來)[₁]-으니까

32003-0-5 오-(來)[₁]-아/어(왔/었다)

32003-0-1 꼬'지
32003-0-2 오'고
32003-0-3 오'더'라
32003-0-4 오'ingg계네(+할머니),
 옹'계네(+할아버지)
32003-0-5 완'따'

32004-0-1 듣-(聞)[ㄷ 변]-지
32004-0-2 듣-(聞)[ㄷ 변]-고
32004-0-3 듣-(聞)[ㄷ 변]-더라
32004-0-4 듣-(聞)[ㄷ 변]-으니까
32004-0-5 듣-(聞)[ㄷ 변]-아/어(왔/었다)

32004-0-1 듣'찌
32004-0-2 득'꼬
32004-0-3 듣떠'라
32004-0-4 드릉'께
32004-0-5 드'럴따

32005-0-1 많:- (多)[ㄴᄂ]-지
 32005-0-2 많:- (多)[ㄴᄂ]-고
 32005-0-3 많:- (多)[ㄴᄂ]-더라
 32005-0-4 많:- (多)[ㄴᄂ]-으니까
 32005-0-5 많:- (多)[ㄴᄂ]-아/어(왔/었다)

32005-0-1 만치'
 32005-0-2 망코'
 32005-0-3 만터'라'
 32005-0-4 마능께'네'
 32005-0-5 마넨'따'

32006-0-1 말-(任)[ㅌ]-지
 32006-0-2 말-(任)[ㅌ]-고
 32006-0-3 말-(任)[ㅌ]-더라
 32006-0-4 말-(任)[ㅌ]-으니까
 32006-0-5 말-(任)[ㅌ]-아/어(왔/었다)

32006-0-1 말'찌
 32006-0-2 막'꼬
 32006-0-3 만떠'라
 32006-0-4 마'통께네
 32006-0-5 마'탈따

32007-0-1 알:- (知)[ㄹ]-지
 32007-0-2 알:- (知)[ㄹ]-고
 32007-0-3 알:- (知)[ㄹ]-더라
 32007-0-4 알:- (知)[ㄹ]-으니까
 32007-0-5 알:- (知)[ㄹ]-아/어(왔/었다)

32007-0-1 알지'
 32007-0-2 알고'
 32007-0-3 알더'라'
 32007-0-4 아잉께'네'(+할머니),
 앙께'네'(+할아버지)
 32007-0-5 아'랄따

32008-0-1 감:- (閉眼)[ㄱ]-지
 32008-0-2 감:- (閉眼)[ㄱ]-고
 32008-0-3 감:- (閉眼)[ㄱ]-더라
 32008-0-4 감:- (閉眼)[ㄱ]-으니까
 32008-0-5 감:- (閉眼)[ㄱ]-아/어(왔/었다)

32008-0-1 감'찌'
 32008-0-2 갱'꼬'
 32008-0-3 감'더'라, 감'떠'라
 32008-0-4 까'몽'께네
 32008-0-5 까'말'따

32009-0-1 벗-(脫)[ㅍ]-지
 32009-0-2 벗-(脫)[ㅍ]-고
 32009-0-3 벗-(脫)[ㅍ]-더라
 32009-0-4 벗-(脫)[ㅍ]-으니까
 32009-0-5 벗-(脫)[ㅍ]-아/어(왔/었다)

32009-0-1 번'찌
 32009-0-2 벅'꼬
 32009-0-3 번떠'라
 32009-0-4 버'승께네
 32009-0-5 버'설따

32010-0-1 옹-(可)[ㅇ]-지
 32010-0-2 옹-(可)[ㅇ]-고
 32010-0-3 옹-(可)[ㅇ]-더라
 32010-0-4 옹-(可)[ㅇ]-으니까
 32010-0-5 옹-(可)[ㅇ]-아/어(왔/었다)

32010-0-1 올'치'
 32010-0-2 올'코'
 32010-0-3 올'터'라
 32010-0-4 오'릉'께네
 32010-0-5 오'랄'따

32011-0-1	입-(着衣)[ㅂ]-지	32011-0-1	입'찌
32011-0-2	입-(着衣)[ㅂ]-고	32011-0-2	입'꼬
32011-0-3	입-(着衣)[ㅂ]-더라	32011-0-3	입떠'라
32011-0-4	입-(着衣)[ㅂ]-으니까	32011-0-4	이'봉계
32011-0-5	입-(着衣)[ㅂ]-아/어(왔/었다)	32011-0-5	이'벌따
32012-0-1	바꾸-(換)[ㅌ]-지	32012-0-1	바꾸'지'
32012-0-2	바꾸-(換)[ㅌ]-고	32012-0-2	바꾸'고
32012-0-3	바꾸-(換)[ㅌ]-더라	32012-0-3	바꾸더'라
32012-0-4	바꾸-(換)[ㅌ]-으니까	32012-0-4	바꾸'잉계
32012-0-5	바꾸-(換)[ㅌ]-아/어(왔/었다)	32012-0-5	바까'알따
32013-0-1	덮-(覆)[ㅍ]-지	32013-0-1	덮'찌
32013-0-2	덮-(覆)[ㅍ]-고	32013-0-2	덮'꼬
32013-0-3	덮-(覆)[ㅍ]-더라	32013-0-3	덮떠'라
32013-0-4	덮-(覆)[ㅍ]-으니까	32013-0-4	더'풍계
32013-0-5	덮-(覆)[ㅍ]-아/어(왔/었다)	32013-0-5	더'펼따
32014-0-1	묻:- (問)[ㄷ 변]-지	32014-0-1	묻'찌'
32014-0-2	묻:- (問)[ㄷ 변]-고	32014-0-2	무'꼬'
32014-0-3	묻:- (問)[ㄷ 변]-더라	32014-0-3	묻떠'라'
32014-0-4	묻:- (問)[ㄷ 변]-으니까	32014-0-4	무'릉계
32014-0-5	묻:- (問)[ㄷ 변]-아/어(왔/었다)	32014-0-5	무'ړ따
32015-0-1	낫:- (癒)[ㄴ 변]-지	32015-0-1	나'찌'
32015-0-2	낫:- (癒)[ㄴ 변]-고	32015-0-2	나'꼬'
32015-0-3	낫:- (癒)[ㄴ 변]-더라	32015-0-3	난떠'라'
32015-0-4	낫:- (癒)[ㄴ 변]-으니까	32015-0-4	나'스으~이
32015-0-5	낫:- (癒)[ㄴ 변]-아/어(왔/었다)	32015-0-5	나'살따
32016-0-1	닫-(閉)[ㄷ]-지	32016-0-1	닫'찌
32016-0-2	닫-(閉)[ㄷ]-고	32016-0-2	닥'꼬
32016-0-3	닫-(閉)[ㄷ]-더라	32016-0-3	닫떠'라
32016-0-4	닫-(閉)[ㄷ]-으니까	32016-0-4	다'등계네
32016-0-5	닫-(閉)[ㄷ]-아/어(왔/었다)	32016-0-5	다'달따

32017-0-1	쫓-(追)[ㅈ]-지	32017-0-1	쫓'찌
32017-0-2	쫓-(追)[ㅈ]-고	32017-0-2	쫓'꼬
32017-0-3	쫓-(追)[ㅈ]-더라	32017-0-3	쫓떠'라
32017-0-4	쫓-(追)[ㅈ]-으니까	32017-0-4	쫓'층게네
32017-0-5	쫓-(追)[ㅈ]-아/어(왔/었다)	32017-0-5	쫓'찰따

32018-0-1	베:-(枕)[베]-지	32018-0-1	비지'
32018-0-2	베:-(枕)[베]-고	32018-0-2	비고'
32018-0-3	베:-(枕)[베]-더라	32018-0-3	비더'라'
32018-0-4	베:-(枕)[베]-으니까	32018-0-4	빙께'
32018-0-5	베:-(枕)[베]-아/어(왔/었다)	32018-0-5	비'일따

32019-0-1	깨:-(破)[깨]-지	32019-0-1	깨지'
32019-0-2	깨:-(破)[깨]-고	32019-0-2	깨'고
32019-0-3	깨:-(破)[깨]-더라	32019-0-3	깨더'라
32019-0-4	깨:-(破)[깨]-으니까	32019-0-4	깡'계네
32019-0-5	깨:-(破)[깨]-아/어(왔/었다)	32019-0-5	깨'얄따

32020-0-1	펴-(伸)[펴]-지	32020-0-1	피지'
32020-0-2	펴-(伸)[펴]-고	32020-0-2	피'고
32020-0-3	펴-(伸)[펴]-더라	32020-0-3	피더'라
32020-0-4	펴-(伸)[펴]-으니까	32020-0-4	핑'계네
32020-0-5	펴-(伸)[펴]-아/어(왔/었다)	32020-0-5	피'일따

32021-0-1	밝-(明)[ㄹ]-지	32021-0-1	발'찌
32021-0-2	밝-(明)[ㄹ]-고	32021-0-2	발'꼬
32021-0-3	밝-(明)[ㄹ]-더라	32021-0-3	발떠'라
32021-0-4	밝-(明)[ㄹ]-으니까	32021-0-4	발'강게네
32021-0-5	밝-(明)[ㄹ]-아/어(왔/었다)	32021-0-5	발'갈따

32022-0-1	쌔:-(烹)[쌔]-지	32022-0-1	쌔찌'
32022-0-2	쌔:-(烹)[쌔]-고	32022-0-2	쌔'꼬'
32022-0-3	쌔:-(烹)[쌔]-더라	32022-0-3	쌔떠'라'
32022-0-4	쌔:-(烹)[쌔]-으니까	32022-0-4	쌀'망게네, 쌀'믄게네(+할아버지), 쌀'믄게:(+할머니)
32022-0-5	쌔:-(烹)[쌔]-아/어(왔/었다)	32022-0-5	쌀'말따

32023-0-1	음-(吟)[ㄹ]-지	32023-0-1	을'찌
32023-0-2	음-(吟)[ㄹ]-고	32023-0-2	을'꼬
32023-0-3	음-(吟)[ㄹ]-더라	32023-0-3	을떼'라
32023-0-4	음-(吟)[ㄹ]-으니까	32023-0-4	을'봉계네
32023-0-5	음-(吟)[ㄹ]-아/어(왔/었다)	32023-0-5	을'받따
32024-0-1	밟:-(踏)[ㅍ]-지	32024-0-1	발찌'
32024-0-2	밟:-(踏)[ㅍ]-고	32024-0-2	발꼬'
32024-0-3	밟:-(踏)[ㅍ]-더라	32024-0-3	발떼'라'
32024-0-4	밟:-(踏)[ㅍ]-으니까	32024-0-4	발'봉계네
32024-0-5	밟:-(踏)[ㅍ]-아/어(왔/었다)	32024-0-5	발'받따
32025-0-1	하-(爲)[ㅈ 변]-지	32025-0-1	하'지
32025-0-2	하-(爲)[ㅈ 변]-고	32025-0-2	하'고
32025-0-3	하-(爲)[ㅈ 변]-더라	32025-0-3	하'더'라
32025-0-4	하-(爲)[ㅈ 변]-으니까	32025-0-4	하'계네
32025-0-5	하-(爲)[ㅈ 변]-아/어(왔/었다)	32025-0-5	하'앨'따
32026-0-1	맺-(結)[ㅈ]-지	32026-0-1	맺'찌
32026-0-2	맺-(結)[ㅈ]-고	32026-0-2	맺'꼬
32026-0-3	맺-(結)[ㅈ]-더라	32026-0-3	맺떼'라
32026-0-4	맺-(結)[ㅈ]-으니까	32026-0-4	매'증계네
32026-0-5	맺-(結)[ㅈ]-아/어(왔/었다)	32026-0-5	매'전따
32027-0-1	엮:-(無)[ㅈ]-지	32027-0-1	엮찌'
32027-0-2	엮:-(無)[ㅈ]-고	32027-0-2	엮꼬'
32027-0-3	엮:-(無)[ㅈ]-더라	32027-0-3	엮떼'라'
32027-0-4	엮:-(無)[ㅈ]-으니까	32027-0-4	엮승'계'
32027-0-5	엮:-(無)[ㅈ]-아/어(왔/었다)	32027-0-5	엮선'따'
32028-0-1	앉-(坐)[ㄴ]-지	32028-0-1	안'찌
32028-0-2	앉-(坐)[ㄴ]-고	32028-0-2	안'꼬
32028-0-3	앉-(坐)[ㄴ]-더라	32028-0-3	안떼'라
32028-0-4	앉-(坐)[ㄴ]-으니까	32028-0-4	안'계네
32028-0-5	앉-(坐)[ㄴ]-아/어(왔/었다)	32028-0-5	안'잔따

32029-0-1	비비-(刮)[ㅣ]-지	32029-0-1	비비'지
32029-0-2	비비-(刮)[ㅣ]-고	32029-0-2	비비'고
32029-0-3	비비-(刮)[ㅣ]-더라	32029-0-3	비비더'라
32029-0-4	비비-(刮)[ㅣ]-으니까	32029-0-4	비빙'계네
32029-0-5	비비-(刮)[ㅣ]-아/어(왔/었다)	32029-0-5	비비'일따
32030-0-1	ㅍㅍ-(消)[ㅡ]-지	32030-0-1	ㅍㅍ'지'
32030-0-2	ㅍㅍ-(消)[ㅡ]-고	32030-0-2	ㅍㅍ'고'
32030-0-3	ㅍㅍ-(消)[ㅡ]-더라	32030-0-3	ㅍㅍ'더'라
32030-0-4	ㅍㅍ-(消)[ㅡ]-으니까	32030-0-4	꿈'계'네
32030-0-5	ㅍㅍ-(消)[ㅡ]-아/어(왔/었다)	32030-0-5	곶'따'
32031-0-1	꺾-(折)[ㄱ]-지	32031-0-1	꺾'찌
32031-0-2	꺾-(折)[ㄱ]-고	32031-0-2	꺾'꼬
32031-0-3	꺾-(折)[ㄱ]-더라	32031-0-3	꺾떠'라
32031-0-4	꺾-(折)[ㄱ]-으니까	32031-0-4	꺼'꿈계네
32031-0-5	꺾-(折)[ㄱ]-아/어(왔/었다)	32031-0-5	꺼'곶따
32032-0-1	신:-(履)[ㄴ]-지	32032-0-1	신찌'
32032-0-2	신:-(履)[ㄴ]-고	32032-0-2	싱꼬'
32032-0-3	신:-(履)[ㄴ]-더라	32032-0-3	신평'라'
32032-0-4	신:-(履)[ㄴ]-으니까	32032-0-4	시'능계네
32032-0-5	신:-(履)[ㄴ]-아/어(왔/었다)	32032-0-5	시'넬따
32033-0-1	보-(視)[ㅇ]-지	32033-0-1	보'지
32033-0-2	보-(視)[ㅇ]-고	32033-0-2	보'고
32033-0-3	보-(視)[ㅇ]-더라	32033-0-3	보'더'라
32033-0-4	보-(視)[ㅇ]-으니까	32033-0-4	보'잉계네
32033-0-5	보-(視)[ㅇ]-아/어(왔/었다)	32033-0-5	바'알'따
32034-0-1	추-(舞)[ㅈ]-지	32034-0-1	치'지'
32034-0-2	추-(舞)[ㅈ]-고	32034-0-2	치'고'
32034-0-3	추-(舞)[ㅈ]-더라	32034-0-3	치'더'라
32034-0-4	추-(舞)[ㅈ]-으니까	32034-0-4	칭'계'네
32034-0-5	추-(舞)[ㅈ]-아/어(왔/었다)	32034-0-5	찢'따'

32035-0-1	피우-(吸煙)[ㅌ]-지	32035-0-1	푸쥼'
32035-0-2	피우-(吸煙)[ㅌ]-고	32035-0-2	푸'우고
32035-0-3	피우-(吸煙)[ㅌ]-더라	32035-0-3	폴떼'라'
32035-0-4	피우-(吸煙)[ㅌ]-으니까	32035-0-4	푸'웅계네
32035-0-5	피우-(吸煙)[ㅌ]-아/어(왔/었다)	32035-0-5	푸'얼따
32036-0-1	서-(立)[ㅅ]-지	32036-0-1	서지'
32036-0-2	서-(立)[ㅅ]-고	32036-0-2	서'고
32036-0-3	서-(立)[ㅅ]-더라	32036-0-3	서더'라
32036-0-4	서-(立)[ㅅ]-으니까	32036-0-4	성'계네
32036-0-5	서-(立)[ㅅ]-아/어(왔/었다)	32036-0-5	섰'따'
32037-0-1	기-(匍腹)[ㅣ]-지	32037-0-1	기'지'
32037-0-2	기-(匍腹)[ㅣ]-고	32037-0-2	기'고'
32037-0-3	기-(匍腹)[ㅣ]-더라	32037-0-3	기'더'라
32037-0-4	기-(匍腹)[ㅣ]-으니까	32037-0-4	깁'계'네
32037-0-5	기-(匍腹)[ㅣ]-아/어(왔/었다)	32037-0-5	기'일'따
32038-0-1	이-(戴)[ㅣ]-지	32038-0-1	이'지
32038-0-2	이-(戴)[ㅣ]-고	32038-0-2	이'고
32038-0-3	이-(戴)[ㅣ]-더라	32038-0-3	이더'라
32038-0-4	이-(戴)[ㅣ]-으니까	32038-0-4	이'잉계네
32038-0-5	이-(戴)[ㅣ]-아/어(왔/었다)	32038-0-5	열'따'
32039-0-1	아니-(否)[ㅣ]-지	32039-0-1	아니'지
32039-0-2	아니-(否)[ㅣ]-고	32039-0-2	아니'고
32039-0-3	아니-(否)[ㅣ]-더라	32039-0-3	아니더'라
32039-0-4	아니-(否)[ㅣ]-으니까	32039-0-4	아잉'계네
32039-0-5	아니-(否)[ㅣ]-아/어(왔/었다)	32039-0-5	아니열'따
32040-0-1	되-(升)[ㅍ]-지	32040-0-1	디'지'
32040-0-2	되-(升)[ㅍ]-고	32040-0-2	디'고'
32040-0-3	되-(升)[ㅍ]-더라	32040-0-3	디'더'라
32040-0-4	되-(升)[ㅍ]-으니까	32040-0-4	딩'계'네
32040-0-5	되-(升)[ㅍ]-아/어(왔/었다)	32040-0-5	디'일'따

32041-0-1	있-(有)[ㅅ]-지	32041-0-1	일'찌
32041-0-2	있-(有)[ㅅ]-고	32041-0-2	익'꼬
32041-0-3	있-(有)[ㅅ]-더라	32041-0-3	일떼'라
32041-0-4	있-(有)[ㅅ]-으니까	32041-0-4	이스'응께
32041-0-5	있-(有)[ㅅ]-아/어(왔/었다)	32041-0-5	이'설따
32042-0-1	놓-(放)[ㅎ]-지	32042-0-1	노'치
32042-0-2	놓-(放)[ㅎ]-고	32042-0-2	노'코
32042-0-3	놓-(放)[ㅎ]-더라	32042-0-3	노떼'라
32042-0-4	놓-(放)[ㅎ]-으니까	32042-0-4	노응께'네
32042-0-5	놓-(放)[ㅎ]-아/어(왔/었다)	32042-0-5	노'알따
32043-0-1	훔-(擄)[ㅈ]-지	32043-0-1	훔'찌
32043-0-2	훔-(擄)[ㅈ]-고	32043-0-2	훔'꼬
32043-0-3	훔-(擄)[ㅈ]-더라	32043-0-3	훔떼'라
32043-0-4	훔-(擄)[ㅈ]-으니까	32043-0-4	훔'튼게네
32043-0-5	훔-(擄)[ㅈ]-아/어(왔/었다)	32043-0-5	훔'털따
32044-0-1	곰:-(麗)[ㅂ 변]-지	32044-0-1	곰찌'
32044-0-2	곰:-(麗)[ㅂ 변]-고	32044-0-2	곰꼬'
32044-0-3	곰:-(麗)[ㅂ 변]-더라	32044-0-3	곰떼'라'
32044-0-4	곰:-(麗)[ㅂ 변]-으니까	32044-0-4	고응'께'네
32044-0-5	곰:-(麗)[ㅂ 변]-아/어(왔/었다)	32044-0-5	고반'따'
32045-0-1	쥐:-(握)[ㄱ]-지	32045-0-1	지'지'
32045-0-2	쥐:-(握)[ㄱ]-고	32045-0-2	지'고'
32045-0-3	쥐:-(握)[ㄱ]-더라	32045-0-3	지'더'라'
32045-0-4	쥐:-(握)[ㄱ]-으니까	32045-0-4	징'께'네'
32045-0-5	쥐:-(握)[ㄱ]-아/어(왔/었다)	32045-0-5	지'일따
32046-0-1	가-(去)[ㄱ]-지	32046-0-1	가'지
32046-0-2	가-(去)[ㄱ]-고	32046-0-2	가'고
32046-0-3	가-(去)[ㄱ]-더라	32046-0-3	가'더'라
32046-0-4	가-(去)[ㄱ]-으니까	32046-0-4	가'잉'께네
32046-0-5	가-(去)[ㄱ]-아/어(왔/었다)	32046-0-5	간'따'

2) 일반 항목

32047-0-1	먹-(食)-지, -고, -더라	32047-0-1	묵'꼬
32047-0-2	먹-(食)-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47-0-2	무'온따
32048-0-1	뜯-(摘)-지, -고, -더라	32048-0-1	뜯'꼬
32048-0-2	뜯-(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48-0-2	뜨'덜'따
32049-0-1	갈-(如)-지, -고, -더라	32049-0-1	각'꼬'
32049-0-2	갈-(如)-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49-0-2	가'탔'따
32050-0-1	얕-(淺)-지, -고, -더라	32050-0-1	야푸'고
32050-0-2	얕-(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50-0-2	야'팔따
32051-0-1	흩-(散)-지, -고, -더라	32051-0-1	흐'치고
32051-0-2	흩-(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51-0-2	흐'철따
32052-0-1	날:-(飛)-지, -고, -더라	32052-0-1	나르'고
32052-0-2	날:-(飛)-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52-0-2	날'랄따
32053-0-1	울:-(泣)-지, -고, -더라	32053-0-1	울고'
32053-0-2	울:-(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53-0-2	우'ړ따
32054-0-1	일:-(洶)-지, -고, -더라	32054-0-1	일고'
32054-0-2	일:-(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54-0-2	이'ړ따
32055-0-1	얼:-(凍)-지, -고, -더라	32055-0-1	얼고'
32055-0-2	얼:-(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55-0-2	어'ړ따
32056-0-1	넘:-(越)-지, -고, -더라	32056-0-1	넘꼬'
32056-0-2	넘:-(越)-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56-0-2	너'머따(+할머니), 너'문따(+할아버지)
32057-0-1	숨:-(隱)-지, -고, -더라	32057-0-1	숨'꼬'
32057-0-2	숨:-(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57-0-2	수'문'따

32058-0-1	쉽:-(易)-지, -고, -더라	32058-0-1	쉽꼬'
32058-0-2	쉽:-(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58-0-2	수벌'따'
32059-0-1	눅:-(臥)-지, -고, -더라	32059-0-1	눅'꼬
32059-0-2	눅:-(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59-0-2	누'벌따
32060-0-1	깁:-(縫)-지, -고, -더라	32060-0-1	깁꼬'
32060-0-2	깁:-(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60-0-2	지'벌따
32061-0-1	밍:-(憎)-지, -고, -더라	32061-0-1	믹'꼬
32061-0-2	밍:-(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61-0-2	미'벌따
32062-0-1	높:-(高)-지, -고, -더라	32062-0-1	노푸'고
32062-0-2	높:-(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62-0-2	노'팔따
32063-0-1	짓:-(作)-지, -고, -더라	32063-0-1	직꼬'
32063-0-2	짓:-(作)-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63-0-2	지'일따
32064-0-1	붓:-(腫)-지, -고, -더라	32064-0-1	북꼬'
32064-0-2	붓:-(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64-0-2	부'설따(+할머니), 부'운따(+할아버지)
32065-0-1	웃:-(笑)-지, -고, -더라	32065-0-1	익꼬'
32065-0-2	웃:-(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65-0-2	이'설따
32066-0-1	짖:-(吠)-지, -고, -더라	32066-0-1	직꼬'
32066-0-2	짖:-(吠)-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66-0-2	지'슬따
32067-0-1	꽂:-(插)-지, -고, -더라	32067-0-1	꼭'꼬
32067-0-2	꽂:-(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67-0-2	꼬'잡따
32068-0-1	낱:-(産)-지, -고, -더라	32068-0-1	노'코
32068-0-2	낱:-(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68-0-2	나'알따
32069-0-1	땅:-(辯)-지, -고, -더라	32069-0-1	땅'코
32069-0-2	땅:-(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69-0-2	따'~알따

32070-0-1	끓-(切)-지, -고, -더라	32070-0-1	끓'코
32070-0-2	끓-(切)-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70-0-2	끄'넌따
32071-0-1	괜찮-(無妨)-지, -고, -더라	32071-0-1	괜찬'코'
32071-0-2	괜찮-(無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71-0-2	괜차'난'따
32072-0-1	읽-(讀)-지, -고, -더라	32072-0-1	일'코
32072-0-2	읽-(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72-0-2	일'겔따
32073-0-1	떨:-(漈)-지, -고, -더라	32073-0-1	떨'꼬'
32073-0-2	떨:-(漈)-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73-0-2	떨받'따'
32074-0-1	옮:-(遷)-지, -고, -더라	32074-0-1	잉'기코
32074-0-2	옮:-(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74-0-2	잉'길따
32075-0-1	똥:-(貫)-지, -고, -더라	32075-0-1	떨'꼬'(+할머니), 똥'꼬'(+할아버지)
32075-0-2	똥:-(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75-0-2	떨'빔다(+할머니), 똥'빔따(+할아버지)
32076-0-1	끓-(跪)-지, -고, -더라	32076-0-1	끓'코
32076-0-2	끓-(跪)-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76-0-2	꾸'렐'따
32077-0-1	닿-(扞, 연필 심이)-지, -고, -더라	32077-0-1	달'코
32077-0-2	닿-(扞, 연필 심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77-0-2	다'랄따(+할아버지), 달'갈따(+할머니)
32078-0-1	닿:-(煎, 솥에서 장이)-지, -고, -더라	32078-0-1	달'코
32078-0-2	닿:-(煎, 솥에서 장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78-0-2	다'랄따
32079-0-1	짜-(鹽)-지, -고, -더라	32079-0-1	짹'꼬'
32079-0-2	짜-(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79-0-2	짜'받'따
32080-0-1	말-(捲)-지, -고, -더라	32080-0-1	말'고
32080-0-2	말-(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80-0-2	마'랄따

32081-0-1	쓰-(書)-지, -고, -더라	32081-0-1	써'고
32081-0-2	쓰-(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81-0-2	썬'따'
32082-0-1	오르-(登)-지, -고, -더라	32082-0-1	오르'고
32082-0-2	오르-(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82-0-2	올'랄따
32083-0-1	바쁘-(忙)-지, -고, -더라	32083-0-1	바뿌'고
32083-0-2	바쁘-(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83-0-2	바'빨따
32084-0-1	고프-(餓)-지, -고, -더라	32084-0-1	고푸'고
32084-0-2	고프-(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84-0-2	고'팔따
32085-0-1	쏘-(射)-지, -고, -더라	32085-0-1	쏘'오'고
32085-0-2	쏘-(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85-0-2	쏘'알'따
32086-0-1	꾸-(夢)-지, -고, -더라	32086-0-1	꾸'고'
32086-0-2	꾸-(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86-0-2	꾸'얼'따
32087-0-1	머무르-(留)-지, -고, -더라	32087-0-1	머물'고, 머무러'고(+할아버지), 머물'고(+할머니)
32087-0-2	머무르-(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87-0-2	머무'릴따
32088-0-1	다듬-(整)-지, -고, -더라	32088-0-1	따듬'꼬
32088-0-2	다듬-(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88-0-2	따드'말따
32089-0-1	견디-(忍)-지, -고, -더라	32089-0-1	전'디고
32089-0-2	견디-(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89-0-2	전'딜따
32090-0-1	말리-(裁)-지, -고, -더라	32090-0-1	뜨'고'
32090-0-2	말리-(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90-0-2	뜯'따'
32091-0-1	끼-(烟鎖, 안개가)-지, -고, -더라	32091-0-1	찌이'고
32091-0-2	끼-(烟鎖, 안개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91-0-2	찌일'따
32092-0-1	마시-(飲)-지, -고, -더라	32092-0-1	마'시고
32092-0-2	마시-(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092-0-2	마'실따

32093-0-1	세:-(強)-지, -고, -더라	32093-0-1 시고'
32093-0-2	세:-(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93-0-2 시'일따
32094-0-1	포개-(重疊)-지, -고, -더라	32094-0-1 포'개'고
32094-0-2	포개-(重疊)-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94-0-2 포'깁'따
32095-0-1	두드리-(敲)-지, -고, -더라	32095-0-1 뚜디'리고
32095-0-2	두드리-(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95-0-2 뚜디'럴따
32096-0-1	켜-(點燈)-지, -고, -더라	32096-0-1 썬'고
32096-0-2	켜-(點燈)-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96-0-2 썬'따'
32097-0-1	썬:-(바람을)-지, -고, -더라	32097-0-1 썬'이코
32097-0-2	썬:-(바람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97-0-2 썬'일따(+할머니), 썬'열따(+할아버지)
32098-0-1	쇠-(老)-지, -고, -더라	32098-0-1 *
32098-0-2	쇠-(老)-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98-0-2 *
32099-0-1	쉬:-(饅)-지, -고, -더라	32099-0-1 시고'
32099-0-2	쉬:-(饅)-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099-0-2 시'일따
32100-0-1	희-(白)-지, -고, -더라	32100-0-1 히'고'
32100-0-2	희-(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00-0-2 히'일'따
32101-0-1	볶-(炒)-지, -고, -더라	32101-0-1 뽁'꼬
32101-0-2	볶-(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01-0-2 뽁'깁'따
32102-0-1	안:-(抱)-지, -고, -더라	32102-0-1 양꼬'
32102-0-2	안:-(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02-0-2 아'날따
32103-0-1	묻-(埋)-지, -고, -더라	32103-0-1 묵'꼬
32103-0-2	묻-(埋)-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03-0-2 무'덜따
32104-0-1	불:-(吹)-지, -고, -더라	32104-0-1 불고'
32104-0-2	불:-(吹)-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04-0-2 부'럴따

32105-0-1	빨-(洗濯)-지, -고, -더라	32105-0-1 빨'고'
32105-0-2	빨-(洗濯)-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05-0-2 빠'랄'따
32106-0-1	죽-(死)-지, -고, -더라	32106-0-1 죽'꼬
32106-0-2	죽-(死)-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06-0-2 주'걸따
32107-0-1	걸:-(步)-지, -고, -더라	32107-0-1 걸꼬', 거꼬 이'따
32107-0-2	걸:-(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07-0-2 거'럴따
32108-0-1	가물-(旱)-지, -고, -더라	32108-0-1 가'물'고
32108-0-2	가물-(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08-0-2 가'무'럴따
32109-0-1	졸:-(睡)-지, -고, -더라	32109-0-1 자불'고
32109-0-2	졸:-(睡)-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09-0-2 자부'럴따
32110-0-1	쓸-(掃)-지, -고, -더라	32110-0-1 쓸'고'
32110-0-2	쓸-(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0-0-2 씨'럴'따
32111-0-1	감:-(捲)-지, -고, -더라	32111-0-1 강꼬'(+할머니), 강꼬'(+할아버지)
32111-0-2	감:-(捲)-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1-0-2 가'말따
32112-0-1	더듬-(摸)-지, -고, -더라	32112-0-1 더'듬고
32112-0-2	더듬-(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2-0-2 더'드말따
32113-0-1	끓:-(炙)-지, -고, -더라	32113-0-1 끓'꼬'
32113-0-2	끓:-(炙)-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3-0-2 꾸'벌따
32114-0-1	무겁-(重)-지, -고, -더라	32114-0-1 무국'꼬
32114-0-2	무겁-(重)-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4-0-2 무구'벌따
32115-0-1	잇:-(連)-지, -고, -더라	32115-0-1 이사'아고
32115-0-2	잇:-(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5-0-2 이사'알따
32116-0-1	빗-(梳)-지, -고, -더라	32116-0-1 빻'꼬
32116-0-2	빗-(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6-0-2 빠'설따

32117-0-1	까망-(黑)-지, -고, -더라	32117-0-1	까'마'코
32117-0-2	까망-(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7-0-2	까'말'따
32118-0-1	넙-(入)-지, -고, -더라	32118-0-1	억'코
32118-0-2	넙-(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8-0-2	억'얼'따
32119-0-1	고:-(煮)-지, -고, -더라	32119-0-1	고'와'고
32119-0-2	고:-(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19-0-2	고'완'따
32120-0-1	엎-(載)-지, -고, -더라	32120-0-1	엳'꼬
32120-0-2	엎-(載)-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0-0-2	엳'절'따
32121-0-1	귀찮-(囁)-지, -고, -더라	32121-0-1	기창'코'
32121-0-2	귀찮-(囁)-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1-0-2	기차'넬'따
32122-0-1	바르-(剔, 생선 뼈를)-지, -고, -더라	32122-0-1	불가'아'고(+할머니), 불구'코(+할아버지)
32122-0-2	바르-(剔, 생선 뼈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2-0-2	불가'알'따
32123-0-1	맑-(淸)-지, -고, -더라	32123-0-1	말'꼬
32123-0-2	맑-(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3-0-2	말'간'따
32124-0-1	끓:-(膿)-지, -고, -더라	32124-0-1	공'기'고
32124-0-2	끓:-(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4-0-2	공'길'따
32125-0-1	끓:-(太)-지, -고, -더라	32125-0-1	굴'꼬'
32125-0-2	끓:-(太)-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5-0-2	굴'걸'따'
32126-0-1	얇:-(薄)-지, -고, -더라	32126-0-1	열'꼬'
32126-0-2	얇:-(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6-0-2	열'벌'따
32127-0-1	쫘-(春)-지, -고, -더라	32127-0-1	썰'코 일'따
32127-0-2	쫘-(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7-0-2	썰'건'따
32128-0-1	잃-(失)-지, -고, -더라	32128-0-1	일'코
32128-0-2	잃-(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28-0-2	이'런'따

32129-0-1	핥-(舐)-지, -고, -더라	32129-0-1	홀'코
32129-0-2	핥-(舐)-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29-0-2	홀'탈따
32130-0-1	짧-(短)-지, -고, -더라	32130-0-1	짜르'고
32130-0-2	짧-(短)-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30-0-2	짤'랄따
32131-0-1	놀라-(驚)-지, -고, -더라	32131-0-1	놀래'고'
32131-0-2	놀라-(驚)-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31-0-2	놀랜'따
32132-0-1	자-(宿)-지, -고, -더라	32132-0-1	자'고
32132-0-2	자-(宿)-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32-0-2	잔'따'
32133-0-1	못:하-(不爲)-지, -고, -더라	32133-0-1	몬하'고'
32133-0-2	못:하-(不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33-0-2	몬헐'따
32134-0-1	모르-(不知)-지, -고, -더라	32134-0-1	모'르고
32134-0-2	모르-(不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34-0-2	몰랴'따'
32135-0-1	아프-(痛)-지, -고, -더라	32135-0-1	아푸'고
32135-0-2	아프-(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35-0-2	아판'따, 아'판따
32136-0-1	크-(大)-지, -고, -더라	32136-0-1	크'고'
32136-0-2	크-(大)-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36-0-2	퀵'따'
32137-0-1	꼬-(索, 새끼를)-지, -고, -더라	32137-0-1	꼬'고'(+할아버지), 꼬'오'고'(+할머니)
32137-0-2	꼬-(索, 새끼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37-0-2	꼬'알'따
32138-0-1	쭈-(造粥)-지, -고, -더라	32138-0-1	쪄'오'고
32138-0-2	쭈-(造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38-0-2	쪄'왈'따
32139-0-1	맞추-(組合)-지, -고, -더라	32139-0-1	마차'아고
32139-0-2	맞추-(組合)-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39-0-2	마차'알다
32140-0-1	테우-(厝)-지, -고, -더라	32140-0-1	뜨사'아고
32140-0-2	테우-(厝)-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40-0-2	뜨사'알따

32141-0-1	이:-(盖, 지붕을)-지, -고, -더라	32141-0-1 이'이고
32141-0-2	이:-(盖, 지붕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41-0-2 이'일따
32142-0-1	갈기-(打)-지, -고, -더라	32142-0-1 갈'기'고
32142-0-2	갈기-(打)-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42-0-2 갈'견'따(+할아버지), 갈'긴'따(+할머니)
32143-0-1	기다리-(待)-지, -고, -더라	32143-0-1 지다'리고
32143-0-2	기다리-(待)-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43-0-2 지다'릴따
32144-0-1	세:-(算)-지, -고, -더라	32144-0-1 세고'(+할아버지), 세아리'고(+할머니)
32144-0-2	세:-(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44-0-2 세'엘'따(+할아버지), 세아릴'따(+할머니)
32145-0-1	빼-(拔)-지, -고, -더라	32145-0-1 빼'고'
32145-0-2	빼-(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45-0-2 빼'엘'따
32146-0-1	켜-(툼을)-지, -고, -더라	32146-0-1 썬'고
32146-0-2	켜-(툼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46-0-2 썬'따'
32147-0-1	되:-(硬)-지, -고, -더라	32147-0-1 디고'
32147-0-2	되:-(硬)-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47-0-2 디'일따
32148-0-1	쉬:-(休)-지, -고, -더라	32148-0-1 시고'
32148-0-2	쉬:-(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48-0-2 시'일따
32149-0-1	할퀴-(搔)-지, -고, -더라	32149-0-1 까라히비'고
32149-0-2	할퀴-(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49-0-2 까라히빈':따
32150-0-1	늛:-(爇)-지, -고, -더라	32150-0-1 누라'아고, 늛꼬'
32150-0-2	늛:-(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0-0-2 누'룰따, 누라'알따
32151-0-1	깨닫-(覺)-지, -고, -더라	32151-0-1 깨'달'코
32151-0-2	깨닫-(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1-0-2 깨'다'랄따

32152-0-1	마렵-(오줌이)-지, -고, -더라	32152-0-1 누릅'꼬
32152-0-2	마렵-(오줌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2-0-2 누루'벌'따
32153-0-1	부끄럽-(恥)-지, -고, -더라	32153-0-1 부꺼릭'꼬
32153-0-2	부끄럽-(恥)-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3-0-2 부꾸러'벌따
32154-0-1	가깝-(近)-지, -고, -더라	32154-0-1 가죽'꼬, 가참'꼬
32154-0-2	가깝-(近)-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4-0-2 가주'걸따, 가차'받따
32155-0-1	깊-(深)-지, -고, -더라	32155-0-1 지푸'고
32155-0-2	깊-(深)-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5-0-2 지'펼따
32156-0-1	긋:- (劃)-지, -고, -더라	32156-0-1 꼬'코
32156-0-2	긋:- (劃)-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6-0-2 꼬'을따
32157-0-1	씻-(洗)-지, -고, -더라	32157-0-1 씹'꼬
32157-0-2	씻-(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7-0-2 씨'썰따
32158-0-1	짚-(搗)-지, -고, -더라	32158-0-1 쟁'코
32158-0-2	짚-(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8-0-2 쟁'얼따
32159-0-1	잡-(搔)-지, -고, -더라	32159-0-1 깔'코
32159-0-2	잡-(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59-0-2 깔'갈따
32160-0-1	굶:- (飢)-지, -고, -더라	32160-0-1 궁꼬'
32160-0-2	굶:- (飢)-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60-0-2 굴'멀따
32161-0-1	닻:- (似)-지, -고, -더라	32161-0-1 닻꼬'(+할아버지), 당꼬'(+할머니)
32161-0-2	닻:- (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61-0-2 달'말따
32162-0-1	싫-(厭)-지, -고, -더라	32162-0-1 실'코'
32162-0-2	싫-(厭)-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62-0-2 시'털'따
3216-0-1	끓-(𪗇)-지, -고, -더라	32163-0-1 골'고'
3216-0-2	끓-(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163-0-2 고'랄'따

32164-0-1	붓:- (注)-지, -고, -더라	32164-0-1 버'코, 벅'꼬 일따
32164-0-2	붓:- (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64-0-2 부'얼따, 버'얼따(+할아버지), 부'얼따(+할머니)
32165-0-1	타-(乘)-지, -고, -더라	32165-0-1 타'고'
32165-0-2	타-(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65-0-2 탈따'
32166-0-1	마르-(乾)-지, -고, -더라	32166-0-1 마르'고
32166-0-2	마르-(乾)-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66-0-2 말'랄따
32167-0-1	쓰-(苦)-지, -고, -더라	32167-0-1 씩'꼬'
32167-0-2	쓰-(苦)-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67-0-2 씨'벌'다
32168-0-1	슬프-(哀)-지, -고, -더라	32168-0-1 슬푸'고
32168-0-2	슬프-(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68-0-2 슬'펼따
32169-0-1	기쁘-(喜)-지, -고, -더라	32169-0-1 기뿌'고
32169-0-2	기쁘-(喜)-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69-0-2 기'뻔따
32170-0-1	쏘-(蝨, 벌이)-지, -고, -더라	32170-0-1 쏘'아'고
32170-0-2	쏘-(蝨, 벌이)-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70-0-2 쏘'왈'따
32171-0-1	주-(與)-지, -고, -더라	32171-0-1 주'고
32171-0-2	주-(與)-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71-0-2 주'얼'따
32172-0-1	키우-(飼育)-지, -고, -더라	32172-0-1 키'우고
32172-0-2	키우-(飼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72-0-2 키'올따
32173-0-1	가두-(囚)-지, -고, -더라	32173-0-1 가다'아고
32173-0-2	가두-(囚)-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73-0-2 가다'알따
32174-0-1	부수-(碎)-지, -고, -더라	32174-0-1 뿌시'고
32174-0-2	부수-(碎)-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74-0-2 뿌사'알따
32175-0-1	나누-(分)-지, -고, -더라	32175-0-1 나나'아고
32175-0-2	나누-(分)-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75-0-2 나나'알따

32176-0-1	속이-(欺)-지, -고, -더라	32176-0-1	쏘'기고, 쏘카'아고
32176-0-2	속이-(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76-0-2	쏘'길따, 쏘카'알따
32177-0-1	끼-(插)-지, -고, -더라	32177-0-1	찌'고'
32177-0-2	끼-(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77-0-2	찢'따'
32178-0-1	뛰-(跳)-지, -고, -더라	32178-0-1	티'고
32178-0-2	뛰-(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78-0-2	티'일따
32179-0-1	괴:-(滄)-지, -고, -더라	32179-0-1	고이'고
32179-0-2	괴:-(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79-0-2	고일'따
32180-0-1	여위-(癯)-지, -고, -더라	32180-0-1	애'비고
32180-0-2	여위-(癯)-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80-0-2	애'빌따
32181-0-1	맵-(辛)-지, -고, -더라	32181-0-1	맵'꼬
32181-0-2	맵-(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81-0-2	매'받따
32182-0-1	뀌:-(屁)-지, -고, -더라	32182-0-1	끼'고', 끼고'
32182-0-2	뀌:-(屁)-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82-0-2	끼'일따
32183-0-1	고치-(改)-지, -고, -더라	32183-0-1	곤'치고 일따
32183-0-2	고치-(改)-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83-0-2	곤'칠따
32184-0-1	실:-(載)-지, -고, -더라	32184-0-1	실꼬'
32184-0-2	실:-(載)-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84-0-2	시'럴따
32185-0-1	얻:-(得)-지, -고, -더라	32185-0-1	억꼬' 일'따
32185-0-2	얻:-(得)-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85-0-2	어덜'따'
32186-0-1	빙-(粉碎)-지, -고, -더라	32186-0-1	빠시'고
32186-0-2	빙-(粉碎)-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86-0-2	빠사'알따
32187-0-1	파랑-(碧)-지, -고, -더라	32187-0-1	파락'코'
32187-0-2	파랑-(碧)-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87-0-2	파랴'따

32188-0-1	다르-(異)-지, -고, -더라	32188-0-1 다르'고
32188-0-2	다르-(異)-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88-0-2 달'랄따
32189-0-1	푸-(汲)-지, -고, -더라	32189-0-1 퍼'고'
32189-0-2	푸-(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89-0-2 편'따'
32190-0-1	누-(尿)-지, -고, -더라	32190-0-1 누'고
32190-0-2	누-(尿)-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90-0-2 노'올'따
32191-0-1	더:럽-(汚)-지, -고, -더라	32191-0-1 더럭'꼬'
32191-0-2	더:럽-(汚)-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91-0-2 더러'벌'따
32192-0-1	거두-(收)-지, -고, -더라	32192-0-1 거다'아고
32192-0-2	거두-(收)-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92-0-2 거다'알따
32193-0-1	끓-(沸)-지, -고, -더라	32193-0-1 끌'코
32193-0-2	끓-(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93-0-2 꼬'릴따
32194-0-1	이기-(勝)-지, -고, -더라	32194-0-1 이'기고
32194-0-2	이기-(勝)-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94-0-2 이'길따
32195-0-1	부시-(照)-지, -고, -더라	32195-0-1 부시'이고
32195-0-2	부시-(照)-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95-0-2 부시'일따
32196-0-1	자빠지-(後倒)-지, -고, -더라	32196-0-1 자'빠지고
32196-0-2	자빠지-(後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96-0-2 자'빠절따
32197-0-1	일으키-(使起)-지, -고, -더라	32197-0-1 일바'시고
32197-0-2	일으키-(使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97-0-2 일'바'실따
32198-0-1	당기-(引)-지, -고, -더라	32198-0-1 땡'기고
32198-0-2	당기-(引)-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98-0-2 땡'길따
32199-0-1	버리-(捨)-지, -고, -더라	32199-0-1 버'리고
32199-0-2	버리-(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199-0-2 버'릴따

32200-0-1	훔치-(盜)-지, -고, -더라	32200-0-1 훔'치고
32200-0-2	훔치-(盜)-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00-0-2 훔'철따
32201-0-1	지-(負)-지, -고, -더라	32201-0-1 지'고
32201-0-2	지-(負)-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01-0-2 전'따'
32202-0-1	외:-(暗誦)-지, -고, -더라	32202-0-1 이'아고
32202-0-2	외:-(暗誦)-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02-0-2 이'얏따
32203-0-1	사귀-(交際)-지, -고, -더라	32203-0-1 새'기고
32203-0-2	사귀-(交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03-0-2 새'길따
32204-0-1	씩-(腐)-지, -고, -더라	32204-0-1 씹'꼬
32204-0-2	씩-(腐)-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04-0-2 씹'걸따
32205-0-1	질-(泥)-지, -고, -더라	32205-0-1 질'고
32205-0-2	질-(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05-0-2 지'럴따
32206-0-1	까불-(箕)-지, -고, -더라	32206-0-1 까불'고
32206-0-2	까불-(箕)-아/어도, -아/어서,	32206-0-2 까부'랄따
32207-0-1	드물-(稀)-지, -고, -더라	32207-0-1 드'물'고
32207-0-2	드물-(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07-0-2 드'무'랄따
32208-0-1	줄:-(縮)-지, -고, -더라	32208-0-1 줄고'
32208-0-2	줄:-(縮)-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08-0-2 주'럴따
32209-0-1	심:-(植)-지, -고, -더라	32209-0-1 숭구'고
32209-0-2	심:-(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09-0-2 숭'굳따
32210-0-1	쓰다듬-(撫)-지, -고, -더라	32210-0-1 씨다'듬'꼬
32210-0-2	쓰다듬-(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10-0-2 씨다드'떨'따
32211-0-1	사:납-(猛)-지, -고, -더라	32211-0-1 사납'꼬
32211-0-2	사:납-(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11-0-2 사나'발따

32212-0-1	가볍-(輕)-지, -고, -더라	32212-0-1 개국'꼬
32212-0-2	가볍-(輕)-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12-0-2 개거'왁따
32213-0-1	젓:- (撈)-지, -고, -더라	32213-0-1 적꼬'
32213-0-2	젓:- (撈)-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13-0-2 저'실따
32214-0-1	두껍-(厚)-지, -고, -더라	32214-0-1 뚜꼭'꼬
32214-0-2	두껍-(厚)-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14-0-2 뚜꾸'왁따
32215-0-1	무르-(軟)-지, -고, -더라	32215-0-1 무루'고
32215-0-2	무르-(軟)-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15-0-2 물'릴따
32216-0-1	분지르-(折)-지, -고, -더라	32216-0-1 뿌라'아고
32216-0-2	분지르-(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16-0-2 뿌라'알따
32217-0-1	배우-(學)-지, -고, -더라	32217-0-1 배'우고
32217-0-2	배우-(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17-0-2 배'윙따
32218-0-1	다리-(撻)-지, -고, -더라	32218-0-1 다'리고
32218-0-2	다리-(撻)-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18-0-2 다'릴따
32219-0-1	후비-(窰, 귀를)-지, -고, -더라	32219-0-1 후비'고
32219-0-2	후비-(窰, 귀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19-0-2 후비'일따
32220-0-1	아리-(痛)-지, -고, -더라	32220-0-1 아리'이고
32220-0-2	아리-(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20-0-2 아리'일따
32221-0-1	그리-(書)-지, -고, -더라	32221-0-1 거'리'고
32221-0-2	그리-(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21-0-2 거'릴'따
32222-0-1	저리-(癡)-지, -고, -더라	32222-0-1 저'리고
32222-0-2	저리-(癡)-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22-0-2 절'릴따
32223-0-1	불리-(增)-지, -고, -더라	32223-0-1 불'리고
32223-0-2	불리-(增)-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23-0-2 불'릴따

32224-0-1	뜨시-(溫)-지, -고, -더라	32224-0-1 뜨시'고
32224-0-2	뜨시-(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24-0-2 뜨시'일따
32225-0-1	끓이-(使沸)-지, -고, -더라	32225-0-1 끼'리고
32225-0-2	끓이-(使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25-0-2 끼'릴따
32226-0-1	누비-(縫)-지, -고, -더라	32226-0-1 니'비고
32226-0-2	누비-(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26-0-2 니'빌따
32227-0-1	구기-(皺)-지, -고, -더라	32227-0-1 꾸개'고
32227-0-2	구기-(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27-0-2 꾸개'엘따
32228-0-1	비:-(空)-지, -고, -더라	32228-0-1 비'고'
32228-0-2	비:-(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28-0-2 비'일따
32229-0-1	식히-(使冷)-지, -고, -더라	32229-0-1 식카'아고
32229-0-2	식히-(使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29-0-2 식카'알따
32230-0-1	매-(除草)-지, -고, -더라	32230-0-1 매'고'
32230-0-2	매-(除草)-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30-0-2 매'엘'따
32231-0-1	매:-(結)-지, -고, -더라	32231-0-1 매'고
32231-0-2	매:-(結)-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31-0-2 매'엘따
32232-0-1	뛰-(走)-지, -고, -더라	32232-0-1 띠'고
32232-0-2	뛰-(走)-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32-0-2 띠'일따
32233-0-1	담:-(盛)-지, -고, -더라	32233-0-1 당꼬'
32233-0-2	담:-(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33-0-2 다'말따
32234-0-1	가렵-(癢)-지, -고, -더라	32234-0-1 긍그럭'꼬
32234-0-2	가렵-(癢)-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34-0-2 긍그러'벌따
32235-0-1	때리-(打)-지, -고, -더라	32235-0-1 때'리고
32235-0-2	때리-(打)-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35-0-2 때'릴따

32236-0-1	어둡-(暗)-지, -고, -더라	32236-0-1 어덕'꼬(+할머니), 어둡'꼬(+할아버지)
32236-0-2	어둡-(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36-0-2 어더'받따(+할아버지), 어더'받따(+할머니)
32237-0-1	잡-(執)-지, -고, -더라	32237-0-1 잡'꼬
32237-0-2	잡-(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37-0-2 자'받따
32238-0-1	차-(蹴)-지, -고, -더라	32238-0-1 차'고'
32238-0-2	차-(蹴)-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38-0-2 찬'따'
32239-0-1	모자라-(不足)-지, -고, -더라	32239-0-1 모지래'고
32239-0-2	모자라-(不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39-0-2 모지래'앰따
32240-0-1	부르-(呼)-지, -고, -더라	32240-0-1 부러'고
32240-0-2	부르-(呼)-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40-0-2 불'런따
32241-0-1	따르-(注)-지, -고, -더라	32241-0-1 따라'아고
32241-0-2	따르-(注)-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41-0-2 따라'알따
32242-0-1	쪼:- (啄)-지, -고, -더라	32242-0-1 쪼꼬'
32242-0-2	쪼:- (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42-0-2 쪼'삼따
32243-0-1	두-(置)-지, -고, -더라	32243-0-1 두'고
32243-0-2	두-(置)-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43-0-2 두'월'따
32244-0-1	시키-(使)-지, -고, -더라	32244-0-1 씨'이고
32244-0-2	시키-(使)-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44-0-2 씨'긴따
32245-0-1	지리-(漏, 오줌을)-지, -고, -더라	32245-0-1 쨍기'고'
32245-0-2	지리-(漏, 오줌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45-0-2 쨍긴'따'
32246-0-1	던지-(投)-지, -고, -더라	32246-0-1 뎡'지고
32246-0-2	던지-(投)-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246-0-2 뎡'진따
32247-0-1	모이-(集)-지, -고, -더라	32247-0-1 모이'고

32247-0-2	모이-(集)-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47-0-2	모일'따
32248-0-1	만지-(搯)-지, -고, -더라	32248-0-1	만'지고
32248-0-2	만지-(搯)-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48-0-2	만'질따
32249-0-1	찌:- (曬)-지, -고, -더라	32249-0-1	찌'이'고
32249-0-2	찌:- (曬)-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49-0-2	찌'일'따
32250-0-1	비틀-(捻)-지, -고, -더라	32250-0-1	비틀'고'
32250-0-2	비틀-(捻)-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50-0-2	비트'ړ'따
32251-0-1	돕:- (助)-지, -고, -더라	32251-0-1	도'오고
32251-0-2	돕:- (助)-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51-0-2	도'완다
32252-0-1	씹-(咀)-지, -고, -더라	32252-0-1	씹꼬'
32252-0-2	씹-(咀)-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52-0-2	씨'벌따
32253-0-1	미끄럽-(滑)-지, -고, -더라	32253-0-1	미끄럭'꼬
32253-0-2	미끄럽-(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53-0-2	미끄러'윙따
32254-0-1	닿-(接)-지, -고, -더라	32254-0-1	대이'고
32254-0-2	닿-(接)-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54-0-2	대일'따
32255-0-1	누르-(壓)-지, -고, -더라 -았/었다	32255-0-1	누지르'고(+할머니), 눌루'고'(+할아버지)
32255-0-2	누르-(壓)-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55-0-2	누지'ړ'따(+할머니), 눌룬'따'(+할아버지)
32256-0-1	주무르-(揉)-지, -고, -더라	32256-0-1	주무'러고(+할아버지), 주물'러고(+할머니)
32256-0-2	주무르-(揉)-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56-0-2	주물'ړ'따
32257-0-1	메우-(填)-지, -고, -더라	32257-0-1	미'야고
32257-0-2	메우-(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57-0-2	미'얏따
32258-0-1	꼬시-(香味)-지, -고, -더라	32258-0-1	꼬시'고

32258-0-2	꼬시-(香味)-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58-0-2 꼬시'일파
32259-0-1	내리-(降)-지, -고, -더라	32259-0-1 내'리고(+할아버지), 내리'이고(+할머니)
32259-0-2	내리-(降)-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59-0-2 내'릴파(+할아버지), 내리'일파(+할머니)
32260-0-1	구르-(轉)-지, -고, -더라	32260-0-1 구불'고
32260-0-2	구르-(轉)-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60-0-2 구부'릴'파
32261-0-1	만들-(作)-지, -고, -더라	32261-0-1 맨들'고
32261-0-2	만들-(作)-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61-0-2 맨드'릴파
32262-0-1	늪-(老)-지, -고, -더라	32262-0-1 널'꼬
32262-0-2	늪-(老)-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62-0-2 널'길파
32263-0-1	앓-(痛)-지, -고, -더라	32263-0-1 알'코
32263-0-2	앓-(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63-0-2 아'랄파
32264-0-1	따르-(隨)-지, -고, -더라	32264-0-1 딸'코
32264-0-2	따르-(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64-0-2 따'랄파
32265-0-1	사-(買)-지, -고, -더라	32265-0-1 사'고
32265-0-2	사-(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65-0-2 살'파'
32266-0-1	치우-(除)-지, -고, -더라	32266-0-1 치'아고
32266-0-2	치우-(除)-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66-0-2 치'알파
32267-0-1	부러지-(被折)-지, -고, -더라	32267-0-1 뿌라아지'고
32267-0-2	부러지-(被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67-0-2 뿌라아절'파'
32268-0-1	다치-(傷)-지, -고, -더라	32268-0-1 다'치고
32268-0-2	다치-(傷)-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68-0-2 다'칠파(+할아버지), 다'칠파(+할머니)
32269-0-1	느리-(緩)-지, -고, -더라	32269-0-1 느'리고

32269-0-2	느리-(緩)-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69-0-2 느'릴따
32270-0-1	무치-(和,나물을)-지, -고, -더라	32270-0-1 무'치고
32270-0-2	무치-(和,나물을)-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0-0-2 무'칠따
32271-0-1	죄:- (締)-지, -고, -더라	32271-0-1 조'아고
32271-0-2	죄:- (締)-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1-0-2 조'알따
32272-0-1	팔-(賣)-지, -고, -더라	32272-0-1 팔'고'
32272-0-2	팔-(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2-0-2 파'랄'따
32273-0-1	뽑-(選)-지, -고, -더라	32273-0-1 뽑'꼬'
32273-0-2	뽑-(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3-0-2 뽏'받'따
32274-0-1	뒤지-(索)-지, -고, -더라	32274-0-1 디비'고
32274-0-2	뒤지-(索)-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4-0-2 디비'일따
32275-0-1	마치-(終)-지, -고, -더라	32275-0-1 마'치고
32275-0-2	마치-(終)-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5-0-2 마'칠따(+할아버지), 마'칠따(+할머니)
32276-0-1	절이-(鹽)-지, -고, -더라	32276-0-1 저'리고
32276-0-2	절이-(鹽)-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6-0-2 저'릴따
32277-0-1	휘-(曲)-지, -고, -더라	32277-0-1 히이'고
32277-0-2	휘-(曲)-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7-0-2 히일'따
32278-0-1	줍:- (拾)-지, -고, -더라	32278-0-1 조꼬'
32278-0-2	줍:- (拾)-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8-0-2 조'온따
32279-0-1	빼앗-(奪)-지, -고, -더라	32279-0-1 빼떨'고
32279-0-2	빼앗-(奪)-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79-0-2 빼'떠'릴따
32280-0-1	기울-(傾)-지, -고, -더라	32280-0-1 기울'고
32280-0-2	기울-(傾)-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0-0-2 기우'릴따

32281-0-1	아깝-(惜)-지, -고, -더라	32281-0-1 아깝'꼬
32281-0-2	아깝-(惜)-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1-0-2 아까'받따
32282-0-1	반갑-(歡)-지, -고, -더라	32282-0-1 방'각꼬
32282-0-2	반갑-(歡)-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2-0-2 방'가'왁따
32283-0-1	찌-(蒸)-지, -고, -더라	32283-0-1 찌'고'
32283-0-2	찌-(蒸)-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3-0-2 찢'따'
32284-0-1	노랑-(黃)-지, -고, -더라	32284-0-1 노:락'코
32284-0-2	노랑-(黃)-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4-0-2 노랜'따
32285-0-1	푸르-(靑)-지, -고, -더라	32285-0-1 푸'르고
32285-0-2	푸르-(靑)-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5-0-2 푸'럴따
32286-0-1	서두르-(忙)-지, -고, -더라	32286-0-1 서두르'고
32286-0-2	서두르-(忙)-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6-0-2 서둘'럴따
32287-0-1	서투르-(不熟)-지, -고, -더라	32287-0-1 서툴'고'
32287-0-2	서투르-(不熟)-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7-0-2 서투런'따'
32288-0-1	게으르-(怠)-지, -고, -더라	32288-0-1 끼일'코
32288-0-2	게으르-(怠)-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8-0-2 끼어'럴따
32289-0-1	따뜻하-(溫)-지, -고, -더라	32289-0-1 따뜻하'고
32289-0-2	따뜻하-(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89-0-2 따뜻헐'따
32290-0-1	춡-(寒)-지, -고, -더라	32290-0-1 춡'꼬'
32290-0-2	춡-(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0-0-2 추'벌'따
32291-0-1	뜨겁-(極熱)-지, -고, -더라	32291-0-1 뜨'걱'꼬
32291-0-2	뜨겁-(極熱)-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1-0-2 뜨'거'벌따
32292-0-1	미지근하-(微溫)-지, -고, -더라	32292-0-1 미지건하'고
32292-0-2	미지근하-(微溫)-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2-0-2 미지건헐'따

32293-0-1	차갑-(寒)-지, -고, -더라	32293-0-1 차'꼬'
32293-0-2	차갑-(寒)-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3-0-2 차'벌'따
32294-0-1	부럽-(羨)-지, -고, -더라	32294-0-1 부러'꼬
32294-0-2	부럽-(羨)-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4-0-2 부러'벌'따
32295-0-1	알밋-(憎)-지, -고, -더라	32295-0-1 알믹'꼬'
32295-0-2	알밋-(憎)-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5-0-2 알미'원'따
32296-0-1	비슷하-(類似)-지, -고, -더라	32296-0-1 비스름하'고
32296-0-2	비슷하-(類似)-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6-0-2 비스름헐'따
32297-0-1	새롭-(新)-지, -고, -더라	32297-0-1 새'롭'꼬
32297-0-2	새롭-(新)-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7-0-2 새'러'벌'따
32298-0-1	서:럽-(悲痛)-지, -고, -더라	32298-0-1 서럽'꼬'
32298-0-2	서:럽-(悲痛)-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8-0-2 서러'벌'따
32299-0-1	까다롭-(難)-지, -고, -더라	32299-0-1 까다록'꼬
32299-0-2	까다롭-(難)-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299-0-2 까다러'벌'따
32300-0-1	외롭-(孤)-지, -고, -더라	32300-0-1 웨'럭'꼬
32300-0-2	외롭-(孤)-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00-0-2 웨'러'벌'따
32301-0-1	아쉽-(不滿)-지, -고, -더라	32301-0-1 아'쉽'꼬
32301-0-2	아쉽-(不滿)-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01-0-2 아'서'받'따
32302-0-1	단단하-(固)-지, -고, -더라	32302-0-1 단단하'고
32302-0-2	단단하-(固)-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02-0-2 단단헐'따
32303-0-1	늦-(晩)-지, -고, -더라	32303-0-1 늦'꼬
32303-0-2	늦-(晩)-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았/었다	32303-0-2 느'절'따
32304-0-1	남:-(餘)-지, -고, -더라	32304-0-1 남'꼬'
32304-0-2	남:-(餘)-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32304-0-2 나'말'따

32305-0-1	남기-(使餘)-지, -고, -더라	32305-0-1 낭'기고
32305-0-2	남기-(使餘)-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05-0-2 낭'길따
32306-0-1	넘어뜨리-(使倒)-지, -고, -더라	32306-0-1 너머뜨'리고
32306-0-2	넘어뜨리-(使倒)-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06-0-2 너머뜨'릴따
32307-0-1	쭈그러뜨리-(使凹)-지, -고, -더라	32307-0-1 쭈굴티'리고
32307-0-2	쭈그러뜨리-(使凹)-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07-0-2 쭈굴티'릴따
32308-0-1	견주-(比)-지, -고, -더라	32308-0-1 전자'아고
32308-0-2	견주-(比)-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08-0-2 전자'알따
32309-0-1	외우-(誦)-지, -고, -더라	32309-0-1 이'야고
32309-0-2	외우-(誦)-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09-0-2 이'알따
32310-0-1	문지르-(摩)-지, -고, -더라	32310-0-1 문지르'고
32310-0-2	문지르-(摩)-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0-0-2 문질'릴따
32311-0-1	가리키-(指)-지, -고, -더라	32311-0-1 가르'치고
32311-0-2	가리키-(指)-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1-0-2 가르'칠따
32312-0-1	가르치-(敎)-지, -고, -더라	32312-0-1 가'르치고
32312-0-2	가르치-(敎)-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2-0-2 가르'칠따
32313-0-1	겨누-(照準)-지, -고, -더라	32313-0-1 여자'아고
32313-0-2	겨누-(照準)-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3-0-2 여자'알따
32314-0-1	겨루-(競)-지, -고, -더라	32314-0-1 게라'아고
32314-0-2	겨루-(競)-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4-0-2 게루'운따
32315-0-1	달래-(慰撫)-지, -고, -더라	32315-0-1 달개'고
32315-0-2	달래-(慰撫)-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5-0-2 달개'엘따
32316-0-1	본받-(效)-지, -고, -더라	32316-0-1 뽐박'꼬, 뽐보'고
32316-0-2	본받-(效)-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6-0-2 뽐바'달따, 뽐바'알'따

32317-0-1	어지르-(散)-지, -고, -더라	32317-0-1 어'질'고
32317-0-2	어지르-(散)-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7-0-2 어'지'릴따
32318-0-1	달리-(走)-지, -고, -더라	32318-0-1 달'리고
32318-0-2	달리-(走)-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8-0-2 달'릴따
32319-0-1	우기-(拗)-지, -고, -더라	32319-0-1 씨'아고
32319-0-2	우기-(拗)-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19-0-2 씨'알따
32320-0-1	중얼거리-(獨言)-지, -고, -더라	32320-0-1 구시렁거'리고, 중얼거'리고
32320-0-2	중얼거리-(獨言)-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0-0-2 구사렁거'릴따, 중얼거'릴따
32321-0-1	지껄이-(騷)-지, -고, -더라	32321-0-1 지꺼리'고
32321-0-2	지껄이-(騷)-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1-0-2 지꺼'릴따
32322-0-1	다니-(行)-지, -고, -더라	32322-0-1 땡기'고
32322-0-2	다니-(行)-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2-0-2 땡'길따
32323-0-1	떨어뜨리-(使落)-지, -고, -더라	32323-0-1 널짜'아고
32323-0-2	떨어뜨리-(使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3-0-2 널짜'알따
32324-0-1	깨-(覺)-지, -고, -더라	32324-0-1 깨'고'
32324-0-2	깨-(覺)-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4-0-2 깨'엘'따
32325-0-1	시-(酸)-지, -고, -더라	32325-0-1 시'고
32325-0-2	시-(酸)-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5-0-2 시'일따
32326-0-1	솟-(湧)-지, -고, -더라	32326-0-1 속'꼬
32326-0-2	솟-(湧)-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6-0-2 소'살따
32327-0-1	좋:-(好)-지, -고, -더라	32327-0-1 조코'
32327-0-2	좋:-(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7-0-2 조알'따'
32328-0-1	빨강-(赤)-지, -고, -더라	32328-0-1 빨가'코'
32328-0-2	빨강-(赤)-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8-0-2 빨깁'따'

32329-0-1	끝:-(曳)-지, -고, -더라	32329-0-1	끝'고 간다(+할아버지), 끝고' 간다(+할머니)
32329-0-2	끝:-(曳)-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29-0-2	끄'릴따
32330-0-1	얇:-(薄)-지, -고, -더라	32330-0-1	열꼬'
32330-0-2	얇:-(薄)-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30-0-2	열'벌따
32331-0-1	하얇-(白)-지, -고, -더라	32331-0-1	하야'코'
32331-0-2	하얇-(白)-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32331-0-2	하얏'따'

3.2.2. 곡용

32332-0-1	국(羹)-이/가	32332-0-1	구'기
32332-0-2	국(羹)-을/를	32332-0-2	구'글
32332-0-3	국(羹)-에(서)	32332-0-3	구'게
32332-0-4	국(羹)-으로	32332-0-4	구'그로
32332-0-5	국(羹)-도	32332-0-5	국'또
32333-0-1	논(沍)-이/가	32333-0-1	노'~이'
32333-0-2	논(沍)-을/를	32333-0-2	노'늘'
32333-0-3	논(沍)-에(서)	32333-0-3	노'네서
32333-0-4	논(沍)-으로	32333-0-4	노'느'로
32333-0-5	논(沍)-도	32333-0-5	논'도'
32334-0-1	쌀(米)-이/가	32334-0-1	싸'리'
32334-0-2	쌀(米)-을/를	32334-0-2	쌀'료'
32334-0-3	쌀(米)-에(서)	32334-0-3	싸'레'서
32334-0-4	쌀(米)-으로	32334-0-4	쌀'로'
32334-0-5	쌀(米)-도	32334-0-5	쌀'도'
32335-0-1	봄(春)-이/가	32335-0-1	보'미'
32335-0-2	봄(春)-을/를	32335-0-2	보'물'
32335-0-3	봄(春)-에(서)	32335-0-3	보'매
32335-0-4	봄(春)-으로	32335-0-4	보'므'로

32335-0-5 봄(春)-도

32335-0-5 봄'도'

32336-0-1 집(家)-이/가

32336-0-1 지'비

32336-0-2 집(家)-을/를

32336-0-2 지'블

32336-0-3 집(家)-에(서)

32336-0-3 지'베

32336-0-4 집(家)-으로

32336-0-4 지'브로

32336-0-5 집(家)-도

32336-0-5 집'또

32337-0-1 옷(衣)-이/가

32337-0-1 오'시'

32337-0-2 옷(衣)-을/를

32337-0-2 오'슬'

32337-0-3 옷(衣)-에(서)

32337-0-3 오'세

32337-0-4 옷(衣)-으로

32337-0-4 오'스'로

32337-0-5 옷(衣)-도

32337-0-5 온'또'

32338-0-1 방(房)-이/가

32338-0-1 방'이

32338-0-2 방(房)-을/를

32338-0-2 방'을

32338-0-3 방(房)-에(서)

32338-0-3 방'에서

32338-0-4 방(房)-으로

32338-0-4 방'으로

32338-0-5 방(房)-도

32338-0-5 방'도

32339-0-1 낮(晝)-이/가

32339-0-1 나'지'

32339-0-2 낮(晝)-을/를

32339-0-2 나'즐'

32339-0-3 낮(晝)-에(서)

32339-0-3 나'제

32339-0-4 낮(晝)-으로

32339-0-4 나'즈'로

32339-0-5 낮(晝)-도

32339-0-5 난'또'

32340-0-1 낮(顔)-이/가

32340-0-1 나'치

32340-0-2 낮(顔)-을/를

32340-0-2 나'틀

32340-0-3 낮(顔)-에(서)

32340-0-3 나'테서

32340-0-4 낮(顔)-으로

32340-0-4 나'트로

32340-0-5 낮(顔)-도

32340-0-5 난'또

32341-0-1 부엌(廚)-이/가

32341-0-1 정기'가

32341-0-2 부엌(廚)-을/를

32341-0-2 정지'로

32341-0-3 부엌(廚)-에(서)

32341-0-3 정기'이서

32341-0-4 부엌(廚)-으로

32341-0-4 정기'로

32341-0-5 부엌(廚)-도

32341-0-5 정기'도

32342-0-1 밭(田)-이/가
 32342-0-2 밭(田)-을/를
 32342-0-3 밭(田)-에(서)
 32342-0-4 밭(田)-으로
 32342-0-5 밭(田)-도

32342-0-1 바'치
 32342-0-2 바'틀
 32342-0-3 바'테서
 32342-0-4 바'트로
 32342-0-5 받'또

32343-0-1 앞(前)-이/가
 32343-0-2 앞(前)-을/를
 32343-0-3 앞(前)-에(서)
 32343-0-4 앞(前)-으로
 32343-0-5 앞(前)-도

32343-0-1 아'피
 32343-0-2 아'플
 32343-0-3 아'페서
 32343-0-4 아'프로
 32343-0-5 압'또

32344-0-1 녀(魂)-이/가
 32344-0-2 녀(魂)-을/를
 32344-0-3 녀(魂)-에(서)
 32344-0-4 녀(魂)-으로
 32344-0-5 녀(魂)-도

32344-0-1 녀'씨
 32344-0-2 녀'쓸
 32344-0-3 녀'세서
 32344-0-4 녀'스로
 32344-0-5 녀'또

32345-0-1 흙(土)-이/가
 32345-0-2 흙(土)-을/를
 32345-0-3 흙(土)-에(서)
 32345-0-4 흙(土)-으로
 32345-0-5 흙(土)-도

32345-0-1 흐'리(+할아버지), 흐'키(+할머니)
 32345-0-2 흐'클(+할머니), (+할아버지)
 32345-0-3 흐'레서(+할아버지),
 흐'케서(+할머니)
 32345-0-4 흐'크로(+할머니),
 흘'로(+할아버지)
 32345-0-5 흑'또(+할머니), 흘'도(+할아버지)

32346-0-1 여덟(八)-이/가
 32346-0-2 여덟(八)-을/를
 32346-0-3 여덟(八)-에(서)
 32346-0-4 여덟(八)-으로
 32346-0-5 여덟(八)-도

32346-0-1 여'더리
 32346-0-2 여'덜로
 32346-0-3 여'더레서
 32346-0-4 여'덜로
 32346-0-5 여'덜도

32347-0-1 돌(週歲)-이/가
 32347-0-2 돌(週歲)-을/를
 32347-0-3 돌(週歲)-에(서)
 32347-0-4 돌(週歲)-으로

32347-0-1 도'리'
 32347-0-2 도'를'
 32347-0-3 도'레'서
 32347-0-4 돌'로

32347-0-5 돌(週歲)-도

32347-0-5 돌'도'

32348-0-1 값(價)-이/가

32348-0-1 값'시'

32348-0-2 값(價)-을/를

32348-0-2 값'슬'

32348-0-3 값(價)-에(서)

32348-0-3 값'세'

32348-0-4 값(價)-으로

32348-0-4 값'서'로

32348-0-5 값(價)-도

32348-0-5 값'또'

32349-0-1 속:(內)-이/가

32349-0-1 쏘'오기

32349-0-2 속:(內)-을/를

32349-0-2 쏘오'걸

32349-0-3 속:(內)-에(서)

32349-0-3 쏘오'게서

32349-0-4 속:(內)-으로

32349-0-4 쏘'오'그로

32349-0-5 속:(內)-도

32349-0-5 쏘옥'또

32350-0-1 돈:(錢)-이/가

32350-0-1 도니'

32350-0-2 돈:(錢)-을/를

32350-0-2 도널'

32350-0-3 돈:(錢)-에(서)

32350-0-3 도네'서'

32350-0-4 돈:(錢)-으로

32350-0-4 도느'로'

32350-0-5 돈:(錢)-도

32350-0-5 돈도'

32351-0-1 발(足)-이/가

32351-0-1 바'리'

32351-0-2 발(足)-을/를

32351-0-2 바'를'

32351-0-3 발(足)-에(서)

32351-0-3 바'레서

32351-0-4 발(足)-으로

32351-0-4 발'로'

32351-0-5 발(足)-도

32351-0-5 발'도'

32352-0-1 짐(荷物)-이/가

32352-0-1 지'미'

32352-0-2 짐(荷物)-을/를

32352-0-2 지'물'

32352-0-3 짐(荷物)-에(서)

32352-0-3 지'메

32352-0-4 짐(荷物)-으로

32352-0-4 지'므'로

32352-0-5 짐(荷物)-도

32352-0-5 짐'도'

32353-0-1 입(口)-이/가

32353-0-1 이'비'

32353-0-2 입(口)-을/를

32353-0-2 이'블'

32353-0-3 입(口)-에(서)

32353-0-3 이'베

32353-0-4 입(口)-으로

32353-0-4 이'브'로

32353-0-5 입(口)-도

32353-0-5 입'또'

32354-0-1 낫(鎌)-이/가

32354-0-1 나'치'

32354-0-2 낫(鎌)-을/를

32354-0-2 나'틀'

32354-0-3 낫(鎌)-에(서)

32354-0-3 나'테

32354-0-4 낫(鎌)-으로

32354-0-4 나'트'로

32354-0-5 낫(鎌)-도

32354-0-5 난'또'

32355-0-1 강(江)-이/가

32355-0-1 강'이'

32355-0-2 강(江)-을/를

32355-0-2 강'을'

32355-0-3 강(江)-에(서)

32355-0-3 강'에'서

32355-0-4 강(江)-으로

32355-0-4 강'으'로

32355-0-5 강(江)-도

32355-0-5 강'도'

32356-0-1 젖(乳)-이/가

32356-0-1 저'지'

32356-0-2 젖(乳)-을/를

32356-0-2 저'즐'

32356-0-3 젖(乳)-에(서)

32356-0-3 저'제

32356-0-4 젖(乳)-으로

32356-0-4 저'즈'로

32356-0-5 젖(乳)-도

32356-0-5 절'또'

32357-0-1 꽃(花)-이/가

32357-0-1 꼬'치

32357-0-2 꽃(花)-을/를

32357-0-2 꼬'틀

32357-0-3 꽃(花)-에(서)

32357-0-3 꼬'테서

32357-0-4 꽃(花)-으로

32357-0-4 꼬'트로

32357-0-5 꽃(花)-도

32357-0-5 끝'또

32358-0-1 팥(赤豆)-이/가

32358-0-1 파'치'

32358-0-2 팥(赤豆)-을/를

32358-0-2 파'틀'

32358-0-3 팥(赤豆)-에(서)

32358-0-3 파'테

32358-0-4 팥(赤豆)-으로

32358-0-4 파'트'로

32358-0-5 팥(赤豆)-도

32358-0-5 판'또'

32359-0-1 옆(側)-이/가

32359-0-1 여'피

32359-0-2 옆(側)-을/를

32359-0-2 여'플

32359-0-3 옆(側)-에(서)

32359-0-3 여'페

32359-0-4 옆(側)-으로

32359-0-4 여'프로

32359-0-5 옆(側)-도

32359-0-5 엽'또

32360-0-1 샅(賃金)-이/가

32360-0-1 싸'기

32360-0-2 샅(賃金)-을/를

32360-0-2 싸'글

32360-0-3 샅(賃金)-에(서)

32360-0-3 싸'게

32360-0-4 샅(賃金)-으로

32360-0-4 싸'그로

32360-0-5 샅(賃金)-도

32360-0-5 싸'또

32361-0-1 닭(鷄)-이/가

32361-0-1 다'리(+할아버지), 다'키(+할머니)

32361-0-2 닭(鷄)-을/를

32361-0-2 다'를(+할아버지), 다'클(+할머니)

32361-0-3 닭(鷄)-에(서)

32361-0-3 다'레(+할아버지), 다'케(+할머니)

32361-0-4 닭(鷄)-으로

32361-0-4 다'크로(+할머니),

달'로(+할아버지)

32361-0-5 닭(鷄)-도

32361-0-5 닷'또(+할머니), 달'도(+할아버지)

32362-0-1 막(外)-이/가

32362-0-1 바'끼

32362-0-2 막(外)-을/를

32362-0-2 바'글

32362-0-3 막(外)-에(서)

32362-0-3 바'께

32362-0-4 막(外)-으로

32362-0-4 바'끄로

32362-0-5 막(外)-도

32362-0-5 박'또



제4편 문 법

4.1. 대명사

1) 인칭대명사

40101 나	40101 내, 나
40101-0-1 내-가	40101-0-1 내'가'
40101-0-2 내	40101-0-2 내'물건
40101-0-3 나-를	40101-0-3 나를'
40101-0-4 나-에게	40101-0-4 내인'테(+소), 내한'테(+다)
40101-0-5 나-와	40101-0-5 나하'고, 내하'고
40101-0-6 나-는	40101-0-6 나'는
40101-0-7 나-도	40101-0-7 나'도
40102 저/제-가	40102 저'라 저
40102-0-1 저-가	40102-0-1 저가'
40102-0-2 저-의	40102-0-2 제물'건'
40102-0-3 저-을/를	40102-0-3 저'를
40102-0-4 저-에게	40102-0-4 저한'테
40102-0-5 저-와/과	40102-0-5 저하'고
40102-0-6 저-는	40102-0-6 저'는
40102-0-7 저-도	40102-0-7 저'도
40103 우리	40103 우리'
40104 저희	40104 저'히
40105 너	40105 니
40105-0-1 -가	40105-0-1 니가'
40105-0-2 -의	40105-0-2 니'책
40105-0-3 -을/를	40105-0-3 니'를
40105-0-4 -에게	40105-0-4 니한'테
40105-0-5 -와/과	40105-0-5 니하'고
40105-0-6 -는	40105-0-6 니'는
40105-0-7 -도	40105-0-7 니'도
40106 자네	40106 자네'

40107 당신
40108 너희
40109 개
40109-1 애
40109-2 재
40110 자기
40111 당신

40107 당신'
40108 너'거' 아부'지
40109 가'아
40109-1 야'아'
40109-2 자'아'
40110 지' 말마
40111 하'라'버지(+당신 없음)

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40112-0-1 누-가
40112-0-2 누구-의
40112-0-3 누구-를
40112-0-4 누구-에게
40112-0-5 누구-와
40113 무엇-이냐/입니까
40113-0-1 무엇-이
40113-0-2 무슨
40113-0-3 무엇-을
40113-0-4 무엇-과

40112 누'구'심니까
40112-0-1 누'가'
40112-0-2 누'구'동고', 누'동'고
40112-0-3 누'구', 누'구'를, 누'를'
40112-0-4 누', 누'한'테, 누'구'한테
40112-0-5 누'구'하고, 누'하'고
40113 머'꼬', 머'어'심'니'꺼, 머'엄'니'꺼
40113-0-1 머'어'시
40113-0-2 머'전'
40113-0-3 머'어'슬, 머'얼'
40113-0-4 머'어'거'치', 머'어'하'고

3) 그밖의 의문사

40114 어디
40115 언제
40116 어느
40117 왜
40118 얼마나
40119 어떻게

40114 어디'
40115 운'제'
40116 어느'
40117 와
40118 얼마'(+할아버지), 얼마'나'(+할머니)
40119 우'째'

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40120 이'거', 이'기'이'(+이것이)

40121 그것
40122 저것
40123 여기
오
40124 거기
40125 저기
40126 이리
40127 그리
40128 저리

40121 저'거', 저기'이'(저것이)
40122 그거'
40123 여'어(+여기에), 요'기, 요'게, 요'
40124 그'게, 그'으
40125 저'게(+할머니), 저'기(+할아버지)
40126 이'리'
40127 그'리
40128 저'리'

4.2. 조사

1) 격조사

40201 -이/가
40202 -이/가
40203 -을/를
40204 -을/를
40205 -에 게/게
40206 -보고/더러
40207 -보고/더러
40208 -에
40209 -에

40210 -에서
40211 -에서
40212 -에서
40213 -으로
40214 -으로
40215 -으로
40216 -으로
40217 -와/과
40218 -와/과
40219. -보다

40201 갑'시'
40202 코'가'
40203 코'를'
40204 물'로'
40205 한'테
40206 누'더'러
40207 누'보'고
40208 지'베
40209 나중'에', 다'음 보/자, 다'으메 보
'자, 디에' 만내'자
40210 큰지'베'서
40211 서울'서'
40212 여'기서
40213 쌀'로'
40214 지'프'로
40215 새'끼'로
40216 어테'로'
40217 수박하'고 차'메'하고
40218 나하'고, 내'캉
40219 히'~이카마

40220 -처럼
 40221 -만큼
 40222 -만큼
 40223 -아/야
 40224 -아/야
 40225 -아/야
 40226 -아/야
 40226-1 -예
 40227 -아/야
 40227-1 -요
 40228 -이랑
 40229 -커녕

40220 대에'지거치, 대에'지매로
 40221 니만':치, 니망'큼
 40222 무'울만치, 무'울망큼
 40223 봉'나'마
 40224 봉'나'미
 40225 영'수야
 40226 누'님
 40226-1 누'님예
 40227 하'라'부지(+신), 할'배'(+구)
 40227-1 *
 40228 수라'고 고'기하고
 40229 마너니라커'~이사(+할머니),
 마너니라커'~이(+할아버지)

2) 보조사

40230 -은/는
 40231 -만
 40232 -도
 40233 -마다
 40234 -부터
 40235 -까지
 40236 -조차
 40236-1 -할라
 40237 -이야/야
 40238 -을랑
 40239 -이라도
 40240 -밖에
 40241 -가지고

40230 수'른, 담배'는'
 40231 딸'마'
 40232 키'도, 얼굴'도
 40233 날'마'다
 40234 오늘부'텨
 40235 내'일까'지, 내'일꺼'정
 40236 물'조'차
 40236-1 비'오'는데
 40237 도~이'야'
 40238 소'릴랑
 40239 부자'라'도
 40240 너'빠'끼
 40241 싸가'악꼬

3) 문장 뒤 조사

40242 오-라-고 한다
 40243 알았어-요
 40244 했지-요?

40242 오'라꼬
 40243 아'라씨예
 40244 해'씨예

4.3. 종결어미

(1) 명령법

40301 -아라
40302 -게
40303 -으오
40304 -으십시오
40305 -세요

40301 양꺼'라
40302 양'께
40303 안지이'소
40304 안지이'소
40305 안지이'소

(2) 청유법

40306 -자
40307 -세
40308 -으오
40309 -십시오
40310 -세요

40306 가'자
40307 가'게, 가'세
40308 갑'시'다
40309 가'입'시더
40310 가'입'시더

(3) 의문법

40311 -니
40312 -나
40313 -오
40314 -습니까
40315 -나요
40316 -니
40317 -나
40318 -시오
40319 -습니까
40320 -세요

40311 오'나'
40312 오'능'가
40313 오'요', 음'니'까
40314 음'니'까
40315 음'니'까
40316 가'노
40317 가'능'고
40318 가심니'꺼
40319 가심니'꺼
40320 가심니'꺼

(4) 서술법

40321 -는다
40322 -네
40323 -오
40324 -습니다
40325 -네요
40326 -다
40327 -네
40328 -소
40329 -으십니다
40330 -으세요

40321 묻는'다
40322 묻'네
40323 묵습니'더
40324 묵습니'다
40325 묵습니'다
40326 작따'
40327 장네'
40328 작습'니'다, 작습'니'더
40329 작습'니'더
40330 작습'니'더

(5) 반말

40331 -아
40332 -지

40331 아'파, 아푸'나
40332 깔끼'제

(6) '이다'의 종결어미

40333 -이다
40334 -이니
40335 -이네
40336 -인가
40337 -이오
40338 -이오
40339 -입니다.
40340 -입니다까
40341 -이지지요
40342 -이지지요
40343 -이냐?
40344 -인가?

40333 생'이'리다
40334 생'일'가
40335 생'이'리네
40336 생'이'링가, 생'일'가
40337 생'이'릅니더
40338 생'이'릅니꺼
40339 생시님'니'더
40340 생시님'니'꺼
40341 생시님'니'더
40342 생시님'니'꺼
40343 머꼬'
40344 머상'고

40345 -이오?
 40346 -입니까?
 40347 -인가요?
 40348 -이야?
 40349 -이어요?

40345 머어심'니'꺼
 40346 머어심'니'꺼
 40347 머어심'니'꺼
 40348 머시'고
 40349 머영'교

(7) 그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
 40351 -습디다
 40352 -는구나/구나
 40353 -는구먼/구먼
 40354 -일세
 40355 -으마
 40356 -음세
 40357 -올라

40350 만습'니'다
 40351 만습'디'다
 40352 뭉는'다, 뭉능구'나
 40353 뭉는'다, 뭉는구'만
 40354 오래간마'~이세
 40355 가'파께
 40356 가'파께
 40357 다'칠라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
 40402 -으면서
 40403 -어/-어서
 40404 -으니 /-으니까
 40405 -관테
 40406 -다가
 40407 -거든
 40408 -더라도
 40409 -으려고
 40410 -도록
 40411 -을수록
 40412 -듯이
 40413 -지

40401 묵'꼬, 묵'꼬서
 40402 보'미서, 보'민서
 40403 추'부'서
 40404 뜨싱'계네, 뜨싱'계네
 40405 이리익길'레
 40406 오'다'가
 40407 만'내거든
 40408 묵떠'라도, 쓰'더'라도
 40409 무'올라꼬
 40410 빠'지'두룩, 새도'룩', 죽'뚜룩
 40411 이'글수록, 이슬'수록
 40412 쓰'드'끼(+신), 쓰'드'시(+신),
 씨'드'시, 씨'득'끼(+구)
 40413 보'지

4.5. 주체 존대

40501 -셔
40502 -셨소

40501 이'리' 오'소'
40502 모상'기 다 헨'능교

4.6. 시제

40601 웃는다
40602 기어간다
40603 크다
40604 생일이다
40605 오고 있다
40606 먹었니?/잡수셨습니까?
40607 왔었다
40608 먹더라
40609 먹더냐
40610 만나는 친구
40611 만난 친구
40612 만났던 친구
40613 만날 친구
40614 큰 아이
40615 크던 아이
40616 컸던 아이
40617 마시지 않겠다
40618 비가 오겠다

40601 인는'다'
40602 기'이'간다
40603 크'다'
40604 생'이'리다
40605 오'고일'따
40606 바'블' 무'운나, 진지' 잡살':슴니꺼
40607 완'따'갈'따'
40608 묵떠'라
40609 묵떠'나
40610 만'내는
40611 만'넌
40612 만'내편
40613 만'날
40614 큰
40615 크'던'
40616 컸'편'
40617 앙켈'따
40618 오겔'따, 올꺼갈'따

4.7. 부정

40701 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40702 안 좋다/좋지 않다
40703 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 하다

40701 묵찌 안헐'따, 안 무'운따
40702 안 조타', 조치 안'타
40703 앙 칼클'타, 칼클치 안'타

40704 장가 안 갔다/장가가지 않았
 40705 만나 보지 않았다/안 만나 보았다
 /만나 안 보았다
 40706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40706-1 먹도 않고
 40707 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40708 맞잖소?/안 맞소?

40704 양 간'따, 장개가지 아날'따
 40705 만'나보지 안헐'따, 안 만
 나 바'안'따
 40706 묵'찌도 양'코
 40706-1 묵'따 양'코
 40707 마'시지 못한다, 못 마신'다
 40708 내' 마리 마찌 안'쏘(+다),
 내 마리 안 마'쏘(+소)

4.8. 피동과 사동

1) 사동

40801 살리다
 40802 늘리다
 40803 말리다1
 40804 말리다2
 40805 얼리다
 40806 녹이다
 40807 신기다
 40808 보이다
 40809 알리다
 40810 입히다
 40811 얹히다

 40812 벗기다
 40813 웃기다
 40814 썩히다
 40815 숨기다
 40816 굶기다
 40817 깨우다
 40818 돌우다

40801 살'릴 따
 40802 늘'릴따(+할머니), 늘'릴따(+할아버지)
 40803 말라'알따
 40804 말'길 따
 40805 어라'알따
 40806 노카알'따
 40807 싱'킬 따
 40808 보일'따
 40809 알'릴 따
 40810 이'필 따
 40811 안'칠따(+할아버지),
 안차'알따(+할머니)
 40812 비'낄 따
 40813 우'낄 따
 40814 사카'알따
 40815 숭카'알따
 40816 궁'길 따
 40817 까배'앨따, 깨'알따
 40818 도다'알따

2) 피동

40819	잡히다	40819	자피'일따
40820	깎이다	40820	까끼'일따
40821	끼이다	40821	찌일'따, 칭기'일따
40822	떼이다	40822	띠일'따
40823	채이다	40823	차일'따, 채일'따
40824	단히다	40824	다끼'일따
40825	들리다	40825	드끼'일따, 들리'일따
40826	업히다	40826	업히'일따
40827	바뀌다	40827	바끼'일따
40828	썩히다	40828	씨피'인다
40829	엷히다	40829	언치'일따
40830	찍히다	40830	쪼끼'일따, 찌끼'일따
40831	눌리다	40831	눌리'일따
40832	실리다	40832	실리'일따
40833	끓기다	40833	끓키'일따
40834	끓히다	40834	끓키'일따

4.9. 보조용언

40901	싶다	40901	바꼬 지'ങ거
40902	싶다	40902	*(+잘 묵따'가)
40903	보다	40903	하문 이'버 보'이'소
40904	버리다	40904	무'우' 뽏따
40905	대다	40905	우'러덴다
40906	-나/는가 보다	40906	올랑'갑'따
40907	-나/는가 보다	40907	자'능'갑따
40908	-나/는가 보다	40908	추'붕'갑따

4.10. 부사

41001	실컷	41001	실컨'
-------	----	-------	-----

41002	많이	41002	마~이'(+구), 마니'(+신)
41003	너무	41003	너무'
41004	조금	41004	쫓깨'마(+할머니), 쫓꾸'마(+할아버지)
41005	자주	41005	자'주
41006	빨리	41006	빨'리
41007	얼른	41007	얼른'
41008	기어코	41008	기어'코
41009	가끔	41009	가끔'
41010	먼저	41010	머~이'(+할아버지), 먼저'(+할머니)
41011	나중에	41011	나중'에', 난중'에'
41012	가득	41012	가득', 항거'석
41013	몽땅	41013	몽땅'
41014	모조리	41014	다, 마카', 모'두, 모조'리, 몽땅'
41015	혼자	41015	혼'자(+신), 혼'차(+구)
41016	항상	41016	느을', 언제'나', 항상'
41017	똑똑히	41017	단디'~이, 똑또'키
41018	겨우	41018	게우'
41019	늘	41019	느을'
41020	저절로	41020	지질'로
41021	자꾸	41021	자꾸'
41022	설마	41022	설'마', 설'마'더라
41023	하마터면	41023	까딱거라'면, 하마터'면
41024	함께	41024	항꾸'네
41025	걸핏하면	41025	빠'뜯'카모
41026	공연히	41026	공녀'니', 꽤:니'
41027	그냥	41027	그'양(+할머니), 그'냥(+할아버지)
41028	매우	41028	억'씨'기
41029	곧장	41029	곧짱'
41030	벌써	41030	벌써'
41031	가장	41031	가'장
41032	가만히	41032	가마'~이'
41033	미리	41033	미'리
41034	이따금	41034	가끔', 이따'금

4.11. 관용적 표현

1) 관용어구

41101	여보	41101	보'소', 여'보'
41102	여보세요	41102	보'이'소
41103	들어가세요	41103	저나 끈습니'다, 저나 노습니'다, 저나 노습니'더
41104	수고하세요	41104	수고하'이'소
41105	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41105	오래간마'~이다
41106	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41106	밤'새' 안녕하십니까, 아침 자신'습'니까
41107	오랜만에 찾아 뵈 어른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41107	경강하'이'소, 인'사' 올리겄씀니다
41108	여기 있습니다	41108	여'어 일습니'더
41109	예	41109	예
41110	아니	41110	오테'
41111	아무렇지도 않다	41111	아무치'도 안하'다
41112	내버려 뒀	41112	나'아뚜라, 내'비두라
41113	개나 소나, 개나 소나 차를 몰고 다닌다	41113	지나개'나

2) 속담

41114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41114	미'덤는 도'게 물'려'부키
41115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41115	바'늘 도두기 소'도'둑 텨다
41116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41116	안 땐' 굴뚜'게' 영'기가 나'나'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 위원장 **이기갑** (목 포 대 학 교)
- ◆ 위 원 **강영봉** (제 주 대 학 교)
- ◆ 위 원 **김무식** (경 성 대 학 교)
- ◆ 위 원 **김봉국** (부산교육대학교)
- ◆ 위 원 **김정대** (경 남 대 학 교)
- ◆ 위 원 **박경래** (세 명 대 학 교)
- ◆ 위 원 **소강춘** (전 주 대 학 교)
- ◆ 위 원 **한영목** (충 남 대 학 교)
- ◆ 위 원 **최명옥** (서 울 대 학 교)
- ◆ 위 원 **홍윤표** (연 세 대 학 교)

